

성서 인간학

"사람이 무엇이기에...?(시편 8,5)

교황청 성서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서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1항은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현장의 해석학적 기초를 명확히 밝힌다. 이러한 임무는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새로운 요구,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사회가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진정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변혁은 종교 생활에도 미치고 있다"(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4항)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한편으로 규범적 행동과 사고 사이에, 실천적 효력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 점증하는 특수화와 현실에 대한 보편적 시각 사이에 불균형과 무질서가 생겨났다. 또한 세대간의 예기치 않은 분쟁들 외에, 당연하고 견고한 전통들과 대립되는 성 인식과 더불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상이한 관계가 부각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종족과 성과 이념적 선택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을 인식함에 있어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상응하는 실존을 더욱 열망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게 되었

다. 초자연적 차원은 때로 빛을 잃고 온전히 지상의 희망만을 선호하게 되며, 종교적 본성의 선택은 이제 인간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듯 여겨진다.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10항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세계의 현재 발전을 직시하며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삼 예민하게 절감하는 사람들이 날로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지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인간학적 성질의 질문과 행동과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주님의 계명에 충실한 교회의 염원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확실한 발전을 장려하는 진리의 요소들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서 증명되는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으로 진정한 인간의 조건과 그 연약함을 밝히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소명을 올바르게 깨닫게 할 수 있다"(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12항).

바로 이런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성서 인간학에 관한 문헌을 준비하도록 성서위원회에 위임하셨다. 성서 인간학은 성경이 "신앙의 최고 규범"(「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 21항)이며 "신학의 생명"(「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 14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철학적 신학적 가르침들의 발전을 위해 권위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문헌은 내용면에서나 설명하는 방식에서나 참신하다. 사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주요한 요소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제시하며 다룬 문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대체로 독립적으로 발전된 주제들

이 이 문헌에서 전체적 흐름 안에서 조화롭게 다루어졌다. 이는 창세 2-3장의 기본 이야기(다른 기원 이야기들과 통합된)를 참조 본문으로 받아들인 독창적 설명 절차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들은 신약성서 문학과 교회의 교의 전통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저자는 시작하는 이 장들에서 간결하게나마 본보기적으로 사람의 구성 특징들을 다루며, 인간 피조물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역동적 과정에 처음부터 인간을 포함한다. 전체가 하느님의 능동적이며 자애로운 현존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진다. 하느님의 현존 없이는 인간의 본성도, 인간 역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다.

문헌의 서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기본 이야기에서 선언된 의미 있는 요소들은 모두 성서 문학 전체를 오가면서 발전된다. 구약성서의 다양한 전통들(토라와 지혜 문학과 예언 수집물들에 들어 있는)과 신약성서의 전통들(복음서들과 사도들의 서간들에 들어 있는)은 저마다 특수한 방식으로 사람의 복잡성을 형성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사람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신비이며 하느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며 창조주께 영원한 찬양을 불러일으킨다(시편 8).

그러므로 이 문헌의 의도는 사람에 관한 하느님의 계시의 아름다움과 그 복잡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일을 존중하게 하고, 복잡성은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심화시키고 전달하게 한다. 이 문헌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물론, 교리교사들과 거룩한 본문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전체적 비전을 갖게 하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창조 행위로 시작되어 "전체 인간 역사의 열쇠이고 중심이며 목적"(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0항)이며 새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현된다. 사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22항). 그것은 모든 마음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저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희망의 시작으로 선사되었다.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

2019년 9월 30일 성 예로니모 기념일에

차례

서문

서론

인간은 무엇인가?

성서 인간학의 여정

해석학적 원칙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관계 안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인간

문헌의 안내

문헌의 정신

제1장: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

창세 2,4-7

1. 흙에서 빚으신 인간 존재

인간의 덧없음의 경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 할 인간의 기도

하느님은 생명의 길을 알려 주신다

거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반하여

생명의 약속

연약한 인간에 대한 나자렛 예수의 조력

바오로의 약함에 대한 찬사와 부활에 대한 희망

약함을 자랑하다

육체의 부활에 대한 희망

2.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숨

살아 계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창세 1,26-27)

용어 설명

생명체들의 목자인 인간

생명을 낳도록 부름을 받은 인간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생명의 책임을 진 인간

인간은 정의의 실천에서 "하느님과 같을" 수 있고 같아야 한다.

생명과 통치권의 중재자인 지혜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임금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인간에 관한 기도자의 명상

참 인간이시며 하느님의 모상이신 나자렛 예수

하느님의 모상인 그리스도인

결론

제2장: 동산의 인간 존재

창세 2,8-20

1. 인간을 위한 음식

인간의 식량

하느님의 선물인 음식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다

생명의 염원: 지상의 음식에서 영적 영양분까지

 감사하는 찬양

 영적 양식을 주시기를 탄원함

예언자들은 나눔에 초대하며 종말론적 연회를 예고한다

 예언 이야기

 예언 말씀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빵

 종교 의식에서 음식

 영적 양식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 안에서 양식

 필요에서

 공동체 식사

2. 인간에게 맡겨진 일의 과제

 노동하는 인간

 피조물을 수호하는 인간

일과 노동법

 일과 연결된 문제들

일에 관한 규정

(1) 안식일 계명

주님의 날인 주일

(2)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3) 공공 이익의 관료들에 관한 규정

(4) 하느님께 대한 "봉사"

일과 기도

인간의 노동의 필요와 한계

부와 재산

인간의 노동과 하느님의 "일"

사람들의 일

하느님의 일

일, 봉사, 직무

바오로 사도의 일

3. 인간의 도움을 받는 짐승들

삶을 위한 협력자

현인이 되기 위한 협력자

짐승들이 가르치다

동물의 세계에서 증언된 생명의 신비

하느님의 행동의 표시로서의 동물

고대 의식에서의 도움

결론

제3장: 인간의 가족

창세 2,21-25

1.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사랑의 노래

아름다움

서로의 탐구와 친교의 영원

유일한 관계

깨어우지기 쉬운 사랑, 보호해야 할 사랑

축제

기도가 되는 사랑의 노래

현인들의 평가와 그들의 권면

인류 역사에서 혼인의 일치: 문제, 규정, 위반

가) 문제점들

일부다처제

"혼종" 결혼

이혼

나. 위반의 양태

근친상간

간음

성매매

동성애

예언 관점에서 혼인의 결합

예수님의 본보기와 가르침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바오로의 가르침

결혼에 관하여

독신에 관하여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율법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의무

부모에 관한 규범

자녀를 위한 규범

이스라엘 현인들의 가르침

예언자들의 목소리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

사도 전통의 사목적 가르침

3. 형제적 사랑

민족들의 역사

제국주의와 하느님의 나라

형제들의 민족 이스라엘

연대한 백성

전쟁 중의 백성

시민들 사이의 분쟁

민족들 사이의 분쟁

현인들의 가르침

시편 기도에서 형제애와 적대감

예언자들의 메시지

예수와 그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적 공동체

결론

제4장: 역사 안에서 인간 존재

1. 율법 아래 인간

창세 2,16-17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역사에서 하느님의 명령

계약과 율법

이야기와 율법

율법의 선물

지혜 전통에서 율법

기도의 대상인 주님의 명령

토라의 선포자이며 해석자인 예언자

예수와 하느님의 계명

바오로와 율법

2. 순종과 위반

창세 3,1-7

사람들의 역사에서 위반과 순종

악의 증식

"의인"의 존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혜 전통의 기여

유혹과/또는 시련

불의한 자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언자들의 엄격한 시선

완전한 불충실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

기도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환대함

구원하는 의인이신 예수

회개의 필요성

유혹의 극복

사탄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의화

사람은 모두 죄인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다

3. 죄인들의 역사에 하느님의 개입

창세 3,8-24

율법과 예언서들의 증언

주기적 경향

역사의 발전과 완성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본 역사

기도에서 구원의 여정

예수님 안에서 자비의 도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자비를 계시하신다

보편적 구원

결론

결론

서론

1. 인류의 역사는 중단 없는 탐구 활동으로 점철되었다. 이스라엘의 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다"(코헬 1,12-13).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염원은 인간 존재의 특징임에 틀림 없다. 이런 특징은 실존 자체를 창의적이고 유익하며 더욱 낮게 해 주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이런 특징을 인지하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헬렛이 강조한 괴로운 측면 외에 진리와 선을 발견해 내는 눈부신 측면도 있음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코헬 7,25-30). 사실 고대의 유다 잠언은 현인의 상징인 임금에게 분명히 힘들기는 하지만 영광스럽기도 한 과제를 기대하였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일을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잠언 25,2). 그리고 집회서는 율법학자의 근면함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에 몰두한다. [...] 그는 금언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집회 39,1-4). 사실 현인은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한다. 그런 일들은 때로는 극적 모습을 취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희망의 빛을 띠고 있다. 현인은 신비스러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지, 인간의 의무와 운명은 무엇인지 묻는다.

인간은 무엇인가?

2. 인간은 감추어진 것을 이해하고 징후를 찾아 내기 위하여 하늘을 관찰하며 자신의 삶을 위한 물질들과 명상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 내려는 목적으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중단 없는 이러한 탐구에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은 항상 똑같다.

고대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대답도 많고 책들도 많다. 이러한 대답과 책들에는 진리의 빛을 증언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숭고한 노력의 결실이 스며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유산에서 특정한 권의 책이 돋보인다. 그 책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천의 영감의 결실이다. 여러 세기 동안 편집되었고 우발적 문화적 가치에 수없이 노출되었음에도 일관성을 가진 작품이다. 거룩한 책인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책이다. 성경은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에 충만한 진리에 대한 자유롭고 사랑 가득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투쟁과 고통과 큰 기쁨으로 이루어진 슬기로운 사람들의 고된 성찰에서 생겨나는 책이며, 사람의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솟아나는 책이지만 무엇보다도 영감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숨에 최종 원천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전부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빛나는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예언"이다(「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 21항;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12항).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과학적 지식에서 진보하였다. 인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점점 더 확대함으로써 소수인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인류는 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며 점점 더 적합한 형태의 공존을 제안해 왔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환경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의 누룩과 같은 유익한 힘이 지속적으로 기적처럼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의 사회가 영적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느낀다.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4-10항이 이 점을 이미 주제로 다루었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야 할 난관들과 의문들을 강조하였다.

3. 사람들의 불경과 불의에 대해 기술하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단락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본문에서 바오로는 도덕적 타락의 뿌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데에 있음을 간파한다. 도덕적 타락은 참되신 주님께 의지하는 대신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

한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로마 1,22-23). 오늘날 세상의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하느님을 떠나는 것을 해방과 사랑으로까지 여기게 하며 거짓과 불의의 원칙과 지침에 굴복한다(로마 1,25). 사실 바오로에 따르면 하느님께 대한 경외가 없으면 인간의 육체 관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정욕에 빠져들게 된다(로마 1,24,26-27).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불의와 폭력과 분쟁과 사기로 가득 차게 된다(로마 1,28-31).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런 현상들은 오늘의 세상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성적 차이의 인간학적 가치가 의문시되며, 혼인 관계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가정 폭력이 확산된다. 더욱 일반적으로 본다면, 잔인한 전쟁을 초래하는 이기주의와 오만한 횡포가 나타난다. 이 밖에도 극심한 형태의 빈곤과 분열로 지구의 혼란이 생겨난다.

바오로는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로마 1,32)라는 말로 자신의 고찰을 마무리한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선에 대한 염원은 "불의에 억눌린 저 "진리"를 지니고(로마 1,18), 하느님 자신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의무 안에서 인간의 실체를 재발견하기 위하여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가톨릭 교회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선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갖도록 돕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쏟아 왔고 또 쏟고 있다. 이 노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성서 위원회가 "성서 인간학"을 주제로 다루는 문헌을 준비하도록 권유하였다. 교회는 항상 자신의 메시지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지만(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 24항),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 전망을 제공하는 공식 문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맡겨진 과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학 주제에 관해 진술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숙고하였다.

성서 인간학의 여정

4. 이 문헌은 인간학 주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성경 전체를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한다. 달리 말해, 이 문헌은 연구를 주도한 주요 지침들이 무엇인지 밝히면서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서술 자체를 간략하게 종합한다.

해석학적 원칙

성서가 인간학에 관해 단언하는 바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근본 원칙들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법론적 절차가 모두 정확해야 하며, 연구한 (거룩한) 본문의 독특한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5.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예언이다. 이는 "덧붙여서"는 안 되며 계시된 것에서 아무것도 "제거하지" 말아야 하며(신명 4,2; 13,1; 예레 26,2; 묵시 22,18-19), 더 나아가 성서가 쓰일 때에 있었던 성령으로 기록한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 12항).

해석은 순종의 행위이다. 아니, 순종의 행위여야 한다. 그런데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순종은 성서 안에서 계시의 본질적 부분과 역사의 특정한 시기의 사고와 관습과 연관된 "우발적" 표현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 규정들은 상징적 성격 때문에 성서 전통 안에서도 변화를 겪게 되며 따라서 그 의미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법 규정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기 동안 많은 수정을 거친 형법도 마찬가지다. 신약성서는 이 측면에 관하여 명백히 혁신적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률적 참조점이 된다. 인류학이 점진적으로 발견하여 이론화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 인간학적 성격의 개념들을 식별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역사적, 문화적 "조건들"에서 성서 본문이 선호하는 바를 따르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석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전통과 사도 전통, 교회의 신앙 감각(*sensus fidei*)과 성서 본문의 기록에 충실한 신학자들의 권위 있는 지혜를 통해 활동하신다.

6. 성경에 대한 순종은 단지 내용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문학 양태를 수용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그런데 성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원부터 종말론적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인간의 역사, 곧 계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교의적 단언들의 수집물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있었던 계시의 증언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순수하게 개념 세계이기보다는 주로 "상징" 세계에 속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항상 충실하면서도 항상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허용하고 추구한다(마태 13,52).

그러므로 성서의 인간학에 관한 우리의 문헌은 기존에 제공된 (신학적 도식 또는 인류학에 의해 주어진 원칙들에 따라서) 정형화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창세 1장과 함께 읽은)를 계획적 기본 본문으로 받아들인다. 창세기 2-3장은 범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은 구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 상세히 기록된 바를 집약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바오로 전통에서 규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기원들의 이야기는 "예형"(figural/typos)으로, 달리 말해 그 완전한 실현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의미를 예언적으로 예고하는 상징적 가치에서 사건을 증언하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직 신학에서 사용되는 접근법과 같은 "설화적 신학"(teologia narrativa)의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창세 2-3장의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리

므로 이 이야기는 고유한 문학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의 모티프들을 소개한다. 그 모티프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인간 존재의 윤곽을 묘사하며 그 역사의 전체적 의미를 전망하게 해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본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측면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 충실히 머물면서 그러한 측면들을 주제로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서의 증언 전체를 살펴보면서 거룩한 본문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문학 형식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전체 성경

7. 하느님의 말씀(Parola di Dio)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성경의 일부분이나 특히 오늘의 사고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본문만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성서 전체의 인간학을 제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생성 시기가 다른 문학 유형과 상이한 이념적 전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성서의 복잡성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종합을 시도하지 못하게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를 신뢰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의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체의 산문부터 법 수집물들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의 신탁부터 현인들의 잠언에 이르기까지, 시편집부터 복음서들과 사도 서간들에 이르기까지 "예언" 전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성서 신학(*teologia biblica*)을 시도해야 할 일이다.

이 문헌은 창세 2-3장의 이야기에서 기술되는 인간학의 측면이 중요한 성서 본문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따라간다. 여기에서 이 문헌은 통시적 발전(대체로 입증하기 어려운)의 도식을 따르지 않고, 동일한 복합체의 구성 요소들, 곧 계시를 형성하는 여러 단편을 다루게 것이다. 구약성서는 전통적으로 세 부분 곧, (1) 특히 규범적 성격의 **토라**(오경), (2) 계약의 역사의 의미를 밝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인간사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계시하는 **예언서**, 그리고 (3) 보편적 성격을 가진 **지혜 문학**으로 되어 있다. 지혜 문학은 인간의 지성이 가져다 준 공헌과 함께 유익한 지혜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 우리는 (4) **시편집**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인간학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기도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헌은 주로 구약성서의 본문을 다룰 것이다. 구약성서는 본문의 관점에서 더욱 견고할 뿐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옛 성경의 인간학적 관점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약성서를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1) 우리는 **복음서들**의 공헌을 고려하였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다. 특별히 혁신적 측면들을 명시하였다. 둘째, (2) **사도들의 전통**, 특히 바오로의 서간들에서 전해진 것, 곧 복음서의 메시지의 발전과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하여 성서 본문의 표현의 독창성을 수용하여 오늘의 인간에게 건강한 생명의 여정으로 제안하였다.

질문: "사람이 무엇이기에?": 연구 방식의 실례

8. 우리는 이 문헌의 표제를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물음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서 본문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하고 성서 문구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제기하는 물음으로도 받아들이려고 한다. 사실 물음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물음은 연구 과정을 시작하게 한다. 물음은 영감을 받은 복잡한 본문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완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질문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개별 물음들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들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에 대해 다양한 대답을 모색하여 왔다. 우리는 시편 8,5을 출발점으로 정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은 전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도자는 시편 8,4의 하늘과 비교할 때 인간 피조물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그를 "찾아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어" "사람의 아들"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시편 8,6-9)는 사실을 물음의 형태로 숙고하면서 놀라운 기쁨을 표현한다. 전체 명상의 시작과 끝은 하느님의 존엄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시편 8,1.10).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물음이 시편 144,3에서 다시 되풀이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음은 찬양의 근거가 아니라, 탄원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기도자는 숨결과도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도 같은 사람의 차원을 생각하면서(시편 144,4; 그리고 시라 18,8-10도 참조하라),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설명

하기 때문이다(시편 144,5-8).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에서 동일한 문학 모티프를 "다시 읽고 해석하는" 것을 본다. 이와 같은 재해석을 통해 지성적 믿음의 특별한 기여가 전달된다.

지혜 전통은 동일한 물음에 대해 다양한 경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제공한다. 욥은 시편 8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며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욥 7,17). 모든 피조물의 미약함에 초점을 맞춘 욥은 너무 세밀하게 조사할 뿐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찾아 주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느님께 요구한다(욥 7,18-21).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엘리파즈가 똑같이 묻지만(욥 15,14), 그의 물음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도 결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파즈의 물음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기 친구의 일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욥 15,15-16). 욥기의 그 물음을 되풀이하는 벤 시라(시라 18,8)는 피조물이 미약하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주님의 "자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태도와 사람을 연결한다(시라 18,11-14).

9. 문장 형식으로 볼 때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도 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군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사 14,13-14)이지만 극도의 오만함으로 수치를 당하는(이사 14,16: "이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반대로 고통 받고 영광스럽게 된 종의 얼굴을 명상하는 데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을 생각할 수 있다(이사 52,13-14). 신약성서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 16,13),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베드로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마태 16,16), "사람의 아들" - 시편 8,5에 들어 있는 - 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메시아 차원을 생각하게 한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시편 8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증언하며 "영광의 관"이 모든 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실현된다고 선언한다(히브 2,6-9). 빌라도는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을 군중에게 보여 주면서 "자, 이 사람이오"(요한 19,5) 하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계시의 완성을 증언하였다. 사실 연약함과 영광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창조 때 하느님의 활동 안에서 이미 결합되었으며(시편 8), 인간의 참된 의미의 본보기적 계시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된다. 이는 하느님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다(로마 8,29-30).

관계 안에서 인간

10. 우리는 성서에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들의 주체인 존재에 관해 정리된 생각을 찾아낼 수 있다. 달리 말해, 인간 피조물이 피조물 전체와 맺는 관계들을 탐구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포착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laudato si*), 66항은 세 개의 근본 관계, 곧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땅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다른 관계들, 예컨대 시간, 일, 법, 사회 제도 등에 관한 관계는 이 관계들에서 파생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들을 그 자체로 고려하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지만, 항상 일련의 관계의 문맥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인간을 개별 존재로 특징 짓는 측면들에서만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과 사람의) "아들", "형제", 그리고 모든 이의 운명에 책임 있는 협력자의 조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와 더불어 "소명"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정의와 사랑 안에서만 사람의 본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문헌에서는 항상 그와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역사 안에서 인간

11.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아니, 인간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래의 순간에 고정된 것이더라도 정적 도식에 따라 성서의 인간학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사람을 과정의 주인공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는 호의의 수용자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는 적극적 결정의 주체이다. 인간의 전체 역사를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단순한 진화 모델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이것은 끊임없는 발전을 가정한다), 황금 시대에서 현재의 빈곤에 이르기까지 상반되는 표지의 도식을 따라서도 안 된다. (동일한 것의 지속적 회귀를 입증할 수 있는) 주기적 반복의 사고를 받아들

여서도 안 된다. 성경은 **계약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 계약의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 달리 말해 계약의 역사는 예기치 않은 것, 믿을 수 없는 것, 놀라운 것, 그리고 심지어 불가능한 것(사람들에게는)에 관한 놀라운 계시다(창세 18,14; 예레 32,27; 즈카 8,6). 하느님이 새 계약을 세우실 때 일련의 과정들이 역사의 의미를 보여 준다. 이때 사람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기로 자유롭게 동의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행위가 결작을 실현한다. 사실 성서는 추상적으로 현실을 묘사하거나 진리를 규정하는 과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성서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게 하며, 그들의 생명을 선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말씀(Parola di Dio)이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질문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며 그를 각자 결정해야 할 선택의 문턱으로 데려간다. 그것은 진리의 봉사가 완성되는(완전한 성취라는 의미에서) 결정적 선택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다. 이 문헌의 여러 곳에서 역사적 차원과 그 성취를 언급할 것이다. 특히 제4장에서 성서의 인간학을 구원 역사의 형태로 제시할 것이다.

문헌의 안내

12. 이 문헌은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창세 2-3장의 설화 방식에 따라 세분하였다.

제1장은 인간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제시한다. 이는 첫 번째이자 근본적 "관계"이며, 인간이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느님의 "숨"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치를 부여한

다.

제2장은 **동산에서** 인간의 조건을 조명한다. 여기서 음식, 일,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다룬다. 그러므로 일련의 중요한 관계들이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는 데에 대한 인간 존재의 책임을 규정하게 해 준다.

제3장의 일반 논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 핵심은 혼인 관계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관계는 가족과 사회의 연결 끈들의 복잡한 줄거리 안에서 전개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의 가치, 불완전하거나 방종한 성의 형태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만한 권력과 전쟁과 반대로 형제애의 윤리 등 많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최근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Amoris Laetitia*)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 인간학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서 가족과 연관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4장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의 역사**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이 일은 역사를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는 하느님의 개입과 연결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이 문헌을 전개하며 각 장마다 적용되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이 문헌의 영적, 사목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체 여정을 마무리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각 장마다 창세 2-3장의 단락(진한 글씨)을 싣고, 이어서 주제가 되는 주요 모티프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짤막한 주해(이탤릭체)를 덧붙인다. 이어서 각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다양한 핵심 부분들의 표지들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자주 보완적 사항들을 (더욱 작은 글씨체로) 덧붙일 것이다. 이는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부분이다. 성서를 인용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성경」의 번역을 받아들인다. 어떤 경우에는 본래의 본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이문들을 제시할 것이다.

독자는 특정한 성서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곧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본문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루는 모든 것이 성서 인간학 전체의 각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전체 구성 안에서만 비로소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문헌의 정신

13. 하느님의 말씀(*Parolo di Dio*)은 빛이며 희망의 지평을 연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역사 안에서 무한한 선의 능력으로 행위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경고하면서 치유한다. 말씀은 명령하면서 마음을 변화시킨다. 말씀은 약속하면서 기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Verbo di Dio*)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충만한 위로를 받는다. 왜냐하면 구세주의 자비로운 뜻을 해석하는 예언자는 매번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이사 40,1,8) 하고 선언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마음의 기쁨은 세상을 좋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겸허하게 하느님의 예고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독창적인 헌신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은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서 받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2코린 1,3-4).

하느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성서 인간학에 관한 이 문헌을 내놓는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해 명상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로운 당신의 은총을 부어 주셨다.

제1장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

14. 성경은 "한처음"(창세 1,1)부터 설화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당신의 창조 활동, 특히 인간 피조물('ādām)과의 특권적 관계 안에서 이해된다. 사실 창세 1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절정을 이루지만(창세 1,31), 창세 2장의 보완적 병행 이야기에서 'ādām은 창조주의 첫번째 작품으로 소개되고 모든 것이 그에게 종속된다. 그러므로 성서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과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와의 근본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의미를 끄집어낼 것을 요구한다.

창세 2장의 이야기는 만물의 기원이신 하느님의 행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첫 번째 이야기(창세 1,1.21.27; 2,3)에서 사용되는 동사 "창조하다"(bārā')를 이용하지 않고, "행하다"('āsāh: 창세 2,4.18; 참조: 창세 1,7.16.25-26.31; 2,2-4)와 "빚다"(yāṣār 창세 2,7.8.19; 참조: 이사 29,16; 43,7; 45,18; 64,7; 예레

10,16; 아모 4,13; 시편 95,5)와 같은 동의어들을 사용한다. 성서 본문은 인간 창조에 특별한 중요성을 분명히 부여한다. 그러나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모든 실재들의 중요성을 간과할 필요는 없다. 다른 본문들에서 다른 모든 실재들은 지혜 탐구의 대상으로(욥 38-41장), 놀라운 경탄(시라 42,15-43,33)으로, 명상과 찬양(시편 8; 104)으로 기억된다.

15.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문헌의 기본 본문으로 사용되는 창세 2장에서 하느님은 'ādām에 대해 두 개의 동작, 곧 "짓다"(7ㄱ절)와 "숨을 불어넣다"(7ㄴ절)의 주어이다. 이 두 개의 행위는 이 장의 분절을 표시한다. 그 분절은 사람을 구성하는 두 개의 면모, 즉 한편으로 "흙의 먼지에서" 유래하는 기원과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숨"에 의한 "생명체"에서 정점에 이른다.

첫 번째 동기, 곧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불안과 소외의 감정으로, 또 때로는 냉소주의나 절망으로 표출되었다. 다른 문화들에서는 운명론과 체념으로 발전하였다. 인간 피조물의 특수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두 번째 동기는 철학에서 영혼과 육신의 개념을 통해 사색적 발전을 보았다. 오늘날 신경 과학의 발전으로 인격체를 화학과 생물학으로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기능적 유기체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성서 전통은 인간의 연약함과 사람의 영적 가치에 관해 통교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창조주에 관한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래의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인간 피조물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 2,4-7

4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5**땅에는 아직 들의 덩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돌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6**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7**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16. 이 창조 이야기에서 설화자가 가장 먼저 증명하는 것은 본디 어떤 초목도 없었다는 것이다(4-5절). 이러한 결핍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도 흙('adamah)을 일굴 사람('adam)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없이는 다른 피조물들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려고 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인간"(umano)과 "흙"(humus)으로 옮길 수 있는 'adam과 'adamah 사이의 언어 유희를 통하여 인간 존재(토지)와 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구성 관계는 무엇보다 먼저 경작하는 일의 기능적 측면에서 관찰되었다. 이어서 인간('adam)의 기원에 관한 언급으로 더욱 정확히 설명되었고, 주 하나님께서 그를 "흙의[에서 가져온] 먼지"('adamah)로 "빚으셨다"고 확인한다(7절). 그렇게 하여 성서 설화자는 "하늘은 주님의 하늘,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네"(시편 115,16)라는 말씀에 따라 "땅의" 피조물을 그

의 존재의 장소에 배치시킨다. 이와 동시에 처음부터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 약함,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차원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는 먼지가 연약함과 죽음과 자주 연합된 다른 성서 본문들에서도 증언된다(창세 3,19; 18,27). 덧없고 약하며 불안정한 것에 응집력과 생명을 주는 것은 하느님의 손과 숨이다(창세 2,7ㄴ).

17. 이런 의미에서 동사 "빚다"(yasar)에 의해 상기되고 주님의 일을 형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옹기장이 표상은 창조주에 의해 빚어진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행위의 섬세함과 세심한 주의를 분명히 생각하게 한다(이사 29,16; 예레 18,1-6; 시라 33,13). 그것은 독자에게 근본적 진리를 수용하도록 이끈다. 곧, 땅에서 창조되었으며 땅으로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 존재는 단순히 땅의 아들이 아니며, 우연의 산물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창조주이며 구세주인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계획 안에 자신의 기원과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진리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거기에서 인류를 가리켜 세 번 반복된 동사 bara(창조하다)는 다른 피조물에 비해 인간 존재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 일을 통해 하느님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한 것 같다. 성서 설화자가 매우 중요한 설화 분기점의 표지인 하느님의 은밀한 결의("사람[‘adam]을 만들자": 창세 1,26)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 하느님은 인류를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걸작이 되도록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

한 뒤에 엿새날 끝에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한다.

18. 창세 2장에서 먼지로 인간을 빚는 첫 번째 행위가 있는 뒤에(아마도 "땅에서 솟아오른 샘/안개"(6절)를 이용하여), 이야기는 하느님의 또 다른 행위를 언급한다: "[주 하느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nismat hayyim)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nepes hayyah)가 되었다"(7절). 이 "생명의 숨"은 단순히 인간 존재에게 살게 해 주는 호흡이 아니다. 역시 흙에서 빚어진 짐승들(창세 2,19)에 대해서는 짐승들이 생명의 숨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독자에게 다른 해석을 하도록 이끈다. 곧, 이 특수한 "생명의 숨"은 동물의 세계와 인간 존재 사이에 근본적 구별을 설정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숨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살 수 있으며 하느님의 숨을 받아들이면서 유일무이한 신분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다른 특성들도 인간 존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짓는다. 인간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하느님에 대한 특권적 상대자이며 특수한 사명의 관리인인 인간(창세 2,15)은 언어(창세 2,20,23)와 자유와 책임을 가진 관계 속의 존재(창세 2,18,22-24)가 되게 하는 하느님 선물의 수혜자이다.

그러므로 미약함과 위대함은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성서 저자들의 시각을 특징짓는다.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창조자가 아니다. 인간은 먼지와 흙에 연결되어 있으며 연약한 존재로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자기 창조주와 특수하고 유일무이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 역시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다른 존재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위대함이다.

용어 설명

19. 우리는 이 문헌에서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인간 존재"(essere umano)의 동의어로 "인간"(uomo)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것이다. 그 자체로는 모호한 이 용어는 문맥 안에서 분명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밖에 히브리어 성서 안에서도 'adam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일반적 의미에서 인간을 가리키기도 하고(창세 1,27), 때로는 남성을 가리키기도 한다(창세 2,19,23). 그리고 이는 명사 'i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명사는 통상적으로 "여성"('issah)과 상반되는 남성을 가리키지만,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특정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명사는 모든 인격체를 가리킨다(창세 9,5).

성서 전통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육체 안에 있는 존재로 여긴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 밖에서는 생각될 수 없다. 창세 2,4-7의 이야기에서처럼, 몇몇 본문들에서 두 개의 구성 요소(흙의 먼지와 숨)가 나란히 언급되는 중에 'adam(곧 인간 존재)이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이 요소들은 자율적이며 분리될 수 있는 실체로 여겨질 수 없다. 인간은 육체 안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 존재를 특징 짓는 영적 경험을 한다.

20. 히브리어 성서에서 사람(persona umana)을 의미하기 위

하여 육체와 육체의 기관들과 다른 신체 증상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이용된다. "살"(basar)이라는 용어(창세 2,23; 6,12-13.17에 서처럼)는 인간의 일부를 가리키지 않고, 연약하고 취약하며 죽어야 할 존재(이사 40,6-7)로서의 신원 자체를 가리킨다. "피"(dam)라는 단어는 "생명"과 동의어로 사용된다(창세 9,4; 레위 17,11.14). 따라서 피는 여러 경우에 특히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다(시편 72,14; 잠언 1,18). 때로는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명사 nepes는 사실상 호흡 기관이며 갈증을 경험하는 자리인 "목"을 첫째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nepes는 염원(시편 42,2)과 "생명" 자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지정된 명사이다(창세 1,30; 9,5; 시편 16,10). 자주 nepes와 합성되는 또 다른 인간학적 용어(1사무 1,15; 이사 26,9; 욥 7,11; 12,10)는 ruah이다. ruah는 무엇보다 먼저 "바람"을 가리키며 파생된 의미로 생명의 "숨"을 가리킨다. ruah가 인간 존재를 가리킬 때에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 숨을 가리킨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ruah)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시편 104,29). 감정과 결정과 영적 경험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기초를 가리키는 마음(leb), 허리, 뼈, 장과 같은 육체의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운문체(詩) 본문들에서 이 용어들은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와 같은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 위하여 합성어나 병렬어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도자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 이 몸(nepes)은 여위어 갑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leb)과 제 몸(basar)이 환성을 지룹니다(시편 84,3); "제 열(ruah)이 속에서 아득해지고 제 마음(leb)이 안에서 얼어붙습니다"(시편 143,4); "저의 영혼(nepes)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낮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우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이사 26,9).

21. 히브리어 성서의 그리스 번역본(LXX, 곧 칠십인역 그리스어 성서)과 특히 신약성서의 문학 작품에서 새로운 용어들과 의미론적 일탈을 만나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상이한 언어 체계뿐 아니라, 동시대의 철학적 경향으로부터 빌려온 용어들과 개념들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육체"(soma)라는 용어를 만난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는 "몸"(sarx)과 동일시된다(2코린 4,10-11). 명사 "몸"(sarx)은 "인간 존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갈라 2,16), 나약성을 구성하는 것들을 가리키기 위하여(로마 6,19; 2코린 4,11; 갈라 4,13; 에페 2,14) 자주 사용된다. "몸"은 영에 반대되는 충동적 매력에 기울어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요한 6,63; 로마 8,5-8; 갈라 3,3; 5,16-19; 6,8; 에페 2,3). "영혼"(psyche)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철학에서처럼 사람의 비물질적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차원을 가리킨다(마태 10,28; 1코린 15,44). 다른 한편, 명사 pneuma는 바오로와 신약성서의 다른 본문들에서 하느님의 성령이나 초월자와의 관계를 가질 능력을 지닌 인간의 영에 적용된다(마태 5,3; 1코린 6,17). "정신"(nous)과 "의식"(syneidesis)처럼 전형적으로 더욱 지성적 용어들(1코린 1,10; 로마 7,23; 1코린 8,7-17) 외에, 우리는 "마음"(kardia)이라

는 용어를 만난다. "마음"은 히브리어 개념과 같은 뜻에서 감정(로마 9,2; 10,1; 2코린 2,4; 6,11; 필리 1,7), 더욱 은밀한 생각(로마 8,27; 1코린 4,5; 14,25; 1테살 2,4),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결정(마르 7,21; 로마 10,9; 1코린 7,37; 2코린 9,7)의 자리이며 사람의 중심을 가리킨다.

1. 흠에서 빛오진 인간 존재

22. 위에서 간략하게 주석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요소들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 존재의 특별한 본성은 성서 전통 안에서 매우 풍부한 용어들과 표상들로 숙고되었다. 그 밑바탕에는 인간은 신비이며 놀라운 기적(시편 71,7; 139,14-15)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사려깊은 탐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상반되며 역설적 특성들을 한데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모상(창세 1,26-27)이며 에덴 동산에 주인으로 세워진(창세 2,9.15) 인간 존재는 사실상 먼지로 빚어졌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도록 운명지워졌기 때문이다(창세 2,7; 3,19). 인간은 "살"이며 연약하고 덧없지만(창세 6,3; 이사 40,6; 예레 17,5; 시편 56,5; 78,38-39; 시라 14,17-18; 17,1),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한다. 인간은 특권을 지닌 피조물이며 땅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피조물이지만(창세 1,26-28), 항구하게 위협을 받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인간은 구조적으로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에 관하여 광범위한 증언을 내놓고 있다.

인간의 덧없음의 경험

23. 인간의 덧없음의 현실을 가장 집요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지혜 전통**이다(시라 40,1-11; 41,10). 인간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표현하는 생각들과 감정들은 지혜 문학 안에서 그 형태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심장한 책은 욥기다. 욥기는 고통 받는 삶의 의미에 깊이 몰두하는 인간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주인공을 제시한다. 시공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묘사되는(단지 우츠 사람이었다고만 한다) 욥은 모든 사람이 동일화될 수 있는 범례적 인물이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마침내 건강까지 앗아가며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일련의 놀라운 재앙을 당하여 탄원을 시작한다. 욥은 하느님과 논쟁을 시작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아예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서울의 평화 속에서 머물렀기를 염원한다(욥 3,11-16; 10,18). 삶은 덧없음과 고통(욥 3,24-26; 7,1-3; 14,1-2; 또한 시라 40,1-8도 참조하라),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욥 7,6-10).

24. 구약성서의 전통들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지혜 본문들에서 우리는 창세 3,19의 본문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없다. 특히 널리 유포되어 있는 해석(창세 2,17에 근거한)에 따르면, 창세 3,19에서 죽음은 첫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제시되었다. 후대의 본문인 지혜 2,24에서만 유일하게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기억하지만, 이 말이 (바오로 신학의 몇

몇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보편적으로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성경에서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로마 6,23)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죽음(그리고 모든 고통)이 개인의 어떤 잘못의 결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참조: 루카 13,1-6; 요한 9,2-3). 욥의 친구들은 엄밀한 보상 원칙에 입각한 사고 안에서 그들 친구의 불행을 설명해 내려고 하지만(욥 4,7-9,17-20; 8,20; 11,11; 15,14-16; 22,4-9 등), 주인공으로부터 논리정연한 반박을 불러일으킨다(욥 7,20; 9,29-31; 16,17-19; 29-31). 하느님 자신이 다른 기회에 당신의 "종 욥"이 말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욥 42,7).

25. 사실 인간의 참된 문제는 죽음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불안정성을 고통스럽게 인지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욥은 "공포의 임금"(욥 18,14)으로 훌륭하게 규정된 바로 이런 현실을 거슬러 투쟁하고 논쟁한다.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며 하루살이 같은 쇠약한 존재라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시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욥기에는 이러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상들이 이용되었다. 곤, 인간의 삶은 입김(욥 7,7.16)과 수명이 짧은 꽃(욥 14,1-2)과 사라지는 그림자(욥 8,9; 14,2)와 같다. 진흙으로 빚어져 먼지로 돌아가야 할 피조물(욥 10,9)인 인간은 사라져 버리는 구름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의 날들은 "과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갈 대배처럼 흘러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며"(욥 9,25-26), 벼들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욥

7.6). 죽음에 앞서는 고통은 인간에게 자신의 불안전성과 반드시 직면하게 한다. 고통은 일체의 환상을 깨고 각자를 구조적으로 종말로 표시된 운명 앞에 세운다. 비록 종교 전통이 하느님은 교정하는 수단으로 매를 드신다(잠언 3,11-12; 욥 5,17-18; 33,19; 히브 12,7-11; 묵시 3,19)고 주장하면서 고통의 유익한 목적(잠언 13,24; 22,15; 23,13-14; 29,15)을 제안하더라도 죽음은 긍정적인 교육 의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남는다(욥 14,7-10; 17,15-16).

26. 코헬렛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엄청난 수수께끼이며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실재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는 것이 이 책에서 되풀이 되는 후렴이다(코헬 1,2,14; 2,1,11 등). 모든 것이 무익한 것 같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이 죽기 때문이다(코헬 3,18-20). 아니 모두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코헬 1,4; 6,3-6; 9,10; 12,5). 한마디로 말해 "모두 흠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흠으로 되돌아가며"(코헬 3,20; 또한 시라 17,1-4; 40,11; 41,10 참조),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코헬 1,11; 2,16). 만약 인간이 수없이 많은 독창적 생명의 표현을 경험하면서도 사실상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면,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차이란 전혀 없다. 세상은 인간에게 무의미하고 지혜나 장수가 아무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가 필연적으로 똑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코헬 2,15-16; 3,19; 8,10,14; 9,2). 현인은 단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덧없는 삶이 주는 일시적 기쁨을 누리라고 초대한다(코헬 2,24; 3,12-13,22; 5,17; 8,15; 또한 시라

14,14 참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삶을 즐기는 것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타고난 비극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코헬렛의 마지막 장에서 인간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정교한 시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괴로움을 없애 주지 못한다(시라 41,1 참조). 표상은 매우 아름답지만, 깊은 비애가 스며 있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쌈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코헬 12,1.6-7).

죽음과 더불어 침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물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하느님의 심판이 있다(코헬 3,17; 11,9; 12,14). 또한 코헬렛의 책은 인간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코헬 3,14; 5,6; 7,18; 8,12-13; 12,12; 또한 잠언 14,26-27참조). 그렇지만 인간의 여정에 이미 기록된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7. 그러나 지혜 전통은 계속해서 말한다. 죽음이 결코 마지막 말은 아니다. 인간 존재가 냉혹한 최후 앞에서 느끼는 공포는 사실

상 그가 생명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실존의 의미를 묻는 현인은 결국 인간이 불멸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찾아낸다. 구약성서의 지혜 전통의 마지막 책인 지혜서에서는 의인에게 이처럼 빛나는 희망의 미래를 명확히 밝힌다. 자신을 현인 솔로몬 임금으로 소개하는 차명 저자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표현으로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존재에 대해 말한다:

나도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야 할 인간으로서
흠으로 빛어진 첫 사람의 후손이다.
어머니 배 속에서 몸이 꼴을 갖추었고 [...]
나도 태어나서는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땅에 떨어졌으며
첫 소리도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우는 것이었고 [...]
삶의 시작도 끝도 모든 이에게 한가지다(지혜 7,1.3.6).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빌미로 가난한 이들과 의로운 이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현재의 재물"을 생각 없이 즐긴다(지혜 2,1-20; 또한 시편 73,3-12 참조).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참된 현인은 자기 안에 불멸하는 운명을 지닐 줄 안다(지혜 3,4; 4,1; 8,13.17; 15,3). 사실 의인은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지혜 2,19-20), 때 이르게 죽는다 하더라도(지혜 4,7), 하느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지혜 3,1). 그분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임금"이시다(지혜 11,26). 여기에서부터 영원의 길이 열린다:

정녕 하느님께서 인간(ton anthropon)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
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의인들의 영혼(psychai)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지혜 2,23-3,1,4).

28. 욥의 이야기에서 이미 의인의 고통과 죽음에 관한 큰 질문의 대답을 엿보게 하는 하나의 서광이 비쳤다. 사실 욥기의 끝 부분(욥 38-41장)에서 하느님께서 당신께 항의하는 자에게 만물이 생겨나는 표상을 보여 주신다. 곧, 욥의 눈 앞에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거기에 인간 실존이 있고, 거기에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에게서만 기원될 수 있는 생명이 넘친다(욥 42,2-3). 이처럼 고통 받는 개인은 고뇌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는 죽어야 할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실존과 잘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고백하며(욥 40,4) 하느님의 대화자로서의 인간의 위대함을 솟아나게 할 수 있다. 사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진리와 관계의 장으로 인지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덧없는 바람이며 하루 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 꽃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하느

님을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다(욥 42,5: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코헬렛은 더욱 겸허하게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코헬 5,1)라고 말했지만, 이 주장은 묵시적으로 희망의 싹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느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 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끌어 올리기도 하시기"(지혜 16,13; 또한 신명 32,39; 1사무 2,6; 2열왕 5,7; 토빗 13,2도 참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지혜 1,13-14).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29. 성서 저자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자각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주님은 이 백성과 특별한 관계("계약"이라 불리는)로 묶여 있다. 토라에서 서술하는 이야기의 대상인 정확한 기간은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의식은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구체화되었다. 그때 자유를 되찾은 노예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긴 여정을 걸었다. 40년 동안 적대적이고 고립된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여정을 특징짓는 엄청난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사건들은 성서 전통의 근본적인 신학적 참조점과 인간 실존 전체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오랜 세기를 거치는 동안

백성이 천막 대신 집을 짓고, 만나를 거둬들이는 대신 땅을 경작 함으로써(신명 6,10-12; 8,11-16; 여호 5,12) 일상의 삶이 덜 불안정해지고 발전하더라도, 광야는 항상 기억될 것이다(신명 8,2).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항상 순례객이며(레위 25,23; 시편 39,13; 1코린 29,15; 히브 11,13), 인간의 진정한 삶은 "빵"에 의존 하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다(신명 8,3).

광야의 시기에 "선조들"은 우물의 유무에 좌우되고 먹을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곳저곳을 배회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무서운 원수들을 만나는 등 매일 불안정한 삶으로 고통을 받았다(탈출 17,8-16; 신명 8,15). 유대인들은 서로 단결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에서 불평과 불화와 반역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바로 이 공포와 죽음의 장소에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힘이 되는 하느님의 현존도 경험했다.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예레 2,2-3.6).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화(탈출 16,1-35), 또는 트리바의 물의 사화(민수 20,1-11)는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항상 새겨져 있을 것이다. 트리바에서는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도록 바위에서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매일의 양식과 빈틈 없는 보호의 선물로, 광야에서의 불안정과 위험에 응답하신 그분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신명 8,2-4; 29,4-7; 32,10-12).

30. 그러나 이처럼 위로가 되는 좋은 기억만 생각하면, 여정의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한 지난 날의 노예들이 이집트 땅에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민수 11,4-5)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물론 그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자유보다 억압 중에 누렸던 과거의 제한된 풍요를 선호했다고 할 수는 없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죽게 만들었다며 하느님과 하느님이 파견하신 사람들(특히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곤궁한 생활이나 예기치 못한 삶에 직면했을 때 불안정한 삶을 받아들이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론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탈출 32,1)라는 요청을 받아 만들어 준 금 송아지 사화는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 숭배한 우상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느님께 의존하지 않으려는 바람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황소의 형상은 마음의 안정을 주지만, 신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훼손된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시편 106,20).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대한 경험은 인간 역사의 일부다. 성서 전통에 따르면 "조상들"은 그들의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자손들"에게 주님이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충만한 삶의 상징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신명 1,39).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인간 실존의 전체 여정의 (집합적) "모습"으로 제안되었다(이사 48,21).

죽어야 할 인간의 기도

31. 인간 존재의 연약함은 성서 전통과 특히 시편집에서 기도의 내용이 된다. 인간의 연약함은 영원하시고 좋으시며 연약한 인간에게 연민을 가지신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염원이 되었다. 여러 시편들에서 인간의 덧없음에 대한 자각은 자주 시적 형상들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되었으며, 지혜 전통의 형상들을 따라간다: 인간은 단지 입김(시편 39,6-7.12; 62,10; 144,4)이며 바람(시편 78,39)이고 이내 시들어 말라 버리는 들풀과 꽃(시편 37,2; 90,5-6; 102,12; 103,15-16)이며, 비현실적 꿈(시편 90,5)이며 한숨(시편 90,9)이고 기울어 가는 그림자(시편 102,12; 109,23; 144,4)이고 먼지(시편 104,29)로 돌아가는 티끌(시편 103,14)에 불과하다.

시편 90은 그러한 인간학적 시각에 특히 중요한 예다. 첫 구절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영원한 섭리를 선언한 뒤(1-2절), 시편 기도는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덧없음과 구조적 연약성을 지적한다:

당신께서는 인간('enos)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bene 'adam), 돌아가라.” [...]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 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났다 사라져 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
 정녕 저희의 모든 날이 당신의 노여움으로 없어져 가니
 저희의 세월을 한숨처럼 보냅니다.

저희의 햇수는 칠십 년
근력이 좋으면 팔십 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3.5-6.9-10
절).

인간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다. 인간은 먼지며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먼지로 돌아간다. 사실 "사람들아, 돌아가라"는 말씀은 시편에서 하시는 하느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창세 3,19을 반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죽어야 할 인간의 조건에 대한 기억은 기도자에게 지혜 성찰로 이끄는 동기가 된다: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12절: 또한 시편 39,5; 욥 38,21; 시라 17,2; 18,9-10 참조). 사실 하느님과 달리 인간은 연약하고 덧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슬기다. 다른 한편, 짧은 수명의 인간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한다:

아침에 당신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를 내리누르신 그 날수만큼,
저희가 불행을 겪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14-15,17절).

32. 기도하는 인간은 자신이 약하고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애원과 눈물로 젖은 탄원이 솟아난다(시편 42,4; 56,9; 102,10). 불안정의 조건은 특히 경제적 궁핍의 조건들을 경험하는 사람(시편 74,19; 86,1)과 도와 줄 이 없이 혼자인 사람(시편 22,12; 25,19; 38,12), 늙어 기운이 없는 사람(시편 71,9,18), 또는 잔인한 많은 원수들에 에워싸여 있는 사람(시편 3,2-3; 22,17; 69,5)에 의해 경험된다. 죽음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절박하고 뚜렷할 때(시편 22,15-16), 하느님께 드리는 탄원은 분개한 "외침"으로 바뀐다(시편 13,2-3; 22,2-3). 그렇지만 신뢰 깊은 청원을 멈추지 않으며(시편 22,23-25) 마침내 자비로운 하느님의 생명의 힘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시편 27,13; 49,16; 73,23-24; 116,9). 시편 16에서 본보기적으로 말한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령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9-11절).

흠으로 빚어진 인간이며 죽어야 한다는 사실로 놀란 인간은 불멸하도록 창조되었다(지혜 2,23).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당신 피조물과 함께하며(시편 27,13; 116,9; 142,6) 그에게 성채와 도움과 구원자로 계시하는 성실한 하느님이시다(시

편 18,3; 30,11; 55,17; 63,8 등). 사실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시편 1,4)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시편 37,20)은 악인들이다. 이와 달리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시편 1,3; 92,13-15). 인간은 이처럼 기도를 통해 영원성에 대한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 왜냐하면 죽어야 할 인간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님께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시편 30,4; 49,16).

하느님은 생명의 길을 알려 주신다

33. **예언 전통**은 왜 인생은 짧으며 죽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계시를 전해 준다. 이와 동시에 주님의 목소리는 하늘의 도움을 청하며 한숨짓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약속으로 제시된다. 사실 불안정한 인간의 모티프에 대한 예언 문학의 가장 큰 공헌은 두 가지다.

거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반하여

예언자들의 첫 번째 공헌은 권력자들에게 지혜 방식으로 주는 **권면**으로 표명된다. 이 권면은 모든 인간의 우연성을 지혜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경외"를 갖게 하는 핵심 진리로 여기도록 초대하는 형태를 취한다(잠언 1,7; 9,10; 15,33; 욥 28,28; 시라 1,14). "피조물로서의" 인간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만한 태도로 여겨졌으며, 심지어 하느님의 일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현인들의 거짓 지혜를 반대하고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비판하면서 진흙과 옹기장이의 표상을 상기시킨다:

불행하여라, 자기네 계획을 주님 모르게 깊이 숨기는 자들!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이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고 말한다.

아, 거꾸로 행동하는 너희들!

진흙이 옹기장이와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작품이 제작자를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빛어진 것이 자기를 빛은 자를 두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수 있느냐?(이사 29,15-16; 또한 이사 45,9; 시편 94,8-11도 참조).

34. 지나치게 많은 지성과 부와 권력은 인간에게 하느님과 동일하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주님은 기만하는 의식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오만한 자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예고하신다(이사 47,7-11; 스바 2,15). 이는 예언자 예제키엘이 티로의 임금을 거슬러 발설한 신탁에서 기적적으로 예고한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아,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을,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 [...]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네가 감히
 '나는 신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에제 28,2,7-9; 또한 이사 14,10-15; 51,12; 에제
 31,1-14; 사도 12,21-23 참조).

그러므로 주님의 슬기로운 구원 행위는 역사 안에서 오만한 자
 들을 체계적으로 꺾으며(이사 2,17,22) 겸손한 이들을 높이 들어올
 리는 것(이사 29,19; 참조: 1사무 2,3-10; 시편 138,6; 욥 22,29;
 시라 11,12-13; 루카 1,51-53)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보복의
 규칙을 역사적으로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
 느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서 인간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켜 준다
 (1사무 2,3-8; 이사 26,5-6; 루카 1,52-53). 사실 하느님은 작고
 연약하며 무능력한 것을 선택하신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전능하
 신 생명의 주님의 자비로운 특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사
 41,14; 52,13-15; 참조: 마태 11,25-27).

생명의 약속

35.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두 번째 공헌은 **위로**의 말씀(이사
 40,1)이다. 위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나라에 유배

갔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존재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리하여 덧없는 삶의 상징인 들풀의 표상이 격렬한 삶의 활력의 표출과 연관하여 표현된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이사 40,6,8).

하느님의 영광은 약한 이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계시된다(이사 40,5). 주님의 능력은 소생시키는 말씀과 같이 표출된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그분에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분이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이사 55,10-11). 사막은 꽃을 피울 것이며(이사 35,1),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머지 이들은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저는 이는 충만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이사 35,5-6). 비탄에 빠진 이들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주장할 때조차(에제 37,11) 예언자의 목소리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다시 줄 능력을 가진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기 위하여 크게 울려 퍼진다(에제 37,1-10). 하느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에제 37,12-14). 흙이 생명체가 되게 하신 주 하느님의 숨(창세 2,7)은 역사적으로 쇠약해진 백성에게 생명을 주

는 데에 작용한다. 이사야 예언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해석한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주검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이사 26,19).

미래의 세대들은 위로가 되는 이 예고로 부양될 것이다. 다니엘은 의인들의 부활 예고로 다시 이를 주장할 것이다(다니 12,2-3). 그리고 마카베오 형제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바로 그 순간에 이를 증언할 것이다(2마카 7,20-23). 신약 성서의 계시는 이와 같은 예언 노선에 들게 될 것이다(사도 3,24-26; 23,6-8). 불 병거를 타고 나타난 주님에게 붙잡혀 간 엘리야(2열왕 2,11)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영광의 예형이 될 것이다(1테살 4,17).

연약한 인간에 대한 나자렛 예수의 조력

36.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신약성서의 전통은 옛 성경의 종교 유산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생명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결정적 계시의 선물을 가져온다(마태 8,16-17; 루카 24,27.44; 사도 3,18).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요

한 1,4; 야고 1,18; 1베드 1,23-25). 당신의 영을 부어 주어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 새롭고 불멸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분도 그분이다(로마 8,11). 오직 하느님만이 그와 같은 자연의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요한 3,2; 9,33). 이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오신 사람인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지되었다(마태 14,33; 마르 1,1; 루카 1,35; 요한 11,27 등).

복음서의 이야기들에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복음서 저자들은 주 예수의 신적 힘(dynamis, exousia)을 현양하고(마태 9,8; 루카 5,17; 24,19; 요한 17,2),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마태 11,28)에게 안전한 희망의 샘을 보여 줄 목적으로 항구하게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불안정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덧없음은 열병(마르 1,30), 수종(루카 14,1-4), 위협 받는 건강의 징후인 "약함"(astheneia)(마르 6,56; 루카 9,2; 요한 4,46), 출혈(마르 5,25-29) 또는 무서운 나병(마르 1,40; 루카 17,11-19)의 형태를 취하면서 무엇보다도 죽음의 전조로서의 **질병**으로 설명된다. **장애**의 상황도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형태로 쓰인다. 예컨대 눈먼 이(마르 8,22-25; 10,46-52), 귀먹고 말 더듬는 이(마르 7,31-37), 손이 오그라든 사람(마르 3,1-5) 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중풍 병자(마르 2,1-12)의 상황이 있다. 이 사람들의 경우 - 때로는 여러 해 동안(요한 5,5), 또 어떤 때에는 태어나면서부터(요한 9,1) -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삶의 질은 너무 근본적으로 손상 되어 이 사람들을 비참한 실존으로 단죄하기까지 이른

다.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중대하게 위험한 상황들이** 서술된다. 예를 들어 배고픈 군중이 광야에서 양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마르 6,36-44; 8,1-9), 또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폭랑을 만나 심하게 요동을 칠 때(마르 4,35-41)가 그런 상황이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적대자들의 적대 행위가 명확히 치명적 위협이 될 때도 그런 상황이다(마태 10,17-25; 요한 16,2). 끝으로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악귀와 동일시 되는(마태 9,32-34; 마르 5,1-13; 9,14-27; 루카 8,2; 13,10-17) 위험한 힘의 지배를 받을 때(마태 17,15), 사람은 **노예살이**의 조건에서 살 수 있다.

37. 그리스도는 이처럼 다양한 약함을 "방문하며"(루카 7,16) 앓는 이들을 낫게 해 주고, 장애인들의 장애를 다시 쓸 수 있게 하며, 치명적 위협에서 구원하고, 마귀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며, 더 나아가 **죽은 이들을 되살아나게** 한다(마르 5,35-43; 루카 7,11-17; 요한 11,38-44).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유사한 권능을 받았다. 곧, 모세에게는 나병환자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주어졌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며(1열왕 17,10-16; 2열왕 19-22; 4,1-7,38-44 등)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린다(1열왕 17,17-24; 2열왕 4,18-37).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도 이상한 무화과를 반죽한 것으로 히즈키야 임금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이야기한다(2열왕 20,7). 그러나 복음의 전통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치유와 재생의 행위가 산발적인 어떤 개입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의 사명의 핵심이며(마르 2,17;

루카 4,16-21; 사도 2,22; 10,38), 그분 직무의 일상적 행사(마태 1,32-34; 6,54-56; 마태 9,35)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질병과 약함이 구세주의 조력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합법적 믿음을 가지고 탄원할 경우(마르 7,24-30; 마태 8,5-13), 가련한 이들이 새로운 삶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마태 13,58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제자들은 똑같은 치유와 해방과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역사는 항상 하느님의 구원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마태 10,1,8; 사도 2,43; 3,1-10; 9,36-41 등).

이 모든 것은 탄복할 만하다(마르 2,12). 그리하여 복음서 저자들은 이 모든 것을 "메시아 시대"의 실현으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로 선언하였다(마태 11,2-5; 11,20). 죽어야 한다는 전망으로 깜짝 놀라고 그 미약함에 낙담한 인간은 사랑 가득하게 신체의 조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내적으로 원기를 되찾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마르 5,36; 6,50; 마태 10,26,28,31; 요한 14,1,27; 히브 2,15).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만한 희망을 갖게 해 진심으로 영원히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준다(마태 9,8; 마르 2,12; 루카 5,25-26 등). 그것은 예수(와 그분의 사도들)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사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일들에 "표징"(semeion)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8. 이것은 비판적 의미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한 범주이며(마태 12,38-39 참조) 무엇보다 요한이 주제로 사용한 범주이다(요한 2,11,23; 4,54; 6,2,14 등).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전대미문의 일을 하지만(요한 9,32), 그의 행위는 주로 그분이 세상의 빛이며, 오로지 그분을 믿는 것만이 참으로 생명에 접근하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요한 1,9; 8,12; 9,5; 12,36). 라자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러하듯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비범한 이적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요한 11,25)임을 계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풍 병자의 치유는 죄를 용서했다는 표시다(마태 9,1-8). 광야에서 빵을 많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을 주는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예언적 모습이다(요한 6,51). 사실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영원한 생명"(마르 10,30; 마태 25,46; 요한 3,15-16,36; 10,28 등)은 고질병에 대한 일시적 치유이거나 인간 실존의 비극적 종말을 잠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있는 한, 인간의 덧없음을 지탱하는 하느님의 권능의 구체적이고 가시적 표지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 행위의 다가 아니다. 그러기에 복음서 저자들은 신앙 안에서 표지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과정을 수행하여 은총의 행위 안에서 증언된 것의 종말론적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불멸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구체적 예수님 안에서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로 실현되었다. 모든 종족과 모든 시대의 인간은 모두 그분의 부활 사건 안에서 죽어야 할 몸에 영원히 선사된 생명의 이적을 알아보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다.

39. 복음서 저자들은 나자렛 예수가 자주 "사람의 아들"로 지

칭되었다고 말한다(마태 11,19; 12,8; 16,13; 마르 2,10,28 등). 묵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칭호는 메시아가 - 그분 자신의 선언에서도 그러하듯이 - 인간의 혈통에 속하며, 따라서 연약함과 죽음을 운명의 동일한 조건을 그분의 형제들과 공유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마태 8,20; 12,40; 또한 로마 8,3; 필립 2,7; 히브 2,17; 4,15도 참조). 사실 그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순례객들의 빈곤(루카 2,7)과 지배자들(마태 2,13에서 헤로데 임금처럼)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다. 또한 유배를 겪었으며(마태 2,14-15), 부모에게 순종했고(루카 2,51), 광야에서 배고픔을 겪었으며(마태 4,2), 곁을 때의 피곤함과 갈증을 느꼈다. 자신의 예언 직무의 피곤함을 인지했고(마태 17,17; 마르 3,20; 6,31-32), 친구 나자로의 죽음(요한 11,35)과 예루살렘에 닥친 임박한 재앙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루카 19,41). 적개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헐박을 받았고(루카 4,28-29), 박해를 받았으며(루카 3,6), 고문을 당하고, 치욕적인 잔인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고통과 굴욕의 비극적 면모들을 겪으며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필립 2,7-8). 그의 마음은 이른 나이에 고통스럽게 죽는 고뇌를 느꼈다(마태 26,37-38; 마르 14,33-34; 루카 22,44). 그는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히브 5,7). 사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히브 5,8).

그러나 불의하기 때문에 - 아버지와 당신 형제들을 위한 사랑

의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원하신 것이었다고 하더라도(마르 8,31-33; 루카 9,51; 요한 12,27) - 명백히 어리석은 이러한 운명은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루카 24,26; 필립 2,9). 왜냐하면 예수는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 주시고"(히브 5,7),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 이미 예고된 대로(마르 8,31) -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말미"가 되셨다(콜로 1,18; 또한 로마 8,29; 1코린 15,23; 묵시 1,5 참조).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죽음은 모든 힘을 잃어버렸으며, 그분 안에서 죽음이 결정적으로 파멸되었다(1코린 15,26; 묵시 20,14; 21,4).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참으로 그분의 생명의 신비에 참여한다(로마 6,9-10; 2티모 1,10; 히브 2,14-15). 사실 그들에게도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짙막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지속적인 기쁨으로 넘어가는 파스카 사건이 실현된다(요한 14,3,19; 묵시 7,13-17). 바오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들의 서간들에서 주제로 다루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위로가 되는 진리이다.

바오로의 약함에 대한 찬사와 부활에 대한 희망

40.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는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케리그마이다(사도 2,23-24; 3,13-15; 4,10). **바오로** 역시 그의 서간들에서 그의 "복음" 전체를 이 선포에 집중한다(1코린 15,1-4; 2티모 2,8). 그리고 바오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부활하신 분"의 이항식 위에 자신의 보편 구원의 신학을 세운다. 그

리스도론적 사건을 결정하는 그 두 요소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유일하게 아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1코린 2,2)에 대해 아는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통 받는 종의 영광스러운 현양에서 멀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구절은 바오로가 생각하는 사고를 종합해 준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필립 3,10-11).

약함을 자랑하다

41.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바오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해결의 문제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1코린 1,18-25)인 인간의 허무를 역설적으로 자랑하는 동기로 받아들인다(1코린 1,31; 2코린 11,30; 12,5). 굴욕과 희생과 고통과 패배를 뜻하는 "약함"(astheneia)은 하느님과 인간에게 반대되는 혐오가 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생명을 주는 권능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장소로 제시된다(1코린 4,9-13). 그리스도의 사절이며 모방자(1코린 11,1)인 사도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teleitai) 드러난다"(2코린 12,9)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기 스승의 길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한다(1코린 2,3; 2코린 10,10). 이런 이유 때문에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9-10). 여기에는 금욕주의적 영웅주의의 이상도, 삶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직무에서 본보기적으로 경험된 신앙의 경험으로 명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질그릇"(2코린 4,7)에 비교된 죽어야 할 인간의 불행 바로 그 안에서 실현되는 하느님 권능의 승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삶은 역설적 옷을 입고 제시된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2코린 4,8-10).

42. 바오로의 몇몇 본문들에서는 지상의 현실을 어느 정도 상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parousia)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1코린 7,29-31). 다른 경우에는 죄스러운 육육의 표현으로서 "육"(sarx)에 대한 비판을 지적할 수도 있다(로마 8,6-8; 1코린 3,3; 갈라 5,16-17,19-21; 6,8).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긴급하기 때문이다(1코린 13,8-13; 1테살 5,8). 간단히 말해 사도의 가르침

에 따르면, 절대적 가치는 어떤 우연한 현실에 대해서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위로는 일시적인 것에서 오지 않고 용감한 부활 예고에서 온다. 곧, 그리스도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2코린 13,4). 여기에서부터 바오로의 단언이 나온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8; 참조: 2코린 4,17).

육체의 부활에 대한 희망

43. 수많은 증인들이 경험한(1코린 15,5-8) 예수의 부활은 바오로에게 있어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1코린 15,13-14). 사실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1코린 15,45). 만약 첫 인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1코린 15,21; 또한 1티모 1,10; 2,11도 참조).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신비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씨앗의 표상에 의존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표현하기 위하여 요한 복음에서도 증명된다(요한 12,24). 바오로에게 씨앗의 은유는 인간 육체의 놀라운 변모를 제시하기 위하여 소용된다. 곧,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

아닙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soma pneumatikon)으로 되살아납니다"(1코린 15,42-44).

바오로는 종말 사건에서 용암과 같은 전체에 용해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개별 인간 모두의 신원이 그대로 남을 것임을 가리키기 위하여 "육체"에 대해 말한다. 다른 한편, 바오로는 형용 모순에 의지하면서 "영적인 몸"을 죽은 이들로부터의 부활 때문에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변화되었으며 새 아담인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1코린 15,49)이 된 몸이라고 정의한다.

44. 그러므로 부활은 몸을 제거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부활은 몸을 현양하여 불멸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이 운명은 개별 인간 피조물만의 운명이 아니다. 사실 바오로는 임산부의 표상(요한 16,21에서 예수님이 이용한)을 생각하면서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놓이고 멸망의 종살이를 겪으며 출산의 진통으로 고통을 받지만, 하느님과 하느님의 생명의 영의 활동으로 영광스럽게 구원을 가져올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면서 피조물 전체가 관여된 생명의 과정을 표현한다(로마 8,18-23,28-30). 사실 하느님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고된 것은 단지 "새 인간"(에페 2,15; 4,24)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 갈라 6,15),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 묵시 21,1)이며,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

렸기 때문이다"(묵시 21,4).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인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로마 8,23) 믿는 이들이 인내롭게 기다려온 믿음과 희망의 신비이다.

2.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숨

45.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티프는 성경에서 자주 상기된다. 그 목적은 인간이 창조주와 무한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마음속에 진리에 이르는 길인 겸손을 일깨우려는데 있다. 그러나 창조 행위에서 주님에 의한 돌보심(이사 64,7)과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영적 능력을 생각하면(시라 17,3-11), 동일한 모티프가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되는 파급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에 관하여 창세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의 "숨"의 표상에 호소한다. 하느님의 숨은 창조주에 의해 빚어진 흙의 먼지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체"가 되게 하며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한다(창세 2,7). 이 단락에서는 성경에서 인간의 특수하고 유일한 신분 개념을 주려는 수많은 표현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이용된다. 사실 우리는 성서에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과 은유와 개념을 만난다. 이들은 모두 흙의 먼지로 빚어졌으나 잠재력을 가진, 어떤 의미에서 "신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한다. 선물에서 인간 존재의 "소명"도 나온다. 그 소명은 창조주의 계획에 순종하여 역사 안에서 실행해야 할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과제로 이해된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훌륭한 본성

의 진리에 대해 깨우침을 얻는다. 이제 방금 우리가 다룬 모티프가 성경의 다양한 문학 전통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 보도록 하자.

살아 계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창세 1,26-27)

46. 첫 번째 창조 이야기(창세 1장에 들어 있는)는 창세 2,7에서 하느님의 "숨"의 표상으로 언급된 것을 또 다른 언어로 변환한다. 사실 인간의 특별한 본성과 비범한 존엄을 인정하면서 'adam'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창세 1,26).

용어 설명

무엇보다 먼저 창세 1,26에서 하느님은 인간 존재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우리와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 모습으로" 만들자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역하면 "닮음에 따른 모습으로" 만들자고 말한다. 이 표현을 역동적으로 옮기면 "비슷한 모습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 1,27에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모습"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창세 5,1에서는 "비슷하게"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모습"(selem)이라는 용어는 그림이나 형상을 가리킨다(1사무 6,5,11; 예제 23,14). 그림이나 형상은 부재한 것 또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진

작품들이다(참조: 지혜 14,15-17). 그러한 명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여러 구절들에서 이 용어는 우상을 가리키며(민수 33,52; 2열왕 11,18; 예제 7,20; 16,17; 아모 5,26), 우상은 "죽은" 것(지혜 13,18; 15,5)이기 때문에 느끼지도 말하지도 행동할 줄도 모른다(시편 115,5-7). 이 사실은 대조적으로 인간 존재의 특질을 돋보이게 한다. 창세 1,26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하느님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았다. 인간 존재는 생명체이며 다른 영적 주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집에서 selem이라는 용어가 덧없는 피조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시편 39,7; 78,20), 이 뉘앙스는 창세기에서 표현된 것과 반대되지 않는다. 사실 인간 피조물은 바로 몸의 연약성과 역사의 우연성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다.

추상 명사 "비슷함"(demut)은, 두 개의 실재, 예컨대 특정한 주제와 그 재생품인 그림이나 토기 형상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함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예제 23,15). 성서 저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초인간적 존재나 사건들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세상에 있는 실재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예제 1,5,26; 10,21-22; 다니 10,16). 그런데 하느님은 분명히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며" 어떤 것도 하느님에 비교될 수 없다(2사무 7,22; 이사 40,18; 예레 10,6-7; 시편 86,8). 그렇지만 - 성경은 말하기를 - 인간은 자신 안에 하느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적지 않은 주석학자들이 "비

솟함"이라는 용어는 명사 "모습"에 주어진 가치를 완화하려고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재생품(인간)은 원본(하느님)과 절대로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창세 1장의 저자는 그와 같은 용어로 인간 존재와 창조주 사이의 특권적 유사성을 강조하기를 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그럴듯 하다. 그러한 특권적 유사성은 두 주체 사이에 역사적 대화의 본래 근거를 이루고 있다. 달리 말해 하느님이 'adam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과 개인적 계약 관계를 맺으려 하였음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시라 17,12; 49,16; 또한 시편 100,3 참조).

히브리어 성서의 경우, "하느님의 모습대로"라는 표현은 창세기의 몇몇 구절들에서만 나타나며 이 어법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면모들도 제시되었다.

생명체들의 목자인 인간

47. 창세 1,26에서 하느님의 "모습 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하느님의 계획을 발표한 예고는 곧바로 한 문장과 직접 연결된다. 이 문장은 자주 명령형(또는 원의법*iussivo*)으로 번역되지만, 아마도 계속적(또는 목적적) 가치를 가진 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본문에서 'adam은 군주의 특질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관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차원은 즉시 그리고 거의 똑같은 말로 다시 하느님의 축복의 실현으

로 확인된다(창세 1,28).

짐승들에 대한 보편적이며 배타적인 인간의 지배는 권력을 독점하는 난폭한 전제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형적 이야기에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들의 풀이 양식으로 주어졌을 뿐 아니라(창세 1,29-30), 무엇보다도 고압적 권력은 하느님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창조주는 당신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시편 36,7; 또한 창세 7,1-3; 요나 4,11; 시편 145,9; 시라 18,13; 지혜 11,24도 참조), 그들에게 존재와 양식과 풍요와 생존하는 데 유익한 본능을 주신다. 그러므로 땅 위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느님의 활동에 따를 과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들을 "다스리는"(dominare) 군주적 능력과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물을 수 있다. "다스린다"는 말이 인간의 필요에 "노예가 되다"(asservire)의 비슷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신적 모형에 따라 다스림(dominio)을 더욱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전망을 받아들이고 사람에게 대한 하느님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성서 본문들에서 사용된 "목자"의 표상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이사 40,11; 예레 31,10; 예제 34,11-16; 시라 18,13; 요한 10,1-18). 유사하게, 인간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체를 돌보기 위하여 자기의 잠재력을 모두 이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하여 생명체를 매우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모든 짐승이

자기의 종류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일을 존중하면서 역사 안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 항상 존중을 받지 못한 생태론적 책임을 동반한 큰 지혜가 요구된다.

생명을 낳도록 부름을 받은 인간

48. 창세 1,27에는 하느님의 활동의 대상으로서 성과 종족 또는 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 존재를 가리키면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adam'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된다. 인간 존재는 "각기 제 종류대로"(창세 1,21,24-25) 창조된 짐승들과 다르며, 그의 본성에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모습이다(신명 6,4).

거룩한 저자는 이어서 이러한 문맥에서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문장을 덧붙여 인간을 정확히 규정한다. 그렇게 하여 변화된 성의 정체성의 정확한 구분으로 복수의 측면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체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그 자체로 상이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집회서의 저자 벤시라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으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셨다"는 점을 보게 한다(시라 42,24-25). 그러므로 모든 인간 주체에게 있어, 다른 성에 대한 언급은 몸에 새겨진 한계를 기억할 것이며, 동시에 생명이 솟아나오도록 결합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 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중요한 면모가 실현된다. 사실 사람은 짐승들처럼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짐승들과 유사하지만,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 생명을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을 낳는 것은 단순히 육체 관계의 결과로 묘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에 따라, 달리 말해 무상의 자비로 인간을 낳을 때 인간을 낳는 것은 "신적" 특질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이 문헌의 제3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49. 하느님의 모습과 인간을 낳는 행위의 관계는 창세기의 다른 본문에서 확인된다. 거룩한 설화자는 기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다시 한 번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를 만드셨다"(창세 5,1)라고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인간을 낳는 사건을 도입한다. 그 사건은 창세 1,26에서 하느님의 행위를 특징지었던 것과 똑같은 용어들(문자적으로 앞뒤가 바뀌기는 하였으나)로 제시된다: "아담은 [...]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창세 5,3). 여기에서 "비슷한 모습"의 특질은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버지에게서 받는 특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각 개인은 자기 몸에 부모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것처럼 아주 간결한 언급에서인간이 "하느님의 아들"(루카 3,38; 사도 17,28-29)이라는 모티프가 시작된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모티프는 성경에서 인간학적,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의 책임을 진 인간

50.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은 창세 9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화자는 앞에서 특히 부도덕과 "폭력"(창세 6,11,13)의 형태로 나타난 인류의 문란한 악행이 창조주의 계획을 종식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창세 6,5). 생명을 낳고 보호하도록 부름을 받은 인간이 역설적으로 하느님이 하신 일의 파괴자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극적인 개입으로서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다 포함하여 죄인들을 소멸시키는 무시무시한 홍수의 징벌이다. 다른 한편, 구원의 개입으로서 가족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더불어 노아로 대표되며, 그들이 새로운 인류와 더불어 일종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 그 모든 것은 창조주와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 맺은 영원한 계약으로 실현된다. 그 계약에서 하느님은 다시는 홍수로 징벌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시고(창세 8,21) 인류에게는 다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축복으로 사람은 번성하며 짐승들을 다스린다(창세 9,1,2,7).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음"(창세 9,6)을 기억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

그러나 새 창조는 옛 창조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리고 성서 저자는 창세 1장과 비교해 두 가지 중요한 변형들을 제시하는데, 항상 하느님의 모습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의 인간 당사자에게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피"로 상징된) 두 개의 새 "계명"이다.

51. 첫 번째 변형은 식료품의 영역이다. 인간에게는 식량(식물)으로 "모든 풀"과 "모든 과일나무"(창세 1,29)만 제공되지 않고, 짐승들의 고기도 양식으로 주어졌다(창세 9,3). 그러나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 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창세 9,4)는 중요한 조항이 첨가되었다. 이 규정은 이제는 거의 억제할 수 없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계명이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인간의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지적해야 한다. 역사 안에서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예식법**의 형태 아래 **상징적으로** 지적되었다. 곧 인간은 짐승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인간의 실존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행위가 생명을 (영원히)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난받을 만한 폭력 행위로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두 행위(죽임과 존중) 사이의 구분은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새의 알만 갖고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는 신명기의 작은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신명 22,6-7). 이 규정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이용하도록 허용되었으나("먹어도"), 생명의 원칙("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이해하게 해 준다. 모든 것은 사법 행위의 은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2. 사실 더욱 중요한 두 번째 변형은 매우 뛰어난 문장 구성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지혜 어조의 법률 공리로 작성되었으며,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근접시키는 수사법(paronomasia)을 사용하여 "피"(담)와 "인간"(아담)의 관계를 명확히 지적한다(창세 9,6ㄱ):

흘린 자

피(dam)를

사람('adam)의

사람('adam)의

그의 피(dam)를

흘려야 하리라

여기에서 범죄에 걸맞는 벌을 적용하여 정의를 실현할 과제가 사람에게 맡겨졌다. 창세 4,15에서 (카인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살인자를 죽일 힘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러한 위임은 곧바로 동기절과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창세 9,6ㄴ). 한편으로, 이 마지막 문장과 더불어 인간 생명의 근본적 가치가 확인되며(특별히 하느님에게서 유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잠언 14,31). 그러나 다른 한편 살인을 한 사람을 징벌할 때에는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는 역사 안에서 사람에게 맡겨진 최고의 행위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사람은 하느님을 대리하여 악을 징벌한다(참조: 이사 11,4; 시편 82,1-6; 101,3-8).

53.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서 인간의 행동은 "억지

이론'의 원칙에 의해 폭넓게 확인된다: 사실 사람이 짐승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창세 9,2)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형의 극단적 위협은 사람들의 폭력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창세 9,6). 비록 평화의 계약의 표현으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창세 9,8-16) 이 의식적, 법률적 규정은 "새 계약"의 불완전한 모습일 뿐이다. 새 계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것이며, 피를 흘리지 않는 빵과 포도주의 의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 계약은 징벌의 위협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보편적 화해로 원하고 또 실현한 바에 순종하여 자비로운 용서의 정신에 따를 것이다.

인간은 정의의 실천에서 "하느님과 같을" 수 있고 같아야 한다.

54. 인류의 범죄들을 주로 강조하면서 인류 전체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 뒤에(창세 1-11) 성서 설화자는 아브라함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에 주의를 집중한다. 독자는 이 특별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의 메시지에 충실하는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 자신과 "비슷하게" 하는 특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창세 12장부터 시작하는 토라(Torah)의 문학 전통 덕분이다.

모든 인간('adam의 자손으로서)은 은밀한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로마 2,14-15 참조). 그럼으로써 그는 본성적으로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며 하느님과 순종적이며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성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잠재력은 성경에 따르면 노아(창세 9장)와 아브라함(창세 15장과 17장)과 그의 후손들

(탈출 2,24)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계약을 맺어 주신 몇몇 인물들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 특히 주님과 영구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며(탈출 19-20장; 신명 5장), 계약 당사자들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주체들 사이에 비슷함과 영적 친교의 요소들을 전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탈출 24,3,7; 신명 26,17-18). 그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들 가운데 하나는 아들의 은유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들"(신명 14,1; 32,5-6.19-20; 이사 1,2; 예레 3,19; 31,20; 호세 2,1; 11,1; 말라 1,6), 달리 말해 주님의 "만아들"(탈출 4,22; 예레 31,9)이라 하였다.

55. 아들됨의 본성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본받을** 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참조: 에페 5,1: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토라 안에서 하느님과 비슷함의 개념이 변화된다. 만약 주님이 조상들을 사랑하였다면(신명 4,37; 10,15),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동일한 감정으로 주님께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신명 6,5; 10,12; 11,1.3). 주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스라엘은 똑같이 할 것이다(탈출 20,10-11). 하느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당신 백성을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한 가족의 가장은 자기에게 예속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똑같이 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주인은 일곱째 해에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신다(신명 10,18).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처럼 행동해야 한다(신명 10,19).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정의(신명 6,25)와 거룩함의 길에서 하느님을 따라 하는 만큼 참으로 하느님과 비

스함은 현실이 될 것이다. 사실 레위기는 반복하여 말한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1,44-45; 19,2; 20,26; 21,8; 또한 탈출 19,6; 신명 26,19 참조).

생명과 통치권의 중재자인 지혜

56. 지혜 본문들은 그 특성에 맞게 보편적 특성의 전망을 취한다. 자기들에게 전해진 계시의 보물들을 참고하면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한다. 현인들은 인간을 창조의 영역에서 올바른 위치에 세움으로써 진리를 실행한다: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여섯 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일곱 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시라 17,1-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 현인들은 인간 피조물의 한계에 관해 주장하며(시라 18,8), 따라서 지혜의 근본 원칙으로서 "하느님 경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잠언 1,7; 2,5; 코헬 5,6; 시라 1,14.16.18.20). 다른 한편, 현인들은 "인간의 영은 주님의 등불, 그것은 배 속 온갖 깊은 곳까지 살핀다"(잠언 20,27; 참조: 1코린 2,10-11)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귀를 기울여 듣는 이에게는 창조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자로 부름을 받은 인간에게 하느님이 선사하신 지혜에서 생명과 존엄의 무진장한 샘이 솟아난다고 가르친다(잠언 2,7-22; 3,13-26; 시라 4,12-13; 6,18-37; 15,1-6; 지혜 7,7-14; 8,5-8.18).

57. 만약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어떤 탁월한 스승의 특별한 체험으로 풍요롭게 된 그들의 세속 전통의 결실들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시라의 서문 7-14), 동시에 그들은 하느님이 지혜의 샘이며(시라 39,6; 지혜 8,21) 따라서 지성과 규범과 생명의 결실들도 하느님에게서 받는다(시라 51,13-14; 지혜 8,21)는 사실을 항구하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

신의 내면적인 영적 특질(지혜 7,7; 9,1-18), 곧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 특질(잠언 8,22-31; 시라 24,3-22; 지혜 8,1)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근본 특질에서 인간은 창조주와 주님을 닮도록 되었다. 사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시라 17,3; 지혜 2,23) 인간에게 세상에서 다스리는 힘을 주셨다(잠언 8,15-16; 시라 4,15; 지혜 6,20-21; 8,14)는 사실이 기억된 것은 바로 지혜 전통 안에서이며 정확히 말해 지혜의 선물 때문이다.

창세 2,7에 따르면 인간을 생명체가 되게 한 하느님의 숨은 지혜 문학에서 피조물을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는(지혜 2,23; 4,1; 5,5.15; 6,18; 8,13,17) 지혜의 "영"(지혜 1,5-6; 7,22-30)과 동일시된다. 이 특성은 정확히 하느님과 닮은 것이다. 또한 생명체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adam'의 모습과 일치하여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인간에게 군주의 소명이 있음을 상기한다. 그러나 다스리는 과제는 오로지 간절히 원하여 청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시라 51,13-14; 지혜 8,21-9,17)와 더불어 정의에 따라서(지혜 1,1) - 그러므로 하느님의 세상 "통치"에 준하여 -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

58. 예언서들은 "하느님의 모습(으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면서도 하느님의 의도에 일치하는 인간의 이상적 모습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창조주의 계획에 관한 기본 본문들

이 말하는 것을 확증할 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그 구체적 실현도 증언한다. 주님을 닮은 인간의 "영적" 조건이 드러나는 모습은 두 가지다. 그리고 두 모습을 위해 구약성서의 예언은 역사적 표현을 가리킬 뿐 아니라, 완벽한 종말론적 완성을 가리킨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임금

성서 책들에는 많은 인물들,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등이 하느님 백성의 본보기적 지도자들로 제시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한다. 그러나 더욱 충만하게 하느님의 선물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결정되는 모습은 - 이의가 없지도 않지만(1사무 8장) - 임금의 모습이다. 그리고 특히 다윗 임금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1사무 13,14; 또한 사도 13,22도 참조)이며 메시아의 예형이다(예레 3,15; 30,9). 다윗은 주님과 특별한 계약의 주체이며 영원한 왕국을 약속 받은 임금으로 지적된다(2사무 7,8-16; 시편 89,20-38). 사실 하느님으로부터 비범한 덕행을 받아 세상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힘을 가질 인물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임마누엘의 책에서 이 약속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이사 9,5).

이것은 구체적 역사 안에서 피조물을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되게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 특질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질들은 주님께서 당신 임금에게 부어 주신 "영"(ruah)의 결실이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이사 11,2).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갈망하고 기원하는 것은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되며, 주님의 완벽한 모습인 "다윗의 자손"(이사 11,1; 예레 23,5; 30,9; 33,15-16; 미카 5,1-3; 마태 1,1; 로마 1,3)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는 놀라운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온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

59. 그러나 예언 전통에 따르면 하느님을 닮게 해 주는 인간 실재의 또 다른 표명이 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먼 미래를 위한 약속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항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선언된다.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며 하느님의 영의 사람인 예언자다.

말씀의 사람. 창세 1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은 한처음부

터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은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영적 실체의 발단이 된다. 이 본래의 "말씀"은 역사의 시작을 표시한다. 이 역사에서 창조주는 생명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보내 주실 것이다(이사 55,10-11).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통교할 수 있는 주체로 창조되었다. 그러한 잠재력은 한 사람이 자유롭게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과제를 받아들일 때 실현된다. 사실 하느님은 행동과 말씀으로 계시하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의해 통교되었다. 말씀의 전달자는 "하느님의 사람"(여호 14,6; 1사무 2,27; 9,6; 1열왕 12,22; 17,24; 2열왕 5,8 등), "(주님의) 종"(탈출 14,31; 민수 12,7; 여호 24,29; 2사무 3,18; 2열왕 9,7; 예레 7,25; 아모 3,7 등), "예언자"(창세 20,7; 신명 18,15; 34,10; 1사무 3,20; 예레 1,5; 아모 2,11; 말라 3,23 등)라는 칭호로 명명되었다. 그와 같은 명칭과 더불어 신성을 권위 있게 "대신하는" 인간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표현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부수고 세우며"(예레 1,10; 18,7), 징벌하는 사건을 유발하며(1열왕 17,1) 기적적으로 구원의 표시를 나타내게 하는 데(1열왕 17,16) 있어 세상의 군주와 똑같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인간이 어떻게 실제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일 수 있고 또 닮은 모습인지를 본보기적으로 지적한다.

60. 영의 사람. 창세 1,2에서 물 위에 떠도는 영은 창조 행위를 주관하지만, 창세 2,7에서는 창조주가 'adam의 코에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adam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한

다. "영"(ruah)과 "숨"(nesamah)은 동의어다(이사 42,5; 욥 27,3; 33,4; 또한 즈카 12,1 참조). 물론 "영"이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호흡기(욥 27,3)와 살덩어리(창세 7,15.22)와 뼈(코헬 11,5)에 침투해 들어가 생명력(시편 104,30)을 주는 하느님의 숨의 표상은 예언 전통에서 다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오로지 생물학적 역동성에만 적용되지 않고, 특히 창조주가 원한 완벽한 조건을 피조물에게 주는 "영적" 생명의 선물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저자는 바삭 마른 뼈로 변한 백성 전체를 살려서 엄청나게 큰 군대처럼 제 발로 일어서 있게 하는 하느님의 "영"에 대해서뿐 아니라(에제 37,10), 마음을 되살리는 하느님의 선물(에제 36,26-27)에 대해서도 말한다. 하느님의 선물은 인간 피조물을 사로잡아 그에게 초인적 힘을 주고(신명 34,9; 판관 3,10; 6,34; 11,29; 1사무 16,13; 1열왕 18,12; 이사 42,1)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자"가 되게 한다(민수 11,16-17; 2열왕 2,9; 이사 61,1; 에제 11,5; 요엘 3,1-2; 즈카 7,12; 느헤 9,30). 그러한 확산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하느님의 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민수 11,29; 요엘 3,1-2). 그런 약속은 오순절 사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공동체를 위하여 실현될 것이다(사도 2,1-21; 1코린 2,10-16). 그렇게 하여 역사 안에서 창조주의 본래 계획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인간에 관한 기도자의 명상

61. 성경은 현인들과 예언자들의 말을 전하지만, 시편집에서도

기도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며 그것을 영감을 받은 값진 유산으로 내놓는다. 그리고 이 고대 기도들의 보물 중에서 시편 8의 보석이 빛난다. 시편 8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임금의 권위로 선택된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문맥에서(시편 8,2.10) 시편 저자는 인간 존재의 특별한 조건을 고려하면서 어안이 병병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enos)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사람의 아들"= ben 'adam)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시편 8,4-9).

"인간이 무엇이기예?"라는 질문은 시편 144,3에도 나온다. 그

렇지만 시편 144,3에서 이 질문은 하느님의 구원 개입의 요청(시편 144,5-7)으로 인간의 나약함의 모티프(시편 144,4; 또한 시라 18,7-9 참조)를 소개하지만, 시편 8에서는 이 질문이 찬양 노래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경탄을 형성한다. 하늘의 장엄함과 비교하여 명확히 드러나는 "사람의 아들"의 작음은 역설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기도자는 주님의 "헤아려 주심"(직역하면 "방문해 주십니까?")으로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분은 보잘 것 없는 피조물을 "영광과 존귀"로 씩씩 주시고 그에게 하느님의 신분보다 조금 못한 **임금의** 신분을 부여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땅 위에서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기도자가 그와 같은 엄청난 승리의 표상(시편 110,1-3; 113,7-8)을 표현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사한 이적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경축하기 위해서다(시편 8,2.10).

62. 시편집의 다른 시들에서는 찬양에 탄원이 연결된다(시편 20,2-3; 71,1-9). 역사 안에서 참으로 그의 군주의 과제를 행사하는 능력이 "임금"에게 주어져서 모든 적대 세력들과 싸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다(시편 2,8-9; 18,33-49). 이 모든 것들은 항상 큰 신뢰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원은 하느님에 의해 "아들"로 선포된 사람(시편 2,7; 89,27-28; 110,3)이 세상에서 다스리도록 하려는(시편 21,4) 하느님의 계획과 뜻과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도자의 자녀로서의 신뢰가 매우 강력하게 표현되는 예는 시편

71에서 볼 수 있다: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5-6절).

참 인간이시며 하느님의 모상이신 나자렛 예수

63.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세상에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루카 2,1),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의 상속자로서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루카 1,32-33; 2,11).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루카 1,32). 창조주께서 'adam의 코에 불어넣은 "숨"으로 인간 피조물에게 선사하고자 하였던 모든 것, 현인들이 염원하였고 예언자들이 약속하였던 모든 것, 시편 시인이 "사람의 아들"에게 쏟아진 이적으로 경탄하였던 것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사람들 중의 사람이며 참된 사람이다.

복음서들이 그의 삶을 이야기한다. 복음서들은 상세한 족보를 통하여 그의 일을 그의 백성과 인류 전체의 역사 안에 기록한다. 마태오 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마태 1,1). 하느님이 무상으로 선택하시고 선사하시는 계약들의 수혜자이며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이 "

아들"(마태 11,29; 요한 4,34; 5,30; 6,38)은 하느님과과의 새롭고 더욱 완전한 친교의 중재자요 장본인이 된다. 그의 왕권은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며, 그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의 원천이다(마태 25,31-34; 에페 1,3,10). 이와 달리 루카 복음서 저자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아담"(루카 3,38)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체 조상들의 연속선 상에 배치된다. 유다 백성의 역사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 전체가 인류를 그 첫 기원 때의 광휘로 데려가는 사람의 아들 안에서 완성된다.

64. 복음서의 여러 사화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마르 8,27; 루카 9,20; 요한 1,41), **거룩하신 분**(루카 1,35; 요한 6,69), **하느님의 아들**(마태 14,33; 16,16; 27,54; 마르 1,1)으로 계시하는 분을 다룬다. 우리는 이 설화에서부터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배웠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요한 6,46; 14,7-9)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한 17,3).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세상에 하느님을 계시한다. 왜냐하면 창조주처럼(창세 1,31) 그분도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하셨기"(마르 7,37) 때문이다. 그분 안에 한 피조물이 영원할 수 있는 모든 특질과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에페 3,8; 콜로 2,3)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영적 풍요로움에서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에페 2,7; 참조: 2코린 8,9).

예수님은 참된 **임금**이시고, 원수들의 모든 세력을 굴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요한 10,28; 12,31; 16,33; 히브 2,8). 광야에

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시고(마르 1,13)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 하시니 그것들도 복종하며(마르 1,27) 폭풍 속에서 거친 바다를 잠재우신다(마르 4,39-41). 이런 모습들은 그분의 마지막 승리 때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 준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1코린 15,24-27; 참조: 에페 1,22; 묵시 20,14). 이것은 'adam에게 약속한 지배의 완벽한 실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모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요한 18,36). 사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며(마태 20,15),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1사무 8,10-17). 이와 달리 "좋은 목자"는 자기 형제들을 섬기고(마태 20,18)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요한 10,11.15.18). 예수님에게 임금의 칭호는 십자가 위에서 붙여졌다(요한 19,19-22). 이것이 바로 "숨을 거두시면서"(요한 19,30)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참된 임금의 표상이다. 사실 그분은 빌라도 총독에게 대답하여 선언하신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히브 2,9; 참조: 시편 8,6)고 말한다. 그분은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히브

2,10).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히브 2,11) 사람들에게 지고한 사랑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역동성이 필립 2,8-11의 찬가에서도 입증된다.

65. 놀랍고도 역설적이기도 한 그와 같은 통치 방식은 "영"의 통치 방식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의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통치를 특징짓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주권으로 항상 당신의 피조물을 존중하며 매우 관대하게 통솔하신다(지혜 11,23-26; 12,18). 나자렛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에 의해 "태어나셨다"(마태 1,20; 루카 1,35). 그분의 모든 사명은 그분 위에 내려오시어(마태 3,16) 그분 위에 머무르시는(요한 1,32)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요한 3,6).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지고하게 존중 받는 신적 힘을 가지고 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2코린 3,17). 만약 세상의 군주들이 고압적 힘으로 통치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반대로 당신의 말씀의 은총으로(루카 4,22; 요한 12,32), 자유로운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진리의 겸허한 봉헌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면서 당신의 힘을 행사하신다. 예수님께 자주 인정된 칭호들 가운데 하나는 "스승"(마태 8,19; 19,16; 22,16; 마르 9,17; 루카 7,40; 11,45; 요한 3,10; 11,28; 13,13 등) 또는 "랍비"(마태 26,25.49; 마르 9,5; 10,51; 요한 1,38.49; 4,31 등) 칭호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

특질을 보게 하는데, 그것은 가르침의 환경, 달리 말해 구원하는 진리의 제공에서 조직적으로 표명된다. 그러나 그분은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다(마태 7,28-29; 마르 1,22). 그분의 앎은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요한 6,63; 12,49-50), 따라서 유일무이하고 보편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지혜는 참된 통치자의 지혜이며 하느님의 영을 가진 임금의 지혜이고(이사 11,2; 61,1; 지혜 9,1-4), 생명을 주는 유일한 지혜이다(요한 6,63.68; 지혜 9,18).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도와 주시며(마태 9,35-36; 마르 6,34) 당신의 목소리로 양들을 우리와 목초지로 이끄신다(요한 10,3-4.16).

66. 예수님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루카 24,19) **예언자**의 삶이 될 것이다(마태 21,11; 마르 6,4; 루카 4,24; 7,16; 13,33; 요한 4,19; 6,14; 7,40; 9,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시이며(마태 11,27) 그분의 말씀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결정적이며 완전한 통교를 표현한다. 사람이 되신 그분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분"을 알려 주는 바로 그 "말씀"이다(요한 1,18). "하느님으로부터 성령과 힘으로 축성된"(사도 10,38) 그분은 인간 역사의 영적 정점이시고 모든 기다림의 실현이시다(마태 11,2-6).

성령에 의해 "살아계신 분"이 되신 나자렛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내밀한 원리를 세상에 보여 주실 것이다. 달리 말해 그분은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사도 바오로가 "영광스러운 성령의 직분"(2코린 3,8)이라고 정의한 그분

의 구원 행위의 원천이요 원동력이다. 하느님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며(마르 2,7.10), 하느님처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마르 14,22-24), 하느님처럼 성령을 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다"(요한 20,22). 하느님처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한 10,28).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마르 1,1; 15,39; 로마 1,4; 히브 1,5; 3,6)이시고 "아버지의 외아드님"(요한 1,18)이시며 하느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이"(로마 8,29; 콜로 1,15.18)이심을 증언한다.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시다"(요한 10,30). 바로 이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특히 바오로와 그의 학파에서 발전된 신학 전통은 "하느님의 모상"의 은유를 다시 제안하면서 이 은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이 은유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로마 8,29; 2코린 4,4; 콜로 1,15; 히브 1,3).

하느님의 모상인 그리스도인

67.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완전한 길(마태 19,21), 달리 말해 사랑하는 능력에 있어 하느님 자신을 본보기로 받아들이면서 인간 존재의 충만한 실현을 제시하신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창조 행위 때 기록된 하느님과의 닮음은 여기에서 기정 사실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 자유로운 호소로, 따라서 인간의 책임에 맡겨진 실행으로 제시된다. 다른 한편, 스승은 항상 사랑의 길에서 당신 자신을 본받아야 할 인물로

제시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5),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15,12). "새 계명"(요한 13,34)은 한 사람(예수)에 의해 이미 실천되었다. 단순히 가능할 뿐 아니라(신명 30,11-14), 현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인간 행위에 영감을 불어넣는 원리이며 본받아야 할 명료한 지침이다(1테살 1,9).

왜냐하면 하느님처럼 되는 것, 또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단순히 규정도 아니고,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영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선사되었다. 성령은 오순절에 공동체에게 내려왔다(사도 2,1-4). 믿는 이는 모두 마음속에 아드님의 성령을 받았다(1코린 6,19; 갈라 4,6; 1요한 4,13). 그리하여 믿는 이는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되고(로마 8,29)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며"(2베드 1,4),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요한 1,12; 로마 8,14-17; 1요한 3,1).

은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에게(2사무 7,14; 시편 2,7; 1역대 22,10), 의인에게(지혜 2,16), 그리고 계약의 백성에게(탈출 4,22; 신명 14,1; 예레 31,9,20; 지혜 18,13; 시라 4,10; 로마 9,4) 적용된 "하느님의 아들" 칭호는 믿음과 세례 안에서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녀로 삼으심"(hyiothesia)(로마 8,15; 갈라 4,5; 에페 1,5)을 통하여 구체적 현실이 된다.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도 비슷하다(1코린 15,49):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2코린 3,18).

결론

68. 성서에 관한 글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성서 전통의 주요 공헌은 인간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인간학에서 신성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배제하고, 종교적 관점에 의해 억압된 자율성과 존엄성을 인간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연한 오늘의 모든 문화에 반대된다.

성경은 인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창조주에 관한 필수 **관계**의 요소를 도입하며 위대한 지혜의 행위를 생각하게 한다(시편 119,73). 성경은 무엇보다도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신의 기원이라고 내세우는 순진한 주장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시편 8,5) 생명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원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게 한다. 이 밖에도 성서 전통은 개인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책임의 원칙을 선호한다. 동일한 기원과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1코린 8,6; 1티모 2,4-5). 끝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피조물을 그의 창조주와 비슷하게 하는 "영"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알려진 인

간의 모든 창작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한다.

제2장

동산의 인간 존재

69. 창세 2장의 기본 이야기가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하느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 동산은 하느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꾸미셨다"(창세 2,8). 여기에 사용된 문장을 보면, 그와 같은 목적지의 긍정적 면모들이 즉시 나타난다. 사실 동산은 자연스럽게 풍요와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생각하게 하고, "에덴에 있다"는 장소의 입지는 히브리어 (eden) 용어의 의미 덕분에 환희와 즐거움을 예상하게 한다.

창세 2,8-20의 성서 본문을 주석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세 개의 주요 모티프들이 'adam의 신분을 특징짓는다. 특히 그의 자연적 주거지(시편 115,16)인 땅과 관련하여 그의 과제를 정의한다. 첫 번째 모티프는 **음식**이다. 곧, 인간은 땅에서 매일 자기 실존을 부양하는 것을 **끄집어낸다**. 그런 현실은 성서 전통 전체를 위해 성찰의 자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모티프는 인간 존재의 삶의 생계와 질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받은 유산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

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앞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 역시 당대의 사회적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서는 이와 연관하여 대단히 가치 있는 결정적 기여를 제공한다. 세 번째 모티프는 **인간과 짐승들 사이의 관계**다. 'adam과 동일한 환경에 놓인 이 짐승들은 무엇보다도 음식과 인간의 노동에 기여한다. 이 주제는 분명히 덜 중요하지만 창세 2장의 이야기에서 폭넓게 다루지며, 성서 문학 전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도 거룩한 본문에서 가리키는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소명을 더욱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티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상 인간과 인간의 지상 세계의 관계를 보완하는 표현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각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각기 자체의 고유하고 풍부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특별히 중요한 주제,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금지 명령(창세 2,16-17)은 이와 달리 우리 문헌의 제4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창세 2,8-20

8주 하느님께서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빛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9주 하느님께서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흠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¹⁰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¹¹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¹²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브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¹³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¹⁴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¹⁵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¹⁶그리고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¹⁷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¹⁸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¹⁹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²⁰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70.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창세 1,26-28) 인간의 위대함을 알게 된 후, 성서 본문의 독자는 'adam(창세 2,5)이 아니라, 주 하느님께서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흠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창세 2,9). 이와 같은 문학적 놀라움과 더불어 인간 창조의 본래 행위에서 이미 예견되었으며 이제 땅의 보물들의 제공으로 설명되는 선물의 개념이 강조된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은유가 사용된다. 곧 주 하느님께서는 "옹기장이"에서 "농부"가 되며, 동산의 "주인" 자격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생명이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종류의 재화를 관대하게 내놓으신다. 식량으로 먹도록 나무들에서 과일을 주시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도록 식물들을 조화롭게 하신다(창세 2,9). 그리고 강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며(창세 2,10-14) 그 안에는 값진 광물질들을 감추고 있다(창세 2,11-12). 창세 1장과 비교할 때, "하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실 초점은 "땅"이며 생명을 주는 땅의 풍요로움이다. 그리고 알려진 영토들과 강들의 이름과 더불어 동산의 위치는 에덴이 인간의 책임에 맡겨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71. 기원들에 관한 하느님의 일들의 첫째 의도는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생명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나무의 열매들은 "먹기에 좋은 것들"(창세 2,9)이다. 인간은 "생명의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창세 2,16).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창세 2,17). 그 제한은

하느님의 관대함을 훼손하지도, 인간의 잠재력을 훼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선과 악을 식별해 지혜와 순종으로 하느님의 선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인간의 신분 자체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72. 설화자는 두 번에 걸쳐 주님이 인간을 동산에 두셨다고 말한다(창세 2,8.15). 첫 번째는 하느님의 선물의 질을 높이 평가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adam에게 맡겨진 동산을 일구고 돌보는 일과 관리의 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창세 2,15에서 피조물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한 본문은 두 개의 동사 "데려가다"와 "두다"를 통해 하느님 행위의 특수한 특성을 드러낸다. 동사 "데려가다"(laqah)는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 관계의 기초로서의 하느님의 선택 행위를 표현한다(창세 24,7; 탈출 6,7; 민수 8,16.18; 신명 4,20; 32,11; 여호 24,3; 1열왕 11,37; 에제 17,22; 36,24; 아모 7,15; 호세 11,3 등).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2,15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다(시라 17,12 참조).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본래의 조약은 하느님의 선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계약에서 그러하듯 인간에게는 선택에서부터 그에 적절한 응답의 의무가 생겨난다. 다른 한편, "두다"(nuah)로 번역된 동사는 물질적 정리만을 표현하지 않고 "휴식"의 함의도 가지고 있다(탈출 20,11; 23,12; 이사 14,7; 57,2; 욥 3,13; 에스 9,22; 느헤 9,28에서처럼). 이처럼 에덴 동산은 평화의 분위기로 충만하게 묘사된다.

인간의 과제 역시 두 개의 동사 어근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동

사 어근들은 목적 보어로 여성 대명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창세 2,15; 또한 창세 3,23 참조). 첫 번째 어근('abad)은 일의 본분(이미 창세 2,5에서 표현된)을 표현한다. 이 어근은 노고와 함께 노예의 조건에 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어근(samar)은 "보호"의 용어군에 속한다. 이 어근은 받은 것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강조할 뿐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손상에서 방어해야 할 과제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계의 성서 이야기에는 징벌의 측면이나 인간에 대한 굴욕적 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피조물에게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책임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어근은 각각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탈출 3,12; 4,23; 7,16; 신명 6,13; 10,12 등)와 계명의 준수(창세 17,9-10; 18,19; 26,5; 탈출 12,17; 신명 4,2; 10,13 등)를 가리키기 위해 종교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계약의 역사에서 주님과 주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들은 농경에서 근면하게 일해야 할 본문 안에 이미 예시되어 있다. 복음서의 몇몇 비유들(마태 20,1-7; 21,28)처럼,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순종함을 상징하며, 고된 삶은 우주의 큰 성전에서 "하느님께 하는 봉사"(민수 8,24-26 참조)에 비교할 수 있다.

73. 설화의 새로운 발전은 매우 놀라운 문장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lo' tob)"(창세 2,18)에 표현된 하느님의 확인에 의해 표시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tob)"(창세 1,3,10,12,18,21,25,31)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다시 나오는 창세 1장

의 병행 본문과 비교할 때, 창세 2장에는 또 다른 표현 체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창조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완전한 실현에 이르는가를 보여 주기 위하여 불완전하고 부적당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불완전한 것은 'adam이 "혼자"라는 사실이다. 수식어 "혼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부사적 표현(lebaddo)을 하느님께 적용하면, 유일무이하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표현하지만(탈출 22,19; 1사무 7,3-4; 이사 2,11,17; 시편 72,18; 욥 9,8),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의 고립과 무력함을 표현한다(창세 32,25; 42,38; 2사무 17,2). 이런 이유 때문에 창조주는 'adam을 도우러 오시어 그에게 "도움"('ezer), 또는 "협력자"를 제공하신다(2열왕 14,26; 이사 31,3; 시편 30,11; 욥 29,12; 시라 36,24). 협력자는 땅 위에서 유일한 생명체인 듯 행세하는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과제를 실현하는 데 인간과 협력한다. 창조주께서는 직역하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kenegdo) 될 수 있는 협력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히 표현된다. 창세 2,18.20에만 나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해석되었다. 동물들의 창조로는 적절하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창세 2,20), 동등성과 상호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이 표현이 적용되었다.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문맥, 곧 짐승들을 창조하는 하느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문맥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조주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시적이며 구체적이고 적합한 협력자를 그 앞에 둬으로써 인간을 돕고자 하신다.

74.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용기장이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며 당신의 창조력을 발휘해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 활동의 결과를 제시하신다(창세 2,19). 그리고 우리는 창세 1장과 비교해 또 다른 중요한 설화의 변화를 본다. 첫 이야기에서 당신의 작품들에게 이름을 정해 주고(창세 1,5,8,10) 평가하는 분(창세 1,31)은 창조주이셨지만, 창세 2장에서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고(창세 2,19-20)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적합한지 판단하도록(창세 2,20) 부름을 받은 것은 인간이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지혜로운 식별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할 줄 알고, 집단들과 전체의 위계를 정할 줄 알며, 각각을 유용성에 따라 순위를 분류할 줄 아는 것이다(지혜 7,15-21). 사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는"(1열왕 5,13; 참조: 지혜 7,20) 능력을 가진 것으로 칭송을 받았다. 다음으로, 고대인들은 이름을 붙이는 것을 권한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다. 여기 창세 2장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창세 1,26,28에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로 이미 언급된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피조물들을 알고 말로 표현한다.

이 설화 부분은 인간이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창세 2,20)라는 주장으로 끝난다. 이는 인간을 남자

와 여자로 설정하며 새롭고 결정적인 창조 행위를 연다(창세 2,21-25). 여하튼 이루어진 일의 실현 - 제3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은 주님이 앞에서 행하신 풍요로움을 축소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천사

75. 기원 이야기(창세 1-2장)에는 "천상" 존재들, 즉 하느님의 여좌 옆에서(이사 6,2-3; 마태 18,10; 루카 15,10) 창조주께 찬양 노래를 부르는 이들(시편 148,2; 다니 3,58; 묵시 5,11-13)과 그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이들(시편 103,20-21)의 창조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다. 그 이유는 기원 이야기에서 땅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은 구원을 알리는 사자(여기에서 "천사"라는 이름이 나온다)의 자격으로 성서 역사에서는 자주 언급된다(창세 16,7; 22,11,15; 28,12; 31,11; 탈출 3,2; 14,19; 23,20,23; 마태 1,20; 28,2; 루카 1,26; 2,9,13-14; 사도 12,7; 갈라 3,19; 히브 1,14; 묵시 5,2 등). 그들은 경우에 따라 특별한 자격을 부여 받으며(능품 천사, 세라핌, 주품 천사, 권품 천사 등) 구체적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한다(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인간 피조물은 유익한 그 존재들을 향구하게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존재들을 통해 당신 자녀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시편 91,11-12).

1. 인간을 위한 음식

76.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능

한 한 가장 오랫동안 장수를 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히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항상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음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시편 104,27; 시라 39,26). 오늘날 빈곤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문제는 비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자연 재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권력자들에 의한 폭력과 불공평한 배분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에게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먹는 일은 식도락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음식을 섭취하려는 욕구는 몸에 쓰여 있으며,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강렬한 본능을 배고픔과 목마름의 징후로 드러낸다. 여기에서 피조물은 창조주와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창조주는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l'unico Essere)이며 따라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시편 50,9-13). 풍부한 연회들을 갈망하는 것으로 여겨진 이방인들의 신들(다니 14,1-22)의 모습은 적절하지 않은 신의 모습이다(시편 106,20).

인간의 식량

77. 궁핍한 구조적 조건 때문에 매일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하는 인간은 짐승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많은 요소들이 특수한 방식으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특징짓는다. 무엇보다도 동물들에게는 양식으로 "모든 풀"(창세 1,26)이 주어졌으나, 'adam에게는

창조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창세 1,28). 이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야 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은 땅에서 저절로 나는 생산물뿐 아니라, 노동의 결실로 거둔 생산물로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인간은 오로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계 걸스레 먹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음식물의 맛을 음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음식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맛보기 위하여 지혜롭게 움직인다. 모든 형태의 탐식과 다식증의 표출은 결과적으로 신체 기관을 파괴한다. 동시에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를 위해 해로운 죄악이다(시라 37,29-31).

사실 -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유별난 점을 가지고 있다 - 음식은 인간에게 단지 자연적 필요가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적 인자를 대표한다. 왜냐하면 음식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끌어가는 수레이며 계약과 친교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에게 어울리는 "준비된" 음식을 받으며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듣는다. 한 입 한 입이 다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에 대한 신뢰의 원칙을 발전시킨다. 신뢰는 반복적으로 예고된 사랑을 받아온 경험에 근거한다. 심각한 음식의 무질서를 가리키는 식욕부진증은 사실상 음식의 거부뿐 아니라,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거부감도 표현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인간의 식탁은 통상의 발달 덕분에 다양한 생산물로 풍부해졌으

며 그 질에 있어 영양의 가치와 식품의 맛을 칭송할 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식사 시간을 즐겁게 하는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활력을 주는 음식을 평화롭게 공유하며 함께 먹는다는 사실은 형제적 친교의 특별한 표징이다(1코린 10,17). 이와 반대로 음식의 낭비와 무익한 식도락의 추구로 인한 이기주의적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을 기아로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빈곤한 이가 문 앞에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연회를 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단죄받을 만하다(루카 16,19-21; 참조: 시라 34,25-27). 사실 연회는 환대 속에서, 공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칭찬받을 수 있다.

끝으로, 마지막 요소는 사람들의 삶에서 음식을 특징짓는다. 상징적 차원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양식에 영적 의미를 줄 수 있다. 쪼개진 빵은 계약의 표지가 되며 제대 위에서 희생된 어린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자기 자신들의 예물로 여겨진다.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굶주림을 표현하는 것이며, 영혼이 더욱 갈망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질이 좋은 음료에 비교된다(이사 55,2; 시편 119,103; 잠언 9,3-6). 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가?

이 요약적 언급은 성경이 인간의 삶에서 음식에 관해 우리에게 주는 복잡한 메시지를 받아들일도록 준비시킨다.

하느님의 선물인 음식

78. 기원 때 있었던 사건들을 증언하는 성서의 첫 부분에서 음

식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향구하게 주시는 것으로 제시된다(창세 1,29-30; 또한 시편 104,14도 참조). 그리고 생명체들을 부양하는 식물성 음식들은 그들 사이의 평화의 차원을 상기시킨다(이사 11,7; 35,9; 65,25). 그러므로 주님의 태초의 축복은 생명을 위한 양식을 보장해 주는 아버지다운 행위로 표현된다(창세 1,29; 레위 26,3-5; 신명 28,2-5.8,11-12; 마태 6,26-32). 그리하여 이 보편적이고 영구한 **선물**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인간은 양식의 선물을 감사 기도를 바치는 최고의 이유로 여긴다(시편 136,25-26).

그러나 그 후에 이야기되는 역사는 같은 토라 안에서 언뜻 보기에 하느님의 너그러운 관용을 부정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특히 기근과 양식의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설화에서 계속되는 세 순간은 주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안녕을 위하여 음식을 "관리"하신다("선사되었을" 뿐 아니라)는 것을 독자에게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

79. 첫 번째 순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순간이다. 선조들은 금지된 나무 열매에 관한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다(창세 3,6).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 양식을 얻기 위하여 고통과 노고를 지불해야 한다(창세 3,17-19). 이와 유사하게, 카인이 형제를 살해한 뒤에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땅은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창세 4,12). 이 기원 이야기들은 밭이 황폐해지는 것은 죄 때문에 비롯된 하느님의 저주의 표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인지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으로 여겨진다(레위 26,16.20.26; 신명 28,16-18.22-24.30; 29,21-22). 특

히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기근의 현상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연결한다(1열왕 17,1; 이사 5,5-6; 예레 3,24; 예제 4,16-17; 호세 2,11,14; 8,7; 요엘 1,7,10-12,15-20; 아모 4,6; 7,4; 하까 1,6; 2,17).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신다. 사실 하나님이 잠시 자비를 거두시는 것은 마음의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호세 2,8-9). 그 다음에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신명 30,8-9; 말라 3,10), 그때에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선하심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80. 토라의 두 번째 이야기군은 성조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창세 12,2-3)이 가뭄과 기근 현상을 반복해서 경험하지만(창세 12,10; 26,1; 41,30-31,36) 그것을 그들의 잘못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관습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다른 해석의 열쇠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원의 부족을 징벌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 사람들을 위해 펼쳐진 지혜와 자비의 기회로 이해하게 된다. 성조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다(창세 12,10; 42,1-2; 47,4). 이 이방인의 땅의 주민들 - 창세 12,3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 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면 해를 입히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창세 12,17). 아브라함 자신이 그와 같은 구원 "경륜"의 원조이다. 그는 길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의 환대 때문에 그의 장막은 예기치 않은 풍요의 장소가 된다(창세 18,1-16). 특히 요셉에게 있는 일에서 볼

행한 상황이 어떻게 좋은 행복의 기회로 발뭇 수 있는지 본보기적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현인은 번영의 시기를 잘 이용하여 궁핍한 때를 준비할 줄 안다(창세 41,28-31,36; 시라 18,25). 그는 용의주도한 지혜로 소비를 절약하고 곡물을 보관함으로써 가정과 국가의 역사에서 "섭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밖에 곡물을 넉넉히 저장해 둔 사람은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그의 창고를 열어야 한다(창세 41,56). 그러므로 궁핍은 저주가 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요인이 되며 자비로운 이들의 정의를 통해 행복이 피어나는 것을 표현해 준다.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러한 특수한 책임은 성서의 독자에게 항구한 생명의 계획으로 전해진다(이사 58,7; 2열대 28,15; 잠언 25,21; 시라 4,1-6; 토빗 1,17; 마태 25,35-36; 로마 12,20).

81. 오경의 중요한 세 번째 설화 단락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배고픔을 체험하고(탈출 16,3; 신명 8,3), 경작한 땅의 소출로 얻은 맛있는 음식들이 없어 고통을 받는 부분이다(민수 11,5; 20,5).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음식에 관한 메시지는 여기서 세 가지 상이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광야 시기에 부여한 상징적 가치 때문에 세 메시지가 모두 중요하다. (1) 무엇보다도 삭막한 광야에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계속 주장한다. 여기서 죄는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좋은 땅을 거절한 것(신명 1,35)과 모세의 카리스마적 인도에 반기를 든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황량함"을 경험할 때마다 회개의 길을 걷도록 권장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탈출 3,8.17; 13,5; 33,3; 신명 8,7-10; 32,13-14). (2) 그러나 그 긴 궁핍의 조건 아래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오는 지속적 **섭리**를 경험하였다(신명 29,4-5; 느헤 9,20-21).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의 기적(탈출 17,5-6; 민수 20,11; 신명 8,15)과 특히 만나의 선물(탈출 16,4.16-21; 신명 8,3.16), 곧 매일의 양식(탈출 16,35)을 주셨다. 매일의 양식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탈출 16,4.16-21; 시편 78,23-25; 105,40; 지혜 16,20)을 모아 들여 요리만 하면 되도록 배포되었다(탈출 16,4; 민수 11,8). 성서 설화자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궁핍한 바로 그 어려운 순간들에 그런 사건을 상기시켰다. 생명의 아버지께서는 굶주린 군중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실 것이며(시편 33,19; 107,4-9; 이사 49,10)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하신다(시편 146,7). (3) 신명기는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아듣도록 도와 주려는 한결같은 의도에서 광야의 시기를 회상하며 새로운 성찰의 요소를 덧붙인다. 모세는 광야가 **시험**의 시기라고 말한다(신명 8,2). 광야의 시기는 단순히 징벌의 시기가 아니며, 예기치 않던 하늘의 지원의 기적이 나타나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굶주림"에서 출발하여(신명 8,3) 식별하고(신명 8,2) "이해하며"(신명 8,3.5; 29,5) 결정하도록 요청받는 교육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부정적이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생명과 하느님에 관해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달리 말해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

시려는 것이었다"(신명 8,3; 마태 4,4). 육체에 불쾌감을 초래하는 굶주림이 "마음"에 놀라운 기회가 된다(신명 8,2,5). 그 기회는 존재하는 것의 충만한 의미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지상의 음식으로 지탱되는 생물학적 기능만으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 생명은 사실상 하느님께 있으며(신명 30,20) 인간을 먹여 살리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지혜 16,26).

82. 이 노선에서 우리는 주님과 계약 의식이 **신성한 식사**에서 더욱 중요한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탈출 24,9-11). 하느님 앞에서 먹는 축성된 음식에는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친교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리고 시나이 계약의 근거가 되는 사건을 기억하는 데에는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일상의 음식과 연결된 다양한 상징 행위들이 접목되어 있다. 만약 생명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역설적으로 신앙인은 단식을 할 수도 있다. 신앙인은 참회 행위로서는 물론, 기도와 토라와 일치하는 기회로, 삶의 무진장한 샘은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순간으로도 단식할 수 있다. 또한 이 믿음의 중심에서 출발해 신앙인은 주기적으로 빵과 경작한 땅에서 나는 많은 소출들을 극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극기하는 것은 모든 선을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 행위로서 그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다(탈출 22,28-29; 23,19; 34,26; 레위 27,30). 또는 빈곤한 이들, 레위인, 과부, 고아, 이주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 때문이다(신명 14,22-27; 16,11; 18,4; 26,11).

83.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탈출

23,19; 34,26; 신명 14,21)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금지 사항들(창세 9,4; 탈출 22,30; 레위 10,8-11; 11,1-47; 20, 25-26; 신명 12,16; 14,3-21)과 같은 **제한 규정들**까지도 백성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 행위로 여겨질 것이다(레위 11,44-45; 신명 14,2,21).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며, 하나님의 규정(여러 가지 이유에서 명하는)에 대한 순종 안에서만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의 궁중 식당의 음식과 음료를 거부하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다른 젊은이들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을" 뿐 아니라,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열 배나 더 나은 지혜의 선물을 받았다(다니 1,8-21). 사실 인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전례없이 풍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주요 문화에 동화될 위험을 겪는 시기에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유대 백성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데에 큰 파장을 겪었다.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의식 규정들의 준수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율권을 잃어버렸을 때나 유배 때(다니 1,8-21 외에 위에 인용한 토빗 1,10-11; 유딧 10,5; 12,1-9,19; 에스 4,17x-y) 증명된다. 마카베오기에서 돼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순교의 동기가 된다(2마카 6,8-9,18-31; 7,1-42).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다

84.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하늘 아래" 인간에게 살도록 주어진 것을 고려하고 평가하면서(코헬 1,13; 2,3) 하느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 기본적인 음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시라 29,21; 30,25; 39,26). 코헬렛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코헬 3,12-13; 또한 코헬 2,24; 5,17-18; 8,15; 9,7 참조). 먹고 마시는 것 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소들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전망은 너무 편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헬렛이 지적하는 것은, 식사가 인간의 삶에서 자신의 일의 결실을 맛보는 것인 동시에 하느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기본적이고 상징적 가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85. 그러나 음식이 인간학적 중심을 차지한다고 해서 음식을 부적절하게 예찬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인들은 먹는데 있어 **절제하는** 건강한 원칙을 지적한다(잠언 23,1-3.20-21; 39,8-9; 코헬 10,16-17; 시라 31,16-21; 37,27-31). 현인들은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뱉어 버리게 된다"(잠언 25,16)라는 잠언에 충실하다. 음주로 취하고 혼미 상태와 싸움이 되지 않도록 술(또는 다른 알콜 음료들) - 술이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판관 9,13; 이사 24,9; 시편 104,15; 코헬 10,9; 시라 31,27; 40,20) - 은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잠언

20,1; 31,4-5; 시라 31,25,27-30; 토빗 4,15):

누가 비탄에 젖어 있느냐?

누가 애통해하느냐?

누가 싸움질하였느냐?

누가 원망하느냐?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었느냐?

누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느냐?

늦도록 술자리를 뜰 줄 모르는 자들

혼합주를 맛보러 온 자들이다.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네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잠언 23,29-33).

잠언의 저자는 "선한(tob) 길"(잠언 2,9)을 제시하려는 의도에
서 자신의 평가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그는 입의 쾌락
을 상대화하고 평온과 평화의 가치를 선호한다. 평온과 평화가 없
으면 연회 자체가 재미 없게 된다: "사랑 어린 푸성귀 음식이 미움
섞인 살진 황소 고기보다 낫다(tob)"(잠언 15,17), "편안하게 먹는
마른 빵 한 조각이 불화 섞인 잔치 음식으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
(tob)"(잠언 17,1).

더 나아가 현인은 자기 식탁에서 맛있게 먹는 음식이 정의와 관대함의 결과일 때(욥 31,17; 잠언 23,6-8; 28,27; 시라 4,1-6; 지혜 2,1,6-11),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에게서 착취한 것이 아닐 때(잠언 13,23; 22,9; 시라 34,25), 참으로 그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86. 이스라엘의 지혜가 절정에 도달하는 또 다른 단계는 생명을 주고 성장하게 하며 기쁨을 주는 음식은 풍성하고 맛있고 영양가는 많지만 지상이 음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다(시라 15,3). 우리가 잠언 24,13-14에서 읽는 바에 따르면, 꿀은 인간에게 주어진 맛있고 참된 선물의 상징적 암호일 뿐이다: "내 아들이, 꿀은 좋은(tob) 것이니 먹어라. 송이 꿀도 입에 달다. 지혜도 네 영혼에 그러함을 알아라". 사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활력과 힘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영적 음식으로 입에 넣어 주는 하느님의 말씀이다(지혜 16,26; 또한 예제 3,3 참조). 그러므로 인격화된 지혜는 목소리를 높여 자기가 준비한 연회에 초대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잠언 9,5-6).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이.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시라 24,19-21).

물질적 음식은 굶주림을 가라앉히지만, 지혜의 양식은 무한한 동화의 과정 안에서 기쁨을 얻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염원을 자극한다(시라 24,21; 지 6,17). 음식이 생명을 연장하지만, 지혜는 자신을 통교하면서 불멸을 선사한다(지혜 8,13,17).

생명의 염원: 지상의 음식에서 영적 영양분까지

87. 믿는 이는 기도 중에 자기의 실존을 부양하는 재화들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동시에 그는 생명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충만하게 채워 주는 영적 선물을 하느님께 청한다.

감사하는 찬양

시편집에서 기도의 첫째 가는 기본적 차원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지속적이며 보편적으로 음식을 주시는 창조주이며 섭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기쁜 기억으로 되어 있다(사도 14,17 참조). 시편 104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느님의 업적을 명상하면서 터져 나온다. 하느님은 기원의 이적을 실현하시면서 짐승들과 특히 인간을 부양하시기 위하여 식물들을 영원히 자라나게 하신다:

당신의 거처에서 산에 물을 대시니

당신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릅니다.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가꾸도록 나물을 돋게 하시어
 땅에서 빵을,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얻게 하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윤기나게 하십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는 빵을 주십니다(시편 104,13-15).

창세 2장에서처럼 창조주는 농경 활동으로 인해 찬양을 받는다(시편 65,10-11). 그리하여 기도자들은 "가축에게도, 우짚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시며"(시편 147,9) 당신 자녀들을 "기름진 밀로 배불리시는"(시편 147,14) 그분을 향구하게 찬미한다(시편 104,1,35).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육신에게 빵을 주시고"(시편 136,25) 굶주린 이들을 도와 주시며(시편 107,15-6,9;146,7; 참조: 1사무 2,5),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시기 때문이다(시편 132,15).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바치시는(마르 6,41; 루카 24,30)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델이 되신다.

영적 양식을 주시기를 탄원함

88. 시편집에는 빵을 얻기 위한 탄원은 많지 않다. 청원은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시편 144,13).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열광적으로 인지하는 데에 포괄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랍니다,

제때에 먹이를 주시기를.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모아들이고

당신 손을 벌리시면 그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립니다(시편 104,27-28; 또한 시편 33,18-19; 145,16 참조).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양 떼을 열심히 돌보는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이 풍성한 풀이 있는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고(시편 23,2), 집 주인이 그러하듯이 손님들을 위하여 상을 차리시고 그들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며 모두의 술잔을 가득 채워 주신다(시편 23,5).

그러나 기도는 염원이다. 그리고 인간의 염원은 죽어야 할 육신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배부름과 충만한 생명에 대한 열망은 커지며 지혜 전통에 의지하면서 영적 선물을 향해, 하느님 자신을 향해, 하느님의 말씀과 현존을 향해 탄원의 방향을 돌린다. 고통을 받는 사람, 빵 대신 눈물을 삼키는 사람(시편 42,4; 102,10)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을 수 있겠습니까?"(시편 42,3);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시편 63,2). 기쁨을 주는 것은 충만한 은총이지,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다(시편 4,8; 63,4,6; 65,5).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도와 주실 것

을 배제하지 않고, 반대로 영적 성격의 음식을 기대하도록 해 줄 것이다: "아침에 당신의 자애(hesed)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시편 90,14).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청하도록 가르치시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염원을 열어 주신다. 그리하여 신앙인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는 아들의 조건이 실현된다.

예언자들은 나눔에 초대하며 종말론적 연회를 예고한다

89. 풍부한 **예언 문학**은 토라에서 제공된 사항들을 다시 받아들여 구체적인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에서 현실화시킨다. 예언 문학은 세속적인 지혜 전통들에서 제안하는 사항들도 받아들이지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단호한 하느님의 심판에 예속된 현상들로 받아들인다.

양식의 특수한 주제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가지 문학 양태를 구분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주님의 구원 행위들이 드러나는 성서 **이야기**(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 하권까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예언 신탁들**(이사야 예언서부터 말라키서까지)이 있다. 예언 신탁들에서 정의가 없는 호화로운 향연의 죄가 고발되며, 특히 예언 문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약속된 종말론적 연회의 기쁜 예고가 올려퍼진다.

예언 이야기

90. 모든 시작이 다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었

던 일은 일찌기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탈출 19,5)이 당신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분명하게 표시되었다. 그분은 특별한 기쁨의 상징인 "붉은 포도로 빛은 술"(신명 32,14)이 생산되는 포도밭으로 특장지워진(민수 13,23-24; 여호 24,13) 모든 종류의 자원들로 풍부한 "좋은(tobah) 땅"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붉은 밀을 먹은 것이다"(여호 5,11-12). 그리하여 그들은 만나를 먹는 간소한 생활을 마감하였다. 신명기 전통에 따르면, 하느님의 백성은 수고하지 않으며(신명 6,11; 여호 24,13) 공덕을 쌓지 않으면서도(신명 9,4-6) 새로운 예테를 유산으로 받기까지 하였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를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샘이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땅이다[창세 2,10-14 참조]. 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곳은 너희가 모자람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며[창세 2,9 참조], 돌이 곧 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창세 2,11-12].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신명 8,7-10)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노래에서 말한 바와 같이 - 계약의 백성의 전체 역사를 예언적으로 한정하는 - 이스라엘은 "살이 찢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구원의 바위이신 분을 업신여겼다"(신명 32,15; 참조: 예레 2,7; 5,7).

풍요로움과 배부름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충실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실제로 망각과 반역으로 이끌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게 된다(신명 32,23-25).

91.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일의 중심에 하느님이 존재하시며, 은밀하면서도 정확하고 본보기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시므로써 당신의 충실성을 드러내신다. 그것은 엘리야의 예언군에 본보기로 예시되어 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야기된 기근이 들었을 때, 오로지 주님께만 의존해야 한다고 열광적으로 주장하는 "하느님의 사람"(1열왕 17,18)은 기적적으로 부양되었다. 먼저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 와서"(1열왕 17,6) 그것을 먹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사렙타의 한 과부가 준비한 "빵 한 조각"을 먹었다(1열왕 17,7-16). 끝으로 광야로 도망가던 예언자는 천사가 가져온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을 먹었다(1열왕 19,5-8). 이 이야기들을 하느님의 선물의 계시로 이해하면,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교훈적 미담들로 그칠 수 없다. 여기서 하느님의 선물은 예언자에게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마태 10,41)이기 때문이다. 집안 식구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기적으로 많아진(1열왕 17,15; 또한 2열왕 4,42-44 참조), 과부가 가진 한 줌의 밀가루는 사실상 역사 안에서 세상의 기원 때 창조주가 쏟아부은 축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창조주는 기적으로 많은 "결실들"을 생산하는 잠재력을 "씨앗"(식물과 동물)에

부여하였다(요한 12,24).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느님 자신의 모습인 순례자를 받아들일 때에만(창세 18,1-10; 마태 25,35 참조)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예언 말씀

92.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언자들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죄를 고발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 준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연관하여 생각할 때, 그 잘못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부유한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예속민들을 돌보지 않으며 생각 없이 연회를 열고 폭음을 일삼는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려 가는구나 [...].
너희가 재앙의 날은 밀어내려 하면서도
폭정은 끌어당기는구나.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짚은 노래를 불러 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아모 6,1,3-6).

93. 아모스의 이 생생한 풍자적 묘사는 다른 예언자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특히 포도주의 남용(이사 5,11-12,22; 28,1,7-8; 호세 4,11; 7,5)을 한탄한다. 그것은 거의 치명적으로 정의의 행위에 대한 무관심(이사 5,23; 참조: 잠언 31,4-5)과 모든 은사적 선물의 비하(아모 2,12; 미카 2,11)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는 것은 단순히 비난 받을 만큼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가난한 군중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실을 훨씬 더 비난한다(예레 5,28). 왜냐하면 권력자들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동족의 살이기 때문이다(이사 56,11; 예제 22,27; 34,3,10; 즈카 11,5; 시편 14,4; 잠언 28,15):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공정을 바로 아는 것이 너희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갓을 벗겨 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갓을 벗기며

그 뼈를 바순다.

내 백성을 냄비에 든 살코기처럼,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잘게 썬다(미카 3,1-3).

예언자들의 고발에는 밭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이사 5,10; 24,7-9; 호세 2,11; 아모 4,6)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이사 5,5-6)는 경고가 포함된다. 예언자들은 품위있는 절제를 통해서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과 나누는(이사 58,6-7; 예제 18,7,16)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이사 1,17) 삶의 변화를 촉구하려고 한다.

94. 예언자들이 보완적으로 요구하는 또 다른 사항은 무익하고 (예레 2,8) 유해한 우상 숭배 - 왜냐하면 우상들은 주지 않고 "삼켜 버리기"(예레 3,24) 때문에 - 를 버리고, 유일하게 근본적인 재물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지혜 형식을 취하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이사 55,1-3).

예언 전통의 정점을 이루는 결정적인 큰 약속들은 풍부하고 유익하며 항구하고 즐거운 선물 형태를 취하는 때가 많다(이사 1,19; 7,22; 30,23-25; 65,13; 요엘 2,23-26 등). 아모스는 "밭 가는 이가 거두는 이를 만나고"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리라"라고 약속하고, 호세야는 땅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준다(호세 2,24; 14,8)고 말하면서 이를 증언한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이사 25,6)라고 예고한다. 그것은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릴 수 있는 참 생명의 음식이다(이사 25,8). 예레미야는 포도밭의 복원(예레 31,5,12)과 계약의 백성을 위한 배부름(예레 31,14)을 예언하고, 예제키엘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혜택을 생각해 낼 것이다. 그 물은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열매는 항상 잘 익고 잎은 약이 되게 한다(에제 47,12; 또한 에제 36,29-30 참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에덴과 완전한 양식은 사실상 말씀의 파견(이사 55,1-3,10-11; 에제 3,1-3; 예레 15,16; 아모 8,11-12), 구원의 정의(이사 61,11; 즈카 8,17; 시편 85,11-13),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마태 5,6) 충만한 생명이며 주님의 현존 자체의 상징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빵

95. 복음서 저자들은 나자렛 예수님을 대 예언자로뿐 아니라(마태 21,11; 루카 7,16; 13,33; 24,19; 요한 4,19; 7,40; 9,17), 무엇보다도 모든 예언 말씀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제시한다(마

태 1,22; 4,14; 5,17; 8,17; 12,17; 26,56; 루카 4,21; 요한 1,45; 6,14; 12,38; 참조: 사도 3,18.21.24 등). 이는 양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승은 양식을 자주 당신의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옛 성경을 증언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완성의 새로움을 예고하신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하신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당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신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마태 6,25-26).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루카 12,29-30). 애틀 태우는 걱정은 신뢰 가득한 기도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승은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루카 11,2-3; 마태 6,9.11).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

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태 7,8-11).

96. 그러므로 불안하게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청해야 한다. 주님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도 역설적 지혜 조언으로 덧붙이신다. 사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읽는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린다"(마태 6,19). 왜냐하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기"(루카 12,15) 때문이다. 지혜로운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지 않고 "주님 곁에" 모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많은 소출을 거두고 수확한 것을 모아 두기 위하여 새로운 곳간들을 지을 계획을 세우지만 바로 그날 저녁에 죽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신다(루카 12,16-21; 참조: 시편 39,7; 49,14-15; 시라 11,18-19).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란" 가난한 라자로를 돌보지 않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유복한 사람의 또 다른 비유(루카 16,19-31)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유일한 생명의 길인 "나눔"에 초대하려고 한다(루카 3,11 참조). 끝으로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라고 지적하게 될 것이

다(마태 25,34-35).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마태 10,42)임을 상기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적 지혜의 형태에 따르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마저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초대하실 때(마르 10,17-22), 주라는 호소는 복음에서 그 범위가 가장 크게 확장된다.

충만한 생명의 길과 일치하는 완전함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행위로 내주는 데 있다.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완전한 내쫓음의 성사적 상징은 먹을 빵과 마실 포도주의 봉헌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마태 26,26-28).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예시되었다(마태 14,13-21; 15,32-38). 이것은 굶주린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마태 15,32),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초대하는 표지이다(마태 14,16).

종교 의식에서 음식

97.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세계에서 식사가 전례 의식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로도 이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중요한 새로운 측면으로 받아들였다.

스승의 첫 번째 입장은 규범적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유대의 규칙을 극복하는 것이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

는 그리스도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셨다"(마르 7,19)고 말한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으며, 악의와 방탕과 같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마르 7,18-23). 베드로가 모세의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먹으라는 초대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 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사화는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거나 불결하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증언한다(사도 10,15). 그리스도교 전통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음식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1티모 4,3-5). 그러면서 더 이상 음식에 관한 의식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비롭게 희생하는(루카 11,41) 좋은 품행으로 "거룩함"을 표현한다(신명 14,2-3 참조).

복음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새로운 분야는 단식의 실천이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지낸 세례자 요한(마태 3,4; 마르 1,6)은 그 당시(그리고 그 후에도) 엄격함과 절제로 본받아야 할 모범적 종교 생활의 이상으로 여겨졌다(마태 9,14).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다시 받아들여 공생활의 초기를 광야에서 보내신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다(마태 4,4; 루카 4,4).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는 이와 달리 다른 형태의 삶을 사신다. 당대의 열광적인 사람들(과 "위선자들")은 "먹고 마시며"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비판을 받았다(마태 9,11; 11,19; 루카 7,34). 그러나 신랑의 현존과 동일시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현재의 구원의 고대와 기쁨의 목적을 가리켜 주는 혁신적 표지를 요구하였다(마

태 9,15-17; 요한 2,1-11).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구원 받은 이들이 종말론적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셨다. 종말론적 잔치는 예언자들에 의해 예고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역사의 결정적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마태 8,11; 22,1-10; 루카 14,15-24; 또한 묵시 19,7; 21,6 참조).

잔치가 단순히 감각적 만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스승은 연회석에서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리켜 주신다. 잔치는 마음의 관대함을 표현할 때에만 건전하다. 사실 잔치에는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루카 14,12-14). 또한 혼인 잔치에서는 끝자리를 선택하며 겸허하게 처신해야 한다(루카 14,7-11; 참조: 마태 23,6). 끝으로, 역설적으로 말해, 봉사하는 태도로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을 본보기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22,27; 참조: 요한 13,1-17).

98.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더욱 중요한 새로움은 당신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는 것과 일치하여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데에서 실현되는 당신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는 새로움이다(마태 26,26-29). 사실 성체 성사에서 해방과 생명의 파스카를 경축하는 새로운 방식이 규정되었다. 곧, 이제 더 이상 어린양의 피와 살이 아니라, 한편으로 기원의 평화로운 음식의 표지를 재생하며(창

세 1,29),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의 완전한 구원의 제물 덕분에 옛 계약의 피의 제사를 종식하는 피가 흐르지 않는 의식으로 경축한다(히브 9,12-14).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만, 빵을 쪄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수한 의식의 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성사이며 합법적인 형제적 친교의 실현으로서 그들의 신분을 식별하는 성사가 될 것이다.

영적 양식

99. 식품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잡수십시오"(요한 4,31).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2,34). 주님은 청중에게 매일의 양식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으셨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그리고 예수님은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며 걱정하는 마르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다(루카 10,38-42). 고대 지혜 전통에서 예상하였던 것처럼,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무엇이 참으로 생명의 음식인가를 묻고 찾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초대받았다(루카 14,15-24 참조).

빵의 "표징"(마태 14,13-21; 15,32-39)에서 빵이 의도하는 "실재"로 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마르 8,14-21). 이런 이유 때문

에 주님은 기적으로 많아진 빵을 먹은 사람들이 완전히 만족하였다고 + 군중을 질책하시며(요한 6,2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요한 6,27).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제공된 양식은 성체성사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 영이며 생명인(요한 6,63) - 과 자신의 완전한 사랑의 봉헌(요한 6,51-57)을 받아들이는 "표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서 저자 마태오는 "의로움에 주린 사람들"(마태 5,6)의 행복을 선언할 것이다. 약속된 배부름은 주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에 기쁘게 동화되는 데에서 실현되는 바로 그것이다(요한 6,35)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 안에서 양식

100.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에 대해 말하는 성서 본문들(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들)을 읽을 때, 두 개의 주요 측면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측면은 물질적 양식과 정의 및 사랑의 행위와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측면은 신성한 의식들의 측면들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믿음과 사랑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힌다.

필요에서

역사 안에서 자주 일어나듯이, 초기 교회의 공동체에도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운 상황들 외에도 결핍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

하여 "굶주린 이들"을 돕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계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식탁 봉사"의 직무를 만들기로 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 일곱"을 뽑아 그들에게 직무를 맡겼다(사도 6,1-3). 그렇게 해서 교회 조직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항구한 직무를 갖게 되었다. 그후 예루살렘의 공동체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바오로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당한 기금을 모금하기를 요청하였다(사도 24,17; 로마 15,25-28; 1코린 16,1; 2코린 8-9; 갈라 2,10).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의 줄기에 접목된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영적 은혜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였다(로마 15,27).

사실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간에서 가르치듯이,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 선행들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첫째 선행이다(야고 2,14-17).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형제들 사이의 친교(koinonia)의 요인이 된다. 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바와 같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koina) 소유하였다 [...].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사도 4,32.34-35; 또한 사도 2,44-45 참조). 여기에서 다양한 역사

시기에 적합한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서 실현된 - 하느님 나라의 도래의 표징으로 - 이상적인 형제애(신명 15,4 참조)가 드러난다.

공동체 식사

101. (믿음의) 형제들 사이의 친교는 같은 식탁에 앉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첫 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각기 특정한 요구나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 문화들로 인해서 문제와 분쟁이 생겨났다.

첫 번째 중요한 난관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들은 특히 부정한 음식에 관한 모세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의회를 개최한 결과, 유다인들의 법에서 요구하는 의식 규정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형제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에게는 단지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porneia)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한다"(사도 15,20,29)고 요구하였다. 노아에게 주어진 계명(창세 9,4)과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정해진 규정들(레위 17,7-14)에 근거하여 모든 이에게 같은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일종의 타협 - 근본적인 종교 및 윤리적 의무들을 더러 보 존하면서 - 이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문제들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형제의 요구를 고려하며 전통적인 우연적 실천(콜로 2,22-23 참조) 또는 개인의 자유의 표현(1코린 10,23)을 사랑으로

포기한다는 원칙 - 성령에 의해 제안된(사도 15,28) - 은 항상 유효하게 남아 있다.

바오로는 이것을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이론화하였다. 그 상황은 역시 공동 식사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 달리 말해 이방 신들에게 봉헌된 제사에서 가져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사도는 그런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길게 토론한다(로마 14,1-15,13; 1코린 8,1-23; 10,14-33). 이와 같은 표징은 이론적 어려움에 관한 것이거나 형제적 일치에서의 탈선에 관한 것이다. 바오로의 논증을 종합하면, 우리는 자유의 원칙이 그 자체로 합법적이고 당연하다 하더라도(콜로 2,16-17; 1티모 4,3; 히브 9,10; 13,9), "약한" 형제(스스로 벗어날 줄 모르는 관습에 얽매어 있는 한)에게 애정 어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1코린 8,11),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1코린 8,13). "강한 자"의 자유가 이처럼 사랑의 봉사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1코린 10,31-33).

102.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신성한 의식에서 먹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참 표징(마태 26,26; 루카 24,35; 1코린 11,24)이며 그분과 형제들과의 친교의 표징(사도 2,42.46; 20,7.11)인 "쪼개진 빵"이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 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만찬"을 변질시키는 분열을 거슬러 일어난다(1코린 11,20). 그들이 먹는 공동체의 식사에서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한다"(1코린 11,21). 그와 같은 현실은 거행하고 있는 신비에 반대된다(1코린 11,25). 따라서 형제와의 나눔의 요구를 거부하는 자는 주님의 생명 자체에 의해 부양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1코린 11,29).

끝으로 우리는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을 묘사하는 첫 요약에서 쪼개진 빵을 먹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인내롭게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덧붙여야 한다(사도 2,42). 그밖에 이 가르침은 (영적) 음식에 비교된다(1티모 4,6). 그 음식은 신앙의 초기 첫 단계들의 경우에는 젓과 같으며, 그 다음에는 성장한 사람에게 필요한 단단한 음식과 같다(1코린 3,1-2; 히브 5,12-13; 1베드 2,2). 여기에서 성서 전체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참 생명을 주는 음식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실제로는 하느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한다(1코린 10,3-4).

2. 인간에게 맡겨진 일의 과제

103. 성경에서 양식의 모티프는 주로 **하느님의 선물**과 연결되어 있다(창세 1,29-30 참조). 이와 달리 일(창세 2,15)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인간의 활동**을 강조한다. 창세 2,15에서 일을 해야 할 책임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목적("일구고 돌보도록")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가?"에 관해 묻는 성서의 독자는 'adam이 놓인 땅을 **일구고 돌보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노동하는 인간

104. 노동이 일종의 단죄이며 따라서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생각이 대단히 널리 유포되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창세 3,17-19). 노동이 본래 어떤 노고(창세 3,17,19; 5,29)와 노예상태(욥 7,1-2)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특히 수공업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불의한 노동 조건이 있을 때에는 더욱 가중된다(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라). 그러나 성경에서 'adam이 죄를 짓기 전에 그에게 과제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특히 그런 사명을 받기 전에 장인이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질을 손에 잡은 것처럼 "좋은"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의 행위들이 있었다(창세 1,4.10.12.18.21.25.31; 2,9.12). 인간들은 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동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면서(사도 17,25 참조), 하느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며 봉사하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실 창세 1-2장의

이야기에서 창조주는 아들에게 올바른 행동 방법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제시된다(요한 5,19-20 참조). 그리하여 피조물은 유사하게 행동하여 자기를 창조한 그분을 닮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하느님은 활동하시면서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피조물은 지치고 피곤하다(이사 40,28-30). 또한 창조주는 당신의 계획의 결과를 곧바로 얻지만(이사 48,3; 예제 12,25; 시편 33,9), 인간은 자기의 과제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마르 4,27-29 참조). 이 중요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행할 "능력"이 주어졌고, "선"을 생산하여 동일한 창조가 이른바 하느님의 아들의 순종에 의해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에서의 실직과 불안정은, 중대한 사회적 무질서의 요인이 되는 것 외에도, 인간의 보편적 소명, 곧 모든 이의 삶에 협력해야 할 각자의 선물과 의무와 어긋난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느님을 모방하는 것은 순수하게 활동의 측면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창조 행위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진 지혜와 사랑의 요소들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예레 10,12; 51,15; 시편 104,24; 136,5; 잠언 3,19-20; 8,22-31). 사실 성경에서 장려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의 좋은 의도다. 그러므로 유순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지혜의 영(지혜 7,22-23)은 인간의 일에서, 특히 다양한 직업과 역사 안에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지능적 창의성을 칭송하는 여러 종류의 직종들에서 드러날 것이다(1코린 12,7-11 참조).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진

선의 영은 인간의 활동이 세세대대로 자자손손 생명의 결실이 되게 해 줄 것이다.

105. 사실 모든 일은 본디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다. 하느님의 창조에서 그러하듯이, 이는 작업에는 등급이 있고 질서에 따른 배열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의 창조에서 모든 것이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며(창세 1장),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속되는 것과 연관하여 이루어진다(창세 2장). 인간에게 있어, 그것은 인간의 생산 활동이 조직되어야 하며(잠언 24,27) 많은 경우 역사 무대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과 - 의식적으로 협력하여 -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양도"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들의 유산으로 받은 수혜자에게 거저 주는 유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사실 잠언은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요한 4,37)라고 말한다. 하느님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시듯이, 이처럼 각 노동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한다.

이는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일을 했을 때, 일에 대한 "급여"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유용한 일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어야 한다(시라 38,32 참조).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다. 어떤 일을 위탁한 사람은 정당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수레와 같은 일은 이처럼 사회 정의의 특별한 공간이며, 그 안에서 모두가 염원하는 친교와 삶의 의도가 실현된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노동 활동이 인간학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양심의 방향과 사회 정의의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왔던 것이다. 일은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일이 불완전과 죄로 쌓여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 성경은 풍부한 진리의 유산과 더불어 참된 "선"을 중단 없이 진흥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용기를 북돋으면서 도움을 준다.

피조물을 수호하는 인간

106. 하느님의 일하심을 닮은 인간의 일은 자체 안에 변형하는 (정확히 말해 창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활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인간의 일은 역사 안에 끊임 없이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고, 때로는 선제하는 사회적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며, 그 결과 새로운 삶의 유형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일"이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창세 2,15에서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피조물인 땅을 "돌보게" 하시면서 일에 제동을 걸고 일을 제한한다. 인간의 일은 하느님의 일을 타도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절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재화라고 인식할 때, 그러한 규율은 신앙의 가치를 표현한다. 그리고 행위가 공공의 훌륭한 보물에 대한 무책임한 약탈이나 착복에서가 아니라 보호에서 설명될 때마다 규율은 - 명백한 종교적 귀의를 넘어 - 윤리적 결정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땅을 "돌보는" 것은 일과 다른 활동이 아니라, 일의 본질적 구성 성분이다. 이런 이유 때문

에 우리는 일을 특별하게 따로 다루지 않고 아래에서 성경에서 매
혹적 단락에서 출발하여 짙막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생명을 "돌보는" 훌륭한 성서 이콘은 노아에게 있는 일에서 다
루어졌다. 사람들의 타락과 폭력으로 인하여 세상이 붕괴될 운명
에 처한 바로 그때(창세 6,5-7,13), 하느님께서 한 의인을 불러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창세 6,14-16). 방주는 사실상 우리가 사는
땅을 상징한다. 땅에서 모든 종류의 생물들(창세 6,19-21)과 부정
한 짐승(창세 7,2.8)과 같이 인간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생물
들도 구원될 수 있다. 사실 모든 형태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 땅
을 보호할 수 없다.

107. 이와 관련하여 피조물의 보호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토라의 작은 두 계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그것은 소비와 보존, 파괴 행위와 보호 행위 사이에 경계 -
사실 매우 미묘한 - 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두 규정이다.

이 계명들의 첫 계명은 우리가 제1장에서 생명에 책임이 있는
인간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이미 다루었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
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
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 새까지 잡
아서는 안 된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신명 22,6-
7). 사냥꾼을 위해 마련된 단순하고 엄밀한 권고를 넘어서서, 이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과 삶의 길이 생명의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 자원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하면,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서 열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방금 지적한 식물의 모티프는 토라의 두 번째 처방으로 넘어가는 연결 고리가 된다. 두 번째 처방은 전쟁 때, 정확히 말해 성읍을 포위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는 문맥에 속한다. 전쟁을 할 때 적들에 대한 증오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터져 나오는 파괴적 행위에 제동을 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이 존속되도록 가르쳤다. 입법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보루를 만들어도 된다"(신명 20,19-20). 여기서 "원수"와 구분되는 유실수는 생명의 관점에서 보여진다. 왜냐하면 열매를 내는 나무는 올바른 억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괴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다시금 인간을 위한 좋은 요소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08. 창조주에 의해 인간에게 유익한 선물이 되도록 만들어진

땅과 창조주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피조물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 준다. 다른 한편 - 성서에서 광범위하게 증명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덜 명백할 것이다 -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으면(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그분의 자비로운 우주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그분의 땅은 고통을 받으며 메마르는 과정과 불모와 파괴를 겪는다. 하느님의 규정에 따라, 세상은 튼튼해지거나 쇠약해지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우주의 주님의 관계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말해 주는 증상이 된다(레위 18,25,28; 이사 24,4-6; 호세 4,1-4 등). 여하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환경의 퇴화는 무지와 인간의 이기주의에 의해 기인되었음을 경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지구의 건강 상태는 사람들의 정의 또는 불의의 척도가 된다.

창조주는 땅을 사람에게 맡긴다. 하느님의 모든 계명 - 창세 2,15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된 - 에 있어서처럼 주님은 인간의 순종에서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 그분의 토라는 항상 배타적으로 아들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행위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계명처럼, 땅을 돌보라는 계명 역시 사랑으로 초대하는 호소이다. 그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사물들과 개인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자연"은 물론, 무엇보다도 똑같은 자연의 서식지(habitat)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물려받게 될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동사 "돌보다"는 그 자체가 특정한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다, 지키다, 유지하다는 가치도 가지고 있다. 이 동사는 미래를 향하는 동사이며 따라서 개

인과 특정 사회에 다가올 세대들을 생각하고 보살피게 하는 동사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좋은 땅"을 보고 창조주의 염원에 일치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하다"가 "돌보다"로 제동이 걸린다면, 땅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부지런한 인간의 능동적 추진력을 요구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개입하지 않는 수동적 태도만으로는 받은 선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인간은 시간의 쇠퇴와 악인들의 파괴적 위협에서 땅을 방어하는 계획들과 사업들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생태계를 철저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에는 창의적 노력이 요구된다. 몇몇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세대의 어리석은 방치로 황폐화된 땅에서 살 위험이 있는 저 무고한 이들을 위해서도 인류애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과 보호는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활동이다. 그리고 시편 시인이 말하듯이 이 둘은 하느님 자신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 인간의 활동은 무너지지만, 하느님과 함께하면 창의적이고 은혜롭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보호](시편 127,1).

일과 노동법

109. 성서 전통에 따르면, 인간의 태도를 위한 규범적 지시들은 토라 안에 들어 있다. 이 지시들은 이야기 부분에 나오며 입법 부분에서 공인된다. 이는 노동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창조주 이신 주님의 계획에 응답하기 위하여 노동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일과 연결된 문제들

창세기의 이야기에는 일의 실천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모호하다. 이 때문에 명백히 무해하거나 칭찬할 만도 하지만 실제로는 유해한 운영 양태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나온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adam은 다른 직무를 받지 않는다. 사실 그의 과제는 "흙('adamah)을 일구는데"(창세 3,23) 것이다. 그러나 일구어야 할 흙은 "그가 나온" 바로 그 물질이며 인간의 죽을 운명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명시된다(창세 3,19). 이 밖에도 그의 노동 장소는 더 이상 동산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인간은 "고통"과 "땀"으로만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창세 3,17-18). 땅에 대한 유사한 평가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에덴에 비교되며(창세 113,10; 신명 8,7-8) 하느님에 의해 축복을 받은(신명 11,11-12; 28,3-5) 비옥한 땅에 대해서도 말하기 때문이다.

110.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만아들인 카인의 모습에서 창세 3,17-18의 전망이 설명되고 있음을 본다. 그는 바로 "흙의 노동자"로 제시된다. 그는 "양치기"였던 동생 아벨(창세 4,2)과 다르다. 직업의 다양화(농부와 양치기)는 성공하지 못한 농업 활동이 모든 이를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노동의 차이는 문화와 종교 실천에서의 변화도 가져온다(창세 4,3-4). 그런데 상이한 수준의 복지와 결합된 특별한 삶의 양태(창세 4,4-5)는 치명적으로 대립과 시기와 경쟁을 낳는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성경은 좋은 직업(양치기 직업처럼)이 있고 나쁜 직업(농부의 직업)이 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선을 실천해야 하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사실 직업의 다양화는 카인의 후손과 더불어 계속된다. 몇몇 "후손들"은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이 되어"(창세 4,20) 목축 활동을 하였다. 다른 후손들은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고"(창세 4,21) 고귀한 음악 예술을 시작하였다. 또 어떤 후손들은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일"(창세 4,22)에 종사하였는데, 이 일은 노동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더욱 더 파괴적인 전쟁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라멕의 후손에게 적합하였다(창세 4,23-24).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칭찬할 만한 것은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사실 좋은 것도 나쁜 마음을 먹음으로써 횡포를 부리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

111. 창세기 이야기는 카인의 후손 에녹이 "성읍 건축가"(창세 4,17)가 되었다고 덧붙인다. 성읍은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된 살인자의 아들(창세 4,12-14)을 역설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된다. 성읍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피살의 위협을 받는 그의 은신처가 된다. 성읍은 사회성과 사람들 사이의 협력의 요인이 되는 도시 제도의 기원이다. 그러나 성읍은 성서 안에서 확고하게 긍정적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창세 11,9) 큰 성읍의 건설이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창세 11,4)과 더불어 하느님으로부터 잘못된 계획으로 평가되었다. 어찌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해 오만하기 때문이거나(창세 11,6), 어찌면 사람의 아들들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제국주의적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창세 10,5). 성읍의 모호성은 이어서 소돔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소돔은 이방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파괴될 것이다(창세 19,1-29).

112. 창세기를 넘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 성읍 건설의 모티프는 탈출기의 시작으로 가며, 비난 받을 만한 의도와 실행 양태들이 독자에게 드러난다. 물론 처음에는 파라오가 이집트인들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여기서 건설 노동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격적 형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이고(탈출 1,11나), 다른 한편으로 위험한 백성으로 여겨진 이방인 백성(히브리인들)을 지배하고 쇠약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탈출 1,10-11ㄱ).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는 외적 이유(탈출 1,10)의 가면을 쓴 군주의 폭정은 사실상 하급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동 조건이라는 억압적 구조를 만들어 낸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야 하고, 직업을 바꾸어야 하며(창세 47,5-6 참조), 항상 더욱더 피곤한 강제노역(탈출 1,13-14; 5,10)과 조장들(탈출 5,14)에게 복종해야 한다. 성서 전통은 이러한 노동 조건의 모습을 "노예살이"의 상징으로 고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노예살이에 서 당신 백성을 해방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은 특별히 인간의 근면한 일에 관한 입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일에 관한 규정

113. 주님이 해방된 백성에게 주신 법은 삶의 모든 환경에 관한 것이다. 이런 환경 가운데 노동을 하는 개인에게 지침들을 주거나, 노동에서 생겨나는 관계들과 정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관계들을 조정하는 노동 활동이 있다. 네 개의 법 조항들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안식일 계명

노동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한가운데에 배치된 안식일

계명에서 설명되며, 인접한 다른 규정들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본문으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 그만큼 중요하다는 표시이다. 범법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처벌(탈출 31,14-15; 민수 15,32-36)은 그 중요성을 실증하려고 한다. 이 밖에, 이 계명의 형성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두 개의 판본, 곧 탈출 20,8-11에 있는 것과 신명 5,12-15에 있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본다. 이런 차이들 역시 안식일 규정에 포함된 의미의 풍부함을 입증해 준다.

법규는 인간의 "행함"('asah)에 관한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을 포함한다(탈출 20,9; 신명 5,3). 하느님은 일>('abad)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옛세의 기간 동안 일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묵시적으로 게으름을 단죄하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일곱째 날("안식일", 곧 "쉬는" 날이라 불린다)에는 일하는 것을 금하신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제한하는 기능을 하며 시간을 봉헌하는("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탈출 20,8; 신명 5,12) "표징"(탈출 31,13,17; 예제 20,12)이며 하느님과의 관계의 표징("주님을 위한": 탈출 20,10; 신명 5,14)이 된다.

114. 십계명은 근면의 의무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다(다른 입법 항목들에서도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 대신 십계명은 창조와 구원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속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특전의 날을 주장한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그분의 선물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의 손이 하는 일을 접으면서

신앙인은 자신의 우상 숭배의 제작물을 모두 버린다. 우상 숭배의 제작물은 우둔하게도 삶의 원칙 행세를 한다(탈출 20,4-5; 신명 5,8-9). 신앙인은 하느님이 자신과 모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뜻에서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적이다.

다른 한편, 안식일은 신앙인이 자기 하느님을 모방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세상과 구원 역사의 "한처음에" 주님이 행하셨던 것에 순응하는 날이다. 탈출기의 편집은 창세 1장을 지적하면서("기억하여": 탈출 20,8) 창조주를 모방한다는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곧, 주간의 시간적 나눔이 창조주의 행위를 관리한 것처럼, 피조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엿새 동안 세상에 기원을 주셨고(탈출 20,11) 이렛날에는 "쉬셨다"(탈출 20,11). 인간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인간은 그의 일에서 하느님의 일을 현실화할 것이며, 안식일에는 창조주(창세 2,1-2)와 그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 모든 것에 대해 평온하게 즐기며 기뻐할 것이다.

115. 신명기 편집자의 동기는 탈출기의 동기와 다르고 보완적이다. 명백히 "노예의" 성분이 들어 있는 일('abad)을 표현하는 동사 어근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입법자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이집트의 종살이에 대한 "기억"(신명 5,15)을 다시 부각시킨다. 모든 형태의 굴종에 대해, 특히 인간이 우상 숭배로 스스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자유의 날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켰다"(신명 5,12). 자신의 일에 한계를 지으면서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일체의 의무로부터 자신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시간

을 즐기면서 표현된다. 이는 경제적 성격이든 사회적 칭찬이든 일체의 이익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하느님을 본받아, 안식일은 **가장**(pater familias)이 자녀부터 종들에 이르기까지, 육체 노동을 하는 이방인 노동자부터 일상의 일에 협력하는 집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그의 권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이행하는 날이기도 하다(신명 5,14). 이처럼 주님께에서 얻은 자유는 종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족들을 쉬게 하는 아버지의 손(곧 힘)은 효과적인 구원 행위를 한다. 그것은 "힘 있는 손과 억센 팔"로 행동하였던 주님의 손에 비교할 만하다. 불행하게도, 안식일의 적극적이며 유익한 요구가 유다 전통에 의해서도 항상 이해되지 않는 않았다(마태 12,11-12; 루카 14,5 참조). 유다 전통은 일방적으로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이사 58,13-14; 루카 13,14 참조). 이와 달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면서 이 신성한 날의 충만한 의미를 실현하신다. 예수님은 파라오의 힘보다 훨씬 더 센 힘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신다. 그리고 그분은 특히 당신을 "하느님과 대등한 분"(요한 5,18,23), 구원자(마르 3,4; 루카 6,9; 요한 5,34)로 소개하신다.

116. 안식일의 정신과 은혜로운 힘은 규정의 구원적 특성을 증명하는 효과를 가진 다른 법 규정들에서 보완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른바 "안식년"(탈출 23,10-11; 레위 25,2-7)의 규정

을 기억한다. 땅 주인은 안식년에는 밭을 경작하지 않는다. 땅 주인은 자기 밭에서 저절로 자라는 결실을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롭게 먹게 해야 한다(탈출 23,11; 레위 25,6). 이와 유사하게, 축제 때에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레위 23,7.8.21.25.28.31.35-36; 민수 28,18.25.26; 신명 16,8). 신명기는 축제가 있는 날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이방인(안식일에 그러한 것처럼)과 가난한 이와 함께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라고 초대한다(신명 16,11-12). 축제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연중 안식일과 같다.

주님의 날인 주일

117. 축제일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의 법이 사람들의 존엄과 가족 관계의 질을 위협하는 현대 세계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성서 규정의 정신을 더욱더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간 첫째 날 예수님의 부활에서 실현된 해방의 구원의 완성을 기억한다. 기도와 감사와 일치의 시간인 주일은 가족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간의 일에 인간적 면모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휴식" 시간은 전문적 활동 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위대함과 영적 차원을 존중하지 않는 오락에 "열중"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전망에서 주일은 "예언적" 차원을 갖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절대적 수위권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적이거나 조직적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상징적으로 미리 참여하는 주님의 날(묵시 1,10) - 자유와 결속의 날 - 은 참으로 사람의 아들의 날이다(마르 2,27).

(2)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118. 당시 세계의 관습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혁신적인 것은 "종"에 관한 입법이다. 이스라엘에서 종은 대체로 같은 시민이면서 "종"이 된 사람이다. 그는 갇지 못한 빛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종이다.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 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할 것이다"(레위 25,39-40). 한편, 궁핍한 "형제"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를 기울이며 그를 협력자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던 것(탈출 1,13-14)과 달리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레위 25,43). 다른 한편,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고 명령한다(탈출 2,12; 신명 15,12). 달리 말해, 주님이 노예살이에서 당신 백성을 해방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신명 15,15), 형제를 "빈 손으로"(신명 15,13)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입법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힌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 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신명 15,14). 그렇게 하면 가난한 이가 구걸하러 가는 일 없이 자신의 활동을 품위 있게 다

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금지는 주인과 품팔이꾼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신명 24,14). 특히 율법은 품삯을 그날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레위 19,13; 신명 24,15). 그러므로 품팔이꾼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욘 7,2). 이런 이유 때문에 벤 시라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시라 34,27). 또한 히브리 전통의 상속자인 야고보(예레 22,13; 말라 3,5)는 가혹한 말로 투기꾼들을 단죄할 것이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신명 24,15 참조].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야고 5,4,6).

(3) 공공 이익의 관료들에 관한 규정

119. 신명기 법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직권자들의 "서비스"를 관장하는 규정들을 발견한다. 그것은 특히 판관들(신명 16,18-20; 17,8-13), 임금(신명 17,14-20), 사제(신명 18,1-8), 그리고 예언자(신명 18,9-22)의 직무다. 이 범주의 직업들은 각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이든(탈출 18,21; 23,2,6-9; 신명 1,16-17; 16,19-20; 17,16-17), 예언 전통(1사무 8,3; 이사 1,23; 5,23; 33,15; 56,11; 예레 6,13; 8,10; 예제 22,27-28; 아모

5,12; 미카 3,5,11)과 지혜 전통이든(잠언 1,10-19; 15,27; 17,23; 28,16), 정직의 의무와 공평무사의 의무 그리고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때,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과 연관될 때, 반드시 정의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르칠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범주들에는 각기 특별한 "덕행"이 권장되었다는 점을 아마 덧붙일 수 있겠다. 판관에게는 정의가(신명 16,20), 임금에게는 겸손이(신명 17,16-17), 사제들에게는 땅의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께 대한 신뢰가(신명 18,2),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존중(신명 18,20)이 권장된다.

(4) 하느님께 대한 "봉사"

120. 다양한 표현과 양태로 표현되는 예배는 성경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에서 사람은 자신의 주님을 위한 "종"의 소명을 실행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동사 'abad(탈출 3,12; 7,16; 신명 6,13; 10,12)과 명사 'abodah(탈출 12,25-26; 13,5; 민수 3,7)와 같이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개념에는 모호성이 없지 않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빈곤하여 봉사 받기를 청하는 "주님"으로 만드는 것 같다(이사 43,23-24 참조). 그러나 모든 것의 기원이며 모든 선의 보편적 분배자인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신성한 활동인 "전례"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데에서 유익한 표시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전에서서의 사제들은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마태 12,5) 사실상 안식일을 올바르게 경축하는 것이다.

일과 기도

121. 일과 기도의 관계는 안식일 계명에 간접적으로 들어 있다. 곧, 이 규정의 관례적 해석에서 이렛날의 "성화"는 기도와 전례 예식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안식일을 위한 노래"로 소개된 시편 92 참조). 더욱 직접적으로 말해, 이스라엘의 축제들의 경축에 관한 규범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 외에 찬양과 축복의 분위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봉헌하도록 초대한다.

벤 시라의 입장이 더욱 잘 정리되어 있다. 벤 시라는 육체 노동자의 직업은 이미 기도(시라 38,34)라고 주장하는데, 아마 그것이 바로 겸허한 일꾼의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율법학자를 예찬한다. 율법학자는 비굴한 일 없이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고, 하느님의 신비를 적절하게 묵상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한다(시라 39,5-7). 솔로몬 임금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의 선물을 청한다(질혜 8,21-9,5; 또한 1열왕 3,4-15 참조). 그러므로 모든 직업은 하느님과 기도하는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122. 우리는 시편집에서 이스라엘이 인간의 손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에 관해 더욱 완전한 증명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측면들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일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일상의 "노고"를 다소 평화롭게 받아들인 것 같

다(시편 104,23). 곧 일상의 노고는 창조를 경축하는 문맥에서 이해되고 삶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며 창조주의 지혜를 찬양하는 요소로 여겨졌다(시편 11104,24). "자기 손의 노고"로 벌어들인 것을 먹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때 아내와 아들이 밥상 돌레에 앉아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시편 128,1-4).

그러나 기도자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펼쳐진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은 "고난의 빵"을 주지만, 하느님은 "잘 때에" 필요한 것을 선사하신다는 점을 경건한 태도로 인정한다(시편 127,2-3; 참조: 잠언 10,22). 인간이 짐을 짓고 성읍을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 주님께서 도와 주지 않으시면 그의 수고는 참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며 "헛되다"(시편 127,1). 협력의 형태를 취하는 그와 같은 하느님의 현존은 시편집에서 "손"의 협력으로 표현된다. 곧,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이 인간의 (약한) 손에 힘과 인내를 주러 온다(시편 89,22). 이 진리로부터 당신 손이 빚으신 것들을 "저버리지 마시기를"(시편 138,8), 달리 말해 인간의 손이 하는 일이 인간에게 잘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는 탄원이 나온다(시편 90,17; 또한 시편 18,35; 80,16 참조).

그러므로 믿는 이의 손은 청원 기도에서 간청하는 소리가 받아들여지기를 표현하고 요구한다(시편 28,2; 77,3; 141,2; 143,6). 그러나 창조주(시편 8,4,7; 95,5; 102,26; 119,73)와 구원자(시편 44,2; 78,42; 109,26-27; 139,10)의 손이 이룩한 놀랍고 지치지 않는 일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도 손을 든다(시편 134,2).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주님의 안식일을 경축한다.

인간의 노동의 필요와 한계

123. 항상 생명을 위하는 지혜 문학(잠언 3,2,18,22; 4,13; 9,11 등)이 인간의 노동 현상을 광범위하게 주제로 삼으며 파급 효과를 특히 예민하게 다루고 노동의 다양한 면모들을 섬세하게 고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혜의 표현을 "전통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수집물들에서 당시의 문화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관찰들과 의견들을 발견한다. 이 문학들에서는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특히 활동력에 근면과 슬기와 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 잠언의 결론 부분에는 "힘 있는 여자"의 윤곽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녀는 그 능력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익 때문에 찾아 나서고 "언어야"(잠언 31,10) 하는 지혜가 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잠언 31,13,17,19-20), 투자에 능수능란하고(잠언 31,14,16,22,24), 가족들(잠언 31,11-12,15,21)과 가난한 이들(잠언 31,20)에게 구체적으로 관대함을 베푸는 등 지칠 줄 모르는 활동(잠언 31,15,18)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편으로, 지혜의 세계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하는 일은 부(잠언 10,4; 11,16; 12,27; 21,5)와 힘(잠언 12,24)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 자주 반의적 대구법으로 - **게으른 사람**은 조직적으로 비난

을 받는다. 왜냐하면 거짓 두려움으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게으름(잠언 22,13; 26,13)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잠언 10,26; 18,9; 시라 22,1-2), 자기 자신마저 위협하게 하며(잠언 12,27; 15,19; 19,15; 코헬 10,18), 가난을 불러오고(잠언 10,4; 12,11; 20,4.13; 24,30-34), 결국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잠언 13,4; 21,25; 코헬 4,5). 가장 재치 있는 본문들 가운데 몇 개를 인용할 수 있겠다. 이 본문들은 태만하게 사는 사람을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지도자도 없이
 여름에 양식을 장만하고
 수확 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잠언 6,6-11).
 문짝이 돌쩌귀에 달려 돌아가듯
 게으름뱅이는 잠자리에서만 뒹군다(잠언 26,14).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잠언 19,24; 또한 26,15 참조).

게으르다는 것은 멍청하다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의 차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밭일에 비교할 수 있다(시라 6,18-20).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부를 생산하는 손을 이익을 주는 도구로 권장하지만, 절제(잠언 30,8-9; 코헬 4,6; 시라 11,10-11), 겸손(잠언 15,33; 시라 3,17-24; 10,26-27), 그리고 특히 의로움(잠언 11,5,18; 12,28; 시라 11,21; 31,8-11)과 관용(잠언 11,24-25; 시라 4,1-10)도 적극 권면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행들이 없으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잠언 10,22).

124. 우리는 시라에서 다양한 직업에 따라 제시되고(시라 38-39) 지혜에 비추어 평가된 노동 활동에 관한 깊은 고찰을 만난다. 의사의 활동이 따로 묘사되어 있고(시라 38,1-15), 그 다음에 농부(시라 38,25-26), 기술자(시라 38,27), 대장장이(시라 38,28), 용기장이(시라 38,29-30)의 직업이 묘사된다. 이때 솜씨를 높이 평가하는 말(시라 38,31)과 그들의 생산품이 시민들의 삶에 유익하게 기여한다는 말(시라 38,32-34)을 덧붙인다. 시라는 이 노동자들이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한다"(시라 38,34)고 말하며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물을 돌보는" 과제(창세 2,15)의 실현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문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저자는 조언하고(시라 38,32) 재판하는 데(시라 38,33) 필요한 지혜의 사용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한다. 그것은 율법학자의 활동 예

찬을 준비한다. 율법학자는 실제 활동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시라 38,24) 공부하는 데에 몰두할 수 있고(시라 39,1-3), 배움의 기회를 갖는 여행을 하며(시라 39,4) 기도(시라 39,5)에 몰두할 수 있다. 이는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의 원천(시라 24,30-34)인 지혜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이끈다(시라 39,6-11; 또한 지혜 6,15-21 참조).

125. 전통적 지혜(특히 잠언과 시라에 들어 있는)는 일에 대해 본질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표현한다. 이와 달리 비판적 입장은 다른 지혜 문헌들에서 입증된다. 코헬렛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의 끊임없는 수고로 얻은 "이득"(yitron)에 관해 가장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코헬 1,3; 3,9; 5,15). 그는 온갖 종류의 활동을 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에너지와 지혜를 쏟아부었으며, 결과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즐거움도 가졌다고 주장한다(코헬 2,4-10).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러고 나서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위업과 일하면서 애쓴 노고를 돌이켜 보았다.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yitron)이 없다"(코헬 2,11). 쓸쓸함은 일에 대한 "증오"가 된다. 왜냐하면 일을 통해 애써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코헬 2,17-21). 쓸쓸함은 심지어 삶에 대한 "증오"가 된다(코헬 2,17). 왜냐하면 인간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기 때문이다(코헬 2,23).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각이 무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가 "태양 아래" 행할 수 있는 것들의 "이득"을 높이 평가하도록 권면한다. 모든 것이 비록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 결국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코헬 4,4).

126. 욥기에서도 비록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나타난다. 일종의 시 본문에서 어렵고 중요한 두 가지 활동 - 광산의 일(욥 28,1-11)과 보석 영업(욥 28,15-19) - 이 묘사되어 있다. 이 일들은 가치 있는 물질들의 탐구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두 단락의 마지막 구절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오?"(욥 28,12); "지혜가 어디에서 오리오?"(욥 28,20). 이 본문들에서 전통적 가르침에 따라 지혜는 금보다 산호보다 더욱 값지다(잠언 3,15; 8,11; 지혜 7,9)는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곧, 인간이 가장 위험한 모험을 강행하면서 보석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하느님에게만 알려진 지혜를 찾을 수 없다(욥 28,28)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일체의 오만한 생각(hybris)을 버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욥 28,28).

127. 끝으로, 솔로몬의 지혜서 역시 나름대로 매우 우아하고 세련된 표현으로 일에 대해 말하면서 단죄할 수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저자는 숙련공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상은 사회를 기만하는 빛이며 악의 근원이다(지혜 13-15). 예언서들(이사 44,9-20; 예레 10,1-5 참조)과 시편(시편 115,4-8 참조)에서 증명된 사고 노선이 여기에서 발전된다. 그것은 우상을 제작하는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비웃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고대 세계에서 숭배되었던 부적들에 대해 비난할 뿐 아니라, 인간의 손(마음)의 다양한 생산품들 안에 감추고 있는 우상숭배에 관한

것을 인지하고 끊어버리도록 경고한다.

부와 재산

128. 성서 본문들은 우상들이 "금이며 은"이라고 말한다(탈출 20,23; 신명 7,25; 호세 2,10; 하바 2,19; 지혜 13,10 등). 이런 단순한 사고는 미래를 보장하고 공적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흔히 다양한 형태의 일의 결과로 여기지는 부의 주제에 관해 더욱 일반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구약성서는 번영은 주님께서 의인에게 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주장한다(창세 13,2; 신명 28,12; 1열왕 3,13; 시편 112,3; 잠언 14,24; 지혜 7,11). 그러나 인색함과 재물을 부적절하게 찬양하는 모든 형태를 조심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치명적으로 우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신명 7,25-26; 참조: 예페 5,5). 다른 한편, 성경은 자주 오만한 부자들,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는데, 그들은 하느님께 단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이사 5,8-10; 예레 12,1-2; 예제 27,25-27; 아모 3,9-11; 8,4-6; 시편 49,17-18; 73,3-20; 욥 21,7-18; 코헬 5,9-10; 시라 31,5-7 등). 신약 성서에 비추어 신앙인은 가난의 "행복"을 인정하고(마태 5,3; 루카 6,20), 결국 남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이 세상의 부를 갈망하지 않아야 한다(루카 12,15-21). 주님은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큰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마태 13,45-46)에 비교되는 참으로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곧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추구하고 찾으려하신다.

인간의 노동과 하느님의 "일"

129. 인간이 활동하는 세계에 관한 **예언자들의** 시각도 매우 비판적이다.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재능은 좋은 것이며 우수한 생산물을 제공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면서도 인간의 일이 비뚤어진 마음을 감추고 있고 중대한 불의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일

지혜 세계에 관한 단락에서 지적하였듯이,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예언자들의 항구한 투쟁은 상을 만들어 거기에 신의 힘을 부여하는 어리석고 불경한 절차를 단호하게 단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사야 예언자는 풍자적으로 한 남자를 묘사한다. 그 남자는 나무를 잘라 그 일부는 뿔감으로 불을 붙여 음식을 만들고,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기도하며 "당신은 저의 신이시니 저를 구하소서"(이사 44,14-17) 하고 말한다. 그런 활동의 풍자는 기술자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의 형을 만드는 데에 힘을 쏟고(이사 41,6-7; 44,12), 큰 능력을 발휘하여(이사 44,13) 그것을 금으로 입혀 아름답고 빛나게 하며(이사 40,19; 예레 10,4; 예제 16,17; 호세 2,10; 바룩 6,8-9), 화려한 옷을 입혀(예레 10,9; 바룩 6,10-11) 최고의 매력을 가지며 살아 있고 영원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데 있다. 사실상 우상은 가짜라서(이사 44,20; 예레 10,14)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이 없고(예레 10,14; 바룩 6,24) 무익한 것이며(이사 41,23; 44,9; 예레 2,8,11; 10,5; 하바 2,18-19; 바룩 6,34-

39.52-68) 진리의 빛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이사 41,29; 46,1-2; 예레 10,11).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 행위로 흘러들어가는 목공예품의 비웃음은 부적들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구원을 준다고 행세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고발하려고 한다.

예언자들은 우상숭배에 묘사된 "악"에 대한 마음 아픈 고발(예레 2,13.19) - 간접적 결과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유일한 특질을 칭송하는(예레 10,1-16) - 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여기에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제공하다는 핑계 또는 고도의 기술 실현을 제시한다는 착각으로 정의의 규칙들을 어기는 저 인간 활동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을 덧붙인다. 현대 세계에서든 그 모든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30. 첫 번째 비난 영역은 **농경지**에 관한 것이다. 농경지는 항상 가난의 위협을 받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 토대다. 권력자들의 일은 무방비의 사람들의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나뭇의 이야기에서 범례적으로 이야기되듯이(1열왕 21,1-6), 부자(예로 나오는 인물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이다)는 자신의 사유지를 넓히려 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취하여 자신의 사유지를 "늘려가려고" 한다(이사 5,8). 제시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생산량을 늘이거나 수확물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또는 소유지를 아름답게 만들거나 유산을 증식함으로써 단순히 명예와 함께 유복한 신분을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율법은 그와 유사한 매점매석의 탐욕을 제한한다(탈출 20,17; 신명 5,21). 특히 하느님께서 각 가족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물려받을 상속지에 "선조들

이 정해 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신명 19,14; 27,17; 참조: 호세 5,10; 잠언 22,28; 23,10; 욥 24,2). 여호수아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지파와 부족과 가족 사이에 제비를 뽑아(하느님의 뜻의 표현으로 이해된) 분배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살고 있는 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레위 25,23), 각자가 시민으로 "거주하도록" 땅은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계를 보살피 주고 시민의 모든 권한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이해(이야기 형태로 쓰인)이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정의의 전망을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대지주들의 계획과 찬탈을 고발한다. 대지주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을 점령하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바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소유자들을 집에서 추방한다(이사 5,8-10; 미카 2,1-5).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제국주의 정치제도에 의해 행하여진 영토 점령의 폭력을 비판한다. 그들의 정치제도는 그들의 우세한 군사력의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며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이 백성 전체를 노예로 삼는다(아모 1,3-2,3; 하바 1,5-10,14-15,17; 2,6-8,15-17).

131. 또 다른 고발 분야는 예언자들에 의해 **속이는 장사**에서 인지 된다. 속이는 장사는 교환의 매개변수(무계와 치수)를 바꾸는 것인데, 율법은 공정의 필요한 조건으로 매개변수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레위 19,35-36; 신명 25,13-16). 빈곤한 백성들은 다양

한 종류의 기만으로 굶주렸다(아모 8,4-7; 미카 6,9-15; 또한 호세 12,8-9 참조). 국제적 환경에서 왕국들 -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장사에 이용하여 전세계적 명성을 끈 티로 왕조와 같이(에제 27,3-36) - 이 단죄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만한 성공은 사실상 불의와 폭력에서 여물었기 때문이다(에제 28,15-18). 모든 종류의 물품 교환이 비난을 받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부를 축적하는 직업적 활동만 단죄 되었다.

132. 끝으로, 예언자들은 **공공 사업**의 환경, 특히 중요한 건축 - 왕궁, 고관들의 집, 방어벽, 성소, 교량과 도로 - 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통치자들에게 명성을 주고 세세대대로 경탄의 대상이 되는 거대한 사업은 사실상 가혹한 세금 징수와 권력 남용의 결과인 경우가 잦다.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의 대 성전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살이에 비교되는 심한 종살이를 한 그의 신하들이 그 댓가를 치루었고(1열왕 12,4), 그의 아들 르하브암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1열왕 12,14). "불행하여라, - 예언자는 외친다 -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의 형태에 의해 건축되고 보호된 것 위에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아모 3,9-11; 미카 3,9-12; 스바 3,1-8).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예레 22,13-17; 말라 3,5).

하느님의 일

133. 창세 1-2장의 이야기에는 먼저 하느님의 일(창조하고 행하

고 나누고 식물을 심고 주는)과 이어서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도록 인간에게 맡긴 소임이 소개된다. 이로써 역사적 일이 시작된다. 창세 2,2-3에서 하느님은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셨다"라고 말한다. 성서 전통의 다른 곳에서 증언하듯이, 주님은 사실상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요한 5,17 참조). 하느님 없이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전능(이사 46,10-11)과 향구한 선의 염원(신명 32,4; 이사 26,12)에서 모든 것의 "기원"이 활동하고 계심을 보지 않으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일에서 하느님의 능동적 현존을 증언하는 것은 특히 예언자들이다(이사 43,13).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다른 거룩한 저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또한 예언자들은 그들의 말에서 "일"의 의미를 명확히 유추적으로 확정하는 데 소용되는 동일한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동사 "하다"('asah), "행하다"(pa'al)와 이 어근들에서 파생하는 명사들, 그리고 또한 "하는 일"(mela'kah)(창세 2,2-3; 시편 73,28)은 모두 본질적으로 동의어다. 예언자들은 세상의 창조 행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이사 45,12,18; 예레 10,12-13; 14,22; 27,5). 예언자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선택처럼 역사적 기원의 사건을 그 사건과 연결된 은혜와 더불어 상기하면서 동일한 어휘를 다시 사용한다(이사 5,12; 하바 3,2). 이런 이유 때문에 예언자들은 위에서 지적인 전문용어들 외에, 예를 들어 하느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는 농부(이사 5,1-7; 27,3; 예레 2,21; 또한 시편 80,9-10 참조) 또는 진흙을 빚어 존재에 형태를 부여하는(이사 29,16; 43,7; 44,2; 64,7; 예레 18,6) 옹기장이에 비교하

면서 일의 은유를 지적한다.

134. 믿는 이는 하느님이 인간 역사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행위하신다는 것을 안다(이사 12,5; 25,1; 시편 77,13; 92,5; 143,5). 시작의 순간뿐 아니라, 계속해서, 특히 세상이 인간들의 사악함 때문에 비극적 퇴폐를 지나갈 때 하느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행위하신다. 예언자들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은 부재하시거나 무능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때에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재난 속에서 목소리를 높인다(신명 32,27; 이사 5,19). 우리가 제4장에서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겠지만, 성서 저자들의 항구한 증언에서 하느님의 일하심은 두 개의 상반되는 행위들의 병치로 제시된다. 곧, 그분은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다(신명 32,39; 1사무 2,6; 지혜 16,13; 토빗 13,2). 어떤 이는 낮추고 어떤 이는 높이며(시편 75,8; 2역대 25,8; 시라 7,11), 치기도 하고 고쳐 주기도 하는 분이시다(신명 32,39). 허물고 세우며(예레 31,28),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며, 행복을 주고 불행을 일으키는 분이시다(이사 45,7). 바로 이와 같은 상반되는 입장 때문에 하느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기가 어렵다(예레 9,11; 호세 14,10; 시편 92,6-7; 107,43). 그렇지만 두 행위는 각기 의미가 있으며 주님의 구원 의지를 표현한다. 곧, 부정적 행위에서 주님은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악의 부정적 결과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지만(예레 2,19; 잠언 16,4), 긍정적 행위 - 하느님의 "일하심" 활동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행위 - 에서 마지막 종말론적 사건이 예고되며, 그 안에서 역사의 주님의 구

원 활동이 드러난다(이사 44,23; 아모 9,12; 하바 1,5). 또한 여기에서도 인간의 일에서 가져온 은유들이 사용된다. 이때 하느님은 제련사(말라 3,2), 건축가(이사 44,26; 예레 18,9; 31,4), 농부(이사 60,21; 예레 24,6) 등에 비교된다. 이 상징들은 모든 것의 복구를 가리키며, 용서에서 실현되는 일종의 새 창조를 가리킨다(이사 43,19; 66,22).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말에서 깨닫는 믿는 이들은 진리로 충만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네"(시편 126,3),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묵시 15,3; 참조: 시편 111,2-3).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당신의 능동적 현존을 알려 주신다. 정녕 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아모 3,7; 또한 창세 18,17 참조).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세상을 위한 지혜의 원칙과 희망의 원천이 된다. 예언자들은 증인들이며 엄밀히 말해 구원의 원작자가 아니다. 그들은 "표징들"을 일으키지만 "실재"를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 실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없이는, 그들의 "일"이 없이는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일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거나 배척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보존된 신탁들을 발설한 고대 예언자들은 새 계약의 예언자들을 후계자로 갖게 될 것이다. 새 계약의 예언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행하여진 결정적이며 완전한 일의 영원한 증인들이다.

일, 봉사, 직무

135. 우리는 **복음서들의** 이야기들과 담론들에서 확실한 경제적 결과들을 얻기 위하여 일을 제공하려는 특별한 요구를 발견하지 못한다. 더욱 정확히 말해, 복음서들에는 구약성서의 전통들과 비교해 혁신적 요소들을 소개하는 모델이나 지침이 제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마태 13,55)로서 "목수"(tekton)(마르 6,3)였다고 말한다. 이는 여러 직업들의 가족 간의 승계에서 흔히 있던 것과 일치한다. 그분의 첫 제자들은 어부들이었다(마르 1,16-20). 다른 한 사람은 세관이었다고 말한다(마르 2,14). 이 정보들은 손을 쓰는 활동들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으며 가족의 생계에 적합한 직업에서부터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대변인에 의해 촉진된 카리스마적 "소명"에 의해 생겨난 직무로 넘어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세(탈출 3,10)와 다윗(1사무 16,11; 17,34)은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았다(탈출 3,10; 2사무 7,8). 기드온과 엘리사와 아모스는 농부 또는 목축업자(판관 6,11; 1열왕 19,19; 아모 7,15)였다가 지휘관과 판관(판관 6,14)이 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1열왕 19,21; 아모 7,14-15)가 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 전문직을 바꾸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일종의 승진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의 "종"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박해(마태 5,11-12)와 굴욕(마태

23,11-12)을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마태 16,25; 23,34-35).

136. 복음서들, 특히 비유 이야기들에는 다양한 노동 활동, 곧 씨 뿌리는 사람(마태 13,3), 육체 노동자(마태 20,1), 진주 상인(마태 13,45), 문지기(마태 24,45), 집사(루카 16,1)의 일은 물론,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는 주부의 평범한 일도 언급된다. 이런 언급들에서부터 직업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도출해 낼 수는 없고, 다만 근면하고 슬기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근면하고 슬기롭게 일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마태 8,9; 24,45; 25,21). 잘 처리한 일의 확실한 결과에 대한 신뢰감도 장려되지만(마태 7,24-25; 24,46; 25,29),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쓸모없는 종"임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루카 17,10).

이와 달리 복음서들에서는 "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의해 실행된 가르침과 치유의 "직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마태 9,37-38; 요한 5,17; 9,4). 스승은 사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특히 당신의 본보기로 사람들의 공동체에 큰 도움을 주는 특정한 직무 교육을 시킨다. 그러한 일은 밭을 가는 농부(루카 9,62), 씨 뿌리는 사람(마태 13,3), 수확하는 사람(마태 9,37-38; 요한 4,38), 목자(요한 10,14), 어부(마태 4,19; 13,47-48)가 하는 일을 "뱃아 있다"(마태 13,24,31,33,44-45,47 참조). 왜냐하면 결실을 내거나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품삯을 기대

하기 때문이다(마태 10,10; 20,2; 루카 10,7). 물론 그 모든 것은 은유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신적인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 외에(이미 시라가 그렇게 하였듯이), 하늘의 스승은 (인간의 활동의 덧없음에 관한 코헬렛의 비판을 넘어가는) 지속적이며 가장 행복한 하늘의 보상에 대한 염원을 갖게 한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일하는 것은 하느님 자신이 일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요한 4,34; 5,17; 17,4), 스승은 모든 분야에 영감을 주는 본보기이며 인간이 하는 일의 방식이 된다. 스승은 특별히 "섬김"(루카 22,26-27; 요한 13,13-17)과 "거저 줌"(마태 10,8; 2코린 11,7)과 재물 쌓기의 포기(마태 10,10)와 자신이 일한 결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대함(마태 19,21)의 원칙을 도입한다.

바오로 사도의 일

137. 사도 바오로는 그의 서간들에서 일에 관한 기본 의무들을 상기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당연한 보수를 주어야 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로마 4,4 참조). 그 대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모티프는 야고 5,4-6에서 고발 형식으로 열정적으로 소개되었다. 영구한 연속 관계가 예상되는 사회 문맥 안에서 바오로는 주인들에게 종들에 대해 존경하는 태도, 더 나아가 자비로운 태도까지 가지라고 권면한다(에페 6,9; 콜로 4,1; 필레 8-17). 또한 이 종들에게는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유순하게 순종할 것을 권고한다(1코린 7,21-24; 에페 6,5-8; 콜로 3,22-25; 1티모 6,1-2; 티토 2,9-10; 같은 노선에서 "하인들"에 관하여 1베드 2,18-20도 참조).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근면의 의무에 관한 바오로의 주장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었던 사랑의 증여와 주님의 임박한 내림에 대한 고대가 일부 사람들(특히 테살로니카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며 태만하게 처신하도록 만들었다. 사도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처신을 특히 엄격하게 교정한다. 그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1테살 4,10-12). 또한 일과 사회적 평화의 증진의 관계 -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려해야 할 - 는 동일한 공동체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된다: "그러나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먹도록 하십시오"(2테살 3,11-12). 따라야 할 규칙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2테살 3,10)는 유명한 경구로 대담하게 요약되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더욱 명확하게 언급된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에페 4,28). 여기에서 근면은 불의("도둑질하다"로 표현된)에 상반되는 길로 지적되며 자비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사도

20,35 참조).

138. 바오로는 따라야 할 품행을 교시할 뿐 아니라, 자신을 본 받아야 할 모델로 반복해서 제시한다(1테살 4,1; 2테살 3,7-9).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의 사도이며, 가시적 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1코린 3,8; 9,7-14; 갈라 6,6; 1테살 3,9) 손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1코린 4,12; 1테살 2,9; 2테살 3,7-8). 이러한 품행의 노선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된다(사도 18,3; 20,34-35). 자기 공동체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염려하였던(2코린 11,9-10; 12,13-14.16-18; 1테살 2,9; 2테살 3,8) 바오로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모든 이를 교육하며 복음을 대가 없이 전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1코린 9,18; 2코린 11,7). 그와 같은 사도 직무는 복음 전통에 따라 극도로 고되기는 하더라도(갈라 4,11) 완전히 투신한 합법적 "일"(2티모 2,15),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1코린 9,22) 주님이 명령하신(1코린 9,17) "봉사"(diakonia)(1코린 3,5; 4,1)로 여겨진 일로 명확히 해석된다. 그와 같은 값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바오로는 그의 직무에 수많은 "협력자들"(synergoi)을 끌어들이며(로마 16,3.9.21; 2코린 8,23; 필리 2,25; 4,3; 1테살 3,2; 필레 24) 그들을 "하느님의 협력자들"이라고 부른다(1코린 3,9; 또한 마르 16,20 참조). 그는 예언 전통을 기억하면서 사도직의 봉사를 농경 활동(1코린 3,5-9) 또는 건축 활동(1코린 3,10.14)에 비교하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항상 하느님뿐이시고(1코린 3,7),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교회인 건축물의 단단한 기초가 되신다

고 주장한다(1코린 3,11).

3. 인간의 도움을 받는 짐승들

139. 창세 2,18-20을 주석하면서 이미 설명하였던 것처럼, 창조주의 의도는 'adam에게 협력자, 달리 말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의 "쓸쓸함"을 해결하는 일종의 동맹자를 주는 것이다. 홍수 이후에도 하느님은 -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면 -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창세 9,10)을 포함하여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계약을 세우신다. 짐승의 다양성과 전체성에 관한 지루한 표현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어떤 공헌을 하는 동물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사실상 상이하고 더욱 높은 성격의 다른 측면들도 성경 전통에서 유익한 봉사로 제시될 것이다. 최근 성서의 인간 중심주의적 전망을 비판하면서, 간접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신분과 어느 정도 동등한 신분이 동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다(창세 2,20 참조: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올바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성서는 인간의 중심성을 하느님의 계획으로 제시하고 인정하지만,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전제주의적 힘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모든 동물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이 특별한 작품의 적극적 후견으로서 인간을 "계약"의 세계로 초대한다(창세 9,9,12; 호세 2,20 참조).

오늘날 - 동물학자, 채식주의자, 절대 채식주의자 편에서 - 점진적 주장과 더불어 동물 남용을 제거하려는 생명의 규칙들이 실천되고 요구된다. 그것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태도에 대한 단죄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동물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성서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점을 바꾸어 말하면,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을 인간에게서 빼앗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구약성서의 다양한 단락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며, 신약성서에 관한 특별한 견해를 소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적절한 자리에서 복음 전통이 가져다 준 새로움을 지적할 것이다.

삶을 위한 협력자

140. 하느님은 동산을 보호하도록 인간을 부르셨다. 그리고 동산에는 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생명체들도 있다. 그러므로 농부로서의 소명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체들을 돌보는 목자의 소명으로 완성된다.

그와 같은 책임 있는 활동은 특히 가축들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에 관하여 값진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 안 된다"(신명 25,4)라고 규정하며, 또는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짐승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쉬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탈출 20,10; 23,12; 신

명 5,14). 또는 안식년에는 경작하지 않은 땅의 소출을 가난한 이들과 들짐승들이 먹게 해야 한다(탈출 23,11; 레위 25,6-7). 또한 잃어버린 짐승을 보면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며(신명 22,2), 길에 넘어져 있는 (동족 또는 더 나아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있으면, 그것들을 모르는 체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 주어야 한다(탈출 23,5; 신명 22,4). 동물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행위는 단죄를 받으며(레위 24,18,21),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한 종의 번식을 위협하는 탐욕에 제동을 건다(신명 22,6-7).

141. 어쩌면 이 법들 중 일부는 식별하는 도구와 해석의 길잡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은 - "유비적" 절차에 따라 - "주인"(섬김의 수혜자인 소유자)과 "하인/섬기는 자"(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를 규제하는 데 유익하다. 그렇다면 동물은 자기 주인의 윤리적 책임에 맡겨진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소가 뿔로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관한 규정(탈출 21,28-32)은 무례한 종의 주인(또는 심지어 폭력적 아들의 아버지)의 의무들에 관한 규율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사도 바오로는 아마도 랍비들의 환경에서 알려진 절차를 따르면서 신명 25,4의 규정("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를 복음 선교사에게 주어야 할 보상에 적용한다(1코린 9,9; 1티모 5,18). 또한 예수님은 가축들에게 해야 하는 예에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에 관한 예시를 이끌어 내신다(마태 12,11-12; 루카 13,15-16). 안식일에 짐짐승에게 허용해야

할 휴식(탈출 20,10; 신명 5,14)은 하느님의 일을 찬양하는 날 동물의 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규정의 적용은 - 종에 의해서도 - 모든 유형의 일에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주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짐에 놀려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강제로 지나치거나 또는 불의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뜻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니네베의 임금 짐승들에게도 강제한 단식과 자루옷(요나 3,7)은 아마도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 종이어서 - 도 포함하여 백성 전체가 참회 예식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142. 인간 목자는 다른 생명체들을 남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짐승을 돌본다(1사무 12,3). 사실 지혜 전통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잠언 12,10; 또한 시라 7,22 참조).

사실 사육자는 양 떼를 목초지로 데려가며(탈출 3,1; 예제 34,14; 시편 23,2), 물을 먹이고(창세 24,11,14,19-20; 탈출 2,16-19), 약탈자들에게서 양 떼를 보호하며(1사무 17,34-36; 요한 10,11-13), 양 울타리와 우리를 세운다(민수 32,16,36; 미카 2,12; 2역대 32,28). 말을 듣지 않는 짐승에게 고삐를 채우는 등, 교정 활동도 짐승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짐승은 더 나은 봉사를 하도록 배운다(예레 31,18). 이러한 목자의 활동에서 인간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하느님을 본받는다. 인간과 짐승 사이

에 협력적 "계약"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점도 덧붙여야 한다. 그것은 우두머리/임금과 신하의 관계의 은유로 소용될 것이다.

물론 목자는 양 떼를 돌보면서 현저한 이익을 본다. 목자는 이 점을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네 양 떼가 어떤지를 잘 살피고
가축 떼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재물은 길이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풀이 스러지고 다시 새 풀이 돋아나
산에서 목초를 거두어들이고 나면
새끼 양들은 네 옷을 장만해 주고
숫염소들은 밭을 살 돈이 된다.
염소젖은 넉넉하여 네 양식이 되고
네 집안의 양식과
네 여종들의 생계가 되어 준다(잠언 27,23-27).

인간은 동물들로부터 젓과 고기, 달걀과 꿀을 얻을 뿐 아니라, 옷을 만들기 위하여 모직을, 다양한 필요를 위하여 가죽을 추출하기도 한다. 소와 나귀는 밭일을 하는 인간을 도와 주며(1사무 8,16; 1열왕 19,19; 이사 28,28; 잠언 14,4) 사람(민수 22,21; 판관 5,10; 즈카 9,9)과 상품(창세 44,13; 탈출 23,5; 1사무 25,18; 2사무 16,1)을 수송하는 데 소용되고, 말은 전쟁에서 싸울 때 이용되었다(탈출 15,1; 2열왕 18,23-24; 호세 14,4; 아모 2,15; 시편

20,8; 33,17). 토빗의 이야기에서 개는 반려 동물의 원조인 것 같다(토빗 6,1; 11,4). 이 기능들 중에 어떤 기능들은 오늘날 기계로 수행되지만, 인간의 삶은 다른 생명체들의 이와 같은 유익한 존재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이것에서 종교적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값진 선물을 인식한다(1티모 4,4-5).

현인이 되기 위한 협력자

143. 이 밖에도 성서의 많은 곳에서 짐승들의 태도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많은 가르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창조주께서 'adam에게 주신 협력자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난다. 하느님이 지혜의 정신의 유익한 표시를 넣어 주신 바로 그 생명체들을 통하여 드러난다.

짐승들이 가르친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예를 들어 개미는 근면의 본보기다(잠언 6,6-11; 30,25). 그리고 꿀벌 - "꿀벌은 날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것 중에 으뜸이다"(시라 11,3) - 은 행동하는 주체의 작은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사람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이 보여 주듯이 작은 크기는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간헐 환경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는지 임금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가르쳐 준다(잠언 30,24-28).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에 기록된 특질들은 성서 저술가들에게 하느님의 의로운 인간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들을 이용하게 해 준다. 그리하

여 하느님은 새끼들을 자기 날개에 태워 데려오며(탈출 19,4) 보금 자리를 지키는(신명 32,11) 독수리에 비교된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마태 23,37)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다고 말하며, 예언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한다(이사 53,7; 예레 11,19).

또한 어떤 동물들은 사람들의 식별보다 더 나은 "식별" 능력을 드러낸다. 발라암의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자기 주인보다 먼저 본다(민수 22,22-34). 이는 이방인들의 예언을 비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보다 (때로는) 덜 총명한 인간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사야에 의해 확인된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이사 1,3).

그러니까 동물들은 누가 명령하는지 알아볼 줄 알며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한다. 예레미야가 이 진리를 다시 주장한다. 그는 철새들의 유익한 감각을 태도를 바꿀 줄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의 무능과 비교한다:

하늘을 나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mispat)을 알지 못하는구나(예레 8,7).

동물의 세계에서 증언된 생명의 신비

144.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동물들을 "눈여겨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행동 양식에 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뿐 아니라(마태 10,16), 더욱 근본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동물들의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청중들을 하느님께 대한 현명한 신뢰의 태도를 갖도록 이끌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마태 6,26);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마태 10,29-31).

또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뱀이 바위 위를 기어 다니는 방식에는 불가사의한("너무 이상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이 있다(잠언 30,19). 사실 동물의 세계는 가장 신비스러운 공간 가운데 하나다. 그 세계에서 삶은 놀랍고도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욕의 눈앞에 그 모든 것을 펼쳐놓으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욕이 모든 것을 아는 채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창조주께 더욱 적합한 존중의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는 바위 산양이 해산하는 시간을 알며
사슴이 산고를 치르는 것을 살펴보았느냐? [...]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느냐?
들나귀의 굴레를 누가 풀어 주었느냐? [...]
들소가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네 구유 옆에서 밤을 지내겠느냐?(욥 39,1,5,9).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브헤못을! [...]
그것이 눈을 뜨고 있는데 잡을 수 있으며
올가미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
너는 갈고리로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으며
줄로 그 혀를 내리누를 수 있느냐?(욥 40,15,24-25).

욥기의 수사학은 많은 예를 보여 주며 세세한 사항들을 밝혀 주고 독자로 하여금 엄청난 활력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동물 세계의 행위들을 강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과 역사에 대해 더 나은 지성의 과정 안에서 독자를 도와 주려고 한다. 내적 눈으로 세상에 넘치는 삶의 신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욥 42,5), 창조주께 욥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은,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욥
42,2-3).

하느님의 행동의 표시로서의 동물

145. 끝으로,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심판"을 느끼게 하려고 동물들을 이용하신다. 먼저, 때로 역설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은 은혜를 베푸는 표시로 동물들을 이용하신다. 하느님은 예언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까마귀를 보내시며(1열왕 17,4-6),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시며(요나 2,1),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 내게 하신다(요나 2,11). 하느님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의인을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에게 달려들게도 하신다(다니 6,17-25). 여하튼 이 이야기들 - 특히 전설의 성격을 지닌 - 은 하느님의 섭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저 행복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점을 밝혀 준다.

또한 이 마지막 관점은 주님이 징벌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출기에서 오만한 파라오에게 하느님이 "이집트 땅을 뒤덮도록"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시고(탈

출 8,1-2), 이어서 모기(탈출 8,12-13)와 등에 떼(탈출 8,20)를 날아들게 하시고, 끝으로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식물들을 모조리 먹어 버리게 하신다(탈출 10,4-6,12-15)고 읽는다. 지혜서는 이 사화들을 기억하며(지혜 16,1,3,9; 17,9), 하나님의 온건하심의 표시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지혜 12,8-10,19-21; 16,6). 그 뒤에 똑같은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우리는 그것이 말벌과 함께 쫓겨난 가나안족에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지만(탈출 23,28; 신명 7,20; 여호 24,12; 지혜 12,8),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반역할 때, 불뱀으로 위협을 받거나(민수 21,6; 신명 32,24; 예레 8,17; 지혜 16,5), 또는 밭을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을 때(신명 28,38; 요엘 2,25; 아모 4,9; 7,1)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보내신 맹수들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예레 2,15; 4,7; 호세 13,7-8; 아모 3,12; 시라 39,30-31 등).

맹수들

146. 인간이 두려워하며 때로는 희생이 되기도 하는 유해 동물들과 맹수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는 창조의 조화로운 관점에 문제가 되는 요소이다. 창세기의 첫 두 장에는 맹수들이 경쟁자나 위협적 존재라는 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록한 저자는 이 부분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창조주께서 해주신 완전히 은혜로운 선물을 보여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3장에 와서 비로소 뱀의 형태로 유혹자 동물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뱀은 인간 존재를 해치기 위하여 그의 간

교함을 이용한다(창세 3,1).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문헌의 4장에서 언급하겠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생명체들 사이의 조화가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잘못된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맹수들 사이에서나 인간들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창세 3,15에는 하와의 후손에 대한 뱀의 적개심만 언급한다. 또한 하느님이 말씀하신 문장은 동물의 맹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확정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와 달리 성경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애 동안 많은 불완전한 현상들을 산다. 그 중에는 똑같은 지역에 있는 생명체들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는 현상도 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며, 인간 존재는 고통 중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한다. 그리하여 야수는 무자비한 원수의 위협을 묘사할 때 소중한 은유가 될 것이다(예레 4,7; 시편 17,12; 58,5-7; 다니 7,2-7 등). 그러나 신앙인은 온 우주의 구원이 실현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로마 8,19-25), 거기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고(에제 34,23-25) 평화의 계약을 맺으실 좋은 목자의 도래와 연결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약속이다(이사 11,6-8; 65,25; 호세 2,20). 어쩌면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시며"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던(마르 1,13)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의인을 지켜 주신다고 보증하는 시편의 말씀뿐 아니라(시편 91,11-13), 하느님 나라의 상징적 시작도 확정되는 것을 본다.

고대 의식에서의 도움

147. 인간은 상징적 성격의 외적 행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 행위들 가운데 더욱 빈번하고 의미심장하게 사용된 행위는 경외하며 흠송한다는 표징으로, 은혜를 얻기 위한 탄원의 표징으로,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징으로 신에게 바치는 **예물 봉헌**이다. 모든 고대 문명에서, 그리고 전통 종교를 실천하는 민족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봉헌물들 가운데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물**이 가장 각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물은 때로는 번제물로 불에 태웠고, 때로는 불에 구워 친교의 표지로 신성한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절대자와의 관계를 뜻하기 위해, 이 신성한 의식들에서 특정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더욱 값진 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의 중재가 이용된다. 사실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숲 속에서 사로잡은 맹수가 아니며, 인간이 먹지 않을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무익한 짐승이 아니라(레위 1,3; 3,1; 22,18-25; 말라 1,8,1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봉헌하기에 합당하도록 사육된 흠 없고(탈출 12,5) 귀중한 동물이다. 그분께는 짐승의 말배를 바치는데(창세 4,4; 탈출 13,1-2.11-12; 22,28-29; 신명 12,6; 15,19), 말배는 그 순간 인간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다. 그 말배를 바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동물은 최고의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성별" 되었다. 고대의 인간은 여기에서 어떤 폭력도 보지 않았다.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어떤 반역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표지가 그러하듯이, 동물 희생의 표지도 자연히 그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종교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느님을 최고로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의 "존엄"과 (추정된) 살 "권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성서 전통은 동물들에게 존중을 표하면서도 희생 제물들에 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148. 특히 예언서들에서 희생 의식 자체가 아니라, 정의에 따른 인간의 행동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의식 행위들의 외적 태도가 반복해서 비판을 받는다(이사 1,11-17; 43,22-24; 58,3-5; 예레 6,20; 11,15; 호세 5,6-7; 6,6; 아모 5,21-25; 미카 6,6-7; 즈카 7,4-6). 희생 제물은 정당한 종교적 차원의 표현이 되는 대신, 거짓 가면, 마음의 대체물, 어떤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하여(시라 35,11-12) 또는 하느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시편 50,7-15) 하느님을 부패시키려는 시도가 되기까지 한다. 수없이 많은 번제물과 기름 강처림(미카 6,7), 풍부한 희생 제물 자체(아모 4,4-5)가 산비둘기 두 마리의 겸허한 제물로 잘 표현된 상징적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레위 12,8; 루카 2,24). 전례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마음이며(시편 51,18-19),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지(시편 40,7-9), 제물이 아니다.

예언자의 비판이 신랄하기는 하지만 희생 제사가 폐지되도록 하

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는 성서 문학 전체에서 입증되며 예수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스승 자신이 그러한 종교 실천을 비난하지 않는다.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단지 형제적 화해의 의무를 예물 봉헌보다 앞세운다(마태 5,23-24). 스승은 호세아 예언자(호세 6,6)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9,13; 12,6)라는 말을 되풀이 하지만, 엄밀히 말해 희생 제사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린양의 희생에 집중된 파스카를 경축하였다(루카 22,14-16).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 과 그분 제자들의 종교 가르침이 된 것 - 은 한편으로 예언 전통에 삽입되어 예언 전통을 완성한다. 곧, 주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사랑의 제물로 바쳐야 하며(로마 12,1 참조), 하느님 안에서만 사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마태 16,24-25; 요한 10,17-18; 12,25).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쏘을 피가 당신의 피이며 다른 어떤 생명체의 피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새로운 제사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 제사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마태 26,26-28) "단 한 번"(히브 7,27; 9,12; 10,10) 제물로 바치신 당신의 살과 피의 선물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당신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고 경축하고 실현하는 "기념"이다. 그리고 새로운 의식은 옛 제사를 영구히 폐지할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 폭력의 종말을 제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평화이시고(에페 2,14-18),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하였으며, 이상적으로 낙원의 시기(창세 1,29-30)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신앙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하느님과의 충만한 친교를 나누는 영원한 왕국(이

사 35,9; 65,25)에로 되돌려졌기 때문이다.

결론

149. 창세 2,8-10의 본문은 "모든 것이 참 좋으며"(창세 1,31) 거저 주는 하느님의 영구한 선물이라고 이해하면서 창조를 명상하도록 이끌려고 한다. 'adam을 돕도록 주어진 생명체들과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은 분명히 사물의 선성을 표현하지만, 특히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선성을 표현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도 땅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의 손과 마음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선물은 관계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본래의 선물에서부터 성서 전통에서 광범위하게 주제로 다루어지는 지침들이 - 묵시적으로 - 설정된다. 창조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근본적 관계를 세운다. 곧, 하느님은 영구히 보호하시고,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자유롭게 받아들일도록 부름을 받은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선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은 또한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소중한 선물로 보존하며, 힘들기는 하지만 유용하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토양과 받은 재능을 이용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물은 공유되고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는 데에 소용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 2,8-20의 본문은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난다. 곧 하느님은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선물의 다른 차원들, 곧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원하셨던 "참 좋은" 실재를 설명해 주는 차원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본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제3장

인간의 가족

150.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adam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18). 창조주께서 "한처음" 인류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창세 1,27; 2,21-23)는 사실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남녀의 차이를 주의 깊게 고려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두 성은 당연히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사랑의 관계의 이상적 가치 안에서 남녀 관계의 요소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창조주에 의해 빛이 된 흙의 먼지를 생명체가 되게 한 창조주의 숨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합의된 만남 - 생명을 발산하는 - 안에서 진리와 생명력을 드러낸다. 창조의 은혜는 "외로움"을 극복하게 한 것이다. 이 극복은 사랑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에서 자녀로, 그리고 친숙한 형제애에서 모든 인간 존재와의 친교로 나아가는 항상 더욱 폭넓은 관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의 첫 쪽부터 마지막 쪽에 이르기까지 **혼인의 일치**의 구체적 표현 안에는 물론, 영적, 초월적 계약들을 표현하는 표상으로서의 상징적 가정 안에 이 주제가 들어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모티프는 분명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성을 가진 육체의 중요성("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 1,27)이 있다. 여기에서 생명에 주어진 주된 가치 때문에 성경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두 성의 각각에 적합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헌신과 성실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 말할 때, 혼인의 표상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애정의 차원이 자유로운 선택과 결합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일치에서 자주 풍부한 결실을 가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운과 위반, 폭력과 실패가 없지 않다. 사실 혼인의 사랑은 특히 지혜 문학에서 경고하듯이 모호함과 위험을 드러내는 즉각적인 열정적 매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결혼으로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의 염원들은 항상 하나로 수렴되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긴장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공동체를 위한 권위와 봉사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151. 창세 1장에서 부부의 창조(창세 1,27)는 번성할 것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축복 행위와 곧바로 연결된다(창세 1,28). 사실 **부**

부모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 역시 출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첫 만남에서부터 인류의 수많은 후손이 생겨난다(창세 5,1-32; 10,1-32). 창조들의 전통에서 불임의 조건은 먼저 인류 전체에게 주어졌으며 특히 아브라함에게 갱신된 하느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 같다(창세 12,2; 17,5-6; 신명 7,13-14). 그러나 계약 백성의 역사(하느님의 행동에 좌우되는)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적적으로 변성하는 데에서 정점에 이르는 긍정적 발전을 보여 준다(탈출 1,7; 이사 51,2). 그러나 만약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 뿐 아니라, 그 관계들을 지탱하고 완성으로 이끄는 사랑의 요소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자발적 평가는 (중 또는 특정한 "가문"의) 생존 본능을 반영할 뿐인 것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 부모의 자녀 사랑(성서에서 "사랑하다" 동사가 처음 나오는 창세 22,2 참조)은 혈연 관계의 기원이다. 또한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기본 행위로부터 사랑하기를 배울 가능성이 생겨나는데(1요한 4,19), 그것은 부모를 향한 구체적 애정에서 출발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불균형(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동등한 관계와 달리)은 특수한 사랑의 차원을 요구하며, 때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적절한 파괴적 행위들이 결정될 수 있다(1베드 2,16). 이 주제를 이 장의 제2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인류의 변성은 폭넓고 성장하며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의 사랑, 곧 협력과 일치 안에서 표

현되는 사랑이 솟아나게 하는 한, 이것은 역사의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이미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 언제나 좋은 피가 흐르는 것만은 아님을 알고 있다. 적대의식, 전쟁, 학살이 인간의 시대를 표시한다. 피를 나누는 가족으로부터 인류 전체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형제애에 대한 호소는 인간에게 주는 하느님의 계명이 된다. 그리하여 창조는 완전의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다.

창세 2,21-25

²¹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adam)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²²주 하느님께서 사람('adam)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issah)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adam)에게 데려오시자, ²³사람('adam)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is)에게서 나왔으니 여자('issah)라 불리리라.”

²⁴그러므로 남자('is)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issah)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²⁵사람('adam)과 그 아내('issah)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52. 이 짝막한 단락은 창세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야기의 두 개의 주요한 순간이 연달아 이어진다. 곧, 첫째 순간은 남자와 여자에게 기원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로 되어 있다. 둘째 순간은 하느님의 작품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더불어 부부의 만남으로 대표된다. 앞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는 물질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결산 보고서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자는 상징적 가치의 문학 유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성서 본문에 대해 지능적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주석학자들이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락 전체는 물론, 설화자가 상세히 설명하는 다양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야기의 중요한 주어를 묘사하기 위하여 이용된 용어에서 나온다. 위에서 제시한 번역에서 이미 나타나듯이(팔호 안에 제시한 히브리어 단어와 더불어), 'adam'이라는 용어에는 일정한 모호성이 있다. 많은 경우, 그리고 분명히 창세 2장의 첫 부분에서 그 명사는 인간 존재 일반을 가리킨다. 또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 다음 장에서 그러한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는 그 예를 하느님이 'adam'을 찾기 위하여 동산으로 오시는 창세 3,9-10에서, 또는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창세 3,22-24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양식의 선물, 일의 과제, 그리고 특히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의 부과(창세 2,16-17)는, 죄에 대한 결과들에서처럼(창세 3,9-10,19,22-24), 성의 구별 없이 일반

적 인간을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용어 'adam'이 남성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 이유는 (그의) "여자"(창세 2,22-23,25; 3,8,12,17,20-21)와의 명확한 상호관계 때문이다. 또한 이 남성의 의미는 역사의 한 시점에 인류의 시조의 이름(아담)이 된다는 사실에 의해 성별된다(창세 4,1,25; 5,1-5).

153. 'adam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모호성(이탈리아어에서 "uomo"(사람, 남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은 이 단락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였다. 첫째 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이라 부를 수 있는 독서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이야기는 창조주가 남자에게서 빼낸 물질("갈빗대")을 이용하여 실행한 여자의 창조를 묘사한다. 이는 'adam의 선언으로 확인될 것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창세 2,23). 이렇게 하여 어떤 주석학자들은 성서 저자가 모든 남자들이 여자"로부터" 나온다는 명백한 사실을 재치 있게 뒤집어서 한처음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기원한다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오로는 이 노선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가 남자에게서[ek tou andros]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dia tes gynaikos*]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1코린 11,12). 사도 바오로의 말을 따르면, 이중적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곧, 한편, 상호 인정이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1코린 11,11). 다른 한편,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위계 질서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될 것

이다(1코린 11,7-10). 왜냐하면 "사실 아담이 먼저 빚어졌고 그 다음에 하와가 빚어졌기 때문이다"(1티모 2,11-13).

오늘날 그와 유사한 사회학적 전망은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서 본문이 주석학적으로는 더욱 엄밀한 상이한 독서를 가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20절에 이르기까지 설화자가 성적 함의가 전혀 없이 'adam에 대해 말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설명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의 정확한 구성에 대한 상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남녀 양성을 갖춘 존재의 "괴물 같은" 형태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adam과 함께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느님이 이룩하신 놀라운 이적이 무엇인지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권유를 받는다(창세 15,12; 욥 33,15 참조). 사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기원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이 단계는 "adam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창세 2,21) 창조주의 행위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잠은 고통 없는 수술을 받게 해 주는 완전한 마취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잠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곧 하느님이 하나의 존재('adam)로부터 두 사람, 곧 남자('is)와 여자('issah)를 만드는 사건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 유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차이가 (상호) 인식의 영적 행복을 발견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상호 인식은 사랑의 친교의 원칙이며 "한 몸"(창세 2,24)이 되라는 호소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은 남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외로움이다.

유사점과 차이점

154. 우리는 창세 1-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다양한 존재들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점의 개념과 차이점의 개념을 모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덧없음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사실 모든 생명체들은 죽으며, 사물은 소모되니다. 영속하는 것의 관례적 표상이기는 하지만(시편 89,37-38), 여하튼 심지어 하늘도 "사라질 것"(마태 24,29,35; 참조: 이사 51,6)이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과 다르며,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그들 사이에 유사점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창세 1장에서 옛세 동안의 창조는 공통적 특성을 지닌 존재들을 한데 묶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물, 빛물체, 식물, 생명체). 그러나 각 날의 내부에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태양과 다른 별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지만, 식물과 동물은 "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끝으로, 동물들과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인간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창조주와 다르기는 하지만, 창조주에 유사한 유일한 존재다("그분의 모습 대로"라는 사실 때문에). 창세 1장의 저자는 동사 "가르다"(창세 1,4,6,7,14,18)를 통해 이런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모든 "혼란"(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은 원초적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창세 1,2).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토라에서 혼합물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들을 발견한다(레위 19,19; 신명 22,5,9-11 참

조). 믿는 이는 이처럼 하느님이 세상의 기원 때 일으키셨던 중요한 차이들을 인정하는 순종을 상징적 실천으로 표현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하나의 피조물에 다른 피조물의 가치를 주지 않도록 슬기롭고 항구한 식별이 요구된다.

창세 2장에서도 문학 절차가 다르고 덜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adam이 동물들을 창조하였던 것과 똑같은 자료로 빚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존재들 사이에 유사점의 요소들이 도입된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하느님의 숨 덕분에 생명체가 된 인간 존재에 "알맞은 협력자"가 아니다.

155.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의 접합은 'adam의 내부에도 도입되었다. 창세 1,27절에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27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그러므로 1코린 11,7에서 읽을 수 있듯이 남자만이 아니라) 창조되었다(유사점을 가리키는 단수)고 주장한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 내부에서 차이가 나오게 하는) 남자와 여자의 현실을 (복수로) 명확히 말한다. 창세 2장에서 저자는 두 존재 사이의 유사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질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형성을 대표하는 것을 지적한다. 'is(남자)와 'issah(여자) 사이에 추정된 어원학적 파생은 그들의 "친족 관계"를 보여 주는 것 외에, 생명의 출산에 필요한 혼인의 결합(24절)으로 이끄는 차이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부부의 관계는 부부 각자의 고유한 특수성을 무화시키는 "통합"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고 말하는 성서 본문에서 육체의 결합은 결혼한 부부에게 그들의 전체적이고 배타적이며 영속하는 불가분의 사랑의 표지를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육체의 결합이 실제로 결정적인 상호 소속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 표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실제적 사랑을 표현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것은 육체적 존재의 여러 훈련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모든 믿는 이는 육체의 구체성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부름을 받아 그분 안에서 "한 몸"(1코린 10,17; 12,12-13; 에페 1,23; 4,4)이 된다. 이는 지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로마 12,4-5; 1코린 12,14,27; 에페 4,16).

성경에 따르면, 다른 성의 육체적 표지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치를 수용하고, 항상 더욱 적합하게 이해해야 하며, 완전한 의로움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나는 몇 가지 표현은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 역사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비판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왜냐하면 그 표현들은 다른 성에 대한 적대적 판단들을 지니고 있으며(시라 25,24; 1티모 2,14 참조), 따라서 억압적이며 폭력적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용서에 기반을 두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인내롭고 너그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인간 역사에서 특히 하느님에 따른 계약의 형태인 혼인에서 남녀 사이에 더욱 적합한 관계의 표현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156. 주 하느님의 창조 행위의 몇몇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

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위에 인용한 이탈리아 주교회의 공용성서(CEI)의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 laqah를 "제거하다"(21-22,23절)로 번역하면서 빼낸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선택하다(고르다)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빼내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창세 4,19; 6,2; 11,29 참조). 또한, 라틴어 번역본(Vulgata)이 받아들인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LXX)은 히브리어 용어 sela'를 "갈빗뼈"로 옮겼지만, 성서의 다른 모든 곳(탈출 25,12,14; 2사무 16,13; 1열왕 6,34; 에제 41,5,9)에서 이 용어는 (인간) 신체의 특수한 부분을 절대로 가리키지 않으며 단순하게 어떤 대상물의 "측면" 또는 옆을 가리킨다. 만약 해부학적 기관(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을 가리키는 언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자와 여자"는 그들을 구성하는 특질에서 비슷한 "측면과 측면"이라는 개념이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그들은 협조자와 동맹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 "나란히"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실 시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뜻이 맞는 협조자요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시라 36,26; 우리말 성경에는 36,29). 사실 두 사람은 각기 정체성의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남자에게는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21절)는 행위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동사 "짓다"(banah: 22절)로 표현되었는데, 이 동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지막 손질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지으진 존재"(banah: 참조: 창세 16,2; 30,3)가 자녀를 낳는(banim) 잠재력과 일치한다. 육체 안에 각 주체의 특수한 정체성이 계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곧, 다른 존재는 부족한 부분을 메

꾸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완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종속되지 않는 인격체, 곧 하느님의 활동의 완성으로 창조된 완전한 "선"으로 칭송받는 인격체로서 경이로운 은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57. 이야기의 둘째 부분은 부부의 만남에서 정점에 이른다(22ㄴ-25절). 주님께서 결합을 장려하려는 묵시적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온"(직역하면 "오게 한")(22ㄴ절)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만남을 지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이번에는" 혼자 있는 인간 존재의 외로움(18절)을 물리칠 수 있는 저 "선"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부르짖는다(23절). 선은 창조주에 의해 분명히 완성되었지만, 자유로운 사랑의 결정으로 이제는 피조물에 의해서도 인지되고 받아들여진다. 사실 23-24절의 장엄한 말에서 두 성의 동등성만 선언된 것이 아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계약" 문맥에서 사용되는 관용구이며(창세 29,14; 판관 9,2; 2사무 5,1-3; 19,13-14)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여겨질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바오로는 결혼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 창세 2,23-24을 명확히 가리키면서 -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을 사용한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에페 5,28-30).

결혼의 계약을 맺으라는 호소는 24절의 주제가 된다. 여기서 화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의 목적을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언급은 지금의 이야기 문맥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독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남자를 위해 설계된 이상적 행정(行程)이 선언되었음을 보게 한다. 곧, 하느님이 데려오신 여자는 남자에게 가며(22절), 남자는 선물을 인지하고 여자에게 간다(24절). 각자가 상호 "결합"을 통해 새 삶의 원칙이 되고 역사 안에서 유일한 아버지(unica Paterntà), 곧 모든 것의 유일한 기원(unica Origine)을 증언하는 표지가 될 저 일치("한 몸")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유래한 실재를 포기한다.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알몸이 남자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가벼운 어조를 끝낸다(25절). 그것은 죄에 의해(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기원의 무죄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몸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신랑 신부의 성적 관계가 순수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신성함과 상호 존경의 표현으로서 수치심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1.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158. 성서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 존재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의 첫 마디는 계약의 친교로 함께 살아야

할 주체(여성)를 알아보는 사람(남성)의 말이다(창세 2,23). 그 말은 선물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시적 언어들이다. 그 말은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교회)가 신랑(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묵시 22,17)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삶과 완전한 기쁨을 완성하게 될 때까지 인간의 역사를 표시하게 될 불확정의 노래의 시작이다(예레 33,11).

사랑의 노래

성서에는 혼인의 사랑에 관한 시만으로 쓰인 책이 한 권 있다. 매우 특별한 문학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은 바로 **아가다**. 그 책이 아가로 불리게 된 것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의 사랑 노래이며 노래 중의 노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는 이중창으로 그들의 애정과 기쁨을 노래한다. 남자와 여자, 곧 연인과 애인은 각자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달리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한 갈망과 매력으로 그의 정체성을 칭송하면서 그들 사이에 밀접히 일치되어 있다(아가 7,11). 관계는 서로 높이 평가하는 아름다움에서 시작된다. 관계는 지속적 탐구와 서로에 대한 앎으로 발전하며, 갈망하는 친교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모든 이를 기쁘게 하는 축제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 내고 세상의 모든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 드러난다. 아가의 시를 엮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이다.

아름다움

159. 혼인의 사랑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의 표출에 대한 놀라움

에서 분출된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스러움에 이끌린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다운 매력에 유혹된다: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정녕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의 연인이여.

당신은 사랑스러워요"(아가 1,15-16).

아름다움의 모티프는 아가에서 반복해서 올려퍼진다(아가 1,8; 4,1.7; 5,9; 6,1.4.10). 인간의 몸의 특질을 그렇게 표현하며, 눈부신 아름다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경탄한다(창세 2,25 참조). 그러나 인간의 몸이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되는 것은 사랑에 빠지게 하며(시라 36,24 참조),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한 가지 길일 수 있다. 구원 역사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그들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기억된다. 사라(창세 12,11,14), 라헬(창세 29,17), 아비가일(1사무 25,3), 욥의 세 딸(욥 42,15), 에스테르(에스 2,7), 유딧(유딧 8,7)과 같은 여자들 뿐 아니라, 요셉(창세 39,6), 모세(탈출 2,2), 다윗(1사무 16,12), 대사제 시몬(시라 50,5-10)과 같은 남자들도 기억된다. 이 인물들의 아름다움은 설화 줄거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넘어 독자에게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의 역사를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 마침내 "어떤 사람보다 수려하신"(시편 45,3) 메시아에 매료된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눈을 쳐다보면서 담콧함과 부드러움과 열정을 본다. 눈동자는 찬란하게 빛나며 침묵 중에 사랑의 감정과 손짓을 표현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모든 지체가 말을 하면서 매력과 제안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연인은 애인을 묘사하면서 애인의 몸의 모든 부분을 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아가 4,1-5). 연인은 그와 동시에 자신의 경탄과 갈망을 표현한다:

"나의 애인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려(아가 4,7).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
한 번의 눈짓으로,
그대 목걸이 한 줄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아가 4,9).

그리고 애인은 강렬한 열정을 가진 표상으로 응답하며(아가 5,10-16)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 받으며"(아가 5,9)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아가 1,7; 3,2-4)라고 불리는 그의 모습을 묘사한다. 창조된 세상의 놀라운 일들이 그 과일들(아가 4,16; 2,3; 5,1 등)과 그 향기(아가 2,12-13; 3,6; 4,6; 5,1 등)와 더불어 잘 가꾼 "정원"처럼 삶의 근거인(아가 4,12.15-16; 5,1; 6,2; 8,13) 사랑하는 사람의 기적을 제시하는 은유로 이용된다. 연인은 하느님이 주신 에덴의 선물을 참으로 경험하면서(창세 2,8-25) 경탄하며 외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정원으로 내가 왔소.

내 몰약과 발삼을 거두고
꿀이 든 내 꿀송이를 먹고
젓과 함께 내 포도주를 마신다오"(아가 5,1).

서로의 탐구와 친교의 염원

160. 사랑은 탐구로, 연인/애인을 보고 만나고 포용하고 싶은 갈망으로 표현된다. 여자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 주시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아가 1,7) 하고 묻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잡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아가 3,1-2; 참조: 아가 5,6-8).

그리고 연인은 애인을 만나러 가며(아가 2,8) 그녀에게 속삭인다:

"바위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오"(아가 2,14).

사실 연인은 열망의 밤에 애인의 문을 두드리러 온다(아가 5,2). 연인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은밀한 방으로 인도된다(아가 3,4; 8,5; 참조: 창세 24,67). 그리하여 상호 소속의 친밀함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이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이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답니다(아가 2,6; 8,3).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아가 2,16; 6,3; 7,11).

사랑은 서로에게 거저 너그럽게 주는 선물이다.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파괴한다(아가 8,7-12).

유일한 관계

161. 연인은 애인에게 말한다: "나의 비둘기, 나의 티 없는 여인은 오직 하나"(아가 6,9). 사실 그녀만이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자기 연인의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아가 4,10).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아가 6,8), 한 여인만 선발되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우며(아가 1,8) 애인이고, "영경귀 사이에 핀 나리꽃 같으며"(아가 2,2), 해처럼 빛나고(아가 6,10), 홀로 세상을 비추는 별이다. 그녀는 연인의 배타적 소유자: "그대는 달힌 정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달힌 정원, 봉해진 우물"(아가 4,12). 그리고 이와 유사

하계,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연인은 "숲속 나무들 사이의 사과나무 같고"(아가 2,3), 다른 모든 연인보다 나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아가 5,9),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아가 5,10). 그러므로 사랑의 온갖 맛깔스러운 과일들이 "그를 위해 간직되어 왔다"(아가 7,14).

그리고 정확히 말해 아가는 이상적으로 솔로몬의 세계(아가 1,1,5; 3,7,9,11)와 따라서 일부다처제(아가 6,8-9)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배타적이며 전체적인 소속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대조적으로 부각된다. 사실 이것이 성서 전통이 지향하고 있는 형태이며 유일하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다.

깨어지기 쉬운 사랑, 보호해야 할 사랑

162. 아가 전체를 흐르고 있는 비범하고 열정적인 걱정은 아가의 가장 유명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 곧 시의 마지막에 배치된 단언을 이해하게 해 준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역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입니다"(아가 8,6).

어떤 것도 끄거나 휩쓸어 갈 수 없는(아가 8,7) 그런 감정은 타고난 연약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랑은 인간의 마음의 사건이며 마음은 어둠과 불확실성과 불안과 환멸의 경험을 건너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인은 자기 영혼의 사랑

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 내지 못한다(아가 3,1-2). 만남의 순간 자체가 역설적으로 사라져가는 것으로 제시된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네.
그러나 나의 연인은 몸을 돌려 가 버렸다네.
그이가 떠나 버려 나는 낮이 나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고
그이를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아가 5,6).

더 나아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있다. 그 위협은 그녀를 때리고 상처 내는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아가 5,7)에게서도 오지만, 특히 꽃이 한창인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에게서 온다(아가 2,15). 이 마지막 표상과 더불어 시인은 사랑이 꽃피는 것을 폭력으로 파괴시키는 욕망의 힘을 암시한다. 보호가 없으면 사랑은 취약성을 드러낸다(아가 8,8-9).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축제

163. 아가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살아 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다른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행복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아가 5,1);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아가 2,12) 하고 신부가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의 대관식의 대축제 날(아가 3,11; 7,6)과 그의 혼인 예식(아가 3,11; 8,8)이 기억된다. 금으로 입힌 가마(아가 3,9-10)가 용사들의 호위

를 받으며 나아가고(아가 3,7-8), 우아한 샌들은 춤추는 발을 묘사한다(아가 7,1-2). 그러므로 사랑의 신비의 상징인 친밀감은 일종의 공적 증언과 결합하여 마음의 기쁨이 공유되고 모든 이를 흥미로운 칭송으로 이끌어간다(아가 6,9).

아가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아름다움 자체로 자연스럽게 빛난다. 여자가 세 번에 걸쳐 연인에 대해 말하며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ha 'ahabah)(아가 2,7; 3,5; 8,4)이라고 정의한다(아가 2,7;3,5; 8,4). 연인 역시 똑같은 식으로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녕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ahabah), 환희의 여인이여!"(아가 7,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가 주님께 사랑 받은 신부인 이스라엘과 사랑 자체이시며 신랑인 하느님 사이에 위대한 우화로 읽힌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예언 전통은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헌신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혼인의 사랑의 동일한 상징적 지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 복음서들의 결론에서 - 부활하신 분과 막달라의 마리아가 동산에서 만난 것을 이야기한다(요한 20,11-18).

기도가 되는 사랑의 노래

164.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하신 일을 명상하며 거기에서 가르침과 찬양의 동기와 마음의 기쁨을 이끌어 낸다. 시편집에 있는 기도의 문제들 가운데에는 혼인의 사랑을 경축하는 것도 있다. 혼인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에서 주님의 행위를 발견하

고 기념한다.

마치 아가를 반향하듯이 "사랑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 45은 젊은 공주와 결혼하는 임금의 혼인잔치의 찬란한 순간을 표현한다. 신랑신부의 아름다움(3절과 12절), 의복의 화려함(4.10.14-15절), 향기(8-9절), 음악(9절)이 축제를 장엄하게 하는 행렬(10.13.15-16절)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8.9.16절) 속에 기억된다. 그러나 아가와 달리 이 시는 연인들의 주도적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신랑에 대해서는 강복(3절)과 축성(8절)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개입을 강조하고, 신부에 대해서는 풍요(17절)와 찬송(18절)이 약속된다. 또한 임금은 초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인물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으레 하느님께 유보된 특장들이 그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곧, 그는 "엄위"와 "영화"를 입은(4절) "용사"(4절)라고 말하며, 그의 입술은 "우아함"(3절)을 머금고 있으며, 당당한 그의 걸음은 "진실"과 "정의"를 만들어 내며, 그의 오른팔은 "무서운 일들"(5절)을 한다. 그는 심지어 "하느님"(7절)과 신부의 "주인"으로 불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랑 노래가 메시아적 의미로, 종말의 때에 그의 정의의 왕좌에 영광스럽게 착좌하는 의기양양한 다윗 후손의 임금의 결혼 잔치를 증언하는 것으로 읽힌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신부는 자기 주인의 열망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을 내어 주며(12절) 풍요와 기쁨의 왕궁으로 들어가도록(16-17절) 지나간 옛 것을 잊어버리라는 부름을 받은(11절)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낸다. 임금의 혼인 잔치의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기도 안에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사랑과 승리

의 역사의 상징이 된다. 그리하여 그의 모습은 찬양과 희망의 노래가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혼인의 모티프는 시편 128에서 행복의 표현(1절)으로 다시 받아들여진다. 이 시편에서 칭송을 받는 것은 특히 가족들에게 보호를 받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 햇순들의 표상(3절)으로 표현된 풍요로움이다. 이 시편은 기도 본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을 노래하며(4절) 축복을 청하기 때문이다(5절). 그리하여 인간이 아무리 애쓰며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시편 127,3) "집을 지을 수가 없음(시편 127,1-2)을 아는 가운데 미래에 주님의 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혼인의 사랑의 노래는 사실 인간의 사랑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은밀하고 막강한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현인들의 평가와 그들의 권면

165.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다양한 음조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문서"의 위대한 수집물에 속하는 아가와 시편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든 책이 혼인 제도에 대한 무한한 존중을 드러낸다.

혼인의 사랑의 가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인들이 사용한 양식들 가운데 하나는 비유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야기들에서 주인공들은 존경하고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모범적 인물로 나타난다.

유다인들에게는 아가와 함께 "다섯 두루마리"의 하나인 룻기에 서 중심 인물은 모압 여자 룻이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 마홀론의 과부가 된다. 그녀는 남편과 맺은 사랑의 끈에 강인하고 충실하게 머물면서 남편의 가족과 해소할 수 없이 연결되어 남음으로써 자기 조국(시편 45,11 참조)과 종교 전통을 포기한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그녀의 선언은 유명하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립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룻 1,16-17).

그리하여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지방으로 이민을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즈를 만나면서 그의 사랑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보아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 과부를 도와 주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루사 4,10). 이 짙막한 교훈 이야기의 설화의 복잡성은 주인공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데 소용된다. 그들은 서로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 다른 민족과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영속적 끈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진 혼인의 결속의 힘을 드러낸다. 그 결속은 끝에 가서 놀라운 결실로 보상을 받는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즈에게서 메시아가 되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룻 4,17) 오벳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 감동적 이야기에서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지 못한다. 그리고 책임감(형사취수兄死娶嫂의

법에서 장려하는)과 결합된 사랑 가득한 충실성은 개인들과 공동체 전체에게 위로와 희망의 원천이 된다(룻 4,11-17).

우리에게는 그리스어로 쓰인 또 다른 짙막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토비야(니네베로 유배 온 연로한 토빗의 아들)의 여행과 일곱 남편을 두었던 과부 사라와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토빗 7,11,13) 기도로 봉헌된(토빗 8,4-8) 그들의 혼인의 일치는 부모와 시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생명과 기쁨의 근거가 된다(토빗 8,15-20; 11,17-18).

166.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신랑신부의 사랑과 충실성을 장려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역경과 불운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줌으로써 행복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비록 다른 설명이기는 하지만 잠언은 "힘 있는" 신부에게 헌정된 시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장점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잠언 31,11-12).

이 시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의 사업과 자선의 특질들을 칭송(잠언 31,13-27)한 뒤에, 결론적 찬사로 마무리된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잠언 31,28-29).

167. 그와 같이 이상적인 그림은 부부 관계의 문제들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을 건너뛰지 않는다. 사실 현인은 결혼 생활이 항상 완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남편은 때로 게으르고 술주정뱅이이며 어리석다. 그리고 아내는 포달스럽고 다투기 좋아하며 심지어 수치스럽기도 하여 그 결과는 파국적이며 불명예스럽다(잠언 12,4; 19,13; 21,9,19; 25,24; 27,15-16; 참조: 코헬 7,26-27; 시라 25,20). 그러므로 좋은 아내를 "찾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려 깊은 아내는 주님에게서 온다"(잠언 19,14)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녀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은 젊은이의 몫이며(잠언 18,22), 외부의 매력보다 영혼의 특성을 선호해야 하기 때문이다(잠언 31,30; 참조: 시라 42,12). 또한 한 번 결혼하면 남자는 "낮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잠언 5,1-14.20-21; 7,4-27; 23,26-28) 자기 아내와 유일한 결속을 보존해야 한다:

"네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네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 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너 혼자만의 것 네 곁에 있는

낮선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네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네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영양 너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하고
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잠언 5,15-19).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규칙이 없는 성에 반대하는 선의 현실에서 정의에 따라 성취되는 욕망의 은유이다(잠언 31,2-3; 참조: 시라 23,16-27; 47,19; 토빗 8,7). 신부를 가리키는 샘은 하느님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하느님은 인간 존재의 삶 전체를 지켜보신다(잠언 5,21; 시편 1,6). 이 유형의 본문이 은유적으로 읽힐 수 있다 하더라도 - 은유적 독서에 따르면 이상적 신부는 참 지혜를 대표하고, 낯선 여자는 세속 지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잠언 2,16-17; 9,13-18) - 여기에 이용된 은유적 복합체는 그 의미와 요구에 있어서 혼인의 일치의 구체적 현실에 기반을 둔다.

168. 벤 시라의 책도 많은 경구들을 혼인의 문맥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할애하고 있다. 유다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그 전망은 남자(남성)의 전망이며, 현인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신부를 찾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시라 7,22; 26,13-18). 위험이 없지 않은(시라 36,23-28) 그런 결정의 중요성은 유혹하는 여자와 나쁜 여자에 대해 매우 혹독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 지혜 수집물의 격언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시라 23,22-23; 25,13-26; 27,7-12). 그것은 대조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

로 화목하게 사는"(시라 25,1; 또한 25,8; 26,1 참조)행복한 결혼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게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해야 하며 어떤 배신도 하지 말아야 한다(시라 3,3-9; 19,2; 23,16-21; 26,11-12; 42,12-13). 또한 아버지는 딸을 위해 특별히 경계를 해야 한다(시라 7,24-25; 22,4; 26,10; 42,11). 딸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처녀일 때나 남편이 있는 여자일 때나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가 될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시라 42,9-10).

169. 이러한 유형의 전통 문학에서 아가의 서정성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상에서 남자에게 가능한 저 행복을 위해 필요한 더욱 구체적인 지혜의 길은 있다. 코헬렛도 이 노선에서 움직인다. 코헬렛은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서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각자 배우자에게서 받는 도움의 좋은 점을 인정한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코헬 4,9-12).

마지막 잠언의 표현을 해석하면서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세

번째 요소에서 부부의 아들에 대한 암시나, 또는 혼인의 사랑의 보호자이며 지지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금언은 단순히 "일치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결혼이 그에 대한 명백한 증언일 것이다.

코헬렛은 자기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다시 선택한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단순한 기쁨을 즐기라는 것인데, 그 기쁨들 가운데 혼인의 기쁨이 최고다:

"그러니 너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셔라.
하느님께서 이미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네 웃은 항상 깨끗하고
네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태양 아래에서 너의 허무한 모든 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네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네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노고에 대한 몫이다"(코헬 9,7-9).

170. 이 모든 것이 어찌면 진부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시편 128을 다시 읽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더욱 단순한 실재는 하느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저 인간의 행복의 기회요 도구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을 설정하는 데 더욱 적합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혼인의 조건이 지혜 전통에서 개인과 지혜

의 관계(행복의 샘인 관계: 잠언 3,17-18; 시라 15,2; 지혜 8,18)의 위대한 은유로 받아들여진 이유를 설명한다. 지혜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여 젊을 때부터 찾았으며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애를 썼다(지혜 8,2).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
지혜가 나에게 좋은 조연자가 되고
근심스럽고 슬플 때에는 격려가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지혜 8,9).
또 집에 들어가면 지혜와 함께 편히 쉬리니
그와 함께 지내는 데에 마음 쓰라릴 일이 없고
그와 같이 사는 데에 괴로울 일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다"(지혜 8,16).

잠언의 이상적 아내(잠언 31,10-31)는 (아마도) 지혜의 은유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서에서는 본보기적 아내로 상상되었다(시라 15,2 참조). 결혼이 세상 창조 때부터 창조주가 원했던 내밀한 가치에 응답할 때, 결혼을 삶과 기쁨의 사건이며 상징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혼인의 일치: 문제, 규정, 위반

171. 사실 성서가 추진하는 인간학적 전망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창조주께서 인간 존재를 위하여 원하셨던 계획의 실현을 인식하는 것이다(창세 1-2). 혼인 관계에 대한 항구하

고 일치된 평가는 자녀 출산과 교육에서 완성되는 것과 더불어 영감을 받은 성서 본문의 윤리적, 종교적 기획에 기본 요소가 된다. 성경은 그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유들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요점들을 제공한다. 그 요점들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해석 전통으로부터 교의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발전되었다.

여하튼 창세 2의 이야기에 의해 추적된(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 의해 주제로 다루어진) 이상적 그림은 구약성서의 다른 단락들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밝히겠지만, 옛 성경과 이어서 새 성경은 하느님이 미리 마련하신 혼인의 결합의 완전한 형태를 훼손하는 문제점들과 적절하지 않은 양태들과 위반하는 행위들을 부각시킨다. 결혼 제도를 약화시키는 동기들은 복합적이며 다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명성의 요소들, 또는 한계를 인지하지 않은 채 전해진 부적절한 관습들의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토록 쉽게 어리석음과 폭력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인간 마음의 열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성서 역사는 혼인 관계의 점진적이며, 충만한 예표로 이끄는 한 가지 노선을 따라간다. 동시에 그리고 역으로 성서 역사는 하느님의 율법에 반대되는(성적 환경에서) 범법 행위들에 대한 단죄를 더욱 엄격하게 표현한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담화의 여러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구약성서에서 입증된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혁신적인 요소들을 소개하는 신약성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가) 문제점들

172. 성서 본문을 살펴보면, 혼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때로는 다양한 형태들을 받아들였음을 확인한다. 그 형태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는 다른 형태의 관습들과 실천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한 비평적 주석 없이 성경에서 증명된다.

구약성서의 문학 전통에서 혈육의 후손의 가치가 거의 배타적으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수많은 후손(창세 24,60 참조), 특히 남자 후손(예레 20,15 참조)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많은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것이 인지되기 때문이다(창세 1,27-28; 9,1; 12,2; 17,16,20; 26,4; 28,14; 레위 26,9; 신명 28,4.11 등). 그러므로 출산의 선물은 존중해야 할 선이며 장려해야 할 가치로 향구하게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르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을 동의한 이유(창세 16,3-4)와 야곱이 두 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여종들로부터도 자녀들을 얻은 이유(창세 30,3-13)가 이렇게 설명된다. 합법적 신부들 외에 "소실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들의 신분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명확하게 단죄되지도 않았다(창세 22,24; 25,6; 35,22; 36,12; 판관 8,31; 19,1; 2사무 3,7; 16,22 등).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본문들에서 알 수 있는 혼인 제도의 윤곽은 완전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혼인의 일치는 으레 서로의 애정에 기반을 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창세 29,15-30), 결혼할 사람들의 부모의 뜻

에 종속된다(창세 21,21; 24,51; 29,21-28; 34,8; 탈출 2,21; 여호 15,16-17; 판관 14,2 등). 또한 가부장 사회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여자가 남자(ba'al, '주인', '고용주')에게 종속되는 것과 아내의 가치를 주로 출산의 기능과 연관해서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구약성서의 결혼 모델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들이다.

일부다처제

173. 아내들의 불임(창세 11,30; 25,21; 29,31; 30,1)과 많은 자손에 대한 염원은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다처제 현상을 선호하게 하였다. 이런 현상은 라멕(창세 4,19)과 에사우(창세 26,34; 28,9; 36,2-5)에 의해 기억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창세 25,1.6), 야곱(창세 29,15-30), 기드온(판관 8,30), 엘카나(1사무 1,2)에 의해서도 기억되었지만, 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임금들, 곧 다윗(2사무 3,2-5; 5,13; 15,16), 솔로몬(1열왕 11,1-3), 르하브암(2역대 11,21), 아비야(2역대 13,21)와 다른 많은 임금들에 의해서 기억되었다. 군주들에게 복수의 결혼(신명 17,17 참조)은 아내들의 기원이 되는 여러 나라들과 유익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은 권력의 가족화의 도구가 되었다(2역대 11,23 참조). 일부다처제 - 가부장 형태의 사회에서 미혼 여성들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 는 유다의 법 제정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되었다. 곧, 두 아내의 자녀들("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 신명 21,15-17)에게 주어야 할 상속에 관한 규정과 결혼하였으나 이어서 새로 들어온 아내에게 속하는 여종에 대한 의무들에 관한 규

칙(탈출 21,10)에서도 인정되었다. 일부다처제는 근친상간에 관한 몇몇 규칙에서 전제되기도 하였다(레위 18,18; 20,11; 신명 23,1; 27,20). 자주 여러 다산과 여러 어머니들의 자녀들 사이의 불화(창세 37,2-4 참조)로 인해 생겨난 아내들 사이의 질투와 경쟁(창세 16,4-6; 30,1; 레위 18,18; 1사무 1,7)은 이미 수용된 일부다처제 결혼 체계에 대해서마저 잠재적 비판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인지되어 있는 바지만, 일부일처제 결혼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개혁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일부다처제에 관한 명백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의 목록에서 이를 분명하게 단죄되는 것도 볼 수 없다.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위하여 "한 아내의 남편"의 신분을 지시하는 1티모 3,2,12과 티토 1,6의 본문들은 홀아비가 된 뒤에 재혼한 사람은 교회의 봉사직에서 제외된 것 같다. 그 대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부일처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그런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후손의 일차적 중요성은 형사취수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신명 25,5-10). 이 법은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신명 25,6). 오난("정액을 바닥에 쏟아 버리곤 한": 창세 38,7-10)의 처신에 대한 처벌은 위에서 지적한 법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그 처벌을 다른 성적 위반에 적용하면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형사취수의 규정(룻 4장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며, 마태 22,24에서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과과의 논쟁에서 이 규정을 지적한다)은 일부다처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유다 백성의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부부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물을 수 있다. 구약성서의 다른 규범들처럼 신약성서는 그러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종" 결혼

174. 설화자와 성서의 입법자는 이스라엘인들과 다른 민족들(특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 사이의 결혼에 대해 때로는 매우 분명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에사우의 두 아내로 맞아들인 히타이트 여자들은 "이사악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창세 26,35)고 이야기한다. 쌍둥이 야곱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비교할 때, 부모가 일부다처제를 싫어하지 않았으나 외국 여자들과의 결합을 싫어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다. 야곱 역시 두 아내의 남편이었지만, 그들은 "가문" 안에서 선택된 여자들이다(창세 27,46; 28,1-69). 친척 중에서 자녀들의 아내를 고르려는 부모의 노력은 신랑 신부 사이의 친교를 용이하게 하는 자기들의 종교 전통과 관습들을 보호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염려도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그의 골육의 후손들(그의 "씨")에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나이 법은 결혼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

천된 가나안인들과의 계약을 금지한다(탈출 23,32-33; 34,12-16; 신명 7,2-4).

사실 이렇게 분리를 옹호하는 것은 널리 이행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설화자가 질책을 아끼지 않는다(판관 3,5; 14,1-3; 1열왕 11,1-2; 16,31).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하면서 - 계약 갱신의 문맥에서 - 사실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내라고 명령한다(에즈 9,1-3; 10,18-44; 느헤 10,31; 13,23-27). 이와 달리, 다른 경우에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과 계약을 맺은 이민족 여자들과의 결혼을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요셉에게서 이집트 엄마의 자식들인 에프라임과 므나쎄가 태어난다(창세 41,50-52). 모세는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며(탈출 2,21-22), 아내로 맞아 아들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불의하게) 비난을 받았다(민수 12,1). 보아즈는 모압 여자 룯과 결혼하여 칭송을 받으며(룯 4,13-17), 다윗에 관해서도 여러 아내들 가운데에 이방인도 있었다고 말한다(1역대 3,2). 그러므로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구약성서의 특정한 법 조항의 규범을 악화시키지 않게 한다.

주님과의 계약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사도 3,25; 갈라 3,6-7), 그리스도교 환경에서 이런 문제점은 극복된 것 같다. 혈육(육에 따라)에 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랑신부가 둘 다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둘 다 "믿는 이들"이 아니라면, 각 개인의 종교 실천과 자녀들의 교육에 관하여 유사한 어려움과 중대한 불화마저 생겨날 수 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바오로는 "신자가 아닌" 여자와 결혼한 "형제"의 경우

를 예로 들면서, 만약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권유한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1코린 7,12-13).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 사도가 말한다 - 신자는 신자가 아닌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며 태어나는 자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약성서의 계약의 범주들이 이용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신비에 비추어 이 범주들이 다시 해석되었다. 모든 것은 자연히 부부 사이의 큰 상호 존경을 전제하며 자녀들에 관한 결정을 공유한다.

이혼

175. 결혼은 부부에게 이상적으로 전 생애 동안 지속되는 실재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결혼은 우연적 성관계와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된다. 어떤 법적 권위 - 가족, 국가 또는 종교의 - 가 결혼의 신분을 정의하려고 개입한다면, 관계의 안정성(항구한)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와 의무들과 함께 공적 차원을 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혼인의 일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견고한 일치를 약화시키는 다양한 성격의 시험을 당한다. 서로의 애정은 줄어들 수 있다.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매우 위중한 부부의 한계가 나타난다. 폭력과 가족 구성원들의 존엄과 행복에 해로운 태도가 나타나면,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를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부부의 충실성의 책임(신앙 또는 도덕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처럼)보다 "더 나은" 가치는 개인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며 때로는 종교 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이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별거에는 동의할 수 있다. 사실 유다 법 제정의 다양한 본문들은 소박맞는 경우를 고려하며 때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고(레위 21,7,14; 22,13; 민수 30,10; 신명 21,14; 24,1,3-4; 또한 판관 15,2; 예제 44,22; 1역대 8,8 참조), 또 어떤 때에는 금지하기도 한다(신명 22,10,29; 참조: 말라 2,16). 오늘의 신자,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고대법의 개별 조항들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허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적 판례와 법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큰 선을 "식별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랍비 전통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들의 불임은 그녀를 소박하는 데에 유효한 동기가 될 수 있었다. 부부에게 주어진 출산의 첫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혼이 바람직하거나 심지어 의무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명백히 가부장적 법률제도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특히 남자의 권리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아내의 간통(실제적이거나 의심스러움; 참조: 민수 5,11-31)은 소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마태 1,19 참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남편인 경우에는 여자에게 유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적 관행에서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다른 결함 또는 다소 심각한 결함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

176. 신약성서에서도 인용된(마태 5,31; 19,7; 마르 10,4) 소박의 절차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는 본문은 신명 24,1-4의 본문이다. 흔히 그러하듯이 규정은 남자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으

로 남편에게 소박의 권한이 주어진다. 소박을 맞은 여자가 다시 결혼하였으나 결혼 계약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결정을 반복하여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진지하게(결정적이기 때문에) 유대를 해소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탄핵을 기록하고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건네 줌으로써(신명 24,2; 참조: 이사 50,1; 예레 3,8) 부부 양측에게 새 결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상세한 절차는 남편의 인위적 결정에서 아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적으로 덜 성공한 요소는 소박 행위의 동기를 제시하는 법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된다. 사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erwat dabar*)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히브리어 표현(*erwat dabar*)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이곳에만 나오며, 언어학적으로 수수께끼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어 소박을 결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부터 유다 세계에서 혼인에 관한 매우 광범위한 해석과 법률 적용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혼의 빈도와 참된 절차에 관하여 믿을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서 이야기들은 이 점에 침묵을 지킨다. 다윗의 아내 미갈(1사무 18,27)은 나중에 팔티엘의 아내가 되었으며(1사무 25,44) 다윗이 다시 그녀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였는데, 이 경우는 전형적인 예로 여겨질 수 없다. 위에서 주

석한 신명 24,1-4의 규정과도 반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종 결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배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결혼의 (추정된) 전망을 가지고 이방인 여자들과의 이혼을 강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도 하였다(에즈 9-10; 느헤 9-10). 이 경우 "종교적" 동기가 이혼을 요구하였다.

177. 문제의 논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소개한다. 왜냐하면 스승은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단호하게 주장하며 이혼과 새 결혼을 금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복음서의 구절들은 마태 5,31-32; 19,3-12; 마르 10,2-11; 루카 16,18이다.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는 논쟁의 자리에서 "옛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문제가 다루어진다. 이에 반해 루카 복음에서는 명백히 문맥을 벗어나 있는 독립된 어록(語錄 logion)만 가지고 있다. 요한 복음에서는 문제점의 흔적(요한 4,18에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판적 말씀을 상기하지 않는 한)을 찾아볼 수 없다.

주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 19,1-12의 본문을 주해해야 한다. 이 본문은 자료가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본문에서 유다 지방의 몇몇 바리사이들(마태 19,1)이 스승의 가르침을 비방할 목적으로 갈릴래아의 스승을 "시험하려"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질문은 함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를 묻기 때문이다(마태 19,3). 여하튼 예수님은 결의론(유사점이 없는 상황과 이유의 차이를 지적하면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 부부를 형

성함에 있어 창조주의 본래의 뜻을 입증하는(마태 19,4-5) 창세 1,27과 창세 2,24을 함께 인용하면서 - 명확히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 그리고 그와 같은 선언과 더불어 남자에게 부부를 "갈라놓는" 것을 금하는 단지 기본 규칙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이유가 제시된다. 왜냐하면 결혼이 부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이루는 요소로서 하느님의 "결합하는" 행위, 곧 인간의 뜻에 종속되지 않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불가해소성은 그리스도교인들의 결혼("성사")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 반응하며 교의에 대해 논증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마태 19,7).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단락, 곧 신명 24,1-4을 지적한다. 신명기의 이 본문은 소박에 관한 모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대답하시면서,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모세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리해 놓은 것과 비교할 때, 하느님께서 "처음부터"(마태 19,8) 정해 놓으신 것을 규범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예수님은 모세가 규정한 것을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으로, 주님의 성령에 의해 유순하게 된 새로운 마음의 실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그런 허락을 해 준 것이라고 해석하신다. 달리 말해, 예수님은 불완전한 고대의 법률제도는 끝났다고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본래의 뜻에 충만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새로운 경륜에서는 소박은 간통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부에게 영원한 충실성을 요구하는 사랑의 규정의 중대한 위반 행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마태 19,9).

마르 10,12에서 여자에 의해 실행된 소박도 간음으로 선언된다. 마태 5,32에서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 문구는 마태 19,9의 문구와 다르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중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루카 16,18에서처럼)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178. 핵심 추론은 명백하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완고한 마음이 있는 상황, 그 때문에 무죄한 사람들이 폭력이나 버림받음의 희생이 되는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물을 수 있다. 여하튼 문제점의 복잡성은 불가해소성에 대한 복음의 규정을 제시하는 다양한 문구 안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어떤 구절들에서는 단순한 소박(곧 배우자를 힘으로 버리는 것)이 하느님께서 "뺏어 주신" 것(마태 19,6; 마르 10,9)을 고의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죄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설명하는 다른 구절들에서 "간음"으로 선언되는 것은 그 다음의 결혼이다. 왜냐하면 유대의 파기가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추정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마태 19,9; 마르 10,11; 루카 16,18-7). 그러므로 이 마지막 관점은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

는 자에게도 적용되며(루카 16,18ㄴ), 그가 결백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모세 법의 규정에서 소박은 어떤 이유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은 신명 24,1에서 명백하게 표현될 뿐 아니라, 입법자가 이혼 허락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경우들(위에 인용한)에 전제된다. 그것은 이혼의 모든 경우를 동일한 항목 아래 놓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 금지가 절대적 언명으로 표현되지만, 이혼을 금지하는 마태오의 복음의 두 단락에서는 하나의 조목 - 그리스어로 *parectos logou porneias* (마태 4,32) 또는 *me epi porneia*(마태 19,9)로 표현된 - 이 도입되는데, 이 조목은 "...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혼의 일반적 금지에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porneia*라는 용어는 포괄적이며 애매하다(신명 24,1에서 사용된 용어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레위기(18장과 20장)에서 단죄된 "위험한 결합"(곧 근친상간)의 경우를 가리키며, 따라서 본래의 유다 공동체에서 갈라셔야 하는 이유로 여겨졌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다른 해석자들은 이 용어는 소박을 가능하게 하는 간음이나 다른 어떤 중대한 성적 위반을 가리켰다고 생각한다(마태 1,19 참조).

우리는 이 마지막 논쟁의 가치에 대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일반적 성격에 대해 해석학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필연적"(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와 같은)인 것으로 여겨지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와 더 나아가 판사는 정확한 적용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의 생

명을 억압하지 말라는 일반적 금지까지도 고대 법에 있어서나 평신도 사이에서나 그리스도교인 사이에서 생겨난 최근의 법에서나 전부가 일련의 명백한 "예외들"이며, 이들은 사실상 구체적 상황의 복잡성 안에서 의무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본다. 만약 어떤 공격자가 살인을 범하다가 죽었을 경우, 그것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바로 그런 구체적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무방비 상태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격자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계명과 함께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방의 가치를 충족시키신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받아 주지 않는 곳에서는 신발의 먼지마저 털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평화의 선포를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청중들에게 그들 마음의 완고함을 보여 주기 위한 극단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 를 가족의 평화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게서 분리하는 결정은 결혼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결속이 불의와 불명예의 조건에서 그 의미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결속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역설적으로 증거한다. 사목 환경에서 혼인의 일치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인간의 약한 마음을 도와 주기 위해서 가능한 선의 실천적 식별로 이 전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79. 또한 결혼의 불가해소성의 법에 관하여, 코린토 신자들

에게 보낸 첫째 편지(1코린 7,10-16)에는 식별의 원칙의 권위 있는 적용이 있다. 바오로는 주님의 "분부"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론 바오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재창하지는 않는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1코린 7,10-11). 사도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리키면서 아내의 행동("헤어지다")과 남편의 행동("버리다")을 구분하면서 두 배우자의 상이한 권한을 고려한다. 여하튼 그는 여자에게 가능한 어떤 주도권을 부여한다(마르 10,12에서처럼). 그러나 그는 일반적 주장(헤어지는 것을 금하는)을 한 뒤에 곧바로 아내에게 헤어질 권한이 있음을 덧붙인다. 물론 만에 하나 남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여 다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한다(이는 헤어졌음에도 결혼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불가해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이다). 헤어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어서 바오로는 자신의 개인적 권고와 규정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1코린 7,12). 여하튼 사도는 자신의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항상 주님의 계명에 순명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고 일반 규정에서 숙고하지 않은 규범을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행위의 규범을 자기 자신의 특정한 역사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과 명백히 연결하면서 그렇게 한

다. 그가 "그 밖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는, "신자"(세례를 받은)와 "비 신자"(이방인)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결혼의 상황들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그는 만약 배우자가 계속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신자"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고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1코린 7,15). 바오로는 여기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새 결혼도 허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80. 마태오 복음 19장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스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며 반응한 것은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들이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태 19,10). 그들의 반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이상적(불가해소성으로 표현된)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결혼 제도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결론적 답변은 제자들의 주장을 꾸짖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마태 19,11). 스승은 인식적 한계를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까다로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재산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마태 19,23-24), 또는 십자가에 직면해야 하는 삶(마태 16,22-23; 17,23; 26,31)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혼을 완전 무결한 사랑의 충실성 안에서 살게 해 주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의 선

물을 전제하신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성서의 가르침은 도덕 신학과 사목 신학에 그 문을 열어놓는다. "마음의 완고함"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복을 원하시는 그분의 염원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자비를 요구한다.

나) 위반의 양태

181. 성경은 결혼 제도의 문제적 측면들을 언급할 뿐 아니라, 행복은 거스르는 행위들도 고발한다. 그 행위들은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므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별로 처벌된다.

근친상간

성서는 가까운 친족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와 또한 명확히 결혼)를 가리키는 근친상간을 분명히 단죄한다. 그와 같은 규범의 동기는 제시+되지 않는다. 세대들 사이의 차이가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성서 전통에서 혼인의 사랑은 상이한 다른 애정 관계들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어떤 혈연 또는 인척 관계가 권한 박탈의 동기가 되는지는 항상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 성서 이야기들은 입법의 규범들을 항상 전제하지는 않는다. 입법이 금지하는 데 있어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레위 18,9,11에서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이를 아내로 가지고 있다(창세 20,12). 또한 야곱

은 두 명의 누이와 결혼하는데(창세 29,15-30), 레위 18,18에서는 이를 분명히 금지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들은 아버지에게 모욕이 되는 근친상간의 행실을 비난한다. 사실 이 경우 아들의 삶의 원칙으로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경이 없어진다(탈출 20,12; 레위 19,3; 신명 5,16). 그러한 형태의 근친상간은 창세 19,31-35에서 입증되었다(롯의 딸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남용한다. 딸들은 자손을 보장 받으려는 필요성 때문에 자기들의 행실을 정당화한다). 그 밖에 창세 35,22과 49,4에서도 입증된다(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소실 빌하에게 가서 그와 동침한다. 이 때문에 르우벤은 만아들의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1역대 5,1 참조). 압살롬의 사화도 언급해야 한다. 그는 부친과의 결정적 전투를 한 뒤에 "자기 아버지(다윗)의 후궁들에게 들었다"(2사무 16,20-22). 어떤 해석자들에 따르면, "아버지(노아)의 알몸"(창세 9,22)을 본 함의 사화에서도 근친상간에 대한 숨겨진 암시가 있다. 함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창세 9,25).

182. 이 자료에 관한 입법 규정들은 특히 한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삶에 대한 존경을 옹호하고, 통제되지 않은 성적 충동에 정확한 한계들을 정한다. 레위기는 금지된 관계들을 거의 남김 없이 상세히 나열하지만(레위 18,6-18; 20,11-12,17,19-21), 신명기는 겨우 단지 몇몇 금지에 제한한다(신명 23,1; 27,20,22-23). 그러한 범법의 중대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범법을 "역겨운 짓"(레위 18,26-27,29-30; 20,13), "더러운 짓"(레위 18,17; 20,14), "추잡한 짓"(레위 20,12), "불결한 짓"(레위 20,21), "수치스러운 짓"(레위

20,17)으로 정의하는 수식어들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둘째, 예상된 별 - 사형, 백성에서 제외, 불임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 - 은 입법자에게 이 규정들의 준수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를 명확히 보여 준다.

신약성서에서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로데 안티파스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규탄이 의미심장하다(마르 6,17). 예언자는 임금(여자의 아저씨이자 시아주버니)이 레위 18,13,16; 20,21의 규정들에 반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porneia)"을 거슬러 항의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 때문이다(1코린 5,1). 바오로는 이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1코린 5,2,11,13),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죄인을 위해서도 오히려 낫다고 한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1코린 5,5). 바오로가 근친상간을 단죄하면서 사용한 porneia라는 용어는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있어 마태오 복음서 저자가 예외로 지적한 "불륜"(마태 5,32; 1,)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서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15,20,28에서 회개한 이교도들에게 한 청원을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간음

183. 이스라엘에서는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모든 부모의 고유 권한인 합법적 후손을 보장하는 것(시라 23,22-23)이 더욱 중요했다. 이는 간음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탈출 20,14; 레위 18,20; 신명 5,18). 간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위반으로 여겨졌다(레위 20,10; 신명 22,22-27; 예제 16,38-41; 23,45-47; 참조: 요한 8,5). 이 규정은 십계명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금지령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간음은 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도는 법적으로 약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배타적으로 성립된다. 항상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혼의 끈에 묶여 있지 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결혼하였어도)에 대해 규율은 특히 완화되었던 것 같다(창세 38,15-23; 탈출 22,15-16; 레위 19,20-22; 신명 22,28-29 참조).

지혜 전통은 품행이 방정한 여자를 칭송한다. 간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할 뻔 했던 수산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다니 13,22-23). 다른 한편, 현인들은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아내의 음흉한 꼬임에 유혹될 수 있는 젊은이를 경고하며(잠언 6,23-35; 7,1-27; 23,27-28; 시라 9,8-9) 명백히 숨어서 저질렀으며(욘 24,15), 심지어 교묘하게 은폐된 간음을 결정적으로 단죄한다(잠언 2,16-17; 시라 23,22-26; 지혜 14,24,26). 사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금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이와 같아 먹은 뒤에 입을 닦고서는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하고 말한다”(잠언 30,20).

예언자들은 간음을 분명히 단죄하였다. 나탄이 우리야의 아내

밭 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다윗 임금을 고발한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2사무 11,1-12,15). 또한 예레 7,9; 호세 4,2; 말라 3,5도 참조하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혼인의 은유를 이용하는 본문들에서 간음은 자주 은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실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예레 3,8-9; 예제 16,38; 호세 3,1; 마태 12,39; 묵시 2,22 등).

오경에서 자기 자신의 배우자와의 배타적 (성) 관계의 책임은 여자에게만 직접 해당하며, 남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범할 때에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신약성서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배신을 하였을 경우 모두 간음으로 간주되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죄로 여겨진다(1코린 6,9; 히브 13,4). 이 밖에도, 예수님은 아마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가리키면서(탈출 20,17; 신명 5,21)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 5,28; 또한 마태 15,19 참조)라고 말씀하신다. 끝으로, 고대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을 규정하였으나, 예수님은 간음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요한 8,10-11).

성매매

184. "성매매"는 어떤 보상을 주고 무차별적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창세 38,16-18; 예제 16,31,33 참조).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창세 38), 창녀 라합의 이야기(여호 2,1-6), 삼손의 자

유스러운 거동(판관 16,1), 판결을 받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간 두 명의 창녀들의 사화(1열왕 3,16)는 성매매가 공적 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 사실에서부터 성매매가 아마도 묵인된 실천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외설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은 몇몇 설화 본문들(창세 34,31; 38,23 참조)에 의해서나, 특히 귀찮스러운 태도인 것으로 말하는 예언 전통과 지혜 전통들(1열왕 22,38; 이사 23,15-16; 예레 5,7; 아모 2,7; 7,17; 잠언 7,10; 23,27; 29,3; 시라 9,6; 19,2)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그리하여 성매매는 성서 문학 전체에서 이상승배의 수치스러운 죄의 은유로 쓰인다(탈출 34,15-16; 레위 20,5; 신명 31,16; 이사 1,21; 예레 2,20; 예제 16,16; 호세 2,7 등).

그러므로 유다의 입법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 금지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특히 흥미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그를 더럽히지 마라.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그 땅은 창녀처럼 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레위 19,29)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지(경제적 이유 때문에 땅을 이용하는 아버지를 단죄하게 된다), 아니면 이 규정이 은유적 언어를 사용하여 성매매를 이상승배의 표상으로(예를 들어 탈출 34,16과 많은 예언 본문들, 가령 예레 3,1-3; 예제 16,15-19; 23,43-44; 호세 2,4-7; 5,3-4 참조) 이해해야 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사제에게는 보통의 이스라엘인들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

다. 사실 사제에 대해서는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레위 21,7,14). 창녀가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제의 딸에게는 불에 태우는 화형을 주문한다(레위 21,9).

신약성서의 본문들은 매춘(1코린 6,15-20)과 성적 환경에서 일체의 부도덕한 행위(로마 13,13; 1코린 5,9-11; 6,9; 갈라 5,19; 에페 5,5; 콜로 3,5-7; 1티모 1,10; 티토 3,3; 히브 12,16; 13,4; 묵시 21,8; 22,15)를 하는 사람을 단죄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공적으로 알려진 죄인에 대해서도 자비를 표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루카 7,36-50).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참회하는 창녀의 태도를 칭찬하셨다(마태 21,28-32).

동성애

185.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안정된 관계로 이루어진 결혼 제도는 성서 전통 전체에서 변함없이 명백한 규범으로 제시되어 왔다.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된 "결합"의 예는 없다.

얼마 전부터 특히 서구 문화에서 성경의 인간학적 접근을 존중하지 않는, 달리 말해 교회에 의해 규범적 가치를 가지고 이해되고 전달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대두되었다. 사실 모든 것은 고대의 정신을 단순히 반영할 뿐이며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우리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주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환경에서 성서의 다양한 주장들이 점차

시대에 뒤진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들의 추론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새롭고 더욱 적절한 이해는 이성간의 결합의 가치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서 벗어나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인간 존재의 합법적이며 마땅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아가 때로 성서는 이러한 형태의 성애의 관계에 대해 조금 언급하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그러한 성애의 관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까닭은 성적으로 정도를 벗어난 다른 행위들과 자주 부당하게 혼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문제점이 다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단락들, 특히 동성애를 고발하고 비난하는 단락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서는 동성의 사람에 대한 성애적 경향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단지 동성애 행위들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그리고 문학 유형과 중요성이 서로 다른 몇몇 본문들에서만 이 문제를 다룬다. 구약성서에 관하여 말하자면, 적절하지 않게 이 측면을 표현하는 두 개의 이야기(창세 19장과 판관 19장)와 동성애 관계를 단죄하는 법전에 법규가 들어 있다(레위 18,22와 20,13).

소돔(창세 19)과 기브아(판관 19)의 이야기

186. 소돔의 죄는 아주 잘 알려져 있으며 더 나아가 동성애 문제를 위한 격언적 이야기가 되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이 소돔 성읍을 완전히 파멸시켰다(창세 19,1-29).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사화군에 속한다. 소돔이 파국적 징벌 형태로 저주

의 범례이기 때문에(신명 29,22; 이사 1,9; 13,19; 예레 49,18; 예제 16,56; 애가 4,6; 루카 17,29 등 참조), 축복 받은 사람에게 있는 일과 반대 의미로 대비된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은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며 특히 수많은 후손의 선물로 표현된다(창세 15,5; 17,4-5; 22,17); 가나안의 성읍에 대한 저주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따라서 황폐하고 항구한 불모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실현된다.

저주 받은 소돔의 운명은 그의 "죄" 때문이다. 소돔의 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너무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고(창세 13,13; 18,20), 성읍의 주민들 전체에서 하느님의 심판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최소한의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파면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창세 18,32). 그러므로 성읍 사람들 전체가 공범이라는 측면은 죄의 가중성인 것 같다.

그러나 것처럼 본보기적 징벌을 받아야 할 소돔의 죄는 실제로 어떤 죄였는가? 무엇보다 먼저 소돔의 잘못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성서의 다른 단락들에서 동성의 사람들에게 행하여진 성적 위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사 1,10에서 주님에 대한 배신을 고발하지만, 이사 3,9에서는 뻔뻔스럽게 저지르는 죄스러운 일반적 행위를 가리킨다. 예레 23,14에서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되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간음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거들면서 아무도 제 악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예제 16,49에서 예언자는 소돔의 죄는 교만(시라 16,8도 참조)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의 손을 거들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중요한 성서 전통은 소돔에 상징적이지만 일반적인 악의 성읍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신명 32,32-34 참조).

그러나 상이한 해석이 있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어떤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며(예컨대 2베드 2,6-10과 유다 7) 기원 후 2세기부터 위세를 떨치면서 성서 이야기의 관행적 독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성읍 소돔은 바로 "소도미아"(남색男色)라 불리는 꼴사나운 성적 관행으로 비난 받고 있다. 소도미아는 동성의 사람과 성애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성서 이야기에서 분명한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사실 창세 19에서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도록 초대를 받은 두 "천사"(1절)를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에워쌌다(4절)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 이방인들과 성적 남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5절). 여기에 이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알다"이다. 이 동사는 성적 관계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 완곡한 표현이다.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뜻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8절) 두 딸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롯의 제안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187. 그러나 이야기가 도시 전체에 억제할 수 없는 동성애적 성격이 만연하였다고 묘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방인을 욕보이고 치욕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힘으로 강제하려는 사회, 정치적 실체의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행위는 롯도 위

협하였으며(9절), 롯은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이방인을 책임 지고 보호하려고 하였다(8절). 그리고 그것은 소돔 성읍의 도덕적 악을 드러낸다. 도덕적 악은 환대를 거부할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 자기 집을 손님에게 내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이 천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했던 것(창세 18,1-8)과 똑같이 두 "천사"에게 전통적 환대 행위를 하였다(1-3절). 그러한 환대는 롯에게 구원을 얻게 하였으며(창세 19,16) 아브라함에게는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하였다(창세 18,10). 이와 달리 이방인을 반대하고 크게 능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조에게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창세 12,3)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소돔에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음은 지혜 19,13-17에 의해 증명된다. 지혜서에서 죄인들(처음에는 소돔, 그리고 이어서 이집트)에 대한 본보기적 처벌은 "이방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한"(지혜 19,13) 사실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이 마태 10,14-15과 루카 10,10-12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주님께 파견된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받는 벌에 대해 말한다. 그 벌은 소돔 성읍을 무너뜨린 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188. 더욱 강력한 또 다른 증명은 판관 19의 이야기에서 제공된다. 어떤 의미에서 판관기의 이 이야기는 소돔의 이야기의 평행문이다. 여기에서 동일한 죄가 주제로 다루어지지만, "동족"(판관 20,23,28)에 의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행

하여졌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벤야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간 에프라임 지방의 레위인이다. 그는 아브라함(창세 18,1-8)과 롯(창세 19,1-3)에 대해 언급된 것과 같은 식으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 밤을 지내도록 초대를 받았다(판관 19,16-21). 그러나 그 성읍의 남자들,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 주인에게 와서 우리가 손님을 "알아야겠다"고 요구한다(판관 19,22). 그들의 폭력은 레위인의 아내에게 폭발하였고 그녀를 죽였다(판관 19,28). 그것은 남자에 의해 성적으로 끌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압하며 치욕적으로 능멸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의도하였음을 드러낸다(판관 20,5 참조).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소돔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브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는 결핍된 환대,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 가장 통렬한 제재를 받을 만한 매우 심각한 행동 등으로 인한 죄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방비 상태의 외국인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 붕괴의 발단이며,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하는 치명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서의 설화 본문들에서 동성애 행위에 관한 표시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비난할 행동으로도, 용인하거나 받아들이는 태도로도 발견하지 못한다. 같은 성읍의 사람들 사이의 우정(2사무 1,26에서 칭송하는 다윗과 요나탄 사이의 우정처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한 것이라는 단서로 주장될 수 없다. 예언 전통들은 이런 성격의 품행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느님 백성에서도 이교인들

의 나라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침묵은 이집트인들과 가나안인들과 일반적으로 비 이스라엘인들에게 동성애 관계를 포함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 태도들이 있다고 언급하는 레위 18,3-5,24-30에서 명시하는 바와 반대된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그런 실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가리켜 준다.

189. 구약성서의 입법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여자가 남자 복장(또는 명백히 남성 물품)을 하는 것과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신명 22,5의 규정을 가나안 환경에서 성행하였으며 성의 교환으로서 혐오할 만한 역겨운 짓(to'ebah)에 대한 단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규정은 예컨대 씨를 뿌릴 때나 옷감에 적용되는 "분리"와 차이의 원칙에 따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레위 19,19; 신명 22,9-11).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규율이 범죄(간음, 절도, 그리고 심지어 살인)를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수용된 위장을 금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오로지 레위기에서만 비난 받을 수 있는 성적 행동들에 관한 금지 조항들의 정확한 명단을 발견한다. 이 조항들 가운데에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도 들어 있다. 레위 18,22에는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라는 명령이 나온다. 그리고 레위 20,13에는 처벌 규정이 나온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to'ebah)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췌

값으로 죽는 것이다(직역하면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남성) 동성에 행위의 금지는 근친상간의 금지(레위 18,6-18; 20,11-12,14,19-21), 그리고 간음(레위 18,20; 20,10)과 짐승과 교접(레위 18,23; 20,15-16)과 같은 다른 성적 탈선행위들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범죄 행위의 중대성은 "역겨운 짓"이라는 평가 외에도 사형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었다. 그러한 처벌이 도대체 적용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여하튼 그와 같은 행위가 구약성서의 법에서 중대하게 부적당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190. 입법자는 금지에 대해서나 엄정한 형벌에 대해서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여하튼 우리는 레위기의 규정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주의 명령(창세 1,28)과 일치하여 번성에 개방된 성의 행사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러한 행위가 합법적 결혼의 범주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번성의 목적 - 율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전제하는 - 은 짐승과 교접의 단죄뿐 아니라, 쏟는 피 때문에 "부정"하는 것 외에도 불결한 기간을 맞아 불임의 상태에 있는 생리 중의 부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레위 18,19; 20,18; 참조: 예제 18,6)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디 의식의 성격을 띤 이 마지막 규정은 상징적 가치로 이해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계속해서 창세 1,28과 연관하여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의 창조 행위에서 설정된 "분리", 곧 다름의 체계는 남자와 여자(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발견한

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의 상징적 가치는 동일한 성의 주체들의 교합에 의해 반대되고 위협을 받는다.

191. 신약성서에서 복음서들에는 동성애의 동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바오로의 서간들의 세 본문에서만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로마 1,26-27; 1코린 6,9과 1티모 1,10). 마지막 두 본문은 레위기의 문학 양태를 어느 정도 상기시키는 죄의 명단에 속한다. 첫째 본문이 더욱 중요하며 특별히 설명할 가치가 있다.

(가) 바오로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리키는 **명단**(1코린 6,9-10; 갈라 5,21; 에페 5,5; 또한 티모 3,3 참조)에 성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죄도 포함한다. 대부분 일반적 표현들로 지적하지만 - 예를 들어 porneia의 용어를 사용하면서(1코린 5,11; 6,9; 갈라 5,19; 에페 5,5; 콜로 3,5; 1티모 1,10) - 드물게는 간음과 두 경우 남자의 동성애(1코린 6,9; 1티모 1,10) 같은 특정한 행위들(1코린 6,9)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1코린 6,9-10에서

"불의한 자들"(adikoi) - "거룩한 이들"(hagioi)과 대비되는 - 의 일반 범주와 함께 **이교도들의** 행태(1코린 5,9-11도 참조)로 여겨지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비난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의 이질성은 "...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수사학적 질문에 의해 강조된다. 사도는 자기의 수취인들, 특히 동일한 서간에서 "어떠한 지식에서나 풍요로워진"(1코린 1,5) 것으로 칭송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확해야 할 진리를 제

시하기 위하여 이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한다(특히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1코린 3,16; 5,6; 6,2-3 등).

여기에는 열 가지 위반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코린토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된 일종의 십계명과 같다). 9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적 죄들을 지적한다. 10절에서는 욕망의 죄들을 지적한다(이 마지막 죄들이 문맥에 더욱 관련된다). 첫 번째 부분에는 우상 숭배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성 분야의 죄들 사이에 놓여 있다. 바오로는 로마 1장에서도 하느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함과 성 환경에서 위반의 관계를 설정할 것이다. 비역(arsenokoitai)은 첫째 부분의 끝에 나오는데, 바로 앞에 간음과 남창(malakoi)이 언급된다. 구약성서의 십계명과 구약성서의 다른 명단들에서처럼 이 명단에서도 잘못된 모든 이를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하는 똑같은 벌을 받게 한다. 그러나 행위의 중대성이 경우마다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범주들(가령 욕망과 약담처럼)은 식별의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1티모 1,9-10에서

192. 여기에도 의인(dikaios)과 반대되는 "죄를 짓는 자"와 무법자(anomoi)를 가리키는 아주 긴 명단이 있다. 어쩌면 다섯 개의 위반(9절)으로 여겨지는 첫째 집단과 역시 다섯 개의 위반으로 여겨지는 둘째 집단을 볼 수 있다. 그 배경에 십계명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종교적 반역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의 결여까지, 살인에서 성적인 죄를 거쳐 위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문맥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복음"(1티모 1,11)과 반대되는, "율법 교사"(1티모 1,7)로 자처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경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명단은 잘 알려진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다"로 도입된다.

우리는 이 명단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애의 실천은 중대한 잘못으로 여겨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바오로는 다른 견해를 지지하는 교리적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또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에 관한 정당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것들을 따라가는 (십계명의) 표현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는 레위기의 율법과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 같다.

(나) 로마 1,26-27

193. 하느님의 진노의 대상(로마 1,18)인 사람들의 일반적 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의로움을 인정 받아야 하는(로마 3,21-26) 죄를 보여 주기 위하여 할애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시작 부분에서 바오로는 일반적 성격의 담화를 내놓는다(로마 1,18-32). 이 담화에 동성애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그런 태도가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보게 해 준다.

사도의 성찰은 "불경과 불의", 그리고 불의에 억눌린 "진리"에 관한 포괄적 사고로 시작된다(로마 1,18). 그러므로 우리의 분석

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개의 요소들로 구성된 이항식으로 제시된다. 곧, 한편으로 성서 히브리어의 **정의**(율법에 대한 관계이며 따라서 품행의 규칙과 규율)의 개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진리**(거짓과 반대되는 진리: 로마 1,25)의 개념이 있다. 진리의 개념은 유다 세계에 없지 않지만, 그리스 세계에서 분명히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문은 불의한 행위들을 다룰 것이지만, 악을 정당화하고 두둔하는 이론들을 고발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로마 1,32). 사실 바오로는 이교도들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로마 1,21),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고"(로마 1,22), 그들의 행위에서 "분별없는 정신"(로마 1,28)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시작 부분에서 자신의 논증의 주요 주제로 제시한다.

194. 사도의 고발은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1) 첫 번째 고발은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피조물의 실재를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할 줄 몰랐다. 그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신, 사람들과 짐승들의 "형상"을 섬겼다(로마 1,20-25). 그들은 차이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명확히 구분되는 실재를 혼돈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종교 실천(우상 숭배와 동일시 된)이 비롯된다.

(2) 바오로는 이와 같은 지성의 결핍에서부터 인간학적 질서의 결과들이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먼저 성의 변이다**: "그러

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로마 1,25). 그 때문에 "불결한 행위"(akatharsia)가 나타나고, 그것은 "그들 자신의 몸의 수치"로 이해된다. 이 모든 것은 여자와 남자들의 동성애 행위에서 거의 특징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그들이 하느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로마 1,23)는 사실, 달리 말해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로마 1,25) 사실은 성 관계에서 "바꾸어 버림"을 만들어 냈고 그 관계는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마 1,26)로 제시된다. 이러한 표현은 성을 가진 육체라는 구체적 현실과 대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육체는 자체 안에 동성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차이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도에 따르면, 동성애 관계는 단지 "마음의 욕망"(통제되지 않은 정욕을 가리키는 보기 드문 용어이며 다른 곳에서는 "육의 욕망"으로 표현되었다: 참조: 갈라 5,16-17; 에페 2,3)만을 드러낼 뿐이다. 사실 모든 것은 "수치스러운 정욕"(로마 1,26), "파렴치한 짓"(로마 1,27), "탈선"(로마 1,27)으로 규정된다. 바오로는 이처럼 레위기의 심판을 따르지만, 그런 태도들을 어리석음의 결과이며 그 자체를 일종의 징벌로 생각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시다"(로마 1,26-27). 그러므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적" 차이들을 알아 보지 못하는 성에서 진리의 변이의 징후를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어서 바오로는 참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모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와 폭력의 행동이 사회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인다. 여기에는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의 심각한 상태를 비난하는 명단이 나오는데(로마 1,29-31) 매우 이질적이다(앞에서 나열된 명단과 비슷하다).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친교의 가치의 전도도 "하느님의 법규"(로마 1,32)로 해석된다. 이는 그러한 불의를 만들어 낸 거짓에 눈을 뜨게 해야 할 것이다. 단체의 관계들에 관한 이런 특수한 영역은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95.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본문들을 주석하면서 윤리적 의미에서 동성애의 평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밝혀냈다. 레위기의 규범들은 물론, 성서 저자들의 특정 표명들은 거룩한 본문이 장려하려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당시의 문화적 특성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문헌에서 가볍게 언급한 문제를 적절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의 성찰과 함께 인문학의 연구 결과가 꼭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가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서 받아들여야 할 저 행복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특히 개인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요구될 것이다.

예언 관점에서 혼인의 결합

196.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온 메시지는 규범적 측면에서는 명백히 율법의 메시지를 따라간다. 혼인의 충실성

은 분명히 의무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간음은 단죄되었다(2사무 12,1-12; 예레 7,9; 29,23; 호세 4,2; 말라 3,5). 그러나 우리는 이 문학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다른) 행위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스라엘을 겨냥하여 매춘을 자주 비난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우상 숭배를 암시한다(이사 1,21; 예레 3,6; 에제 16,16; 호세 2,7 등). 이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경우 간음에 대한 질책은 주님과 그의 배타적 유대의 배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예레 3,8; 에제 16,32; 호세 2,4 등).

말라키아 예언자는 결혼에 관한 더욱 특수한 면을 제시한다. 그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비판하고 첫 사랑에 대한 충실성을 보호하며 하느님이 몸소 증인이 되시는 혼인 "조약"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굶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가 배신한 젊은 시절의 네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berit)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말라 2,13-16).

이처럼 예언자는 혼인의 결합을 영원한 가치를 가진 남자와 여자의 계약으로 규정한다(또한 잠언 2,17 참조). 그와 같은 생각은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를 혼인의 표상으로 묘사하는 예언

자들의 선택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준다. 그것은 그러한 상징적 축을 가장 먼저 광범위하게 이용하였을 것이다(호세 1-3). 이 상징은 나중에 특히 예레미야(예레 2-3 참조), 에제키엘(에제 16과 23 참조),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사 54과 62 참조)에서 다시 받아들여졌다.

혼인의 용어로 표현된 (주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197. 특정 주석학자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적용된 혼인의 은유가 바알(히브리어로 "남편", "주인"을 뜻하는 명사) 종교를 반대하는 논증에 이용되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는 수도 성읍들("...의 처녀", "...의 딸"로 표현된)의 "남편"의 칭호를 주장하는 이교 신들에 반대하는 논증에 이용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은 사람들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고 있다(탈출 23,32; 34,15-16; 신명 7,3 참조). 종교적 논쟁의 측면(예를 들어 호세 2,10에서 볼 수 있는)은 시나이 계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이 사용한 혼인의 상징주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인 것 같지 않다.

다른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성서 저술가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상호 권한과 의무들을 나열한 계약의 지배를 받는 대 군주("주님")와 그의 봉신("종") 사이의 "계약"의 사고를 받아들였다. 십계명은 그런 절차와 동등한 성격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세계에서 계약과 부부의 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유사성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두

개의 은유 체계를 위해서는 구성 요소로서 계약의 두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은 충실성과 신의의 핵심 의무를 부과하며, 행동의 이중성과 배신을 배제한다. 끝으로, "동맹자들"의 처신에 따라서 행복한 결말 또는 계약 자체의 무효화를 숙고하기에 이르기까지 파괴적 결말로 역사를 확정한다. 그것은 두 개의 상징적 세계, 곧 정치적 세계와 혼인의 세계가 예언 문학에서 자주 겹치는 이유를 알게 해 준다. 겹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 권위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198.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역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결혼 제도가 이용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자체 안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다. 하느님과 피조물, 하느님의 행동과 사람들에게 명령된 행동 사이에 "유사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다. 혼인의 계약은 주님께 의해 완전하게 실현되었으며, 부부에 의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빛을 던져 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부를 위해 간접적으로 예정된 예언 메시지다. 처음에는 항상 사랑이 먼저였다(예레 2,2-3). 사랑은 이익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순수한 자비의 염원에 의해 유발되었다. 그러나 결혼에서 요구되는 신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곧 "젊은 시절"에 계시된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다. 심지어 중대한 죄(간음과 매춘과 같은)가 사랑의 끈이 지속되는 것을 위협할 때조차도 본래의 사랑은 용서를 통해 화해의 길을 찾아내고 훨씬 더 깊은 친교에 이를 수 있다(예레 4,1-2; 호세 2,16-22).

예수님의 본보기와 가르침

199. 우리는 이혼에 관한 단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의 계획을 가리키시면서 결혼의 상태를 밝혀 주신 것을 보았다. 창조주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신의 역사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도록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원하셨다. 신명기 법전에서 허용하는 것(신명 24,1-4)과 비교하고, 동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 방식들과 연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놀라운 충격을 이 자료에 덧붙이셨는데, 그것은 혼인 잔치가 있던 날 식탁에 가져온 더 좋은 포도주에 비교된다(요한 2,10). 복음 메시지의 새로움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지닌 다른 측면들에도 확대된다. 여기에는 참으로 주목해야 할 측면들도 있다.

예수님과 여인들

동시대의 환경에서 여성에 대해 널리 유포되어 있던 평가절하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주의와 존경을 보여 주셨다. 그리하여 때로는 당혹함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동시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도 하셨다(마태 15,22-28; 루카 7,39; 요한 4,9.27). 당신 교회에서 특권적 역할을 열두 사도에게 맡기시면서도 스승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여자들도 받아들여셨다. 그들 가운데 마리아 막달레나,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가 있었다. 이들은 공동체의 물질적 필요를 보살펴 주었을 뿐 아니라(루카 8,1-3; 또한 마태 27,55; 마르 15,40-41), 똑같은 선교의 소명을 공유하였다. 루

카는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본보기적 인물로까지 제시하였다(루카 10,39; 참조: 사도 22,3). 같은 복음서 저자는 나자렛의 마리아의 역할을 하느님의 아드님의 강생의 신비의 특별한 증인으로 명확히 밝힐 뿐 아니라(루카 1,26-38), 복음서의 초기 역사에서 다른 여성들 - 예컨대 엘리사벳(루카 1,39-45)과 한나(루카 2,36-38) 같은 - 을 구세주의 위안이 되는 사건의 예언 메시지로 관여시킨다.

예수님은 어떤 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함(마르 12,41-44), 사랑(루카 7,47), 예언자의 직관(마르 14,3-9)의 본보기로 지적하였다. 갈바리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자들이며(마태 27,55-56; 마르 15,40-41; 루카 23,49; 요한 19,25), 첫날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다(마태 28,1; 마르 16,1-2; 루카 24,1; 요한 20,1). 그들은 이처럼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그분께 용기 있고 사랑 가득한 신의를 보여 준다.

복음서들은 부활하신 분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형제들에게 당신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 -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 - 이었다고 보도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마태 28,1-8; 마르 16,1-8; 루카 24,1-12; 요한 20,1-13.17). 그 당시에 여인들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다(루카 24,11; 또한 마르 16,11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선포의 과제를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진) 증인의 자격으로 남자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는 여자에 대해 더욱 적합한 문화적 여건이

될 때 여자의 믿음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루카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여자들도 있었음을 지적할 것이다(사도 1,14). 그리고 나서 루카는 교회의 삶에서의 역할에 따라 자신을 많이 한 사람으로 타비타(사도 9,36-42), 환대하는 집과 연관하여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사도 12,12), 환대로 유명한 리디아(사도 16,13-15), 그리고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네 딸로서 예언 능력을 가진 처녀들(사도 21,9)을 인용할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200. 그리스도의 가장 분명한 혁신적 공헌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봉헌된 동정의 동기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임박한 종말의 표지로 결혼을 포기하도록 요청받았다(예레 16,2).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예언자들, 가령 엘리야, 엘리사, 세레자 요한도 아내를 얻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에 전폭적으로 투신하였음을 표현한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언자들의 대열에 속하는 것 외에 -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 하느님께 유보된 예언 전통 안에 있던 칭호인 이스라엘의 신랑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속성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은 간접적 형태로 증명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시가 새로운 것임을 지적하기 위하여 세레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

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마태 9,15). 예수님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 또한 루카 12,36 참조)에서,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들의 비유(마태 25,1-12)에서 당신 자신을 신부로 암시하신다. 요한 복음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표현된다. 곧,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징주의를 사용한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요한 3,29).

제자들에게 관하여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동정의 선택을 본받도록 이끄는 규범적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교 여행을 하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독신의 조건이나 또는 여하튼 개인적으로 결혼의 의무에 묶이지 않은 신분을 받아들였다고 추정해야 할 것 같다. 루카 18,29-30의 단락 - 스승을 따랐던 사람들의 조건을 어느 정도 묘사하는 - 은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마태 19,12)의 범주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공동체에 몸과 영혼을 봉헌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과 육에 따른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사실 주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씨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Verbo)에 의해 태어났고 성령(Spirito)에 의해 소생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분명하다(요한 1,13; 3,5-6; 야고 1,18; 1베드 1,23). 열둘 - 야곱의 열두 아들과 반대되는 면에서 - 은 믿음의 순종으로 태어난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상징적 기원을 형성한다.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 가족을 형성하며(마태 12,46-50 참조), 거기에서 유일한 참 아버지는 하느님이시다(마태 23,9).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인 모두에게 독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동정은 오히려 특수한 "소명"의 열매다. 한편으로 소명은 주님에게 특별한 부르심과 타당한 선물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 소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투신으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가 종말론적 실재를 선포하는 예언 형태를 받아들이게 된다(마태 22,30 참조).

바오로의 가르침

201.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교의 "담화"가 바오로의 서간들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발전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도의 인간학은 히브리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

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규범들과 의견들과 결합된 독창적 해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도의 특정 발언들은 오늘날 당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결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바오로의 전통은 품행의 "거룩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전통은 결과적으로 모든 형태의 불륜을 비난한다(1코린 6,18; 에페 5,3; 콜로 3,5; 히브 13,4). 이 점에 관하여 그의 첫 번째 서간으로 여겨지는 서간의 한 단락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porneia)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더러움(akatharsia)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1테살 4,2-8).

바오로는 몸의 "정결"을 사람이 주님께 속한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해한다:

몸은 불륜(porneia)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porne)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1코린 6,13,15-17).

그러므로 (주님과)의 계약의 개념은 성을 실행하는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바로 몸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된다.

202. 바오로는 잘 알려진 단락인 에페 5,22-33에서 (계약의) 똑같은 상징주의를 결혼의 조건에 적용한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는 다시 한 번 창세 2,24을 인용하면서 혼인의 관계를 사랑의 완전한 계사로 간주하기 위하여 "큰 신비"(에페 5,32)의 범주를 사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언자들은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역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혼인의 표상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바오로는 어떤 의미에서 고대의 전통을 현실화하고, 이중의 치환을 한다. 첫째는 신랑의 표상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 신랑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의 피로써가 아니라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선물인 예수님 자신의 선물로 실현된 "새 계약"의 창조자이다(에페 5,25-27). 옛 예언들이 하느님께 속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랑의 역사적 표명(예를 들어 에제 16,8-14을 생각하라)을 바오로는 구원 역사의 완전한 실현인 그리스도의 행위에 적용한다. 예언적 은유의 이 첫 번째 치환은

복음의 전통과 계속 함께하며, 이스라엘의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암시된다.

사도는 인간학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치환을 하면서 그리스도론적 실재를 (그리스도교)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를 위한 모델로 받아들인다. 남편(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예를 제안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부당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제안이 완전한 선사의 필수적 의무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사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마태 5,48).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야 한다(요한 13,34; 15,12). "큰 신비"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충만히 닮을 능력을 갖춘 주체가 될 때 실제로 이루어진다.

203. 이와 달리 그리스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페 5,23)라는 연역적 결론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혼인 관계의 이해에서 반론이 제기된다. 바오로는 이런 식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한을 정초하려고 하면서, 아마도 가정의 질서를 보증하려는 행위로서 당시의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사실로 나타났던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신분에 높은 수준의 종교적 가치를 주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비대칭의 관계의 단계들 안에 삽입된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복종하는 사람 편에서 특별한 형태의 순종을 요구한다.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할애된 단락 다음에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

간에서 곧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페 6,1-4)와 주인과 종(에페 6,5-9)에 관한 단락이 이어진다. 콜로 3,1-18-22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해석 방법이 무엇보다도 창세 2,22에서 증명되는 배우자 사이의 동등한 존엄성의 개념을 존중하는지 물을 수 있다.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에페 5,24; 또한 콜로 3,18과 1베드3,1,5 참조)고 지시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적절한 계명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랑의 완전성은 무엇보다도 대화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더욱 바람직하기는 각자 상대방이 발설한 진리에 동의하는 데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에 순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종"은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요구된다. 남편에게만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 주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교회에 내어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선사할 것을 요구한다.

204. 우리는 이와 같은 성찰에서 두 가지 결과를 끄집어낸다. (1) 첫째는 - 어쩌면 "전통"에 기대어(1코린 11,2 참조) -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자를 하위의 위치에 놓는 바오로의 다양한 사목적 표명들을 문화적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사도는 여자에게는 기도할 때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를 가리라고 요구하였는데(1코린 11,5), 남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1코린 11,4). 사도는 그 까닭에 대해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1코린 11,7-9)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창세 2,18-24을 주석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기원들에 관한 성서 본문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위성이나 권한을 정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공동체에서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만약 그들의 적절하지 않은 예속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바로로 전통의 한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빚어졌고 그다음에 하와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1티모 2,11-15). 여자에게 일반적 순종의 태도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시된 성경의 기본(창세 2-3)은 이 편지에서 하나의 증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독서에는 이의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침묵해야 할 의무, 가르침(심지어 "다스리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금지, 자식을 낳아야 할 의무(하와의 추정된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 등 여자들에 대한 그런 규율들은 적절하지 않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또 다른 한 단락에서 바로로는 위에서 보여준 규율을 반복한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1코린 14,33-35). 바오로는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창세 3,16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며, 어떠한 능력과 슬기로 그들 자신의 남편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면은 그시대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회 집회에서 질서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바오로가 어떠한 우연히 내놓은 인간학적 분야에서의 다른 많은 생각들이 적어도 질문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페 5,28)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말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의 주인이 아니고(ouk exousiazeti), 남편이 주인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기 자신의 몸의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주인이다"(1코린 7,4)라는 주장은 이상하다. 배우자에게 주는 몸의 선물의 의미뿐 아니라, 사랑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바오로의 서간과는 다른 표명을 요구한다.

205. (2) 두 번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

며, 현대의 사고 방식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모델에 던지는 질문, 곧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응하는 관계로 표현된다. 사실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날 경우, 두 사람을 모두(와 아마 자녀들도) 강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가? 아무도 상대방의 의견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는다면, 가족의 일치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모든 사회 집단은 권위 있는 인물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 그는 동의와 의사 소통을 얻는 데 필요한 지혜와 사랑의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권위 있는 기능을 표현하도록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동등한 구조가 부부 각자에게 가족의 (공동) 선에 대한 최고의 주의를 요구하고, 겸허하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별을 위한 인내로운 대화에서 드러나는 진리(곧, 하느님의 뜻)에 사랑으로 "순종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것이며 혼인의 끈이 지속되는 것에 피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독신에 관하여

206. 주 예수님을 따라, 바오로 자신이 독신의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는 독신을 복음의 봉사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형제들과 자녀들은 그의 제자들이다(로마 1,13; 1코린 4,14-15; 갈라 4,19). 사도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생각들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들도 지적하는 것이 옳겠다.

결혼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에 관해 코린토 신자들에게 대답하면서 바오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입을 연다: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륜(porneia)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1코린 7,1-2). 일반적 주장("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은 동정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adam에게 말씀하신 것("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창세 1,28)을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하느님의 "계명"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를 반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두 번째 문장("불륜의 위험이 있으니")이다. 이 문장은 결혼을 정확히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적절한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시하는 것 같다(1코린 7,8-9에서도 마찬가지다). 서간의 다음 단락에 결혼과 독신의 해석 방식이 나오는데, 이는 주님의 "명령"(epitage)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자신의 개인의 의견(gnome)이라고 명확히 말한다(1코린 7,25; 또한 1코린 7,40; 필레 14 참조). 이러한 차이는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는 "처녀들"(1코린 7,25)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의 재난(ananke)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

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thlipsis)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1코린 7,26-28). 그는 독신이 결혼에 비해 더 좋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재난"(2코린 12,10; 1테살 3,7 참조)이다. 재난은 아마 다양한 유형의 "환난"(마태 24,9,21,29; 또한 2코린 6,4 참조)으로 -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론적 담화에서도 읽는 것에 따라서 - 드러나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과 연결될 것이다(1코린 7,29,31; 2티모 3,1). 바오로는 자기 서간의 독자들이 이런 재난과 환난을 겪지 않기를 바란 것 같다. 사도의 일반적 조언은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대로 머무는 것이다(1코린 7,17,20,24 참조). 그러나 삶의 유형을 바꾸는 것은 영적 소명에 대한 의무적 응답일 수 있다. 또한 결혼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1티모 4,3 참조)라고 말하는 것으로 적법화될 수 없으며, 독신의 선택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피가 될 수 없다.

207. 바오로는 성찰을 계속하면서 결혼보다 독신을 선호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memeristai). 남편이 없

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symphorion)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1코린 7,32-35). 만약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명하여 자유롭게 선택한 독신 생활이 주님께 대한 절대적 봉헌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본다면, 혼인을 이런 삶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혼인에서는 부부가 하느님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대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배우자를 기쁘게 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갈라짐" 또는 이중성은 혼인 조건에 대한 내재적 한계가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주님의 마음에 드는 참된 사랑의 거룩한 품행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나(만약 이것이 1코린 7,36-38의 의미라면), 또는 과부에게 재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바오로의 이전 논증의 논리적 귀결이다. 성서 계시 전체에 비추어 결혼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도전을 고려할 때, 봉헌된 독신 생활에 부름을 받은 소명에는 다양한 범주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바오로의 본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삶의 선택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의 선택이다. 결혼은 단순하게 허가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독신의 선택이다. 독신은 복음적 방식으로 살기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특히 두 "길" 중의 하나를 칭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 된다면, 비슷하게 둘로 나뉘어짐을 재고해야 한다. 사실 각 길이 각자의 고유한 특수

성을 가지고 거룩함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길은 사랑의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만 비로소 참으로 실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성서 본문의 단순한 주석자들이 아니라 역량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혼인한 사람의 경우나 특히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정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결을 지키며 사는 관계의 중요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을 위대한 영적 부유함의 보편적 소명으로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208. 남자와 여자의 만남 - 그들의 "서로 앎"과 칭송 - 은 서로의 사랑의 이야기에 기원이 되며, 원하는 결실로 자녀의 출산을 보게 된다. 사실 창세 4,1에서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 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출생의 사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시되고 정확한 시간 안에 기록되어 누구나 사람의 아들"이며 "그 시대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은 "족보"(히브리어로 toledot이고 그리스어로 genesis다)에서 문학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성서 설화자는 바로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명단을 거쳐 인간에게 있는 일의 다양한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족보

209. 창세기 -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 는 하늘과 땅의 기원(toledot)을 묘사하고 인간의 첫 아들 카인의 후손들을 열거한 뒤에(창세 4,17-26), 세 개의 큰 족보 목록(창세 5,1-32; 10,1-32; 11,10-32)에 인류의 원시 역사의 좌표를 설정한다. 그와 동시에 세상에 다양한 종족들의 여러 확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대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등장 인물들의 정체성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 대신 성서 저자는 인류의 진리와 최종 목적으로 이해된 역사의 "의미"를 제시하려고 한다. 역사의 **진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하느님의 현존의 계시와 일치한다. 그것은 사람의 첫 아들의 탄생 때 하와에 의해 계획적으로 선언되었다. 하와는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창세 4,1)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수많은 개입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느님의 개입은 축복의 방향으로, 주님에 의해 의도되고 실현되는 최종 **목표**로 사건의 흐름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카인의 후손 - 말하자면 저주를 받아 단절된(창세 4,11) - 과 대조적으로 첫째 족보(창세 5,1-32)는 아담의 아들 셋(아벨을 대체한다: 창세 4,25)의 후손을 제시한다. 셋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창세 4,26)라고 말하는데, 이는 탈출 6,3을 고려할 때 연대상의 과오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진실된 증언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참 하느님이 인정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적어도 당신의 현존의 수취인으로부터)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 열 명의 이름 - 에덴에서 쫓겨난 죄

인 아담부터 "의인"(창세 6,9)이며 "위로자"(창세 5,29)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 은 홍수의 재앙이 있는 뒤에 영원한 계약과 피조물 전체의 갱신된 축복의 표지 아래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겹치는, 여러 세기 동안 있었던 일을 추적하는 데 충분하다(창세 6-9).

210. 두 번째 족보(창세 10,1-32) - 첫 번째 족보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시간을 표시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는 노아의 세 아들, 곧 야벳(창세 10,2-5), 함(창세 10,6-20), 셈(창세 10,21-31)의 많은 후손들을 열거한다. 설화자는 그들의 출생과 비교해 순서를 바꾸면서 독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형성되는 성조들의 계열에 집중시킨다. 이는 세상의 다양한 지역에 민족들이 "흩어지는"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 다음의 성서 이야기에서 큰 중요성을 갖게 될 백성들이 여기에 열거되는데, 하느님 백성의 역사의 여러 기간들을 준비하는 장면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 큰 족보(창세 11,10-32)는 셈에서 테라의 아들까지 이르는 열 명의 이름 명단 끝에 배치된 아브라함의 출생과 겹친다. 아브라함은 주님과와의 계약으로 특징지어진 하느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들"은 인류의 시작부터 이처럼 핵심 인물, 일종의 전도가 유망한 시작으로 이끌어 간다. 사실 이 "성조"에서 창조주의 본래의 축복(창세 1,28)은 놀라운 역사적 진실이 된다(창세 12,2). 아브라함을 낳는 것은 육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닐 믿음의 유순한 순종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역대기 상권 - 그 역사적 이야기의 머리글에 - 은 히브리어 정

경을 마감하면서 이 문학 유형을 다시 받아들이며(1역대 1-9), (이전의) 다른 성서 책들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족보 전체를 어느 정도 남김 없이 포함한다. 특별히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후손들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것은 설화자에게 다윗을 메시아 임금으로 소개하는 서두로 소용된다. 다윗이 주님과 맺은 계약(1역대 11,1-3)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희망의 시작이다(1역대 17,11-14).

211. 이와 유사하게, 마태오 복음(마태 1,1-17)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각기 십사 대로 된 세 개의 주기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최종 수렴으로 보였다(17절). 세 주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2-6-7절)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때의 임금 여호야킨(6-11절)까지, 그리고 끝으로 여호야킨부터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1절)이신 예수님까지다. 계약과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이는 복음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밝혀질 것이다. 육에 따른 출산은 중단되고 말씀(Parola)에 따른 세대로 대체된다.

복음서 저자 루카(루카 3,23-38)는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선조들 전체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 "조상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셉은 오로지 그렇게 "여겨졌을" 뿐이다(23절).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출생은 성령의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루카 1,31-35). 다른 선조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알려진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역사에 언급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한데 섞여 있다. 그 까닭은 "사랑하는 아들"(루카 3,22)을 아담과 연결하려는 보편적 의도 때문인데, 아담의 기원은 하느

남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루카 3,38).

212. 성서의 족보들은 항구하게 부계제의 형식을 재생한다. 그것은 고대의 가부장적 개념의 단순한 반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에 의한) 육의 세대의 행위보다 아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양함과 더불어 (아버지 편에서) 법률적 인정의 완전한 측면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성서 전통에서 이는 본질적으로 신성한 계약 공동체에 아들을 하느님의 약속으로 사는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남자는 **할례**를 통하여 세세대대로 계약의 자녀들 사이에 기록되었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창세 17,10).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 계열은 자신의 몸에 영원한 계약(창세 17,13)의 "표징"(창세 17,11)을 지니고 다닐 것이다. 예수님은 여드레 날 할례를 받고(루카 2,21)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모든 종족들에게 결정적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되셨다(사도 3,25-26; 갈라 3,14).

할례

213. 고대 세계에서 여러 민족들에 의해 시행된 할례(시리아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예레 9,24-25 참조)는 본디 혼인의 시작 의식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할례는 태어난 지 여드레 날에 아기에게 시행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창세

17,12; 레위 12,3), 그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실천은 유배 시기에 종교적 **소속**의 표지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없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메소포타미아의 민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남자에게 시행된 절단은 성적 기관을 모든 장애로부터 해방시키는 실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출산을 쉽게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계시에 비추어 볼 때, 할례는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앙의 표징이 되며, **다산**과 생명을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단지 남자의 기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

예언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의 몸에 생명의 하느님과의 결속의 표지들을 지니고 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레위 26,41; 예레 9,25), 주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의식적 순종과 완고한 내면의 불순종 사이의 잘못된 이중성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신명 10,16; 예레 4,4)는 긴급한 경고만으로는 제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느님 자신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계약**(예레 31,31-34)이 시작되었다. 신명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미 예고되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신명 30,6). 아들의 몸의 기관을 절단하는 것은 더 이상 육의 아버지가 아니다. 개인의 내면에 당신의 날인을 찍는

것은 생명의 아버지이시다. 그리하여 그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을 영원하게 한다. 또한 그것은 남자들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사되었으므로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들의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214. 성서의 족보들은 사실상 항상 유일한 아버지의 모습만 언급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경우에는 **어머니들도** 인용된다. 그들은 후손에서 특별한 계보를 결정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마태오에 의해 예수님의 족보에서 증명되었다. 마태오는 타마르(마태 1,3), 라합(마태 1,5), 룻(마태 1,5), 우리야의 아내(밧 세바)(마태 1,6)를 기억하며 당연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마태 1,16)고 기억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성서 이야기는 임신과 출산의 사건뿐 아니라(때로는 극적이다: 창세 35,16-19 참조), 후손의 미래에 관한 영향(예를 들어 창세 27,5-17.42-45; 탈출 2,1-3.7-9; 1열왕 1,11-31 참조)에 대해서도 자주 어머니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모든 인간 존재가 이중적 기원, 곧 여자와 남자가 사랑으로 결합되는 행위에 의해서 둘 모두로부터 이중적 기원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인간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부부 사이의 모든 분리는 부모의 친교에서 생명을 받는 사람의 심리적 정체성에 큰 상처를 내게 될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의 사랑의 일치로 아기가 태어난다면, 아들이 존재의 의미에 다가가고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감정의 조화와 그들의 의향의 수렴 안에서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에서 표현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말이 사랑에서 와서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종교적 성격의 반향들도 가지고 있다. 사실 부모 중에 아무도 자기 혼자 아들의 기원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아들의 기원은 전적으로 "유일하신 아버지"(Unico Padre)께 유보되어 있다. 만약 하느님께서 여인의 태를 여시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창세 30,2),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현대 언어에서 표현하듯이) 단순히 합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랑 신부가 합일한 뒤에(토빗 8,15-17)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낳는 은총을 주셨을 때(룻 4,13; 1사무 1,19-20,27), 믿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한다.

부모의 행위

215. 생식 행위에서 출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후손을 향해 표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 부모됨의 의미는 물론 자녀됨의 의미도 표현된다.

(1) 어린아이의 삶의 첫 단계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어머니다. 그 까닭은 어머니와 아들의 애정 관계를 필연적으로 표시하는 임신과 출산과 수유(2카마 7,27)와 모든 돌봄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가족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며 아기를 "알아보는" 아버지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한다. "육에 따른"

출생에 참여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일종의 "입양"을 행하며, 그때 아버지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피조물을 받으면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들의 이름은 때로는 어머니가 신생아에게 주기도 하였다(창세 29,32-35; 30,6-24; 35,18; 루카 1,59-6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할례를 받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리하여 신생아는 계약의 백성의 족보에 삽입되었다. 혹여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영적) 부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탄생을 가리킨다(창세 17,5 참조).

(2)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 편에서 그들의 피조물의 생명을 돌보기 위한 지속적이며 실제적 활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한다. 그리하여 옷을 입히고 먹이며 일체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한다. 아들은 빈곤한 사람의 조건을 살지만, 그런 신분은 창피스러운 일로 이해되지 않고, 낯이 관대하고 무상으로 사랑 받는 존재의 건설적이며 기쁜 경험의 기회가 된다. 동시에 부모는 말로써 매일 돌보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아들의 역사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위해 유익한 지혜의 조언을 전하며,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윤리, 종교적 규범들을 전해 준다. 부모는 아들이 순명하며 성장할 때 기뻐한다(루카 2,40,51-52 참조). 왜냐하면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부모의 영적 유산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잠언 10,1; 15,20; 23,24-25; 27,11; 29,23).

(3) 젊은이는 성인이 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자신의 가정을 시작한다.

다. 부모는 이 순간을 좋아하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주고 아들에게 번영과 번성과 행복의 축복을 기원한다. 아들이 일하도록 아들에게 맡겨진 땅은 이스라엘에서 조상들에게 받은 선물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 아들에게 주는 기도와 축복의 말은 하늘의 이슬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창세 27,28).

성경의 독자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없는 삶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의 말씀으로 낳고 기르고 교육하며 축복하고 유산을 선사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율법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의무

216. 성서에서 이야기되는 인간의 역사는 사실적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양식은 다양하다. 어떤 방식들은 칭찬할 만하고, 어떤 방식들은 비난할 만하다. 이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관계는 특히 아버지와 무엇보다도 어머니 편에서 항상 직관적으로 항구한 사랑의 차원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이사 49,15).

그러나 만약 애정이 부모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항상 잘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성조들의 역사에서 "이사악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창세 25,28)라는 말을 읽는다. 이러한 편협적 사랑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

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창세 37,3). 그 결과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창세 37,4).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아버지가 고집장이 아들들을 교정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나무라지만,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적절하게 벌하지 못한다(1사무 2,22-25). 사무엘은 아들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치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판관의 직무를 사악하게 행사하였다(1사무 8,1-3). 또한 다윗은 자기 누이 타마르를 성폭행한 죄인 암논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실제로 그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2사무 13,21).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항상 존경과 순종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사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올바른 염원과 반대로 결혼하여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창세 26,34-35). 야곱은 술수를 써서 맏아들에게 유보된 축복을 가로채 이사를 화나게 한다(창세 27,33-35).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 넘기면서 자기네 아버지를 애통하게 살게 한다(창세 37,34-35).

이 이야기들에서 출발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느님의 율법은 하나의 지침이 되어 - 아버지들을 위해서나 아들들을 위해서나 - 선천적으로 사랑을 향하는 성향이 충만한 진리와 정의에 따라 펼쳐지게 된다.

부모에 관한 규범

217. 십계명의 중심부에 안식일 규정이 들어 있다(탈출 20,8-11; 신명 5,12-15). 안식일 규정은 무엇보다도 가장(pater familias)에게 자녀들에 대한 해방의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여 일곱째 날에는 온 가족이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선사하신 자유를 상징적으로 살게 된다(신명 5,15). 아버지는 그 자신이 똑같은 지시에 순종하기 때문에 참된 권위, 곧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중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예의 의무를 지우지 않으시고, 합법적인 생명의 길을 표현하는 규율을 지키도록 부르신다. 휴식과 축제의 분위기에서(안식일의 특징인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준수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손으로 만든 일체의 형상을 포기하고(신명 5,8) 주님만 섬기기 위하여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일체의 지시는 동일한 정신, 곧 자유와 순종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중심 계명에서 출발하여 부모의 핵심 의무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토라를 전달하고 터득하게 하는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시편 78,3-7 참조). 사실 아버지가 자기 마음속에 동화시킨 하느님의 지시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일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의 논제가 된다(신명 6,6-7). 아버지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순종은 아들에게 교육의 기본이 된다(신명 6,20). 그리하여 가족 전체에 의해 실행되는 정의는 그 결실로 생명과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신명 6,24-25).

218.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여진 삶의 의미를 지혜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선에 일치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다. 토라의 전수는 아들이 구체적으로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의무적 유대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제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값진 선물로 제공된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적 양자택일을 하도록 한 모세의 말을 꾸준히 되풀이한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5,19). 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순종이며,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실행된다(신명 30,16-20).

그러한 사랑은 전체(신명 6,5)와 배타성(신명 5,7), 자기 자신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이 마지막 측면은 창세 22장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다(창세 22,2).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서 시험에 부쳐진다(창세 22,1).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부성으로 충만한 진리에 접근한다. 주님은 번제

물을 명령하는 체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믿는 이가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참으로 요구하신다. 순교자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2마카 7,9,14,23,29; 지혜 3,4-9). 영원한 생명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다른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선택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진리를 결정적으로 확증해 주실 것이다(마태 10,39; 16,25; 마르 8,35; 루카 9,24; 17,33; 요한 12,25).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은 만아들을 봉헌하는 데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탈출 13,2,11-16; 22,28; 34,19-20; 민수 3,13; 8,16-17). 그토록 간절히 원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바친 한나가 그렇게 하였고(1사무 1,24-28),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였다(루카 2,22-24). 의식은 부모가 하느님께 드리는 외아들의 선물을 표현하려고 하며, 하느님은 봉헌물을 받아들여시고 봉헌한 사람에게 봉헌물을 되돌려 주신다. 사실 주님은 희생제물을 먹는 몰록과는 다르시다. 그분은 신의 총애를 얻어 내기 위하여 죽이는 아들들의 죽임을 원하지 않는다(레위 18,21; 20,2-5; 신명 12,31; 18,10; 2열왕 3,27; 16,3; 23,10; 예레 32,35 등 참조). 그분은 "몸값"을 받아들여시면서 희생 제물 대신 겸손한 제물을 받아들으신다. 그것은 봉헌자가 순종으로 기록하여지고 주님께 자신을 바친 행위로 다시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아브라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악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

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 “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히브 11,17-19).

자녀를 위한 규범

219.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독려로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실 순종하면서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순종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표명된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순종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원의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운 법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며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법은 그에게 사랑의 길을 가리키는 합법적 자유로 이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므로 아들은 자신이 평가와 결정의 절대적 원칙이라는 주장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증언의 표시인 지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그것들을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선물로 겸손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십계명의 중심 부분에서 안식일의 계명(부모에게 주는) 바로 뒤에 아들에게 주는 지시가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adamah)에서 오래 살고 잘될 것이

다"(신명 5,16).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특징은 이 계명이 같은 명단의 다른 계명들과 다르며, 명령형에 있어서나 계명 준수의 결과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나 문장 구성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 입법자는 지시하는 동기들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원으로 거슬러올라갔다(그리고 탈출기의 규정에서는 창조를 기억하였다). 부모에 대한 공경에 관하여 어떤 해명도 제공되지 않지만, 무한한 행복의 약속과 더불어 미래를 전망한다. 그런데 생명의 약속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명에서 부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20.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 히브리어는 동사 kabad의 강조형인데, 이 형태는 어근의 일반적 의미 때문에 정확히 "영광스럽게 하다"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동사(또는 명사 kabod와 함께 대등한 동사들)는 자주 목적 보어로 하느님 자신을 가지고 있다(판관 9,9; 13,17; 1사무 2,29; 이사 24,15; 25,3; 29,13; 43,23; 마라 1,6; 시편 22,24; 50,15,23; 86,12; 잠언 3,9 등):

"약한 이를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쌍한 이를 동정함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kabad)이다(잠언 14,31).

부모에 대한 공경은 신성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기원(Origine)의 역사적 중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위 19,3을 보면, 이른바 "성결법"의 첫째 계

명에 보완적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yare)는 일반적으로 주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한다. 토라의 다른 지시들은 공경에 반대되는 태도를 질책하며 위반자들에 대해 아주 엄격한 징벌을 규정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qalal)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탈출 21,17; 레위 20,9);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신명 27,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탈출 21,15). 유사한 용어가 예언 전통과 지혜 전통에서도 사용된다(미카 7,6; 말라 1,6; 잠언 15,20; 20,20; 23,22; 28,7; 30,17; 시라 3,16).

부모에게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명백하지만, 공경을 드러내는 구체적 행위들은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백성들의 다른 문화들에서 세부 사항들에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의 몸짓은 사실상 항상 상징적이며 관습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단순성 안에서 윤리적,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들의 구체적 표현이다.

부모 공경의 외적 표현들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순종은 어린이들이나 미성년자들을 위해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토라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으로

삶의 길에 들어선 모든 아들을 위해서 규정되었다.

이스라엘에서 권위자의 모습

221. 신명기 법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자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곧 판관(신명 17,8-13), 임금(신명 17,14-20), 사제(신명 18,1-8), 그리고 예언자(신명 18,9-22)다. 첫 번째 범주(판관)와 마지막 범주(예언자)의 경우, 모든 이스라엘인은 그들이 내려 준 판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포괄 유형으로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신명 17,10,13; 18,15,19). 성서 전통 전체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형태의 권력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임금은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어야 한다(신명 17,18-19). 이런 식으로 입법자는 명령하는 사람(신성한 환경에서든 세속 환경에서든)이 사실상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들게 해 준다. 그는 자신의 독단이나 쾌락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롭고 유익한 뜻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인간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건의 권력이 "부계"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임금(1사무 24,12; 2열왕 5,13; 16,7; 이사 9,5)과 특정한 공동체의 책임자들(2열왕 2,12; 13,14; 1역대 4,14; 시라 4,10)에게도 주어졌다. 그 결과 신하와/또는 부하에게 가적에서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존경과 순종이 요구되었

다. 부모 관계에서와 똑같은 애정의 감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당 기관에서 공포된 규정들은 실제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화합과 형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신약성서에서 종교 지도자들, 주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은 - 이제 곧 보게 되듯이 - 광범위하게 권장되었다. 물론 권력을 손에 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정의감을 갖도록 규정되었으며, 그는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신명 17,20; 이사 10,1-2; 예레 21,12; 시편 72,1-4; 지혜 1,1).

이스라엘 현인들의 가르침

222. 교훈적 성격을 지닌 지혜 전통의 이야기들은 토라의 규범들을 지키는 "아버지들"을 무대에 세운다. 그들은 아들에게 좋은 원칙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데 열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토빗은 여행을 떠나는 아들 토비아에게 권면을 쏟아 낸다(토빗 4,3-19).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를 수양 딸로 맞아들이며(에스 2,7)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일깨운다(에스 4,13-14). 그리고 욥은 자식들이 잔치를 차리면서 하느님께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 걱정하며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정결 의식을 하였다(욥 1,4-5). 마카베오 형제들의 어머니는 주님의 율법에 충실히 머물기 위하여 순교하도록 일곱 아들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까지 하였다(1마카 7,20-23).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행동과 말에서 간략하게 표현된 것은 지혜 수집물들에서 확인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우

리는 세세대대로(잠언 4,3-5; 시라 8,9; 33,16-19) 부모의 품행에 영감을 불어넣고 가르쳤으며, 경험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제자나 다른 없는 아들(잠언 1,4,22; 7,7; 8,5; 9,4)에게 전달되는 저 가르침의 보고를 만난다. 그리하여 아들은 외관과 진리를 구분하며(잠언 9,17-18; 시라 11,2-4; 19,22-30; 지혜 2,1-22), 불의의 길에서 정의의 길을 구분하며(잠언 1,10-19; 8,6-9,20), 죽음으로 이끄는 쾌락에 반대하는 생명의 요구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잠언 1,32-33; 2,11-22; 4,14-15; 5,3-6; 7,27; 8,34-36). 이와 같은 지혜 전수의 최종 목표는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한 것을 사랑하며(잠언 4,6; 지혜 7,10-14), 참된 지혜를 얻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잠언 4,7; 9,9; 시라 6,18-19; 지혜 6,17), 지혜를 통해 모든 선의 근원(시라 1,1; 11,14-15; 40,26-27)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잠언 2,1-6; 9,10).

그러므로 자손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어떤 것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전부가 좋은 "교육"(히브리어로 *musar*이며 그리스어로 *paideia*)을 제공하려는 데에 집중된 영적 선을 지치지 않고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과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223. (1) **조언.** 첫째 형태는 **말**의 행위를 귀를 기울여 듣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권위 있는 의미의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아들이, 아버지의 교훈(*musar*)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torah)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들은 네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네 목에 목걸이다"(잠언 1,8-9).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슬기로운 규정과 법규들에 순종하라고 백성을 격려했다(신명 4,1,5-6). 모세는 기억해야 할 표징으로 규정들을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이라고 하였다(신명 6,8).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별히 그들의 가르침을 값비싼 조언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칭송하고, 율법의 표상을 "명예"(예레 5,5; 느헤 9,29; 마태 11,29-30; 사도 15,10 참조)에서 "보석"으로 바꾼다. 사실 잠언 형태의 모든 제안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 진주이며(잠언 4,9; 시라 6,29-31), 다른 어떤 보물보다도 더 부유하게 하는 값진 선이며(잠언 3,13-15; 8,11,19), 걸어갈 때 빛이며(잠언 6,20-23; 지혜 7,29-30), 기쁨의 샘이고(잠언 2,10; 시라 6,28; 15,6) 생명의 여정이며(잠언 3,2-4,16-18) 영광의 여정이다(잠언 3,16; 8,18).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둘 것을 요구하였다(신명 6,6). 그리고 부모도 똑같이 요구하면서 아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바랐다(시라 6,32):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네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내 말은 그것을 찾아 얻는 이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활력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잠언 4,20-23).

224. (2) 교정.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두 번째 양태는 명백히 사랑에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실행된다. 그렇지만 부모의 지혜 의도와 일치한다(시라 22,6). 그것은 곧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회초리는 잘못된 이들을 벌하는 교정 도구의 상징이며 품행을 바꾸게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친다(잠언 19,25; 시라 23,2-3).

모세의 율법은 부모에게 자녀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벌할 것을 요구한다. 신명기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아들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라고까지 요구한다(신명 13,7-12; 참조 스카 13,3). 또한 또 다른 경우에, 부모는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는 아들"이며, "방탕아이고 술꾼인 아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공적 재판의 주창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신명 21,18-21). 이것은 명확히 공동체의 선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어쩔 수 없이 억제하는 극단적 처방이다(신명 13,12; 21,21). 지혜 본문들에서 특정한 배반이 치명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잠언 1,32), 죄인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목적의 징벌적 가르침을 적용하게 한다(잠언 19,18; 23,13-14). 교정 행위가 행복의 길을 걷

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몇몇 경구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매를 야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별로 다스린다"(잠언 13,24).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함은
교훈의 매가 치워 준다"(잠언 22,15).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가져오지만
내버려진 아이는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잠언 29,15).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시라 30,1; 또한 시라 30,9-13 참조).

이 지혜의 가르침들은 아마도 아들을 길들여야 할 짐승과 너무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같다(잠언 26,3; 시라 30,8; 또한 예레 31,18 참조). 오늘날 고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말과 행위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러나 젊은이에 대한 효과적 교육은 부모와 양성자의 현명하고 사랑 가득한 식별에 맡겨진 시정 및 제재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한편, 이것은 주님께서 당시 자녀들에게 행하신 교육 노선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이다(신명 8,5; 욥 5,17; 지혜 11,10; 히브 12,5-11; 묵시 3,19):

"내 아들아, 주님의 교훈(musar)을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인짚게 여기지 마라.
아버지가 야끼는 아들을 꾸짖듯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꾸짖으신다”(잠언 3,11-12).

225.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름받은 아들의 근본 의무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시라 7,27-28). 그러한 의무는 일차적으로 지혜의 말씀이든 시정 행위이든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명과 인내로써 생명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린다:

"충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로워진다”(잠언 19,20).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시라 3,6).

"말과 행동으로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시라 3,8).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잠언 10,1; 또한 잠언 19,26 참조).

부모에 대한 존경은 노인들의 연약함에 연민을 갖고(잠언 23,22),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행한 것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은혜를 되갚으려는 자극이 되어야 한다(시라 7,27-28):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시라 3,12-14).

예언자들의 목소리

226. 이스라엘의 현인들과 달리, 가족의 역동성에 매우 민감한 예언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지 않는다. 그들의 특수한 소명은 주님과 의 계약을 지키고 부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부성의 은유를 도입한다. 그 목적은 사랑을 일깨우고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이사 1,2; 45,10-11; 63,16; 64,7; 예레 3,19; 31,9.20; 호세 11,1; 말라 1,6; 2,10; 3,17). 단지 드물게 예언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나쁜 품행을 비난하거나(에제 22,7), 또는 가족이 공모하여 악을 저지르는 행위를 꾸짖는다(예레 7,18; 12,6; 아모 2,7).

그러나 두 개의 신탁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신탁들은 신탁성서에 인용되어 특별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기원전 8세기 마카 예언자는 예루살렘 사회의 붕괴를 묘사

한다.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미카 7,2), 관료들은 더러운 욕망 때문에 정의의 실행을 왜곡한다(미타 7,3). 친구들과 가족의 배신은 일반화된 불신을 강요한다(미타 7,5). 예언자는 가정 안에서의 도덕적 퇴폐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고발을 끝맺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미카 7,6).

이처럼 심각한 사회의 부정적 광경은 아들이면 누구나 부모에 대해 가져야 할 존경심을 갖지 않는 데에서 바로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마음은 그 타고난 가치와 더불어 왜곡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언자는 하느님의 기적적 개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구원을 희망하며 주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한다(미카 7,7).

마태 10,34-36(루카 12,51-53의 병행문에서처럼)에서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미카 7,6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중요한 점에서 변화가 있고 그 의미도 다르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칼", 곧 가족 사이의 분열(루카 12,52)을 주러 "오신 분"이다(마태 10,34):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마태 10,35-36). 복음 전통 전체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에 대

한 자녀들의 반역과 멸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적 사랑의 필요가 부각되게 한다(마태 10,37; 루카 14,26). 우선적 사랑은 부모든 자녀든 모든 이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배타적이고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음의 표징인 "분리"를 요구한다(마태 10,21-23.39).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적 사랑에서부터 부모들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한 사랑이 나온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 좀 더 나중에 이 마지막 주제가 어떻게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명확히 설명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27. (2) 예언자 미카의 예언 직무가 있는 지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 바빌론 유배 이후의 시기에, 그러니까 종교 재건의 분위기 속에서 말라키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과 예언자들의 정경)을 약속의 신탁으로 마감한다. 미카의 희망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말라 3,23-24).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이스라엘(말라 3,22) 위에 "전멸"의 무시무시한 위협이 무겁게 짓누른다. 그것은 한때 가나안인들에게

내려졌던 것이지만, 이제 하느님의 백성 자신에게 덮친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어 심판의 날이 단죄를 위한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언자(엘리아)를 파견하시는 데 있으며, 그의 말이 "마음"을 회개시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복구할 것이다. 이미 미카 7,6에서처럼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원한 분열이 있게 된다(또한 예레 31,29; 예제 18,2-19 참조). 그것은 유배의 비극적 사건에서 수반된 점증하는 세대 간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 같다. 유배는 아버지들이 주님의 규정들을 가르치는 과제에 무관심하고 자녀들에게는 토라에 들어 있는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교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된 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를 파견하신다. 예언자의 힘 있는 말은 깊은 속마음을 건드릴 능력이 있으며 하느님의 뜻의 전달과 청취의 조건들을 복구한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의 약속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잘못을 치유하는 것은 예언이다.

복음서에서, 말라키 예언자에 의해 약속된 엘리아 예언자(또한 시라 48,10도 참조)는 세례자 요한과 동일시되며(루카 1,17), 마음을 바꾸는 예언자의 사명은 구원의 도래를 준비한다(루카 1,76-77). 세례자의 설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회개에 대한 요구는 자신의 가족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유익한 관계를 맺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재이다. 그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가치들의 전달이 줄어들 때 특히 긴급하다.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

228.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아들"의 태도에 관한 정보를 가장 풍부하게 전해 준다. 이와 연관하여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루카 2,41-52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그 기회에 소년(법률적으로 "미성년자"로 여겨졌고 따라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나이였다)은 스스로 성전에 남아 성전에서 가르치는 스승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주장하면서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하고 애를 태웠다. 그는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 그는 이 선언으로 자신이 절대적 우위성을 두어야 할 순명이 어느 것인지를 지적하며, 부모에게 자신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의 뜻에서 자신의 사명(예언)을 받았음을 계시한다. 복음서 저자가 이 사화를 마무리하는 문장, 곧 "부모[마리아와 요셉]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루카 2,51)는 문장은 앞에서 이야기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고 사신 중재이다. 왜냐하면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카 2,52)고 하기 때문이다. 율법 박사들을 슬기로운 질문과 답변으로 경탄하게 만든(루카 2,47) 하느님의 아드님은 사람의

여느 아들과 같이 성장 과정을 밟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에서 제공되는 매일의 선물을 겸손되이 습득한다.

예언 직무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의 나이는 약 서른 살이었다(루카 3,23). 그때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예속 관계를 중단한다. 그것은 인간적 기준에 따라 성숙에 도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루카 4,1,14). 성령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게 하셨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마르 3,21) 또는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하여 그분을 붙잡으러 나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는 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동체의 실재를 선언하신다(마태 12,46-50; 마르 3,31-35; 루카 8,20-21). 사실 "아버지"의 계시는 그분께 순명해야 할 필요와 더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을 이룬다. 그분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어린이들에 대해 아버지의 감정을 드러내시고(마르 10,13-16), 때로는 스승처럼 "애들아"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마르 10,24; 요한 13,33), 예수님은 아버지의 호칭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합당하며 모든 이가 구별없이 하느님만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고 증언하였다(마태 23,9).

229. 그러므로 피로 맺은 연결과 가족의 의무들은 상대화되었다. 아니, 하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종속된다. 이는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당연한 일차적 의무를 문제삼기 때문에 무겁고 당혹스러운 문장으로 표현된다. 사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곧,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

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마태 8,21-22).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6; 또한 마태 10,37). "미워하다"는 여기에서 가족에 대해 멸시와 폭력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느님만 선택해야 할 필요를 명확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주장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 또한 마태 6,24 참조).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나 부부 사이의 더욱 심원한 애정의 연결조차 하느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철저한 사랑의 길을 고수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다른 모든 가족들에 대한 애정과 돌봄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제거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절대적으로 종속되거나 의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느님께만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이것은 국가와 종교 권위자들에 의해 요청되는 순종의 형태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최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한 대답을 이런 의미로 알아들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사도 4,19).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라고 대답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바오로와 베드로가 부모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의 서간들에서 제시한 규정들을 대할 때에도 예언적 형태의 전망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사도 전통의 사목적 가르침

230. 사도들이 자신들이 맡은 교회에 발송한 서간들에서 우리는 가정의 규율과 공공 기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규범적 지시 사항들을 발견한다. 규정된 순종의 상수常數가 예측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우리는 정확한 내부 관계들과 특수한 의무들을 특징으로 하는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첫 번째 그룹은 부모와 자녀가 혼합된 그룹이다(에페 6,1-4; 콜로 3,20-21). 바오로의 서간들의 사목적 권면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제한된 존재(더욱이 다른 사도들의 서간들에서는 없는 주제)와 등장 주체들의 의무들에 대한 개괄적 취급은 초기 교회의 공동체에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갖도록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상상하게 한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 로마 1,30과 2티모 3,2에서 - 에 관한 일반적 주장들은 그리스도교 세계에는 관계가 없는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주제에 대해 더 명확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신뢰가 손상을 입었고, 더 작아진 부모의 권위가 젊은이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인용한 두 개의 본문에는 **자녀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계명만 들어 있다. 그것은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는"(골로 3,20에서 정확히 지적하듯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에페 6,1)이며 "주님 마음에 드는 일"(골로 3,20)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에 대한 명백한 언급(에페 6,2-3)은 사도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규정에 대한 단단한 기초가 된다. "공경하다"(십계명에서)와 "순종하다"(바오로에서)가 같은 뜻이라는 것은, 대체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지혜 세계의 해석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아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명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에페 6,1)을 명확히 지적한다. 그리하여 사도는 순종에 특별히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아드님이신 주 예수님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필리 2,5.8). 순종하는 데에서는 "아들"(곧 보게 되듯이)은 "종"과 다를 것이 없지만(갈라 4,1-2), 큰 차이가 있다. 곧, 아들이 순종하는 정신은 신뢰 가득한 사랑의 정신이다. 따라서 단순히 의무적으로 부여된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다.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지나친 의무를 지워 주거나, 또는 반항이나 적어도 용기를 잃게 할 수 있는(콜로 3,22) 너무 심한 벌을 줌으로써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에페 6,2; 콜로 3,21)고 부탁한다. 그러므로 지혜는 강압적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절제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지혜 12,16-21 참조). 이어서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에페 6,4). 부모는 적절하지 않게 엄격해서는 안 되지만, 젊은이의 양성에 필수적인 "훈련"(paideia)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훈계"(nouthesia)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의적 내용을 암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친절한 사랑의 정신을 가리킨다.

231. (2) 주인과 종. 역시 가족의 내부에 속하는(사도들의 시대에) 두 번째 그룹은 "주인"(kyrioi, despotai)과 "종"(douloi)으로 되어 있다. 그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까닭은 문학적으로 바로 근접해 있다는 것뿐 아니라, 내용면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에페 6,5-6; 콜로 3,22-25; 또한 1티모 6,1-2; 티토 2,9-10; 필레 8-21; 1베드 2,18-25).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증언들에 따르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목적으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훈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줄 수 있다.

종속하는 사람은 항구한 종("자유인"에 반대되는: 1코린 12,13; 갈라 3,28; 에페 6,8; 콜로 3,11 참조)의 상태에 있는 "노예"일 수

도 있고, 또는 단순히 "종"이나 일시적이며 보상을 받는 봉사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머슴"(oiketai)일 수도 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집안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예들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습은 유대인들의 가정(시라 33,25-33)과 그리스도교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주인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일곱 켤 해에 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옛 율법의 규정(탈출 21,2-4; 신명 15,12-15)에 순종하여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도록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적지 않게 놀라게 한다. 정확히 말해 그러한 훈련은 유대 노예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고, "다른 민족들에서 데려온" 노예들(레위 25,44-46 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 "형제"(또한 이교인 형제) -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 - 를 고려하면 혁신적 관대함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노예제도의 근본적 불의를 인정하는 과정은 보편적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많은 고통을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성서 해석자는 역사적 조건들을 비판적 안목과 동시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성경의 본문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정의와 사랑의 올바른 표시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모든 것에서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자 현재 있는 상태대로 살아가라(1코린 7,17)는 바오로의 조언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1코린 7,21)라고 말하는 대신, 해방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부과된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결정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탈출 21,5-6 참조).

232. "종"에게는 "현세의 주인"(kata sarka kyrioi)(에페 6,5)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1티모 6,1; 1베드 2,18) 어떠한 일에서나(골로 3,22; 티토 2,9) "복종하고"(티토 2,9; 1베드 2,18), "순종하라고"(에페 6,5; 골로 3,22) 지시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주님(kyrios)을 섬기듯이(에페 6,6-7; 골로 3,22-23) 자발적인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종에 대해서나 자유인에 대해서나 똑같이 값어치 있는 것이다(에페 6,8; 골로 3,24-25). 못된 주인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러한 조건을 "은총"(charis)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을 신뢰하였다(1베드 2,19-25). 반란이나 복수에서 영감을 얻은 반대되는 태도는 하느님을 모독하게 할 것이며(1티모 6,1), 그리스도교 "가르침"(didaskalia)에 해로울 것이다(1티모 6,1; 티토 2,10). 이러한 규정들은 복음화에 해가 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를 특히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리스도교) **주인**에게는 겁주는 일은 그만두며(에페 6,9) 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라고 권면한다(골로 4,1).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그의 도망간 종(오네시모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 주기를 권한다(필레 16). 이러한

표현은 사랑으로 받아 주는 것을 가리키며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구체적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형제를 해방시키는 행위가 사랑이 없이 행하여졌고,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나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강제되었기 때문이라면, 형제의 차원을 인정하는 것이 종을 해방시키는 행위보다 더 낫다.

우리는 이러한 사목적 권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때로는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조건에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봉사"의 태도에 관한 영적 지혜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다. 사도들은 이처럼 사회적 환경이든(노동자/직원과 고용인의 관계에서), 정치적 환경이든(신하와 통치자 사이에)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종속 조건들을 사는 "정신"을 지적한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사랑의 지혜와 인권에 대한 더욱 정확한 고려는 노동법의 더욱 적절한 규제뿐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법에 예측되는 규제를 장려할 것임이 분명하다.

233. (3) "목자와 양 떼". 비대칭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그룹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교**" 또는 "**감독**"(원로)이 주재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결정되는 그룹이다. **신도들**은 그들에게 순종과 존경을 드러야 한다. 예를 들어, 바오로의 첫째 서간들 중의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1테살 5,12-13). 이러한 권면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되풀이된다. 여기에서 사도는 서간의 수신자들

에게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한다(1코린 16,15-16). 또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확인된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히브 13,17; 또한 1베드 5,5 참조). 이 인용문들에서부터 - 관점이 뒤집힌 것은 아니겠지만 - 적어도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 드러난다. 사실 종속된 사람이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 복음에서 가르치듯이(마르 10,42-45) -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라는 사실이 강조되며, 공동체는 주님께 썬을 해 드려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덜 일방적인 순종이 나타나며, 그것은 하느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형제 관계에서도 모든 믿는 이들을 특징짓는 덕행이다.

그 결과 "**목자**"에게 한 추천이 대단히 많다. 왜냐하면 목자의 직무(diakonia)는 양들의 행복을 위해 펼쳐지기 때문이다(요한 21,15-17 참조). 바오로는 자기 공동체에게 자신을 아버지(1코린 4,15; 갈라 4,19; 2코린 6,13; 필리 2,22; 1테살 2,11), 또는 어머니(1테살 2,7)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한다(1코린 4,16-17). 사도행전은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prfesbyteroi)에게 한 그의 권면을 기억한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episkopoi)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

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 또한 1베드 5,1-4 참조). 경계는 사악한 가르침들을 거슬러 복음의 진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만(사도 20,29-31), 무욕과 신뢰에 기반을 둔 관대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사도 20,32-35). 이와 같은 권면은 1베드 5,1-4에서 발견된다. 바오로는 티모테오(1티모 3,1-7; 4,6-16; 5,1-3,17-22; 6,11-16,20; 2티모 1,6-8,14; 2,1-7,14-16,22-26; 3,14-4,15)와 티토(티토 1,5-9; 3,8-11)에게 다른 많은 소중한 지시 사항을 주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사목자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된 직무에서 오는 평화와 협력과 선의 축진의 효과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실천한 사랑 가득한 권위의 행사는 시민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범례가 될 수 있다.

234. (4) 마지막 그룹은 시민 및 정치 사회와 연관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며 그 사회에서 특수한 형태의 순종 대상이다. 사도들은 공공의 권위에 조언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 더욱 잘 정리된 사항들은 로마 13,1-7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바오로는 시민의 힘에 대해 매우 긍정적 사고를 드러낸다. 바오로는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로마 13,1)고 말한다. 어떤 주장들은 너무 일의—意적인 것 같다. 사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때가 그러하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exousia)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

의 질서(diatage)를 거스르는 것입니다"(로마 13,1-2).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대해 아무런 권한(exousia)도 없었을 것이다"(요한 19,11). 여하튼 난폭한 권력 행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경우 순종은 악과의 부적절한 공모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사도 13,3-4.8.12-17), 이와 반대로 "시민의 불순종"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시민의 의무일 것이다. 이어서 바오로는 자신의 일반적 약속에서부터 공적인 삶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규칙을 끄집어 낸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syneidesis)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leitourgoi)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로마 13,5-7).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르 12,17).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을 내라고 하셨다(마태 17,24-27). 스승이 주신 동기는 사도가 제시하는 동기와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지만, 공적 봉사자 집단과 개인들에게 주는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서는 작용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물론 정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하느님께 속하는 것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야 한다.

순종적

복종 외에(티토 3,1-2), 바오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요청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다"(1티모 2,1-3). 베드로도 인간 제도에 복종하라는 바오로의 명령을 주장한면서(1베드 2,13-14,17) 순종하는 행위에 호교론적 성격의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한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1베드 2,15-16). 이처럼 시민의 특징인 자유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종속된다.

235. 가족과 사회 안에서 비대칭적 관계에 관하여 이처럼 광범위하게 다룬 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상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예측된 사람(아들, 종, 믿는 이 또는 시민)에게 한결같이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종의 덕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큰 매력을 지니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방해야 할 본보기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합법적인 복음 전통에 명기된 친절한 사랑의 차원을 표현한다(마르 14,36; 요한 4,34; 5,30; 6,38; 8,29; 14,31; 필리 2,8; 히브 5,8).

권력의 행사는 항상 "봉사"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뿐 아니라, 그 발을 씻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발을 씻어 주는 형제에게도 순종적 복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요한 13,13-17) 가정이나 사회에서 권위로 군림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

사한 점이 요구된다(에페 6.9).

3. 형제적 사랑

236. 피를 나눈 가족이나 하나의 공동체 또는 민족에 속함을 가리키는 "형제애"는 사회 안에서 합법적 삶을 구성하는 차원을 갖는다. 그러나 각자의 자유는 이웃의 정체성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서 형제를 보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형제애만이 자유와 인간을 존중하는 평등에 접근하게 한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이 법에 의해 제정되고 통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만한 가치에 있어 내적 확신의 결실(곧, 하느님의 선물)인 개인적 선택을 요구하는 형제애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에는 - 성경에서 제안하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 형제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가 드물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이야기로 시작하자.

(1) 카인과 아벨(창세 4,1-16)

237.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에서부터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 나타난다. 그러나 두 주체의 한 쪽에 악에 기울어지는 자연스러운 소인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1요한 3,12에서 해석하는 것과 달리).

형제들 사이의 차이. 어머니는 맏아들 카인의 출생을 거의 신의 윤곽을 가진 사건으로 칭송한다("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

자 아이를 얻었다"(창세 4,1). 그러나 설화자는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창세 4,2)라고만 말한다. 동생의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로 바람, 덧없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마치 그는 단순히 다른 사람, 둘째 사람, 첫째의 형제인 것 같다. 그러므로 형제들 사이의 시간적 승계는 항상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했다. 사실 시간적 승계에서 출발하여 똑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 추정된 평등과 대비되는 우선성과 우월성과 특권들이 결정된다. 달리 말해, 형제들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 첫 번째 비대칭(시간적) 외에 주거와 직업의 비대칭이 있다. 왜냐하면 카인은 자연스럽게 비옥한 땅의 소유주가 되고, 아벨은 목자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목민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각기 봉헌한 예물은 농업인과 유목민의 신분에 상응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창세기의 본문에서 카인이 바친 예물이 아벨의 예물에 비해 덜 유효한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다(히브 11,4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실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두 의식이 모두 충만하게 인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굶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창세 4,5). 성서 계시는 이와 같은 문학적 음모의 모티프를 규칙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느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의 다양한 주인공들의 추정된 권리나 공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 작은 이들(신명 7,7), 겸손한 이들과 비천한 이들(루카 1,51-53)을 더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주체들은 하느님께 더욱 명쾌하게 연민으로 가득한 당신의 관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 차이를 초래하는 선택은 인간이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하느님의 자유의 신비이다(시편 78,67-68; 87,2; 말라 1,2-3).

질투. 창세기 본문에서는 두 형제가 주님께서 "끼꺼이 굶어보셨는지" 아니면 굶어보시지 않았는지를 어떤 식으로 알았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었거나, 어쩌면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카인에게 실망을 안기고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창세 4,5). 누구나 털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데 적절하게 여겨지는 동등한 정의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체들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면적으로 정당화된 시기심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선에 대한 질투는 형제애에 함정이 된다. 성서 본문은 하느님의 입을 빌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동물,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에 비교되는 위험을 강조한다(창세 4,7). 하느님의 목소리는 식별과 책임과 진리를 독촉하는 양심의 소리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직접 주는 말이다. 왜냐하면 유혹을 이기고 "좋게 행동하는" 것을 결정할 줄 알기 때문이다.

폭력. 그러나 마음에서 폭력이 나온다(마르 7,21-22). 카인은 형제에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 성서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해 침묵을 지키지만 - 단지 들에서 만날 약속을 하려는 것이다. 증인이 없는 그곳에서 형제가 형제를 살해한다(창세 4,8). 형

제 살해의 범죄는 고압적 행위만이 아니라, 기만과 계략과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 따르면, 범죄는 부모에 의해서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그러나 창세 4,14에서 가능한 보복의 원인으로 카인에 의해 언급되었다) 지적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질문하신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창세 4,9ㄱ). 이 질문은 살인자에게 보호해야 할 선으로 주어진 사람의 부재를 의식하게 하려는 것이다. 카인은 유명한 대답으로 일체의 책임을 부정한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ㄴ). 땅바닥에서 창조주에게까지 울부짖는 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사실들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어리석다(창세 4,10). 하느님께서 다시 물으신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창세 4,10). 주님은 죄인에게 범죄의 중대성을 일깨우려고 하신다. 그리하여 저지른 악의 결과를 곧바로 지적하신다.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땅의 저주는 살인자로 하여금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창세 4,11-12)가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창세 4,14). 카인에게서 라멕이 태어나고, 역설적으로 생명을 지키려는 위협과 보복이 증가하면서 폭력에서 폭력이 생겨난다(창세 4,23-25).

(2) 에사우와 야곱(창세 25,19-34; 27,1-28,9; 32,4-22; 33,1-17)

238. 비슷하면서도 더욱 복잡한 문학 줄거리와 더불어 다른 두 형제, 곧 에사우와 야곱의 경쟁이 이야기된다. 에사우와 야곱은 어

머니 뱃속에서 이미 서로 싸우는 쌍둥이다(창세 25,22). 동생은 먼저 태를 열고 나오기 위하여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앞서가는 사람을 밀쳐내고 첫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인간의 타고난 갈망의 상징이다.

설화자는 두 형제 사이에 차이가 나는 여러 요소들을 처음부터 열거한다. 에사우는 "살갓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며(창세 25,25)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보호된 삶을 산다(창세 25,27). 아버지는 큰아들을 더 좋아하였고,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선호하였다(창세 25,28). 큰아들은 자기 직업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허기지고 동생에게 불콩죽을 먹게 해 달라고 청하며(창세 25,29-30), 서둘러 맏아들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이다(창세 25,31-34). 이 모든 차이는 경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질투의 산실이 된다. 정직하지 않은 행위의 은밀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시기다. 여기서 둘째가 첫째 자리를 차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보된 것을 속임수로 가로챈다(창세 27,1-29). 여기에서부터 자연스러운 결과로 속임을 당한 것을 안 형제 편에서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 그의 아버지가 장담하듯이(창세 27,39-40) - 자원이 거의 없고 비천한 상태에서 남을 섬겨야 하는 미래를 맞을 것이다. 에사우의 위협적인 분노는 이사악의 두 아들을 헤어지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며(창세 27,42-45), 그것은 그들의 형제애가 파탄에 이른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사건은 야곱의 긴 망명을 초래할 것이다. 야곱

은 자기 장인을 위하여 이십 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창세 31,28-41). 그러나 망명에서 돌아올 때, 장정 사백 명과 함께 형제에게 오고 있는 에사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창세 33,1), 사건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 왜냐하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예기치 않게 감동적인 부드러운 동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창세 33,4). 에사우는 손해 배상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 동생과 달리 -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창세 33,9). 그러나 그는 야곱이 평화와 되찾은 친교의 표지로 주겠다고 주장하는 선물을 받아들인다(창세 33,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헤어진다(창세 33,12-17). 아마 야곱은 완벽한 안전 보장을 느끼지 않고, 아마도 형의 성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인간사가 그러하듯이, 초기 화해는 이처럼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 이사악을 무덤에 안장한다(창세 35,29).

(3) 요셉과 그의 형제들(창세 37; 39-48)

239. 창세기의 세 번째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린 동생을 반대하여 연합한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의 땅에 팔려 간 종의 불행과 성공, 그리고 끝으로 희생된 사람에 의한 용서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체 사건의 지혜적 음조는 독자를 형제 사이의 화해의 본보기적 여정을 깨닫게 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 어머니들(아내와 소실)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있었다(창세 30,1-24). 또한 그 경쟁은 아들들 사이에서 다시 생겨나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다(창세 37,3). 왜냐하면 요셉은 더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창세 29,30 참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한 긴 저고리를 지어 입힌 것이 편애를 표현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를 폭발하게 하였으며(창세 37,4), 요셉이 자기가 꾸 꿈을 근거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담화를 한 것이 불을 붙였다(창세 37,5-11). 시기는 증오가 되고(창세 37,4,8), 증오는 폭력을 행사하게 한다. 증인들이 아무도 없을 바로 그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때 형제들은 형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죽이려는 처음 계획(창세 37,18-20)은 그를 팔아넘기려는 결정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여 무엇인가를 얻자는 심사였다(창세 37,26-27). 질투의 동기였던 긴 저고리는 찢어서 피에 적신 뒤에 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형제들은 그가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거짓 증거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창세 37,31-33). 사실상 그것은 형제애에 결정적 파괴가 있다는 외적 표징이다. 위로받기를 마다하는 아버지의 고통(창세 37,34-35)은 진리를 밝히고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사건은 매우 복잡하다. 요약하면, 그 사건은 하느님이 알려 주신 지혜(창세 41,39)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권력자가 되는 데 성공하는 불의의 희생자의 놀라운 이야

기를 설명하려고 한다(창세 41,40-44). 그러나 그의 개인적 성공은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다. 이야기는 형제들과 화해하기 좋은 적절한 기회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하여 나일 강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올 때 실현된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자기 앞에 와 있는 형제들을 본다. 요셉은 복수를 계획하는 대신,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내동생 베냐민과 자기 아버지에 대해 연민으로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한다(창세 44,20-34). 자신을 거슬러 행한 범죄에 대한 뉘우침의 표현으로 분명한 고백은 없지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 놓아 울며(창세 45,1-2.14), 형제들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넘쳐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어서 요셉은 그들과 함께 모든 역사를 하느님께서 기획하신 놀라운 구원으로 다시 읽는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창세 45,4-8).

형제애를 복구하기 위한 하느님의 이러한 숨겨진 행위는 형제들의 이야기 전체를 위한 해석의 열쇠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셉

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예형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형제이시지만, 주님이 되시어 자신과 아버지께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돌아오신다.

민족들의 역사

240. 창세기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의 공동체 내부에서 밝혀지는 역동적 관계들의 문제점들은 이어지는 성서 이야기에서 씨족, 민족, 나라의 차원에서 다시 나타난다. 보편적 형제에는 공통된 기원에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과 노아에게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제에는 적절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오만으로 인하여 많은 특성과 사회적 차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형제에는 항구하게 상처를 입었다. 한 집단의 정체성은 자주 다른 집단에 반대하는 데에서 표현되고 견고해진다. 그러기에 역사는 그 시초부터 경쟁과 전쟁으로 점철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매번 허물어진 가옥의 부서진 파편에서 빠져나오고 골절된 것을 고치며 평화와 결속의 도면을 다시 그리려고 한다. 사실 성경은 갈등의 측면에서 시작하여 큰 고통을 드러내는 역사적 과정을 증명한다. 또한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본보기적 제안과 행위, 법과 제도로 이루어진 이상적 여정을 묘사한다. 왜냐하면 주님과 인류 사이의 영원한 계약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일은 매사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행위에 예속되기 때문이다.

폭력적 경쟁은 항구한 현상이다. 모든 이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 그것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심지어 하느님과 역사에 대한 그분의 능력과 희생자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이끌기까지 한다(시편 73,1-14; 94,3-7; 욥 24; 애가 2,20-21):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그러니 법은 스러지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하바 1,2-4).

무엇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법인가? 성서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길, 곧 세상의 길과 하느님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국주의와 하느님의 나라

241. 성서는 세상의 역사를 끊임없는 지배 세력들의 출현으로 묘사한다. 지배 세력들은 정치적 조직 때문에, 특히 기술과 군사력

때문에 민족들에게 패권과 전제주의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바벨**의 기원에 관한 짝막한 이야기에서 이미 신중하게 암시된다(창세 11,1-9). 도시국가 바벨은 유다 왕국의 종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국의 종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의 이야기군은 공식적으로 마감된다(2열왕 25; 1역대 36). 창세 11장의 전설 같은 성격은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제국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로 생겨나는지 보게 해 준다.

이야기의 서두는 "획일성"의 동기를 소개한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창세 11,1). 이는 일종의 역사적 진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며 따라서 같은 말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데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장은 홍수가 있는 뒤에, 노아 자손들의 씨족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으며(창세 10,32) 각 민족은 고유한 지역 외에 자신의 특정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창세 10,5.20.31). 그러므로 우리 이야기의 첫 주장을 제국주의적 계획의 첫 번째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그 계획은 유일한 언어를 이해의 근거로, 차이가 없는 하나의 공동체 건설의 기초로 선호하고 또 부과하는 것이다.

이어서 사람들이 이주해 오다가 별판에 정착하였다고 말한다(창세 11,2). 이것은 더 나은 자원으로 인하여 유토피아적으로 유일하며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된 시민 사회 체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땅 정복의 상징이다. 벽돌 생산으로 표현된 기술은 "

성읍"(모든 시민을 동일한 방어 아래 통합하여 동일한 법과 공동 경제와 동일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정치적 실체)을 건설하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우리가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ziggurat)에 대한 암시를 본다면, 지상뿐 아니라 종교면에서도 방어를 위한 최고의 요소로서의 탑)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창세 11,3-4ㄱ).

이 계획의 목적은 대단히 갈망하던 것으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름을 날리게"(즉 없어지지 않을 영광으로 유명해지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연합은 힘을 발휘하며 내적 결속에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다(창세 11,4ㄴ).

암시적으로, 성서 설화자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이집트에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 톨로메오인들에서 로마인들로)에서 직면하였고 동화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전멸될 위협을 겪었던 다양한 제국들에서 만나는 (문제점들을 가진) 요소들을 부각시킨다. 창세 11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 인간의 계획과 부분적인 실현에 대한 하느님의 평가를 삽입한다. 주님은 "한 겨레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 "좋은 것"이 아니라 -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개입하여 언어를 "뒤섞어 놓음으로써", 곧 사람들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계획된 건축을 내부에서 분쇄하신다(창세 11,5-7). 그 자체로 분열된 나라는 무너진다(다니 2,41-43; 참조: 마르 3,23). 주님이 이룩하신 "흩어짐"은 제국주의

적 꿈을 단죄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 사회의 통합의 새롭고 다른 양식의 원칙이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새롭고 다른 양식의 통합된 사회는 오순절 때 실현된다. 거기에서는 각자 자신의 언어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들이 모여 성령의 강림 덕분에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알아듣는다(사도 2,1-11). 하느님의 나라, 곧 형제들의 공동체는 전체주의적 모델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총체적 독서를 표현하는 묵시문학 작품들은 - 동물 세계에서 가져온 표상으로도 - 제국들의 괴물 같은 출현을 묘사한다(다니 7-8; 묵시 13). 그리고 믿는 이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종말을 지적하고(묵시 14,8; 18,2-3; 19,11-21), 영원한 왕국(다니 2,44-45), 곧 "거룩한 성읍"이 비천하지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영원한 왕국에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랑 안에 모여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이다(묵시 7,9-10; 21,1-4).

형제들의 민족 이스라엘

242. 구약성서는 특정한 백성의 역사의 기록된 증언을 담고 있다. 그 특수성은 온 세상의 주님과 체결한 계약에 있다(탈출 19,5-6). 만약 이스라엘 -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자손으로 제시되는 - 이 자신의 단일성을 "같은 혈통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지 유일한 참 하느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듣는 데에서 비롯되는 그의 심원한 정체성의 한 표징일 뿐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될 것이며(신명 4,32-40), 그의 역사는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기원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토라에 순종하는 한, 모든 이스라엘인은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다. 다양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지파와 씨족들로 구성되었고, 자주 특정한 전통들과 국가의 맥락 안에서 특권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 역사는 개인주의적 힘과 배타주의적 관심들이 국가의 일치를 위협하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된 복잡한 사건에서 발췌한 몇 가지 예들이 이 점을 밝히는 데 충분할 것이다.

벤야민 지파는 가브아 성읍의 죄인들을 넘겨 주지 않았고(판관 20,13),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연합과 싸웠다(판관 20,14-48). 벤야민 지파의 패배와 벤야민 지파에 대해 취해진 추방 결정은 하느님 백성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없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다(판관 21,3).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 - 자기 백성의 "중이 되어"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한 - 의 악정 때문에, 북쪽의 지파는 유다 왕국에서 분리되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1열왕 12,19). 시로-에프라임 전쟁 때처럼 심각한 적대감을 가진 분열은 영구적으로 지속되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의 존속을 위협하였다(3열왕 16,5-9; 이사 7,1-9).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불복은 예수 시대까지 지속될 것이다(루카 9,52-53; 요한 4,9). 두 왕권을 목자인 다윗의 유일한 막대기 안에 통합하는 데에는 예언자

가 예고한 대로(에제 37,15-27) 하느님의 기적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혈연 관계의 가족의 맥락에서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에도 형제애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미 살펴보았다. 영향력과 이해타산과 삶의 조건들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율법(토라)의 역할을 묘사할 수 있다. 율법은 그 규정들과 슬기로운 제안들로 구성원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일치를 촉진하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장려하고, 값어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사람들에게 연대감을 심어 준다. 사실 율법은 "정의"를 규정한다. 정의는 이웃의 권리를 단순히 존중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충만한 진흥을 요구한다. 조상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신명 7,8; 10,15,18), 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했을 때(신명 6,21-24) 하느님이 도와 주신 것을 기억하는 데에서 힘을 받는 율법은 법적 규정의 형태를 취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에 호소하며(신명 6,6; 30,14) 본질적으로 하느님(신명 6,5)과 이웃(레위 19,18)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연대한 백성

243.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와 같은 보편적 고

려는 하느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계명, 곧 사람('adam)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계명 안에 이미 표현되어 있다(창세 9,6). 생명에 대한 존중은 구체적으로 말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의 절대적 가치의 표징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종교적, 윤리적 규정들의 종합인 십계명은 "이웃"(rea)(탈출 20,16-17; 신명 5,20-21), 곧 동일한 주거 공간에 사는 "옆사람"의 범주에 기대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나열한다(탈출 22,6.9.13). 그것은 관계의 구체성을 부각시킨다. 위에서 명기한 히브리어 용어는 "이웃"(신명 19,5; 1열왕 20,35; 즈카 3,8)과 더 나아가 "친구"(탈출 33,11; 신명 13,7; 시편 35,14)와 애인(예레 3,1.20; 호세 3,1)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이나 낯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존재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단순히 고립된 존중만을 규정하지 않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 하고 강제한다.

"이웃"의 개념은 한정되지 않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특질들을 떠나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ani, 'ebyon, dal)의 범주에 대해서도 - 그렇지만 더욱 협소한 영역에서 - 비슷한 생각이 적용되었다. 이 용어는 특별히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서 전통에서 가난은 "과부"와 "고아"(노동의 소득이 없는)의 신분에 거의 함께 따라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레위인" 사제(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은)와 "이방인"이나 "이민자"(ger)

의 일반 조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방인 또는 이민자 역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하인 같이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서는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신명 10,18)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신명 10,19). 소경과 농아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도 법률상 어디에 소속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존중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페니키아에서 가난한 사렙타 과부를 도운 것(1열왕 17,7-16),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이교도를 고쳐 준 것(2열왕 5,1-19)이 이해된다. 예수님도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행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빈곤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도 착취해서는 안 될 의무에 대해 주장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 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신명 24,14-15);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신명 24,17-18; 또한 신명 27,19 참조).

244. 율법은 학대와 모든 형태의 불의를 엄격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너그럽게 돕기 위해 이스라엘인의 자유에 맡긴 수많은 활동들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거두고 남은 이삭을 남겨 두어 가난한 이들이 빌어먹지 않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게 하라고 명한다(레위 19,9-10; 23,22; 신명 24,19-22). 축제를 지내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신명 16,11,14; 참조: 느헤 8,10-12). 해마다 그리고 세 해마다 바치는 십일조(레위 27,30-33; 신명 14,22-29; 26,12-15)로 수확의 만물을 봉헌하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게 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고 돈을 꾸어 주어야 한다고 명한다(탈출 22,24; 레위 25,35-38; 신명 23,20).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받아들여야 하고(신명 15,7-11), 가난한 이에게 품위 있게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서 가난이 사라지도록 기여해야 한다(신명 15,4).

신명기의 이 마지막 규정들에서 또 다른 개념, 곧 "**형제**"('ah)의 개념이 병행 또는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율법에서 이 용어는 같은 시민, 같은 종교인을 가리키며, 혈연의 친척을 가리키지 않는다. "형제 관계"의 연결은 가장 강력하게 결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실 "이방인"(nokri), 곧 이스라엘에 머무는 상인이나 임시직 직원에게는 몇 가지 점에서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신

명 14,21; 23,21 참조). 이들이 존중받을 사람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보호 받아야 할 가난한 이들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는 자주 "너의 동족"(신명 15,3.7.9.11.12; 17,15; 22,1 등)을 생각하라고 초대하면서 믿는 이의 책임을 강조하고, 연민과 감사의 마음 또는 이해 관계를 떠나서 관대함을 보여 주라고 명한다.

그러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 무례한 언동,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모욕적 행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의 다툼을 종식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사회적 일치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율법은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 적의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원수"('oyeb)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항상 "형제"로 남아 있으며, 항상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남아 있다. 율법의 두 규정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이 두 규정은 제안하는 지침으로 읽고 다양한 삶의 환경에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245. 첫 번째 규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표상 - 상징적 가치에서 - 은 짐승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화물을 싣는 짐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실어서 화물과 짐승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는 농부의 표상이다. 신명기 법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너의 동족"이라고 지칭하며(신명 22,1-4), 그것을 보지 않은 척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요구한다. 이와 똑같은 규정이 이미 계약 법전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와야 할 사람이 "너의 원수"라고 상세하게 지적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러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탈출 23,4-5).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인에게 항상 "손을 내밀도록", 곧 이웃을 돕도록 요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전의 적의를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서 오로지 빈곤한 형제만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규정은 이른바 "성결법"(레위 19,17-18)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규정의 주체는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 그러므로 문맥은 투쟁 관계의 문맥이며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증오"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상대방을 "대놓고 질책하라"고 말씀하신다. 그에게 진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불쾌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복수를 하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원한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 하고 말하는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반된 감정의 이러한 양분은 해석 전통의 결과이며(마태 5,43)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해석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전쟁중인 백성

246. 말과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평화의 촉진자다. 그러나 그는 자주 상대방(형제나 타인)이 그의 원칙과 운영 지침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는 투쟁하거나 싸움과 전쟁 - 이상적으로는 원하지 않은 - 까지 해야 하며 정의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율법은 그에게 위협적 측면들과 폭력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적대자에게 유순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 사이의 분쟁

사람과 집단 사이의 잠재적 경쟁은 이해 관계의 편차와 이념의 차이, 모욕 또는 몰이해 때문에 쉽게 복수와 공격적 행위로 폭발한다. 그러므로 명백한 경쟁은 단순한 힘의 행사로써가 아니라 권리에 따라 재구성하고 해결해야 한다. 사실 근본 규칙은 모든 사람이 분쟁에서 신념에 의해 그리고 개인적 보상 기준에 따라 자기 손으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일흔일곱 곱절로 양값음을 하겠다는 라멕이 불의하게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창세 4,24). 그 결과, (추정된) 피해자가 재판관이 되는 사적 복수 대신에, 편차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가장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247. (1) 첫 번째 길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는 길이다. 그들 사이에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경쟁자들은 타협과 합리적 합의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형태들은 상호 존중의 약속을 바탕으로 평화 동맹을 맺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사악이 아비멜렉과의 분쟁에서 그렇게 하였고(창세 26,26-31), 또는 야곱

이 라반과 그렇게 하였다(창세 31,43-54). 우리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레위 19,17-18)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마태 5,25; 18,15-18).

복음은 이 대화적 가르침을 완성한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온유한 태도를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마태 5,5). 그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마태 5,9)이 되기 위하여 대칭적 응답("눈에는 눈"의 규칙에 따라: 탈출 21,24-25)을 포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킨다(로마 12,17-21).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마태 5,20) 의로움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는 것이며(마태 26,52)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마저 돌려 대는 것이다(마태 5,39). 그러므로 의로움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마태 5,44) 폭정과 횡포에 복종하는 것이며(마태 5,39-41)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루카 6,28),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마태 5,44-4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수난에서 이런 태도를 몸소 보여 주셨고(1베드 2,23)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영감을 불어넣는 본보기를 남겨 주셨다(사도 7,59-60).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마태 18,22)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화해를 위한 극단적 언어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248. (2)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대화와 온유한 온유의 길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무죄한 희생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경쟁자 양측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 그리하여 율법은 시민들 사이에 화합을 가져 오기 위하여 분쟁을 공평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 중재자(개인이거나 집단)에게 의지하여 갈등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촌락들에서는 노인들이 평화의 판관 또는 조정인 행세를 하면서 고의로 잘못 주장한 경우(신명 22,18-19), 또는 부지불식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탈출 21,22,30) 보상 금액을 고정한 것 같다.

마태 18,16-17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중재자의 전략을 조언 하시면서, 단 둘만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마태 18,16) 권위 있는 증인과 공동체 전체의 개입을 권하신다. 바오로도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이교도들의 법원에 가지 말고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 줄 수 있는 교회의 누군가에게 그 송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1코린 6,1-8).

249. (3) 설득하려는 조용한 지혜의 호소에 어울리는 이런 유형의 조정 중재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은 확정 선고의 강제 집행으로 시민들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는 과제를 **사법** 기관에 위탁하여 개입하게 한다.

구약성서의 사법 기관에 주어진 중요성은 확실하다. 탈출기에서 재판관단(모세 옆에서 사법권의 과제를 시행하는)의 제정(탈출 20-23)은 율법을 선포할 시나이에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명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주장한다. 신명기 서두에서 사법 제도의 기원을 기억하고(신명 1,9-18), 나중에 가서 비로소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한다

(신명 5,6-22; 12-26장). 그와 같은 설화적 판단으로, 성경은 이미 제정된 규범들에 따라 결정하고 위반을 타당하게 확인하는 재판관 없이는 율법이 사회적 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여기에서부터 사법관의 직무를 맡는 사람들에 관하여 성서 전통의 걱정을 이해하게 된다. 탈출 18,21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라고 규정한다. 또한 신명 1,13에서는 동일한 직무를 위하여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추천하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도덕적 청렴과 능력과 지혜를 요구한다. 사법 기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질들이다.

민족들 사이의 분쟁

250. 시민 사회 내에서 정의에 입각하여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다. 사적 보복과 시민 전쟁은 법의 규제를 받는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민족들 사이의 관계에서 중대한 대립의 경우와 재판을 중재하는 중재자(super partes: 적대자가 인정하는)가 없을 경우, 불행하게도 **전쟁**으로 치닫는다. 전쟁은 합리적 대화의 실패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짓밟힌 권리를 바로잡기 위한 극단적 수단이다. 성서, 특히 구약성서에서 전쟁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 대해 내적으로 응집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전적이라며 비난한다. 이스라엘의 역사 - 다른 많은 민족들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로 - 는 분쟁으로 점철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에 의해 구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재앙적 결과를 맞게 된 것이 사실이다. 명백한 폭력이 일어나면서 견딜 수 없는 모호한 사건들이 치명적으로 발생한다. 그러기에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성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만족스럽고 비판의 여지가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본문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고대 근동 전체(와 이스라엘에서도)에서 전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신명심판**(神明審判), 곧 각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두 적대자(두 임금, 두 군대)에 대해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신은 지고한 법정의 자리인 하늘의 왕좌에서(시편 9,5,8; 11,4) 옳은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고, 그릇된 사람에게 패배를 결정한다. 공정이 칭찬할 만한 이런 정의의 열쇠다(신명 10,17; 시라 35,15). 주님의 명령으로 바다가 열리고 달히며(탈출 14,21-29), 원수들 위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지고(여호 10,11),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인들에게" 해가 멈추어 서는 데에서(여호 10,12-14)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의 개입은 경쟁자들의 승리와 굴욕이 자주 명확한 우주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하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전쟁에 가장 익숙한 전사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다양한 뉘앙스와 방식으로 주장된다. 또한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은 최고 통치자이고 정의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하느님은 때가 되면 당연히 세상에 정의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각자에게 그의 행실에 따라 갚아 주실 것이다(1열왕 8,32; 예레 32,19; 시편 62,13; 잠언 24,12).

251. 유사한 개념이 인간 역사 전체와 그 중심 사건들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예 백성을 파라오의 병거들보다 우세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기원들의 해석뿐 아니라, 이른바 가나안 "정복"의 진행 사항을 명령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의 정복을 횡포라고 판단하지만, 성서 본문에서 볼 때 사건 전체는 정의의 행위로 표명된다. 사실 가나안인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로 여겨졌다(하느님의 판단에 따르면: 창세 15,16). 한편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그곳에 정착할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악인들을 타도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과제가 그들에게 맡겨졌다. 만약 정의롭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전체 사건이 전장에서 명백한 힘(군사력)의 불균형으로 항구하게 표시되었다(민수 13,31): "악인"은 장대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신명 1,28),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여호 11,4; 판관 1,19; 4,3), "의인"은 무방비 상태이거나 시원찮은 공격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쪽은 가장 약한 쪽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성서 이야기들은 이러한 교훈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 이야기들은 정복의 기적적이며 예기치 않은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군사 공격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주님의 궤를 가지고 성읍 주위를 돌며 행렬하였을 뿐인데(여호 6,12-16) 예리코의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린다(여호 6,20). 또한 기드온은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족과 전쟁

을 할 때(판관 7,12) 삼만 이천명의 군사를 삼백명으로 축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다(판관 7,3,8). 그리고 이 삼백명의 군사는 싸우지 않고 단지 나팔을 부는 동안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어 서로를 죽였다(판관 7,22).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진리의 표상이다(1사무 17,41-51).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성전"(聖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성전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신앙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종교적 이념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전쟁이 결코 아니다. 그와 달리 성전은 거룩하신 분이 유순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은 주님의 궤와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가들을 부르는 레위인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며 행렬을 하는 하나의 대열이 될 것이다(2역대 20,21). 또한 싸우는 사람들은 방어를 하지 않는 데도 상처를 입지 않는 놀라운 방식으로 승리할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적을 패배시킬 것이다. 그와 같은 모습은 구체적인 전쟁에서는 대단히 불완전하게만 실현된다. 그 대신 그런 모습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는(에페 6,10-17) 영적 싸움에서는 완전히 진실한 모습이다(루카 21,18-19).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은 확실히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위험한 원수와 직면하는 두려움을 이겨 내기 위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신명 1,29). 다른 한편, 그것은 전쟁을 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전쟁에 관한 법

252. 전쟁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 규범은 신명 20,1-20에 기록되어 있다. 입법자가 무엇보다 먼저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만남이 두려움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대자가 더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명 20,1). 그러므로 전쟁은 힘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신명 20,4).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신명 20,8).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부족은 다른 전투자들에게 용기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은 숫자만 남아 있고 앓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군인들의 숫자나 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 이제 막 집을 지은 사람, 또는 포도밭을 가꾸어 놓은 사람, 또는 이제 막 약혼한 사람은 징병에서 제외될 것이다(신명 20,507). 그것은 백성의 희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위험을 막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미래가 멀어서 싸워면서 정복한 전리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신명 20,14-15), 이스라엘의 땅에 이미 존재하는 선물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친을 제안하는 것이다(신명 20,10-11).

우리가 앞에서 다룬 문맥에서 볼 때, 공격자(포위하는)는 정당한 주장의 해석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잘못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에게 복종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는 방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게 한다. 여하튼 승리할 것을 확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평화가 제안된다는 것이 역설적이다. 싸우는 사람의 "일차적" 염원은 폭력 없이 화친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력 충돌은 치명적이다. 또한 많은 사람의 죽음(신명 20,13)은 노획물과 함께(신명 20,14) 진리와 정의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계의 비극적이며 불만족스러운 성격을 표현할 것이다. 실제로 전쟁은 대하살과 보복과 황폐를 가져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사람들이 적에 대한 존경과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pietas)의 규칙을 도입하면서 사건의 잔인성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성서에서 언급하는 사항들과 특히 그리스도교 정신은 이 점에 관하여 그 자체가 비인간적인 광경에서 지혜와 선의 누룩이 될 수 있다.

이 후자의 고려 사항은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봉헌물"(herem)로 전멸시키라는 신의 명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신명 7,2; 20,17-18). 그러한 조항은 고대 사법 체계에 비추어 비로소 설명될 뿐이다. 고대 사법 체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 집행인에게는 선고한 판결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신명 7,16; 13,9-11; 19,13.21; 25,12). 이 이야기들에서 다른 백성들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이들이 "정복"의 본문들에

서 끄집어 내는 참을성 없고 무자비한 하느님의 표상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독자는 정의를 실행할 필요성(예를 들어 마르 12,9)을 이해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방식은 보편법과 복음의 가르침에 맞는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생명 존중과 자비와 화해의 염원에서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루카 23,34 참조).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가나안인들에 대해 정의의 도구로 선택하신 동일한 (유다) 백성이 죄인들의 편에 있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이교인 나라들에 의해 이행된 하느님의 심판을 겪어야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이사 10,5-6; 47,6; 예레 50,23; 51,20-23). 모세가 이미 이를 예고하였고(신명 8,19-20; 32,21),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결정적으로 실현되었다(예레 1,15-16). 그러므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정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수모를 당하고 고통 받는(스바 3,12-13) 작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 때 겸손한 임금(즈카 9,9)이 세상에 보편적 평화의 왕국을 가져올 것이다(즈카 9,10).

현인들의 가르침

253. 우리가 성서 안에서 발견하는 지혜의 조언들의 매우 풍부한 유산은 한편으로 시민들 사이에 말다툼을 피하라는 경고를 통해서(잠언 3,29-30; 6,19; 30,32-33; 시라 28,8-12), 다른 한편으로 이웃에게 관대한 호의를 보이도록 초대하는 것으로(시라 22,23; 37,6) 사회 안에서 조화를 증진시키려 한다. 잠언의 첫 번째 구체적인 규율이 빈곤한 사람을 제때에 도와야 한다고 명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잠언 3,27-28).

이 구절들을 이웃들 사이에 합리적 예의를 가지라는 단순한 추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단락은 유복한 사람에게 연대의 중요한 의무를 피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다(잠언 22,9; 시라 4,1-10; 29,8-13; 토빗 4,7-11). 부자는 대체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기보다 약탈자다(잠언 21,26; 시라 13,3-9). 사실 시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이에나와 개가 무슨 평화를 이루겠느냐? 또 부자와 빈곤한 이가 어찌 평화롭게 지내겠느냐? 광야에 사는 들나귀가 사자의 먹이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의 희생물이 된다"(시라 13,18-19). 이와 관련하여 현인의 일은 결코 이차적이 아니다. 물론 그는 즉시 효과를 내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돈과 칼 대신에 말과 조연과 비유와 반어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지혜는 양심의 형성, 곧 본능을 억제하고 사람에게 인간다운 얼굴과 마음을 주는 그런 교육을 위하여 필수 요소다.

254. 현인은 자비와 형제적 친교를 장려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구체적 연대는 특히 역경이 관계를 약화시킬 때(시라 6,8-10; 12,8-9)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충실성으로 전개되며, 사람들 사이에 점진적 통합의 요인이 된다(시라 22,23). 그것은 우정의 값진 경험이 되고, 그 가치는 친척의 끈보다 더 강하다(잠언 18,24; 27,10). 우리는 개인 사이에 일어날 때 좋은 것을 이해하고, 그룹과 국가 사이에 일어날 때 좋은 것을 평가할 수 있다. 현인들의 금언이 이렇게 주장한다: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잠언 17,17).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시라 6,14-16).

성서 전통에는 요나탄과 다윗의 매우 아름다운 우정 외에 다른 우정의 이야기들이 없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뒤에 두 사람 사이에 매우 밀접한 결속이 만들어진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1사무 18,1). 동사 "사랑하다"에는 틀림없이 애정의 뉘앙스가 표현되지만, 그것은 - 왕위 계승의 정치적 맥락 안에서도 - 하나의 계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1사무 18,3). 그러면서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

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1사무 18,4). 임금의 아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경쟁을 제거하였음을 선언하였고 친구에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양보하였다. 요나탄의 신의는 사울의 환심을 살 때와 분노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친구를 방어하는 데에서 드러났다(1사무 19,1-7; 20,1-42). 또한 다윗은 장례식의 애도에서 우정의 특질을 인정하였으며 그 자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였다: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게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2사무 1,26).

시편 기도에서 형제애와 적대감

255.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의 조건을 하느님께 가져간다. 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대조적 측면들로 나타나며 서로 다른 기원 형태를 결정한다.

첫 번째 형태의 기도는 성공한 형제애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으로 표현되며, 모든 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가는 데에서 전례적으로 드러난다. 예루살렘은 믿는 이들이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평화가 내리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다(시편 122,6-9). 영적 기쁨의 감정이 시편 133에 훌륭하게 표현된다:

보라, 얼마나 좋고(tob)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머리 위의 좋은(tob) 기름 같아라.
 수염 위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리는,
 그의 옷깃 위에 흘러내리는 기름 같아라.
 시온의 산들 위에 흘러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아라.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한 생명이어라".

256. 두 번째 형태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형태의 기도
 도에 반대된다. 사실 인간은 형제의 조화의 달콤한 맛을 빈번하게
 보지 못하며, 더욱 자주 수많은 잔인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쓸쓸함을 느끼며 산다(시편 3,1-2; 7,2-3; 25,19; 69,5). 기도자
 는 버림받고(시편 69,9) 배신을 당하며(시편 41,10; 55,13-15), 자
 신의 동료들로부터 협박을 받는다(시편 35,7,11-12,15). 따라서 그
 는 하느님께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어서 빨리 오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청한다(시편 3,8; 104,35; 143,12). 이 유형의 기
 도는 시편집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며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과 당
 혹스러움을 자아낸다. 사실 탄원은 기도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해야 할 사랑의 감정에 반대되는 음조들로 되어 있다. 전례
 기도에서 적지 않은 구절들 또는 시편 전체가 제외될 만큼 이런 어
 려움은 대단히 크다.

반대 의견들은 때로 시편 시인에 의해 사용된 특히 조잡한 언
 어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발견한다. 사실 일반적인 또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사용될 때, 기도자는 반감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

약 믿는 이가 "하느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그의 발판으로 삼으실 것이며"(시편 110,1) "진노의 날에 임금들을 쳐부수시리이다"(시편 110,5)라고 - "주님의 신탁"처럼 - 영송한다면, 그는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하여 거만한 자들을 홀으시는 하느님의 행위가 실현되는 것을 기쁨으로 인식한다(시편 68,7; 145,9; 147,6; 루카 1,52). 그 대신 같은 시편에서 메시아가 "온통 주검들로 채우고 넓은 들 위에서 머리를 쳐부수시리이다"(시편 110,6)라고 말하는 것을 꼴사납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더욱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말로 앞에서 발설된 것이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구절을 생략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위협 받는 경험을 할 때, 아무도 시편 시인처럼 주저하지 않고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시편 70,3)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편 137,8-9의 "바빌론아, 너 파괴자야! 행복하여라,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되갚는 이! 행복하여라, 네 어린것들을 붙잡아 바위에다 떼어치는 이!"라는 문장을 발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이 사라지는 것을 보기를 염원하는 것을 구체적이며 심지어 야비하게 표현하는 성서 기도 문구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청원 기도들의 문학 유형은 죽도록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라야 발음할 수 있는 "탄원"이며(시편 10,7-11; 17,10-12; 22,17-19), 아무도 도와 주는 이 없이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청원 기도이다(시편 7,3;

22,12; 25,16).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비추어 그러한 기도를 받아들인다. 기도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해방과 승리와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강력하고 극적인 부르짖음이다(시편 22,2; 39,13; 40,2). 기도는 적대자가 격분하여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절박하게 청한다. 청원의 의미는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원함과 보복의 감정을 표현할 때(이른바 "저주 시편들"에서처럼: 시편 83; 109 참조) 기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우리에게 본보기적 기도 본문("영감을 받은" 본문으로서)으로 선사될 때 더욱 적절하게 해석하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257. (1) 탄원 기도를 바치는 이는 고통 받는 사람이다. 비탄의 시편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는 험박으로 공포에 떠는 사람이며 고통에 지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나(시편 22,17-18; 69,5), 빠르고 결정적인 해결을 청원하는 데 있어서나 과장되고 분개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거칠고 가혹한 언어로 악의 엄중함이 표현되어 무고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다. 기도중에 시편 시인의 말을 되풀이 하는 사람은 그런 절망적 조건을 개인적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는 박해 받는 형제들의 이름으로 그의 애가를 올릴 수 있으며(시편 94,5-6), 무서운 벌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탄원하는 듯한 목소리일 수 있다. 박해 받는 사람과 동일시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묵시록의 순교자들의 외침이 터져나오게 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묵시 6,10).

(2) **기도자는 청한다: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모든 시편은 기도다. 그것은 원수들에게 토해내는 절박한 보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원이다. 기도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하느님께 맡긴다. 희생자는 개인적 복수를 포기하지만(로마 12,19; 히브 10,30), 역사 안에서 법이 확증되기를 염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이 선을 행하며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며 세상의 재판관이신 주님께 말씀드린다. 그리하여 악이 영원히 무화되고(시편 3,7; 137,9), 무죄한 이들은 하느님의 승리가기도 한 그들의 승리를 볼 수 있다. 모든 탄원은 주님께 행동 방식을 알려 주려는 것 같을 때,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잘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용어로라도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해방과 생명의 염원을 표현한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루카 18,7-8).

(3) **누가 기도자의 "원수들"인가?** 시편들은 하느님과 메시아를 거슬러 일어나는 민족들에 대해 말하면서 아말렉과 아시리아 같은 거의 사라진 유사점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을 생각해 내

고(시편 83,6-9), 에돔과 바빌론을 거슬러 심한 말을 표현한다(시편 137,7-9). 그런데 이 이름들과 이 추정된 역사적 민족들이 단지 기도자의 동시대의 원수의 "모습들"임을 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사도 4,23-30 참조). 여하튼 시편들이 말하는 적대자들은 대체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종족의 정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강압적이고 사악하며 불경스러운 말을 사용하고 잔인한 것으로 제시될 뿐이다. 그렇다면 기도자의 원수들은 누구인가? 예언 정신을 발휘하여, 개인 또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역사에서 적대적이며 위험하고 불의하고 비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특정한 환경에서 이 원수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해를 끼치는 것을 영원히 멈추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원수를 식별하려면 영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진정한 원수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마태 10,28)이나 또는 사람들의 존엄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자의 영적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이며, 불의를 저지르도록 충동하는 사람, 유인하여 악에 빠뜨리는 사람이다. 으스스한 곳에서 속임수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추어진 힘들이다(시편 10,8-9; 59,4). 그것들은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자들처럼 으스스한 곳에 도사리고 있다(시편 17,12; 1베드 5,8). 그것들은 치명적 독을 가진 뱀과 같다(시편 58,5; 140,4). 빛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세력이며(2코린 11,14), 그 세력에 대해서는 근본적 반대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시편 26,5; 139,21-22). 그러므로 바오로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쓴 내용을 기억하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

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에페 6,12). 사탄은 "적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칭이다. 영원히 멸망 하도록 하느님께 시급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원수가 사탄이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258. 버림받은 이들에게 연민으로 가득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 내는 분으로 계시되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윗에 대한 사랑, 특히 가난한 이들과 헨디캡을 가진 이들에게 배 려를 만들어 냈어야 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 고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군주, 판관, 사제, 부자의 무서운 현 실이 있다(예레 5,28; 즈카 7,9-11). 모두가 부패했고(예레 5,1-9),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며(이사 1,23; 10,2; 예제 22,7,25; 말 라 3,5),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예제 22,29; 아모 2,7; 4,1; 5,11; 8,4,6), 이웃의 재산을 횡령한다(이사 5,8; 아모 2,8; 미카 2,1-2). 왜냐하면 그들은 부당한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예레 6,13; 8,10; 22,17; 예제 22,27; 33,31; 하바 2,9).

역사는 형제애의 표현이 아니라 증오의 표현이다: "나라의 구석 구석이 폭행의 소굴로 가득 찼습니다"(시편 74,20). 그래서 예언자 들은 비난하고 경고하고 위협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인다. 왜냐 하면 범죄 행위들은 하느님 백성의 실재와 일치에 대한 백성의 소 명과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변질시키 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일깨워진(예레 7,25; 25,4; 29,19) 그분의 사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호소하면서 회개를 촉구

한다. 회개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이사 1,16-17). 불행하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이사 6,9-10), 오히려 반대하였다(예레 1,19; 11,19; 에제 2,6; 아모 7,12-13).

예언자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징벌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벌은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파괴할 뿐 아니라(예레 15,13; 17,3; 20,5; 호세 13,15; 아모 3,11),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정의를 솟아나게 한다. 그는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며(이사 9,6; 32,1; 예레 23,5; 33,15-16), 보편적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이사 32,15-18; 57,14-19; 66,12; 예레 33,6.9; 즈카 9,9-10):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이사 2,4).

교부들은 이 메시아의 기대와 희망을 살았다. 오늘날 겸손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자렛 예수님과 그분의 정신을 사는 사람들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본다.

예수와 그의 "형제들"

259. 한 가족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 놓인다. 어떤 이들은 그의 친척들이며(마태 13,55; 마르 6,3; 요한 7,3.5.10; 사도 1,14 등) 또 어떤 이들은 전통과 법과 종교적 믿음을 그분과 공유하는 사람들의 확대된 범위에 속한다(마태 5,22-24.47; 7,3-5; 23,8 등). 형제들 사이의 형제(히브 2,11-12.17)인 그분은 이런 유형의 소속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라자로와 그의 두 자매에 대한 애정(요한 11,1-3.11.36), 또는 예루살렘의 재해를 생각하며 우는 그분의 울음(루카 19,41)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상의 유대 관계를 상대화고, 더 중요한 가치의 기준 밑에 놓으며 더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열어 준다.

피의 유대는 주님에게 형제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본 요소가 아니다. 그와 달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당신을 찾으러 온 친척들에게 그분이 알려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 제자들을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보여 준다(마태 12,46-50; 마르 3,31-35; 루카 8,19-21). 부활하시어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러한 실재를 확인하고 칭송할 것이다(마태 28,10; 요한 20,17). 사실 하느님 나라의 선택은 가족과의 연대 의무와 비교하여 주님을 사랑으로 선호하는 데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마태 10,21; 루카 14,26).

우리는 그와 같은 전망이 이미 고대의 계약 안에 어느 정도 들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스승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 특히 그분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위한 사랑을 규정하는 둘째 계명을 전통에서 받는다. 그분의 공헌은 두 계명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며(마태 22,37-39; 마르 12,29-31; 루카 10,26-28), 두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마태 22,40; 또한 마태 7,12; 로마 13,9; 갈라 5,14; 야고). 두 계명을 밀접하게 하나로 합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비슷한 계명"(마태 22,39)으로 선언된 둘째 계명이 신성성을 갖게 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특징과 동일한 잠재력과 충만함으로 표명되게 한다.

260. 말과 모범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인 이 핵심을 발전시킬 것이다. 특히 그분은 "형제"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의 실천을 주장할 것이며, "옛" 계명을 "새" 계명이 되게 할 것이다(요한 13,34; 2요한 1,5). 예수님에 따르면, 사랑은 이웃을 결코 멸시와 모욕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한다(마태 5,22). 사랑은 이웃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마태 7,1-2; 루카 6,37). 사랑은 일체의 보복 행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마태 5,39-41),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첫째"가 되려는 야망을 갖지 않는다(마태 20,25-27; 마르 10,42-45; 루카 14,7-11; 22,24-27).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한 규정 준수는 **선사하는** 구체적 몸짓에서 실현된다. 제자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쳐 주듯이(루카 10,30-37) - 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이다. 그는 같은 종교의 벽을 뛰어넘으며, 세상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관대하게 무상으로 베푸는 사람이다

(루카 12,33-34; 14,12-14). 사실 스승이시며 주님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요한 13,10-5) 사랑은 형제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랑일 때, 비로소 참되다. 것처럼 주님은 본보기를 보여 주심으로써 당신이 행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패러다임이 되게 하셨다(요한 13,12-15; 또한 마태 20,25-28; 마르 10,42-45; 루카 22,25-27 참조). 물질적 재화를 아끼지 않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선물의 표징이다(요한 15,12-15; 참조: 1요한 3,16).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리스도교 계명은 명백히 보편적 차원과 완전한 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주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성을 굽어보시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모든 종류의 병을 치유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 또한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그와 똑같이 하라고 그들을 파견하셨다(마태 10,8; 루카 9,1; 10,9). 그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까지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마태 19,21; 마르 10,21,28-30; 참조: 히브 13,16; 1요한 3,17-18). 굶주린 이들, 이방인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사람은 누구든지(마태 25,31-46),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누구든지(마태 10,42), 그는 - 다른 어떤 자격을 보지 않고도 -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며, 이웃 사랑의 진정한 해석자가 된다. 그렇게 너그럽게 환대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느님은 계약의 역사 초기에 휴식을 필요로 하는 세 명의 여

행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창세 18,1-2). 그리고 손님 접대를 하다가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는 사람이 되었다(히브 13,2). 마지막 때의 계시에서 역사의 주님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빈곤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모든 이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장 적대적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사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형제를 영구적으로 용서하고(마태 18,21-22; 루카 17,3-4) 예배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할 것(마태 5,23-24)을 요구한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자비를 주실 수 있다(마태 6,14-15; 18,23-35). 그분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호의를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주의 "완전한" 관대함을 모방하여(마태 5,43-48) 원수에게도 잘해 주라고 초대하신다. 실행하기가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이 선사하신 사랑의 성령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로마 5,5; 갈라 5,22).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적 공동체

261.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이상화된 그림을 제공한다. 초기 교회는 성령강림의 사랑의 성령의 강력한 선물에서 태어난다. 종족과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사도 2,6-11)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

고 회개하였고(사도 2,37-41),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으며(사도 2,42),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마음 한뜻이 되었다"(사도 4,32). 그들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친교의 표시(마태 18,19-20 참조)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데에서 그들의 일치가 표현되었다(사도 2,42,46-47).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사도 2,44-45; 4,32).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사도 4,34-35). 토라가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예상하였던 가난의 종식(신명 15,4-6)이 성령에 힘입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기적적으로 실현된다. 이제 모든 백성의 기원이 되는 성읍이며(시편 87,4-6) 모든 민족들에게 매력과 평화의 축인(이사 2,2-5; 56,6-8; 즈카 8,20; 14,16) 예루살렘의 표징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진실이 된다. 그와 같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심원한 신비를 묘사한다. 그 신비는 복음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형제적 사랑의 수많은 창의적 형태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262. 바오로는 그의 서간들에서 그의 공동체들의 구체적 단면을 볼 수 있게 한다. 종종 천하고 광포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긴장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들에서는 그와 같이 강력한 선의 발효가 이루어지고 있다(로마 15,14; 1코린 1,4-7; 2코린 8,7; 필리 1,3-11 등).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하는 사람들의

좋은 뜻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건의 결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물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에페 2,14-18).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민족들이 유일한 구세주를 인정하는 것이 바오로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둘이 하나의 몸이 되는 일치가 "새 인간"(에페 2,15)을 형성한다. 그것은 새 창조로서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콜로 3,10-11; 참조: 갈라 3,28).

이 심원한 일치의 주된 표징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에서 주어진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빵을 먹고 그분의 잔을 마시면서"(1코린 11,27; 참조: 요한 6,53-58) 경축하는 것은 그들의 친교의 성사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다(1코린 11,18).

그러므로 바오로는 항구하면서도 집요하게 형제적 친교의 유대 관계를 튼튼히 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의견의 차이와 단절을 제거하라고 권면한다. 사실 공동체들의 다양한 지도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당파나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아무도 "나는 바오

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지지 않으셨으며 그분만이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1코린 1,12-15). 그러므로 사도는 강하게 권고한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 또한 로마 15,5-6도 참조).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순수한 이념적 일치가 아니라, 사랑의 구체적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주 예수님의 모범에 따르면 "봉사"의 태도를 갖고(갈라 5,13-15; 필리 2,1-8), 서로 남의 짐을 져 주고(갈라 6,2),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뿌린다(에페 4,1-3; 콜로 3,12-15).

263.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의미심장하게 설명해 주는 혁신적 표상은 "몸"의 표상이다. 바오로는 이 표상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상징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개다. (1) 첫째 요소는 지체들 사이에 필요한 **결속**의 요소다. 그것은 각자 동일한 "신적"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1코린 6,15; 12,27):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에페 4,4-6).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다르기는 하지만 한 몸의 일부이며 그 몸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효

용으로 특수한 기능을 행사한다(1코린 12,14-26).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1코린 12,26).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유기적 조직체에 충만함을 주기 위하여(에페 1,23),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의 중요성이 나온다(1코린 9,19-23).

(2) 몸의 표상에서 강조해야 할 둘째 요소는 바오로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유기적 조직체의 활력을 위해 불가피한 지체의 **다양성**의 표상이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로마 12,4-5). 그러나 바오로는 외부에서 보면 불화의 원천으로 보일 수 있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우위성을 몸 전체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은사적 선물로 해석한다(1코린 12,4-11):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charis)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charismat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propheteia)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diakonia)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didaskalia)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paraklesis)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로마 12,6-8; 또한 1코린 12,27-30; 에페 4,7,12-16 참조).

264. 신명기 법전에서 임금의 법은 군주에게 기고만장하지 말며 자기 신하들의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권하였다(신명 17,20). 그러

나 새 계약의 공동체에서 형제애는 다른 사람들의 봉사자가 되는 것으로 실천한다(1코린 12,22-25). 그리고 이는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전체 몸의 건설을 위해 하느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부분에 따라 유기적 조직체의 성장에 협력한다(에페 4,13,15-16; 콜로 2,19; 또한 1베드 4,10-11 참조). 교회의 몸에 생기를 주고 결속을 주는 것은 **사랑(agape)**, 완전한 은사, 유일한 영원한 덕행이다(1코린 13,8). 바오로는 이것을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욱 영원해야 할(1코린 12,31; 14,1; 콜로 3,14-15) 최상의 선으로 지적한다. 바오로는 이것을 그의 특질과 표현에서 훌륭하게 묘사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4-7).

바오로는 또 다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

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9-21).

다른 사도들의 서간들에서도 비록 은유와 강조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연대와 형제적 사랑을 만장일치로 주장한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간에서 예수님과 바오로의 설교를 반향한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homophrones) 서로 동정하고(sympatheis) 형제처럼 사랑하고(philadelphoi)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1베드 3,8-9).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하느님에 대한 사랑(첫째 계명)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요한 4,20-21; 또한 1요한 2,3-11; 3,10-11,16-18,23-24; 4,11-12; 5,1-2 참조).

결론

265.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다룬 이 장 전체의 줄거리는 **사랑**이다. 사랑은 혼인의 일치와 귀중한 형태로 표현되거나, 자손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사랑은 형제 관계를 자극하는 결속과 봉사와 용서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적 존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성경은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영적 차원이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평등("균등")이 가정되는 곳에서도 -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물론, 시민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의 회원들 사이의 관계에서처럼 - 성서는 시기, 경쟁, 횡포의 원인일 수 있는 차이(또는 "동일하지 않음")의 성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사랑은 다툼과 횡포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는 데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특질과 우월성을 결속의 요소로 바꾸고, 자신의 선물이 항구하게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신자들의 신뢰하는 희망은 사랑이 양심을 침투해 들어가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역사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토라와 복음에서 사랑은 **명령되었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순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자유로운 결정을 요구하는 의무다. 사랑은 또한 하느님과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

뢰와 하나가 되는 노력과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는 의무다. 사랑은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헌신하는 덕행이다. 그러나 사랑이 명령된 것만은 아니다. 사랑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 **선사되었다**. 사랑은 단순히 포부와 꿈이 아니다. 사랑은 역사 안에서 참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의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통교되며, 공동체에 사랑의 능력을 놀랍고 역동적이며 매력적이게 한다.

제4장

역사 안에서 인간 존재

266.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시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유일한 "역사성"의 첫째 표징이다. 인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자체와 구분되는 차원을 가지고 있다(이사 41,4; 44,6; 시편 90,2; 93,2; 시라 42,21; 묵시 1,8; 21,6; 22,13). 창세 1장의 본문에 따르면, 'adam은 자기보다 먼저 창조되어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다. 인간은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지만, 역사 안에서 첫째 역할을 가지고 있음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첫 번째 창조(계속 이어지는 저녁과 아침의 칠 일 동안) 이야기, 즉 "먼저" 그리고 "다음에"의 형태로 실재가 만들어지도록 명령하는 시간적 추이는 숨을 쉬는 리듬과 심장의 박동에서 개인에 의해 인지될 것이며, 태양과 달의 주기에 의해 모든 이를 위하여 통제될 것이다(창세 1,17-18). 세상에서 인간만이 지각하고 있는 날과 해가 흘러가는 것은 자연과 역사 안에서 그의 책임의 일부이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으며 그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원의 표징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바람의 길을 네가 알 수 없고 임신부의 배 속에 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듯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너는 알 수 없다"(코헬 11,5). 우리 기원의 어떤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또는 태어날 때 그 옆에 있었던 증인(특히 부모)에 의해 이야기될 수 있다. 세상의 기원의 의미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대변인에 의해서만 계시될 수 있다. 이 거룩한 본문들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 관한 은밀한 진리를 알려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67. 불안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은 역사의 주인 공이다. 사실 그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하느님의 증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생명을 향해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adam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자기 자신 안에 잠재적 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적 존재의 본질적 특질인 **자유**로 평가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듯이, 그리고 또 생명의 길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듯이, 항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한 능력은 인간의 본질적 구성 성분이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추상

적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언어 방식들로 명백하게 암시되었다. 곧이어 보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인간 존재에게 속하는 책임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시들을 독자에게 제공해 준다. 칠십인역 그리스어 성서에서 명사 *eleutheria*가 산발적으로 사용되지만(노예 해방과 관련하여 레위 19,20; 시라 7,21 참조), 당시 그리스 문학의 영향에 의해서도 자유를 가리키는 용어들 - 외부의 강제 없이 선택의 자율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 은 신약성서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요한 8,32; 1코린 10,19; 2코린 3,17; 갈라 2,4; 5,1,13 등).

성서 이야기는 처음부터 창조주가 사람에게 말하고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유의 측면을 표현한다. 창세 1장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명령형으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존재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시편 33,9; 148,5). 그러나 다양한 존재들이 나타나고 행동하는 것은, 때로는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제시되기는 하지만(1열왕 17,4; 욥 28,26; 38,10-11; 바룩 3,35), 자유로운 동의의 결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순수한 권위로 부과하는 하느님의 뜻의 결과다(시편 115,3; 135,6-7). 단지 인간은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들을 뿐이며, 그에게 주어진 자율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집짐승들은 특정한 경우들에는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그들에게 "인간의" 재능과 감정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인간 존재와 닮은 점은 그 차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성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 존재가 하느님의 계명의 수취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동의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은 인간 존재가 그의 자유를 표현하는 근본 방식이다. 자유의 행위를 구현하는 계명의 주된 동기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에서 주어진 중요성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는 "율법 아래 인간"이라는 제목의 이 장의 첫 부분의 주제가 될 것이다.

268. 선택의 자유는 역사 안에서 정확히 일어나며, 미래를 위한 결과들을 내는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삶의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결정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확고부동한 결정은 하느님의 계명에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결정이다. 사실 성서는 불가사의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 또한 하느님의 비상한 행위 때문에(이사 45,15; 예제 18,25; 호세 14,10; 시편 92,6-7; 욥 28,12-13; 코헬 3,11; 시라 11,4; 지혜 17,1) – 인간의 일이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을 해석의 열쇠로 가진 것으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해석학적 원칙은 기본적으로 성서의 역사 기술 전체를 제어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성경은 인간 존재가 드물게 순종하며 거의 항상 반역하고 자신의 자유를 하느님에 대한 불찬성과 반대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증언한다. 달리 말해 성서는 "본래의" 불순종, 인간 역사의 출발점으로서의 애초에 있었던 위반에 대해 말한다. 그와 같은 종류의 전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이 장의 둘

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순종과 위반").

창조는 인간 존재 안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에게 땅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 잘못된 행사 때문에, 달리 말해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한 때문에 세상은 파괴의 위협을 겪는다(창세 6,5-7). 역사의 주요 주인공이신 생명의 아버지의 섭리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창조주는 당신의 피조물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하여 창조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성경이 되풀이하듯이 그분은 우주, 특히 인간의 운명을 당신 손안에 쥐고 계신다(시편 95,4). 그러므로 그분은 신비스럽지만 효과적으로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되도록,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가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역사 안에 하느님의 개입")에서 설명할 것이다.

성서의 기원 이야기들에 뿌리를 내린 주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장에서 모든 부분의 서두에 창세 2-3장과 관련된 구절들을 주석적 설명을 곁들여 제시할 것이다. 그러한 설명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다양한 문학 총체들에 의해 제공된 발전을 개관할 것이다.

1. 율법 아래 인간

269. 창세 1-2장의 이야기들에서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들의 묘사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창세 1장에서 주석학자들

은 하느님이 열 가지 말씀을 발설하시며(일종의 본래의 십계명), 거의 모든 말씀들(창세 1,26의 독배과 창세 1,29의 음식 제공을 제외하고)은 언어적으로 원의법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말씀들은 빛(창세 1,3), 궁창(창세 1,6), 물(창세 1,9), 땅(창세 1,11.24), 빛물체들(창세 1,14), 동물들(창세 1,22), 그리고 끝으로 사람(1,28)에게 하는 명령들이다. 우리는 이 첫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명령이 당신의 행위 자체에서 창조주의 뜻을 알려 주려고 한다(창세 1,26에서 인간의 창조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고 말할 수 있다. 시편 33,9의 간결한 구절에서 문체상 비슷한 본문이 되풀이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이네"(또한 이사 48,13; 시편 148,5 참조).

그러므로 창세 1장의 "명령형" 문구들에서 정확히 "계명들"이 설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에게 한 말(창세 1,28: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에서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은 "축복"이지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동일한 용어가 물고기와 새들에게 적용된 창세 1,22의 평행문에서 확인된다. 달리 말해, 인간의 번성과 땅 위에서 동물들에 대한 "지배"는 - 혹자가 해석하듯이 - 실행해야 할 첫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본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여하튼 우리는 주님의 모든 선물에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에 따라 받아들이라는 호소가 기

록되어 있다고 덧붙일 수 있다. 또한 인간만이 하느님의 이러한 호소를 의식적이고 이지적이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

270. 창세 2장의 전망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 존재에게 주는 주님의 행위와 말씀의 명령의 차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명령을 제안하는 간접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창세 1장의 서식과 유사한). 그 방식에서는 창조주가 원하신 **목적**이 하느님의 선물에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이 'adam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라는 과제를 주셨다고 말하는 창세 2,15에 표현되어 있다.

하느님의 뜻에서 유래하는 의무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은 성경의 다른 단락들에서 다시 발견된다. 사실 기원 이야기들은 계명을 위한 서언과 같다. 그래서 창세 1장에서 옛세 동안의 세상 창조와 이렛날 창조주의 휴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평일에는 옛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탈출 20,8-11의 규정들의 근거를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집트에서의 해방 이야기(탈출 1-15장)는 신명 5,6-21의 십계명의 신학적 서언이 된다. 우상 숭배가 노예살이로 다시 전락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신명 5,9), 안식일 규정에 자유의 기념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전형적 예는 이사 5,1-4에 나오는 예이다. 예언자는 여기에서 농경의 비유 형태

로 하느님의 행위는 명백히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결실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마태 21,33-141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다).

또한 창세 2장에는 명백히 인간에게 주는 명령 방식이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창세 2,16-17

16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271. **명령.** 성서 본문에서 계명을 가리키는 용어가 처음으로 동사 sawah(항상 강어의 형태로 사용된다)로 나타나며 하느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창세 3,11,17에 다시 나온다. 동사는 십계명에서 이용되며(신명 5,12,15-16), 법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탈출 23,15; 레위 24,23 등). 명사 miswah는 (하느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들 가운데 하나다(탈출 15,26; 16,28; 20,6; 레위 4,2,13,22,27; 신명 6,1; 7,9 등).

"계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는 특히 풍부하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된다. 물론 다양한 동사들과 명사들의 뉘앙스를 정확히 한정하려는 주석학자들도 있기는 하다.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로 torah(가르침, 규정), hoq(칙령),

mispat(결정, 심판), 'edah 또는 'edut(증언) 외에 일반적 용어이면서도 중요한 용어이며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열 가지 말씀"(탈출 34,28; 신명 4,13; 10,4)을 위해 사용된 dabar(말씀)를 지적할 수 있다.

명령은 명백히 명령형 동사 형태가 사용되어 긍정적 지시 방식("기억하여라", "지켜라", "행하여라", "공경하여라")으로는 물론, 무엇보다도 부정적 금지 방식("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느님의) 상을 만들지 마라")으로 표현된다. 때로는 두 형태가 안식일의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규정에서 하나로 결합되기도 한다: "옛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탈출 20,9-10).

272. 창세 2,16-17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은 형식적으로 볼 때 두 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사실 하느님의 원의를 표현하는 규제 명령(창세 2,16-17ㄱ)에 "동기"(왜냐하면...": 창세 2,17ㄴ)가 덧붙여진다. 그리고 명령은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금지("먹으면 안 된다")가 있기 전에 장엄한 긍정적 초대('akol to'kel: "먹을 수 있다/먹어야 할 것이다")가 먼저 나오는데, 이 긍정적 초대는 다른 곳에서는 규범적 성격의 진술을 위해서도 사용된 언어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탈출 21,28; 신명 6,17; 7,17; 1열왕 3,26; 잠언 27,23 참조). 따라서 음식에 관한 한 인간은 금지된 것을 멀리하는 데 있어서나 하느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데 있어서나 대체로 순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창세 2,17ㄴ에서 계명의 동기는 사형을 선고하는 평결 문구를 이용하면서(mot tamut: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위

반의 비극적 결과를 부각시킨다. 죽음의 위협은 억제력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순종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 "죽다"의 결과는 위반이 당신의 숨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준 하느님의 일(창세 2,7)에 직접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법전들의 법 문구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동기"가 나타난다. 어떤 것들은 규정의 정당화를 제공하면서 구원 역사의 중요한 어떤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밝힌다. 예컨대 주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을 때(신명 10,19)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불순종의 부정적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더욱 자주 볼 수 있다(창세 2,17^나에서처럼). 전형적인 예는 주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말라는 금지에서 볼 수 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탈출 20,7; 신명 5,11). 긍정적 명령들에서 입법자는 순종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생명과 행복의 전망을 주로 솟어나게 한다(탈출 20,12; 신명 5,16; 30,19-20).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는 명령에는 어떤 해명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해명이 표현되면, 해명은 여하튼 규정의 합리성을 드러내려는 뜻의 논증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령하다"의 그러한 방식은 명령을 주는 분에 대한 큰 신뢰를 요구한다.

273. 명령은 본질적으로 "이질적" 원의의 표현으로, 다른 종류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특정 능력을 요구하거나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다. 또한 요청이 즉각적인 공

정적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 살아남도록(에제 16,6), 동산을 소유하러 가도록(창세 12,1; 신명 1,21),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이사 55,1) 초대하는 것으로 제시될 때에도 - 그러한 명령형이 밖에서 온다는 단순한 사실은 인간에게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명령은 한편으로 성가신 간섭으로 인지되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사람을 위한 기회가 된다. 곧, 그것은 명령의 가치를 식별하는 데에서 지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고, 특히 입법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하느님에게 명령은 하나의 "선물"이지만(신명 5,22; 9,20; 10,4; 느헤 9,14), 인간에게는 대체로 "시험"의 측면을 갖고 있다(창세 22,1; 탈출 15,25; 16,4). 구체적으로 말해, 개인이 지시된 것의 "선성"을 곧바로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지시된 것의 좋은 점을 충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히브 11,17-19).

274. 금지. 창세 2,16-17의 명령은 음식에서 정점에 이른다. 생명체들을 위한 음식의 중요성은 이 문헌의 제2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먹는 것의 선성은 여기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는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특별히 칭송된다. 창조주께서 온갖 과일 나무들을 심으시면서 하셨던 것(창세 1,11-12; 2,8-9)이 이제 매우 충분하고 관대한 선물의 가치를 분명히 발견한다. 그러나 선물의 총계에 제한이 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나무 옆에 있으며 생명의 나무와 잘 구별되는 한 그루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신다(창세 2,9). 금지는 항상 모든 것을 가지

려는 욕망을 억제하는 제한이다. 사람이 타고난 충만함의 충동으로 느끼는 저 탐욕(한때 욕정이라 불렀던)을 억제하는 제한이다. 그와 같은 탐욕에 동의하는 것은 이상적으로 본다면 선물한 분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제거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인간의 종말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지만 펼치려는 생각에 일종의 장벽을 세우는 명령을 존중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창조주를 인식한다. 창조주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현존은 특별히 금지된 나무에 의해 표시되었다. 질투 때문에 금지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람을 전능의 어리석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금지되었다.

275. 선과 악을 아는 지식. 'adam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 자체가 인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과를 금지된 과일이라고 말하는 민중의 해석 양식은 그 규정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그 상징적 언어(나무, 열매, 떡다)와 의미 있는 표현(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거룩한 저자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 안에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근본 개념을 도입한다. 무엇이 인간에게 금지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이 특정한 나무가 그에게 금기인가? 그렇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윤리적, 종교적 가치들의 기원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것은 율법의 원칙이며 선의 조절 장치이신 하느님의 실재의 표지이다. 마치 약탈 행위처럼, 나무에서 자동적으로 그 열매를 따는 것은 하느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창세 3,22). 달리 말해, 그것은 자기 결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원천이신 분, 곧 당신 자녀들

에게 통교해 주시기 위하여 소유하고 계신 하느님만 그 지식을 선사하실 수 있다. 창조된 인간은 순종을 통해 지식을 받으며, 그 지식 덕분에 인간은 하느님이 선사하시고 하느님의 선물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입증한다.

역사. 곧 보게 되겠지만,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역사의 운곽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으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역사에서 하느님의 명령

276. 오경은 성서에서 하느님의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이다.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들과 신약성서의 문학은 토라를 한결같이 창시와 규범이 되는 본문으로 언급한다(말라 3,22; 시편 1,2; 시라 2,16; 마태 5,17-19).

계약과 율법

창세 2장에서처럼 이어지는 광범위한 이야기에서도 계약은 선물에 이어지는 것이며 선물에 접합되어 있다. 사실 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래 행위와 똑같은 행위이며 거기에서 권한과 의무가 나온다. 성서 문학에서 그러한 관계는 "**계약**"(berit)이라 명명된다. 계약은 고대 근동 전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집단들과 민족들 사이의 관계들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 법률 제도이다. 그러한 제도는 본질적으로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1) 두 계약 당사자 중 한 편의 호의적 발의로

서 우월한 권위를 갖고 복종하는 편에 베푸는 호의. (2) 법적 장치를 통한 친근한 관계의 규제. (3) 충성 또는 배신에서 나오는 긍정적(축복) 또는 부정적(저주) 결과들. 우리는 "조약"의 개념이 성서의 설화 장치와 법률 장치의 기초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다양한 계약들 - 창세 9,8-17의 노아의 계약, 창세 15장과 17장의 아브라함과의 계약, 탈출 19-20장과 24장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또는 1사무 7장의 다윗과의 계약(시편 89,4 참조)처럼 - 에서 특정한 낱앙스를 만나기는 하지만, 모든 계약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다른 동기 없이 오로지 주님의 사랑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하느님의 무상의 참여(신명 4,37; 7,7-10; 시편 89,2-5)다. 또 다른 특징은 사랑에 충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의 유대를 "보존하도록" 부름 받은 양측에 대한 구속력 있는 책임이다(신명 7,9,12; 시편 89,29; 느헤 9,32와 또한 창세 17,9-10; 탈출 19,5 참조). 불충실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레위 26,4-33; 신명 8,19-20; 11,16-17; 28,15-68; 29,18-27).

조약은 시간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체결되지만, 그 진실성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성서 이야기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의 역사를 재생할 것이다. 그 역사는 그러한 관계를 통제하는 의무들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조건지워진 역사다. 하느님의 축복과 저주가 합의된 계약의 영속하는 유효성에 대한 증언으로 되풀이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야기와 율법

277. 토라(세상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하느님의 독창적 행위를 증명한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제안된 법의 토대 자체를 소개하며 필요성의 의미를 제안한다. 선물에서부터 책임이 나온다. 계명은 인간에게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do ut des*) 하느님께 바쳐야 할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의해 실행된 사랑의 순수성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신명 32,6). 이와 달리 아들에게는 선물에 대한 충실성이 요구된다. 충실성은 선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은 인정 받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준수이다.

율법의 선물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군주가 신하들에게 부과한 성가신 과제로 제시되지 않는다(1사무 8,11-17 참조). 그와 반대로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생명과 행복의 길로 제시하신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신명 5,32-33; 6,1-3,17-19; 11,8-9 등).

규정들은 실행 가능하거나 쉽다는 사실을 아무리 명백하게 주장하더라도(신명 30,11-14 참조), 그 요구들을 잘 알고 있는 입법자는 순종을 독려하기 위하여 계명을 생명과 행복의 약속과 함께 내놓는다(레위 26,3-13; 신명 4,1,40; 28,1-14; 32,47). 또한 이 밖에도 위반의 유혹을 쫓아버리기 위하여 저주의 무서운 위협을 덧붙인다(레위 26,14-38; 신명 28,15-68). 그러므로 율법을 전해 주는 하느님의 행위는 인류의 교육으로, 보편적 행복의 원칙인 율

바른 문명을 만드는 가르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율법의 형태

278.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선을 실행하는 구체적 형태를 표현한다. 여하튼 더욱 중요한 규정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근본적 측면들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른 지시들은 더욱 제한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차적 환경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은 범주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전례 규칙처럼). 주석학자들은 십계명에서처럼 아무런 동기 없이 절대적 금지로 표현된(그들의 내재적 명료성 때문에) 이른바 "필연법"(leggi apodittiche), 곧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달리 다른 규정들은 "결의법"(legge casistica)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해 이 규정들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소의 경우처럼(탈출 21,28-32), 환경과 연루된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지침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규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아니라, 계명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지시 사항들이다(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죽이지 마라"는 지시 사항).

이와 달리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종교적, 윤리적 성격의 법들과 상징적 성격의 지시들을 구분하는 것인 듯하다. 종교적, 윤리적 법들은 영구한 보편적 유효성을 가지며 시대에 따라 수정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하나님의 흠숭, 생명의 존중, 다른 사람의 재산과 진리에 대한 존중은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한 백성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도 한 다른 규정들은 이와 달리 특정한 가치들을 표현하기 위한 우연한 양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규범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 기회와 효과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다. 할례, 안식일법, 정결법, 정결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칭송할 만한 측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적용할 때에는 변이를 꾀을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상징적 조치들이 주님께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더욱 적절하다면, 심지어 폐지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실천하라고 하실 때(창세 17,9-14), 또는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창세 22,1-2)처럼 하느님이 때로 하나의 계명에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본다. 그러나 성서 전통은 계약의 요구 전체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수집물들을 통하여 유기적 형태로 주님의 지시들을 신자들에게 전달한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군주들 사이에서 있었던 조약들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예컨대 우리는 "**십계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십계명(탈출 20,1-17; 신명 5,6-22)은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서 발설하시고 써 주신 것이다(신명 4,13; 5,22).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종합하고 있다는 데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행위들뿐 아니라, 선에 반대되는 말과 생각까지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의 십계명 또는 열두 계명(탈출 34,12-26; 레위 20,9-21)은 종교 생활 또는 윤리 생활의 특수한 분야에 관한 규정들을 수집하고 있다.

토라의 세 개의 주요 **법전**들에 포함된 법 수집물들에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장치가 있다. 이른바 "계약 법전"(탈출 20,22-23,33)은 예배와 도덕과 시민에 관한 여러 측면들을 다루는 가장 고대의 규정 수집물인 것 같다. 훨씬 더 길고 잘 다듬어진 것이 "신명기 법전"(신명 12-26)이다. 이 법전은 광범위한 법률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 신명기의 교육적 접근과 일치하여 - 더욱 확실한 순종을 끌어내기 위하여 교훈적 요소들을 삽입하고 있다. 한편으로 특별히 독창적 요소들은 유일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지로 예배 장소의 단일성을 규정한 것이며(신명 12,2-28), 다른 한편으로 빈곤한 계층들(과부, 고아, 레위인, 이민자)을 위한 일련의 조항들이다. 거룩하게 되도록 반복해서 초대하기 때문에 이른바 "성결법"(레위 17-26)이라 불리는 이 법전은 정결과 예배적 경건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제들의 영성에서 영감을 받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법들은 이전의 규범들을 통합하거나 수정한다. 그 까닭은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변화되었거나 선에 대한 더욱 고양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예언자들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규정들의 다양성과 율법의 단일성

279. 치밀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은 토라 안에서 주님이 발설하신 613개의 규정을 인정하였다. 이 수치는 자주 특히 번거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시민은 무한히 많은 법을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많은 교회 규범과 전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복잡한 삶은 사실상 복수의 계명들을 요구한다. 그런 계명들을 통하여 모든 이가 정의로 나아가야 할 측면과 환경과 상황이 표현된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가장 작은 규정조차(둥지에서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한다는 규정처럼: 신명 22,6-7). 매일의 구체적 삶에서 생명을 품은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리켜 준다.

다른 한편, 성경 자체, 특히 토라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독자가 개별 계명을 세밀하게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 준다. 사실상 단 하나의 계명, 곧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는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특히 신명기다. 그리고 이는 두 개의 문학 형태로 표현되지만, 그 가치는 동등하다.

첫째 형태는 (1) 주님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 잘 알려진 표현은 신명 6,5의 표현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10,12,15; 11,13,15,22; 13,4 등도 참조). 우리는 동사 "사랑하다"를 대신하여 또는 보완하는 동사로 "봉사하다", 곧 복종하다(탈출 23,25; 신명 6,13; 10,12,20; 11,13 등), "두려워하다", 곧 존경하고 숭배하다(레위 19,14,32; 25,17,36,43; 신명 5,29; 6,2,13,24; 10,12,20 등), "매달리다"(신명 10,20; 11,12; 13,5; 30,20)처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하느님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말라 3,17-18).

율법의 두 번째 통합 방식은 (2) 순종의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로 되어 있다(예컨대, 청취하다, 준수하다, 보호하다, 기억하다, 실천하다, 행하다 등). 이 동사의 목적어는 율법의 많은 용어들 가운데 하나다(명령, 규정, 법규, 규약, 규범, 하느님의 말씀 등). 신명 4,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또한 신명 4,5-6,14; 5,1,32-33; 6,1-3 등 참조).

이런 유형의 계명은 정확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법규들에 비교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모든 규정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게 표현된다. 그것은 곧 하느님이 원하신 근본 행위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믿는 이의 삶 전체가 매사에 자기 주님의 뜻을 완수할 태세가 되어 있는 "종"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특히 예언 문학에서 단 하나의 계명이 율법의 전체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에 대한 충실성 전체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모스 예언자의 경우, 선을

찾는 일은 법정에서 공정을 세우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아모 5,15), 예식을 위해 아무리 풍부한 예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성소로 가는 순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아모 4,4-5; 5,21-25). 이와 달리, 유배 이후에 공동체를 위한 근본 의무를 대표하는 것은 성전 봉사다. 가까이 예언자의 경우, 하느님의 축복은 사실 주님의 집을 재건하려는 결정과 연결되어 있다(하까 1,3-11).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우,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의 구원은 유대인 종들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예레 34,8-22). 끝으로, 마카베오 시기에 정결한 음식에 관한 규정은 결정적 가치를 갖게 되어, 이스라엘의 순교자는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다(2미카 7). 본디 의식에 관한 규정도 특정한 환경에서 하느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계약에 충실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계명들의 계층과 목적

280. 각 규정들은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벌의 단계(사형에서 단순한 금전적 변상까지)는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에 비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구약성서의 입법에서 그리고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성서 문학 전체에서 하느님께 드려야 할 공경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의무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법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존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인 관계를 결정하는 영역 중에 첫째 가치는 생명을 보호하는 데 부여된다. 가족도 근본 선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

여 성적 영역에서 엄중한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빈곤한 계층들에게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들은 널리 공포되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제재 장치들이 없다. 물론 법정에서 정의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통고되었지만(탈출 23,1-2.6; 신명 1,17; 16,19-20), 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법규들이 없다. 바로 이런 영역은 믿는 이의 관대한 헌신에 주어진 정의의 지평으로 보인다. 하느님은 이에 관해 당신의 평가, 곧 축복 또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탈출 22,25-26; 신명 24,10-15; 마태 25,31-46).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본 틀에서 양심을 **교육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선의 인식에서부터 믿는 이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유롭게 정의를 실천하려고 결심하게 된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려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신명 30,15-16,19-20).

법규의 지혜와 인간 행위에 대한 통제와 평가와 제재 활동을 확인함으로써 영혼을 양성하는 이런 일에서 주인공은 하느님 자신으로 여겨졌다. 역사 안에서 실현된 축복과 저주 역시 참된 선에 대한 애착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지혜로운 도구가 된다. 율법에 대한 기억과 정확한 지식을 돕기 위하여 성서 전통은 쓰기 도구를 지적하기도 한다. 십계명의 계명들은 영구한 유효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돌 위에 새겨질 것이다(탈출 24,12; 34,1,4; 신명 4,13; 5,22; 9,9-11; 10,1,3). 이스라엘인에게는 규정들을 써서 손에 표징으로 묶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으라고 지시하였다(신명 6,8-9). 또한 임금은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하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신명 17,18-19). 그러나 주님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이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줄 때(예레 31,33-34), 비로소 하느님의 일이 당신의 의도를 충만하게 실현하게 될 것이다.

지혜 전통에서 율법

281. 이스라엘 현인들의 세계는 세상을 위한 "불멸의 빛"인 주님의 율법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지혜 18,4). 부모와 스승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계시에서 영감을 받은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한마음으로 장려한다(잠언 2,1-6; 3,11; 시라 17,9-12;

24,23-27; 참조: 바룩 4,1-4). 사실 우리는 "전통적" 지혜 본문들 (잠언, 시라, 지혜서)에서 토라에서 모세의 권면을 따르는 많은 권면들을 발견한다. 제안된 가치들은 십계명과 더욱 일반적으로는 지혜로 가득 차고 세세대대로 전해진 성서 법규들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의로운"(saddiq)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yere' 'adonay) 종교인과 "현인"(hakam)과 동일시된다(잠언 1,1-7; 28,4-5; 시라 15,1; 19,20; 24,10-12; 지혜 6,1-4; 9,9-17).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네 마음을 모은다면 [...],
 그때에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
 그때에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잠언 2,1-2.5,9).

지혜 문학의 특수한 공헌은 규정들을 사랑하게 하는(잠언 31,2; 시라 3,1 참조) 부모의 증언으로(잠언 1,8; 시라 2,1) 율법의 실천을 장려한다는 것이다(시라 15,1-6; 19,20). 이 밖에도 재치 있는 격언들과 비유들, 예리한 금언들과 표현력이 풍부한 은유들은 토라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시라 3,29)이기 때문에 순종적으로 경청하도록 모두를 가르치는 데 기여한다. 현인은 종종 자신의 가르침을 명백한 명령

의 형태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말은 제자에게 좋은 결정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주어진다(시라 15,15-20). 사실 제안된 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초대이고 요구이며, 정의와 생명을 선택하라는 자극이다.

282. 이 노선의 지혜 전통에 욥과 코헬렛의 비판적 공헌을 추가해야 한다. **욥기**에서는 인간의 주장과 심지어 올바른 "보상"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약속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한다. 달리 말해, 정의에 맞갖은 행위와 그에 대한 결실일 수 있는 생명과 행복의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욥 9,22). 사실 우리는 그 주인공은 흠 없고 울곧은 사람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욥 1,1,8; 2,3). 또한 그 자신이 욥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중단 없이 계속 선언할 것이다(욥 6,29-30; 13,23; 23,10-12; 27,5-6; 29,14-17; 31,1-40). 그렇지만 그 위에 형언할 수 없는 불운과 고통이 떨어진다. 욥의 탄원, 곧 하느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그의 탄원은 역사의 모든 사건을 자동적으로 판단하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며,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하느님의 계명들에 순종한 결과에 대해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욥이 다소 주재님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욥 38,2; 40,2,8) 하느님 자신이 욥의 말을 결코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욥 42,8). 그러므로 고통에 젖은 그의 항의는 반역자의 반항이 아니라 지혜의 길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께 드리는 당연한 질문으로 읽혀야 한다(욥 28,23-28).

코헬렛의 글은 율법의 질문을 자기 식으로 반복한다. 의인과 불의한 사람, 현인과 어리석은 사람은 삶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만족이 없는 하나의 실존이 되도록 판결을 받았다. 또한 모든 사람이 치명적으로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코헬 2,15-16). 다른 한편, 만약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면(코헬 7,20), 보상 체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인인 "예루살렘의 임금"(코헬 1,1)은 정의를 실천할 때에도 수많은 외적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도덕적 완벽주의와 반대로 중용을 소개한다. 또한 그는 많은 노고와 공부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한다(코헬 1,18; 2,11). 그렇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악행과 어리석음을 권장하지 않는다: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
너는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어찌하여 네 시간이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코헬 7,16-1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 스승으로부터 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말며, 행운과 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설정하지도 말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실 악인들이 번영한다(코헬 3,16;

4,1; 5,7; 또한 예레 12,1-2; 시편 73,2-12; 욥 21,7-33 참조). 그러나 지혜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겸허하게 높이 평가하는 태도로 이해되는 "하느님 경외"에 관한 그의 주장과 더불어(코헬 3,14; 5,6; 7,18; 8,12-13), 코헬렛은 삶의 기쁨을 좋은 품행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초대한다. 자연히 이것은 "태양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계명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종류의 생명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서는 덕행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의인들에 대한 확실한 상으로 저 세상에서의 전망을 보여 준다(지혜 3,1-9; 5,15-16).

기도의 대상인 주님의 명령

283. 시편집은 마치 하나의 토라인 것처럼 소개된다. 왜냐하면 오경처럼 다섯 권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빈번하게 기도자에게 항상 값비싼 선으로, 무궁무진한 부로 이해된 하느님의 토라, 곧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도록(시편 56,5,11) 이끈다. 이에 관하여 세 시편(시편 1; 19; 119)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시편들은 점점 더 토라를 칭송하며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매달리는 것을 믿는 이의 입에 담아 표현한다(시편 40,8-9).

시편 1

기도 수집물 전체를 소개하면서 시편 1은 밤낮으로 주님의 가르

침을 되새기는 "의인"의 행복과 풍요를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의 즐거움은 주님의 율법에 있기 때문이다(1-2절). 그의 "길"은 행동에 있어서나 그로 인한 결과에 있어서나 "악인"과 "죄인"의 길과 반대된다(1,6절). 사실 토라에 대한 충실성은 영원한 생명력과 성공으로 이어진다(3,6절). 이와 달리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휩쓸리고 말 것이다(4-6절). 기도자는 이처럼 생명의 프로그램의 형태로 단순한 가르침만 받지 않는다. 기도자는 시편의 말씀을 발음하는 행위 자체에서 토라의 진리와 행복하게 하는 토라의 힘을 성별(聖別)한다.

시편 19

284. 시편 19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시편에서 시편을 영송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자기 입의 말씀을 봉헌하면서 노래를 마친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씀들을 희생제물처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15절). 그러므로 토라의 칭송은 하느님께 드리는 찬가와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로 해석된다:

"8주님의 가르침(torah)은 완전하여
 생기를 돌게 하고
 주님의 법('edut)은 참되어
 어수룩한 이를 슬기롭게 하네.
 9주님의 규정(piqqudim)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miswah)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10주님을 경외함(yir'at 'adonay)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mispatim)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11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12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시편 19,8-12).

주님의 규정들을 칭송하는 가운데, 시편 시인은 동시에 규정들을 음미하며 - 거의 꿀의 단맛을 보듯이 - 규정들과 하나가 되어 생기를 돋게 하고(8ㄱ절) 마음을 기쁘게 한다(9ㄱ절). 거기에서 오는 "상급"(12ㄴ절)은 주님의 계명들의 맑은 진리 때문에(9-10절) 눈에 빛을 주고(9ㄴ,12절) 슬기롭게 한다(8ㄴ절).

또한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할 때에는 항상 있는 일처럼, 받은 선에 대한 찬양에 탄원이 첨가된다(13-14절). 탄원은 특히 믿는 이의 마음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잘못에서 자신을 용서하실 것을 청한다. 탄원은 또한 율법의 계명에 매달린다는 사실에 기대어 자만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커다란 죄악인 오만에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한다(14절).

언뜻 보기에 내용이 많이 다른 시편 19의 첫째 부분은 하늘의 세계를 생각해 내고(2절), 특별히 태양의 낮의 주기를 생각한다(5-7절). 그리고 이것은 창공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땅 위의 기도자의 찬양 사이에 일종의 대구 또는 교향악의 조화를 설정한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우주적 계시, 곧 창조주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조용한 말이 있다(2-5절). 시편 시인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에게 듣게 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듣게 할 수 있다(시편 147,20). 기도자는 하느님의 지식을 전하는 천체의 과제(시편 19,3)를 태양보다 더욱 빛나고 더욱 활력을 주는 토라의 명상에 의해 빛나는 행위로 반복한다.

시편 119

285. 시편집은 시편 119에서 알파벳시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를 상징하는 정교한 문학적 구성으로 하느님의 토라에 대한 가장 완벽한 칭송을 표현한다. 알파벳시 기법을 사용하여 작시된 이 시편은 알파벳의 각 문자가 각 구절이 아니라(시편 25; 34; 37; 111; 112; 145에서처럼), "여덟 구절"씩을 도입한다. 이처럼 여덟 구절로 구성된 알파벳시에서 토라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로 선포되고 칭송된다(시편 119,14.72,99-100,127). 매 연(여덟 구절로 된)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스물두 문자를 통해 토라를 정의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매구절마다 언급되어(위에서 인용한 시편 19,8-10 참조) 하느님의 말씀의 놀라운 면모들과 기도자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 표명하는 다양한 태도들을 표현한다.

torah(가르침)는 25회 언급되며 가장 먼저 발설하는 단어다(시편 119,1). 첫째 연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이 용어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다양한 동의어, 곧 'edah(증언), derek(길, 품행), piqqudim(처분), hoq(칙령), miswah(명령), mispat(심판)과 또한 dabar와 'imrah(말)(시편 119,9.11)과 연결된다. 주님의 뜻은 오직 하나뿐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명사는 때로 단수로 사용된다. 그러나 복수 형태가 더욱 자주 나타난다. 그것은 믿는 이의 삶을 규제하는 계명들의 복잡한 다양성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학 장치는 이스라엘에게 토라로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 외에는 명상해야 할 다른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시편 119의 저자는 주제에 관해 지속적 변화를 주어서 토라의 빛나는 무지개빛을 형성하며 그 빛은 생명의 결실을 맛보고 동화하는 데 유익하다. 이런 일은 토라에 대한 기도자의 태도를 묘사하는 동사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동사들은 "걷다"(1.3절), "지키다"(4-5.9절), "배우다"(7.33-34.73), "이야기하다"(13절), "묵상하다"(15절), "기억하다"(16.52.55절), "열망하다"(20.40절), "맛보다"(103절), "기뻐하다"(14.16절), 그리고 열 번이나 사용되는 "사랑하다"(47.48.97.113.119.127.140.159.163.167)이다. 영혼의 다양한 감정은 하느님의 뜻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사람 전체(2.34절)가 항상(20.44.97절) 새로운 충실성의 약속으로(8.11.30-32절), 또한 주님의 행위에 대한 확신으로(42-43.49.74절) 탄원(5.12.22.25절)과 찬양(7.62.89절)에서 주님과 주님의 계명들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

의인의 "길"이 악인의 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편 1과 비교할 때, 시편 119에서는 두 길이 교차하며 만난다. 기도자는 악인들의 폭력에 마주하여 단지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117.121-122절), 자신의 슬픔을 표명하면서도(28.143절), 주님의 계명들에 매달리는 순간 이미 자기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대담하게 선언한다:

"당신의 법령이 제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살이하는 이 집에서"(54절)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으리이다"(92절).

시편집에서 당신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자의 청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주장(시편 25,4-5.9; 86,11; 94,12; 143,10)은 시편 119에서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시편 119,12.26.64.66.68.99.108.124.135.171). 하느님의 말씀은 특히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당신의 계시의 측면에서 지속적 묵상을 통해 심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 시며 우리가 걸어야 할 빛나는 길을 알려 주신다.

토라의 선포자이며 해석자인 예언자

286. 시나이에서 들려와서 모세에 의해 전해져 성문화된 하느님의 목소리는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신명 18,15)은 당신의 계

약과 계명에 충실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우리 하느님의 토라에 귀를 기울여라"(이사 1,10)라고 초대하는 예언 수집물의 첫 쪽과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말라 3,22)라고 말하는 이 예언 수집물의 마지막 구절들 사이의 포괄 기법(inclusion)은 의미심장하게 보인다. 사실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계약의 조건으로 규정하신 것을 준수하도록 백성을 일깨워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미카 6,8). 또한 예언자들은 시나이 율법의 선포자에게서 채택한 모델을 따르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청중을 이끌기 위하여 절박한 명령에 위협과 약속을 동반한다. 몇몇 경우에서 우리는 특히 명백하게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예레 7,1-15; 예제 18,5-18; 호세 4,1-3). 더욱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이사 1,17; 3,14-15; 예레 5,28; 마라 3,5)와 일체의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를 거슬러 오로지 주님께만 의존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킨다(1열왕 18,18.21; 이사 1,2-4; 예레 2,11-13).

그러나 예언자들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반역하는 완고한 수신자들과 관련이 있으며(이사 1,2-4; 6,9-10; 30,9; 예레 5,1-5.21; 예제 2,3-5), 예언자들의 과제는 그들에게 삶을 바꾸도록 초대하고(이사 1,16-17; 아모 5,14-15),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는 올바른 회개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설득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예레 2,19; 3,10,12-13; 예제 3,16-21). 그들의 목적은 멸시를 받았으며(이사 1,4; 예레 3,22-25; 호세 2,9) 순종하지 않은 그분을 다시 칭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은 귀중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심미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고 설득하는 데 유익한 언어 수단을 사용하여 시와 수사학의 모습으로 진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예언자들은 주님에게서 받은 지혜로 은유와 비유와 반어적 논쟁을 사용하여 이처럼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해 준다. 이사야 예언자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을 고발할 목적으로 포도밭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짓는다(이사 5,1-7). 예레미야 예언자는 시사적 표상들을 사용하여 자기 하느님의 영광을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과 바꾸고(예레 2,11),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자신을 위해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판(예레 2,13)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가를 보여 준다. 호세아 예언자와 예제키엘 예언자는 배신이 참으로 비탄받아 마땅한 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혼인의 은유를 사용한다(호세 2,4-15; 예제 16,1-43). 또한 아모스 예언자는 변창한 성읍 사마리아에 대해 애가를 부른다(아모 5,1-3). 예들은 쉽게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고대의 법규를 상기하면서도 예언의 말씀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면에서 새로움을 지니고 있다. 과거를 기억할 뿐 아니라, 청중으로 하여금 밝은 말로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서 성장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토라가 지속적으로 마음의 어둠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이사 2,3,5; 42,6-7; 58,8; 호세 6,5; 미카 7,9; 스바 3,5). 또한 이 경

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가게 하려는 염원이 있음을 본다.

287. 또한 하느님께 영감을 받은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규정들을 올바르게 배열하면서 부당한 거짓된 말을 거슬러 무엇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인지 발견하도록 가르친다(예레 8,8-9).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나오는 모티프들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 의해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탈을 쓴 희생제사를 거부하는 모티프다. 사무엘은 번제물을 봉헌하겠다는 사울의 주도권을 단죄하였다. 왜냐하면 전리품에 관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terafim)과 같습니다"(1사 무 15,22-23).

예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에 일치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평가된다. 예언자들도 비슷하게 주장한다. 곧, 그런 주장은 호세 6,6에는 거의 문자 그대로 되풀이되며, 거의 모든 예언자들에게서 다양한 표현과 여러 가지 동기들과 함께 반복된다(이사 1,11-15; 43,22-24; 58,3-5; 예레 6,20; 7,21-22; 14,12; 아모 4,4-

5; 5,21-23; 미카 6,6-7; 즈카 7,4-6). 그런 주장은 경건한 실천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정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양심의 분열에 관해 성찰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사고(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에 따라 사건의 해석을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한다. 그들은 성문화된 법규들에 의존할 수 없는 결정들로 개입한다. 이 경우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계시한 것의 이름으로 지침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는 적의 동맹군이 임금의 후손들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하즈에게 알려 준다(이사 7,1-9). 예레미야는 치드키야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바빌론 임금에게 반드시 항복해야 한다고 계시한다(예레 38,14-23). 또한 유배자들에게 오랫동안의 유배에 관하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 주고 무엇보다도 바빌론을 위하여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역시 예레미야다(예레 29,4-7).

예언자들이 없이는 하느님의 규정들을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이며, 적절하게 해석할 줄도 모를 것이다. 또한 명백한 계명들이 없을 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와 하느님의 계명

288. 예수님은 예언자로 알려지셨다(마태 21,11.46; 루카 7,16; 24,19; 요한 4,19; 6,14; 7,40; 9,17). 모세와 비슷하며, 모세로

부터 계시를 완성하는 분으로 예언된(루카 24,44; 요한 1,45; 사도 3,2-23)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 주시는데, 그것은 오로지 아드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마태 11,27; 요한 5,20; 8,28; 12,49-50; 14,24; 15,15; 17,6-8). 그분은 주님의 율법이나 예언서들의 메시지를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마태 5,17; 7,12). 오히려 그분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뿐 아니라)을 유일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분은 사무엘부터 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 중에서(루카 16,16; 사도 3,24) 가장 작은 계명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명들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마태 5,19) 규정에 나오는 가장 작은 문자 하나나 단순한 줄 하나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 될 것이다(마태 5,18-19).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작은 규정 하나조차도 겸손하게 실천함으로써 펼쳐지는 큰 사랑이기 때문이다.

옛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치셨다(마태 7,21-27; 21,28-31; 참조: 1요한 3,18).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막상 자기들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규칙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달리(마태 23,2-4; 요한 7,19) 스승은 하느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사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요한 14,31). 그분은 "의인"이시며(마태 27,19; 루카 23,47; 사도 3,14; 7,52; 22,14; 1베드 3,18; 1요한 2,1,29),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신다(마태 26,39; 요한 4,34; 5,30; 6,38; 18,11; 로마 5,19; 필리 2,8; 히브 5,8). 그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에서 토라와 모든 예언서의 종합을 알아낼 줄 아셨다(마태 22,40). 그것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에는 편하고 제자들에게 부과된 짐은 가볍다(카내 11,30).

289. 하느님의 규정들의 광휘를 변조한 해석 경향과 반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적할 줄 아는 데에도 예언 은사에 충만하게 충실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옛 사람들로부터" 언급된 것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다. 옛 사람들은 - 아마 그들은 제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하느님의 아드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 계명들의 쉽고 불완전한 독서를 좋아하였다. 주님은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마태 5,22.28.32.34.44). 또한 그분은 제자를 하늘의 아버지처럼 되게 해 주는 높은 수준의 사랑의 요구를 끄집어내신다(마태 5,48). 그분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당신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려고 하신다(요한 14,15.21; 15,10; 참조: 1요한 2,3-6; 5,2-3; 2요한 6). 그러나 그분은 계명들을 지능적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율법을 "비전통적"으로 읽는 그분의 독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마르 7,5.8). 곧,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 안식일이 노예들을 위한 구원의 기

회로 사용되면, 그날은 "거룩하게" 된다(마르 3,4).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요한 2,19; 참조: 요한 4,21-24). 왜냐하면 기도의 집이기를 멈추고 장사하는 집(요한 2,16), 달리 말해 강도들의 소굴(마르 11,17)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믿는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거룩함"에 대한 호소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마르 7,14-23). 부모를 돕지 않으려는 사악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신성한 예물조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마르 7,9-13; 15,3-6).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선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모든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마태 6,1-4).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식은 즐거운 얼굴로 하는 단식이며(마태 6,16-18), 신랑이 부재할 때에만 하는 것이다(마르 2,19).

290. 또한 이 마지막 설명은 주 예수님의 예언 계시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한다. 그분의 계시는 "시대의 표징"을 식별할 줄 알도록 빛을 주어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마르 13,18; 루카 12,54-59):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마태 16,2-3).

이러한 식별 행위를 위한 빛은 참 빛이시며(루카 2,32; 요한 1,4-5,9; 3,19-21; 8,12; 9,5; 12,46), 토라의 규정들보다 더욱 빛

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서 온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스승이시기 때문이다(마태 5,14; 요한 8,12; 12,36).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있었던 것처럼(민수 11,16-17.25-29), 엘리야가 엘리사의 환송을 받으며 그러했던 것처럼(1열왕 2,9-1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사하시어 그들이 사랑과 완전함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언자들과 스승들처럼(마태 21,34) 세상에 가서 사랑의 길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받은 성령을 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바오로와 율법

291. 사도들의 설교와 성령의 선물로 형성된 그리스도 교회는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 강력한 윤리적, 종교적 각인으로 유명하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수난에 의한 구원의 선물에 대한 언급은 당시의 주거지에 산재해 있던 다양한 공동체들을 결집하였다. 그것은 믿는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태도(로마 6,19; 에페 4,17-32; 또한 에페 5,1-20; 콜로 1,21-23; 3,1-10; 1베드 1,14-16; 4,1-6), 거룩함의 규정들에 의해 표현된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악습들과 죄가 되는 행위들을 영구적으로 그만두는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를 표현하게 한다(2코린 5,17; 갈라 6,15; 에페 2,15; 4,24).

이런 유형의 광경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된 사도들의 설교(사도 2,37-41; 3,19.25-26; 5,31; 8,18 등)는 물론, 사도들의 서간들의

찬가와 교훈 부분에서 예상되었다. 여하튼 이 본문들에 나오는 연속적 권면들은 "회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영적 역동성으로서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요한이 일곱 교회들에 보낸 편지(묵사 1,4)들은 시련중에 믿음을 항구하게 보존하는 데 대한 칭송을 포함하고 있지만,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반복해서 초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비난도 포함하고 있는데(묵시 2,1-3,22), 그것은 복음적 이상은 믿는 이들의 주의와 실천에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표징이다. 예를 들어,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 있지만 죽어 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묵시 3,1-3).

292. 사도들의 서간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이 발견된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규범적 지침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편지들에서는 단지 매우 드물게만 지켜야 할 규범으로 모세의 법을 명확히 지적한다(로마 10,5; 1코린 9,9; 참조: 야고 2,8-11; 4,11). 그것은 아마도 토라에 대한 유다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의 근본 규정들과 하느님과 형

제들에 대한 사랑의 호소는 그리스도교 설교 전체의 핵심 줄거리이다.

바오로도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권장한다. 바오로는 선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며(로마 6,16; 에페 4,20-24), 특별히 "율법의 완성"(로마 13,8,10; 1코린 13,4-7)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독려한다. 삶 전체에서 하느님의 뜻에 종속해야 할 의무가 유효하고 영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명령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콜로 4,12). 또한 이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의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갈라 3,26; 4,6-7). 이 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본문이 로마 8,14-17이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pneuma hyiothesias)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293. 율법에 관한 바오로의 어떤 주장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주장들은 마치 그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자주 해석된다.

그런 해석은 사도가 "율법은 기록하다"는 것만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계명도 "기록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선언한다는 사실을 상대화하고 더 나아가 잊어버리기까지 한다(로마 7,12). 이 밖에도,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로마 3,28)는 교의를 선포한 직후에, 바오로는 믿음을 의롭게 되는 것의 기원이며 절대적 수단으로 제시하면서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로마 3,31).

이 문헌에서는 주제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성격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법"(nomos)이라는 용어에 관해 지적할 수 있다.

바오로는 이 용어를 결코 일의적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이 용어는 유사성이 없는 사실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명사는 특정한 경우에는 오경(로마 3,21) 또는 심지어 구약성서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1코린 14,21). 다른 경우에는, 더욱 특수하게 모세의 법 규정들을 가리킨다(로마 2,12; 4,13; 1코린 9,8-9,20). 때로는 사람이 양심에서 인지할 수 있는 의무를 암시한다(로마 2,14-15; 7,23).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갈라 6,2), "믿음의 법"(로마 3,27), "의로움의 율법"(로마 9,31),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로마 8,2)에 반대되는 "죄와 죽음의 법"(로마 7,25; 8,2)과 같은 표현들을 만날 때 그의미는 다르다.

용어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바오로의 서간들에서 nomos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며, 특히 의화와 관련하여 율법의 행위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본문들이 그 숫자와 내용의 중요성에 있어 두드러진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다시 주장하는 그러한 부정(로마 3,28)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이전의 서간에서 이미 형성되었다(갈라 2,16). 앞에서 언급한 부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바로 그런 환경들이다. 곧, 몇몇 유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본디 이방인이었던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제하려고 하였다(갈라 6,12-13). 그런 주장은 사도에게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며(갈라 5,3; 참조: 4,21) 율법에 정당화를 위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갈라 2,21 참조). 이런 맥락과 유다화를 주장하는 극단적 결과 때문에, 바오로는 율법을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기초로서 율법이 의화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행위들을 부정한다. 그러한 기초는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었으며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인 하나님의 아드님이실 수밖에 없다(갈라 4,4).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다(갈라 2,16).

294.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러한 교의를 확신하면서(로마 3,2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이 유일한 의로움의 길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게 될 것이다(로마 3,31). 성경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토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느님의 계시다(로마 1,1; 3,21).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를 보여 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로마 4,1-25; 참조: 갈라 3,6-29).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그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로마 4,24-25). 사도에 따르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취하신 육 안에서 죄의 단죄의 목적은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이 채워지게 하려는 것"(로마 8,4)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의로움의 계시(로마 3,21)와 성령의 행위로 죽음과 죄의 법에서의 해방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문자에 종속함으로써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로마 5,5) 성령의 힘에 종속함으로써 율법의 올바른 요구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로마 2,29; 7,6; 2코린 3,6). 이와 같은 확신에 근거하여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권유한다. 그러한 과정은 죄가 아니라 의로움에 순종하는 믿는 이들(로마 6,15-27; 8,5-13 참조)이 경험하는 근본 요소다(로마 12,2; 필리 1,10; 참조: 에페 5,10,17; 콜로 1,9-10)

2. 순종과 위반

295. 계명은 창조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위반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창세기의 첫 두 장에서 이브사전이의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간다. 사실 한편으로 본문은 태초의 어떤 것을 개관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에덴 동산(한때 "낙원"이라고 불렸던 조건)에 배치되었고, 이용된 설화 방식은 "역사적"(진실로 일어났던 정확한 사건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 정의될 수 없는 문학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말하는 뱀이 무대에 놓인 것, 특수한 힘을 가진 나무들을 표현하는 것, 동산을 걸으시는 하느님이 개입하게 하는 것, 가죽 옷을 만드는 것, 또는 밝게 타는 불 칼을 들고 동산의 접근을 막는 거룩들, 이 모든 것이 이야기를 프로그램적 가치를 가진 상징으로 읽도록 초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창세 3장에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행위와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된 것은 "인간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진실한 의미는 성서 설화 전체에 의해 실증될 것이다. 성서 설화에서 - 많은 변형들은 있지만 반복적으로 - 죄가 인간사에서 항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창세 3에는 두 개의 설화적 연속이 있다. (1) 첫째 연속은 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상들이 지은 죄가 이야기 된다. (2) 둘째 연속은 8-2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반의 결과로 하느님의 개입이 주제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은 이 장을 완성하는 두 부분의 자료를

결정한다.

창세 3,1-7

¹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냐?” ²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³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⁴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⁵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⁶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⁷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296.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뱀과 여자의 대화가 있는데(1-5절)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상기된다. 다음에 여자와 남자의 행동이 이어진다(6-7절).

본문은 놀라움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

던 특별한 동물 "뱀"(nahas)이 소개되기 때문이다. 뱀은 이야기에
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1,2,4,13,14절). 설화자는 "주 하느님께서 만
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1절)라고 말한다.
처음의 이 지적은 사건 전체를 "간교함" - 훌륭한 특질을 표현하
지만, 계략과 속임의 왜곡으로 표현된 - 과 "지성" 또는 "지혜" 사
이의 지혜적 만남으로 해석할 것을 제시한다. 지혜는 인간 존재
의 타고난 자질임에도 불구하고(잠언 2,2-3; 3,13; 4,1,5,7; 시라
14,20-21; 17,4-5) - 성찰하고 식별하며 선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서 - 부재하여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지혜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사실 설화자는 의미심장한 단어들의 놀이로 한편으로 "간
교한"('arum) "등장인물"이 있으며(1절) 그 인물 앞에서 "알
몸"('arummim)(창세 2,25)의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한
다. 만약 부끄러워하지 않는 알몸(창세 2,25)이 결백과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근함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기
에서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적이며 도덕적인 취약성, 곧 죄를
지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명백하게 될 연약함을 시사한다(7
절).

뱀의 간교함 -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은 진리의 한 측면, 정
확히 말해 뱀의 매력적인 면에 대한 평가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것
은 낚시 바늘의 함정을 숨기는 미끼와 비슷하다. 뱀은 "하느님께
서 만드셨다"(1절). 다른 모든 동물들처럼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
고 뱀을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수"로 드러난다. 또한 이것

은 하느님의 선물 자체가 주님의 순종을 받지 않을 때 악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인간 존재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붙여지며 속임을 인식하고 거절할 줄 알 때 자신의 지혜를 보여 줄 것이다. 성서의 다른 본문들에서 이러한 상황은 유혹(히브리어로 어근 nasah, 그리스어로는 특히 명사 perirasmos)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297. 이야기는 뱀과 여자 사이의 토론을 무대에 올린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면모는 동물과 인간 존재 사이의 대립의 면모다. 또한 본능과 합리성의 분쟁을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은 "육체적" 충동과 영적 차원 사이에 내면의 투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다(바오로도 로마 7,7-25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창세 3장에서 뱀은 감각적 만족이 아니라 "지식"을 염원하여 여자의 지성을 깨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한다.

악마

이 이야기의 해석 전통은 뱀이 악령을 대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묵시 12,9). 악령은 사탄(적대자), 악마(파괴자), 벨리알(악당), 벨제붓(등예의 대장), 또는 베엘제붓(쇠뿔의 대장)과 같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오로가 악령을 "이 세상의 신"(2코린 4,4)으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이 "인물"이 좋으신 하느님의 적대자로서 일종의 나쁜 신이라고는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령은 다양하고 복합적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며(마르 5,9), 그리스도교 전통은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반역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늘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대한 일정한 지배를 행사하도록 땅 위에 있게 되었다(여기에서부터 사탄을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명명하였다: 요한 12,31; 14,30; 16,11). 반역한 천사들에 관해 말하는 성서 구절들은 2베드 2,4과 유다 서간 6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반역한 천사들은 심연으로 떨어졌고 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땅 위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마태 12,43; 루카 11,24-26). 토빗기에서 악귀 아스모대오스는 사라의 여러 남편들을 죽일 힘을 가지고 있다(토빗 3,8; 6,14-16; 7,3). 신약성서에서 악마들은 사람마저 사로잡아 비인간적 행위들(마르 5,2-5)이나 자살을 하도록 이끈다. 또한 악마는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로 행동한다(마태 4,3; 1테살 3,5; 1베드 5,8). 이야기에서 뱀의 목소리는 그들의 말을 거짓으로 감싸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스승들의 목소리와 같이 자주 인간의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신명 13,2,4; 마태 7,15; 24,11; 2베드 2,19; 1요한 4,1).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이 가리키는 바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마르 8,33). 요한 묵시록에서 하느님의 종말론적 승리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궤멸시키는 것으로 온다(묵시 12,9; 20,2-3,10).

298. 두 번째 측면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뱀과 관련하여 여자(남자 또는 두 사람을 모두 대신하여)를 주제로 제안하는 것은 설

화자의 선택이다. 본문은 이러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해석 노선이 발전하였으며, 그 가운데 여자에게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속이기 쉬운 모습을 보는 해석 노선이 있다. 유혹자는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약한 측면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자에게 더 적은 지성 또는 주의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 의해 거부된 용납할 수 없는 편견이다. 사실 우리는 지혜가 흔히 여성의 등장인물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잠언 2,20-21; 8,1-4; 지혜 8,3). 그것은 문법적 성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는 생명과 열정과 기쁨을 모든 이에게 주는 데 있어 다채로운 지혜 활동을 표현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잠언 31,10-31). 성서 역사에서 많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욱 슬기롭고 더욱 용맹스러움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전망을 인정한다면, 창세 3장의 대조는 매우 교활한 존재와 어리석은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지혜의 두 표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유혹"은 "알려는" 염원 때문에 오만의 죄를 지을 위험이 있으며, 모든 것을 창조주와 아버지께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 행세를 하려는 인간의 높은 특질과 연결된다.

여성 등장인물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보완전 노선은 여자가 생명을 주는 존재(어머니가 되면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한 함축된 의미는 창세 3,16의 단죄에서 명백하게 지적되었지만, 그의 "후손"(직역하면 "그의 종자")이 뱀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에서도 분명히 표현되었다. 여성의 등장인물은 "살아 있

는 모든 것의 어머니"(창세 3,20)가 되었기 때문에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에 있어 하느님의 능력을 닮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혹이 근거하고 있는 "하느님과 같이 되려는" 염원은, 여인이 특권적 수혜자가 되게 하는 선물에 뿌리를 두고 있다.

299. 유혹은 말을 통해서 온다. 말이 속이고 부추긴다. 뱀이 하는 첫 번째 주장(1절)은 하나의 선동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화 없이 하느님에 의해 부과된 가장 민감한 점을 건드린다. 그 문장 - 히브리어에서 그 형태가 단정적 형태임에도 일반적으로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 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1) 첫째 방식은 더욱 통상적으로 입증되는 방식이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뱀은 명백히 속이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모든 나무 열매가 다 금지되었음을 던지시 말한다. 이 경우 유혹은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달리 말해 살게 하지 않는) 존재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 (2) 두 번째 번역 방식은 질문을 더욱 섬세한 형태가 되게 한다: "주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되면 뱀은 속이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전체에 접근하는 것이 부정되어 한계가 정해졌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의해 무언가가 압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혹은 금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준비시킨다.

여자의 응답(2절)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산의 나무 열매들과 금지된 나무 열매들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언뜻 보기에 정직하고 존중하는 설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인은 깨닫지 못하면서 무언가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며 금지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부적절한) 인지를 드러내는 몇 가지 변명을 하느님의 명령에 첨가한다. 여자는 금지된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나무"와 거의 혼동하면서 유일하게 설화자가 그 위치를 명확히 지정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라고 말한다(창세 2,9). 또한 (이처럼 "한가운데에" 있는) 이 나무에 대하여 여자는 하느님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만지지" 마라고 하셨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며 명백히 쓸데없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성을 무시하는 금기에 직면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징후이다.

그리하여 뱀의 대답(4-5절)은 대화에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 그는 "질문"에서 확언으로 넘어간다. 그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나, 확정적 선언을 위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혹자는 (금지된) 행동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창세 2,17에서 하느님에 의해 정해진 것처럼) 죽음을 확정하는 대신 놀라운 생명, 곧 "하느님과 같이 되는" 생명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음으로써 가능해지며,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해 준다고 한다. 뱀의 말의 유혹하는 힘은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한다. 곧, 첫째는 (하느님에 대한) 의심이며, 둘째는 (인간의 격상에 대한) 매력적 전망이다. 이 요소들 사이에 해로운 영향의 원이 확립된다. 곧,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부

족은 유혹자의 말을 확신하게 한다. 다른 한편, 상상에 그친다 할지라도 확실한 예물 봉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준다.

300. 악마의 유혹의 효력은 여자의 지각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에서 드러난다(6-7절). 성서 이야기의 섬세함은 유혹의 함정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준다. 사실 뱀의 거짓말은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과 기도 전통에서 주님의 규정에 예속되는 동일한 효과들을 낸다. 말하자면 전에는 마치 추정된 순진함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더라도 했었던 것처럼 눈이 뜨이고, 여자는 "좋고" "먹음직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만하고, 하느님의 눈에 좋은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하느님과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소망 대신(잠언 11,23; 13,12), 먹는 것에 탐욕을 부린다(민수 11,4; 시편 78,29-30; 106,14).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는 대신, 그리고 금지된 나무에서 구원의 진리의 표징을 보는 대신, 여자는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거짓말만 있으며 그 거짓말을 통해 창조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질투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들추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가치의 전도에서 "악마의" 제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죄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와 있다(마태 5,28 참조).

위반을 완결하는 행위는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6-7절). 동기의 중요성은 창세 3장에서 이야기의 첫째 부분뿐만 아니라(1,2,3,5,6절), 심문조서에서건(11,12,13,17절), 처벌에서건(14,17,18,19,22절), 둘째 부분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수없이 사용되는

데에서 드러난다. 한편,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은, 하느님께서 생계를 위해 제공하시는 영양분과 대칭적으로 반대되는(신명 8,3 참조) 은유적 가치로 이해되어야 한다(잠언 30,20 참조). 다른 한편, 수고의 댓가로 얻는 음식의 일상적 경험(창세 3,17-19)도 땅의 생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적 선물에서 참된 기쁨의 영양분을 찾으라는 호소로 읽어야 할 것이다.

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변화에서도 발전되는 것을 본다. 창조주는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6ㄴ절)이 금지된 열매를 "주는" 행동을 통하여 위반의 공범이 된다. 사람을 주어로 가지고 있는 동사(nagan)의 첫 번째 사용은 이처럼 선물의 개념의 왜곡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제공된 것은 죽음의 불안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불순종에 이어지는 경험으로 끝난다(7절). 위반한 두 사람은 모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곧,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약속은 진실이 아니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다. 왜냐하면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몸은 연약함의 조건을 명확히 밝힌다. 그것은 아마도 잘못에 대하여, 또는 적어도 그들의 태도의 절망적 결말에 대한 "부끄러움"도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어리석은 위반의 표징들을 옹색하게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덮는다. 그것은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 자기들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한 우스꽝스러운 해결책일 뿐이다.

사람들의 역사에서 위반과 순종

301. 창세 3장의 이야기는 독자에게 심한 어리석음으로 표시된 인간 피조물의 표상을 제시한다. 어리석음에서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나온다. 성경은 죄를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의 운명적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 존재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했다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어떤 규정도 징벌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악의 길에 반대되는 선의 길은 성서 전통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다. 그것은 토라의 결론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5-16,19).

지혜의 세계와 예언의 흐름 - 곧 보게 되듯이 - 은 그런 원칙을 상속하여 가르침의 중심으로 만든다(이사 1,16-20; 예레 21,8; 예제 18,26-28; 아모 5,14; 미카 6,8; 말라 2,22-24; 시편 1,6; 잠언 8,32-36; 시라 7,1-3; 15,11-20). 기원 때부터 선조들이 유혹자의 책략의 희생자가 된 것을 드러내면서 거룩한 저자는

질책하고 가르친다. 달리 말해 저자는 죽음으로 이끄는 매력적 거짓에 주의하도록 초대하며(잠언 2,8-19; 5,1-14; 9,13-18), 간접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자"의 필요를 부각시킨다.

악의 증식

302. 성서 이야기의 속행은 기본 이야기에서 상징적 형태로 표현된 것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선물의 선언이 있는 뒤에는 마치 역사 안에서 항상 있는 일인 것처럼 반복해서 인간의 죄스러운 행동에 대한 비난이 뒤따르는데,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속아 넘어가는 경향의 무지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지만, 죄를 짓게 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단순하게 공표된다. 창세 3장에서 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유혹자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가짜 지혜(탈출 23,32-33; 여호 23,12-13; 1열왕 11,1-8; 예레 10,2-5; 잠언 7,4-5; 콜로 2,8), 거짓 예언(신명 13,2-6; 이사 9,14-15; 예레 14,13-16; 23,9-32; 예제 13,2-23; 14,9; 미카 3,5-8; 즈카 13,2-6; 마태 24,11; 2티모 3,13), 마음의 사악한 열정(예레 17,9; 시편 36,2-5; 잠언 26,23-28; 지혜 4,12; 5,2; 6,2-4; 18,30-31; 시라 5,2; 9,9; 에페 4,11; 1야고 1,13-15)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게 하였던 것처럼(창세 37,28) 질투가 카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창세 4,8), 라멕이 자기 목숨을 보호한다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균형에 맞지 않는 보복을 실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추정으로 죄악의 수

수계를 알 수 없으며, 사람들이 왜 유혹에 저항하지 않고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죄악"의 "지배"를 받는지 설명하지 못한다(창세 4,7). 성서 설화자에 따르면 창조주 자신이 깜짝 놀랐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창세 6,5-6).

인류가 "의로운" 선조(창세 6,9)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새로운 시작을 받은 홍수 후에도 각 개인이나 백성 전체에 의해 행하여진 만연한 죄악이 역사의 리듬을 표시한다. 곧, 함은 아버지를 멸시하고(창세 9,22-25), 민족들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창세 11,4)을 세우기 위하여 오만하게 동맹을 맺는다. 인류의 기원 이야기는 이처럼 "아담의 자손"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증거하지는 않고, 망은과 어리석음, 오만과 폭력의 위반 행동에서 자기 자유를 표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 결과 죄악이 증식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펼쳐나간다. 그리고 성경은 현대 번역들에서 죄, 잘못, 반역, 악의, 불경건, 부정, 혐오, 바보스러움, 거짓, 타락 등과 같은 어휘로 번역된 매우 다양한 용어들로도 비극을 표현한다. 토라의 법전들은 성서 이야기 - 와 공통된 경험 - 가 전혀 이론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는 다양한 형태의 범법을 분명히 밝힌다.

"의인"의 존재

303. 그러나 기원들에 관한 성서의 전통은 죄를 "선조들"에게서 전달된 선천적 상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 안

에 놀랍게도 본보기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창세 5,24).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창세 6,8-9). 또한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의롭고(창세 15,6)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축복 받은 한 백성의 선조가 되었다(창세 22,15-18). 성경이 인간의 현실적 자유를 증명하는 것은 상반되는 사실들을 나란히 배열하여 한편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죄악의 확산이며 다른 한편으로 올바른 인물의 존재다. 피조물 앞에 놓인 두가지 길은 단순히 이론적 전망이 아니라, 좋은 이들과 악한 이들이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다.

"두 가지 길"의 모티프는 신약성서에도 매우 다양한 표상들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나온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하여(마태 7,13-14),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마태 7,24-27),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하여(마태 13,24-30),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 대하여(마태 13,47-50),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하여(마태 21,28-31),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하여(마태 25,1-13), 염소들과 따로 세워진 양들에 대하여(마태 25,31-46), 바리사이와 세리에 대하여(루카 18,10-14) 말씀하셨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 정의와 선의 시작인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신비스럽지만, 독자에게는 그것이 희망

의 동기가 되고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된다. 당신 자녀들에게 구원의 여정이 가능하도록 활동하시는 역사의 주님의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개입을 계시하는 것은 순종하는 좋은 주체가 나타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 종족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들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일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하느님은 죄의 줄거리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믿을 수 없는 생명의 결말로 바꿀 수 있다(창세 45,4-8; 참조: 지혜 9,17=18). 그러므로 성서가 마치 유전학적 결합이라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신명 32,5), "사악한 종자"(이사 1,4)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비록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 질책을 하고(이사 48,8; 시편 51,7) "그 어머니의 딸"(에제 16,44)이라는 격언의 진리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는 사람에게 의로운 결정을 유발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놀라운 개입에 대한 믿음에 마음을 열게 하려는 것이다. 바오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로마 11,32)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로마 5,20). 이러한 전망에서 메시아는 새로 태어나 충실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는 저 "의인"을 대표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304. 죄와 의로움이 결합된 역동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 때에 이루어졌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과 더불어 이 백성은

국가로 태어나는 일종의 탄생을 경험한다(탈출 14-15). 그렇지만 모세의 순종 행위로 증재된 그와 같은 은총의 사건(신명 34,10-12)은 주님의 뜻에 대한 일치된 항구한 온순함을 만들어내는 대신 끊임없는 반역으로 이어졌다(시편 78과 106 참조).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와 이곳[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 왔다"(신명 9,7; 또한 9,24 참조).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불평과 반항 중에서 특히 자유를 얻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장엄하게 서약하며(탈출 19,8; 24,3.7) 주님과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시나이 산 발치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탈출 32,1-6)를 기억해야 한다. 백성의 역사 초기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의 죄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위반은 백성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마지막 재앙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2열왕 17,14-23; 24,3-4; 예레 1,15-16).

다른 한편, 주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자유의 표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 주님의 "종들", 특히 예언자들에게 의해 대표된다. 그들의 말 - 주님께 귀를 기울인 청취의 결실 - 은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며, 역사 안에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에제 18)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용서하시고 당신의 계약을 복구하신다.

지혜 전통의 기여

305. 우리는 지혜 문학들에서 "의로움"으로 평가되며 주님의 계

명들에 의해 관리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전체적 고찰을 만난다. 현인들은 토라의 규정들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특수한 의식 규정들의 실행을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은 보편적이기를 원하며, 따라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주장들과 더불어 일반적 범주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혹과/또는 시련

지혜 문학의 첫 번째 기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망, 두 가지 유형의 담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태도에 직면한 인간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평가하고(외모와 진실을 구별하면서) 생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은 양심의 조건에 관해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이러한 모티프들을 폭넓게 설명하며 **유혹**의 경험으로 제시하는 책들이 있다(그러므로 창세 3장과 일치하여). 이것은 광범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토라의 담화와 반대되는 담화의 형태로 제시되며, 유혹자가 쾌락과 부와 사회적 성공의 매력적 미래를 제시한다. 우리는 잠언의 첫 장부터 일종의 난폭한 짓을 하러 가자고 초대하는 "악인들"의 제안(잠언 1,10-14)에서 이에 대한 상징적 예를 만난다. 이것은 은밀한 쾌락을 약속하는 이방인 여자, 간음녀이며 유혹녀의 매끄러운 말에서 비슷하게 다시 표현된다(잠언 5,3-6; 7,4-27). 끝으로, 이것은 "지혜"의 초대(잠언 9,4-6)와 매우 비슷하여 순진한 사람을 쉽게 속아넘어가게 하는 우둔한

여자의 초대(잠언 9,13-18)에서 다시 표현된다. 슬기와 오만, 세속의 성공과 하느님의 축복, 진리와 거짓 사이의 경계를 식별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또한 현인의 과제는 제자로 하여금 명확히 생명을 얻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306. 시라는 그와 같은 문학적 방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물론 그의 말은 묵시적으로 자기가 전달하는 지혜와 "죄인들"에 의해 지원된 지혜가 상반된다는 것을 전제한다(시라 1,24; 3,27; 5,9; 13,17; 15,19 등). 현인은 제자에게 죄인들의 외적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시킨다(시라 9,11). 달리 말해 현인은 처음부터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peirasmos)에 대비시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시라 2,1; 4,17) 도가니에서 금이 단련되듯 의인을 단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에 노출되게 하는 시련에 대비하라고 한다(시라 2,4-5).

지혜서는 어떤 의미에서 방금 요약한 두 가지 전망을 종합한다. 말하자면 지혜서는 현인의 담화(이 경우 솔로몬)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는"(지혜 1,16) 악인들의 왜곡된 추론(지혜 2,1-20)의 대비로 무엇보다도 잠언의 표현 방식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 죽음과 계약을 맺어(지혜 1,16) -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불멸을 바라지 않고(지혜 2,22-23), 사람들로 하여금 덧없고 타락한 쾌락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지혜 2,5-9). 동시에 시라의 제안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지혜서의 저자는 악인들 -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는"(지혜 2,12) 의인을 견디지 못하는 - 은 "폭력과 광란"으로 그를 거슬러 일어나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그

의 믿음을 "시험"에 붙인다(지혜 2,16). 사실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이처럼 "시험"에 붙이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어(지혜 3,5-6)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지혜 3,7-9; 5,15-16). 이 본문들은 복음서들에서 수난 이야기에 반향되어 있다(마태 27,43 참조).

불의한 자

307. 특히 표준화된 성서의 지혜 전통들은 독자에게 악의 길에 대비되는 선의 길을 제시하며 정의를 선택하도록 초대한다. 그 선택은 지혜와 생명의 길과 일치한다: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시라 15,17).

현인들은 악인과 죄인(잠언 1,31), 폭력을 행사하는 자(잠언 4,17; 10,11; 28,15), 오만한 자(시라 10,12-13), 오만불손한 사람(잠언 3,34; 19,29; 시라 15,8), 어리석은 자(잠언 1,22; 코헬 7,5)가 있다고 증언한다. 현인들은 지성과 마음의 이러한 비틀어짐의 원인들을 구별하기도 한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죄가 되는 품행의 빈번한 동기는 쾌락과 즉흥적 만족에 이끌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잠언 1,13-14; 7,18; 시라 6,2-4; 18,30-33; 23,5-6). 그것은 인정하기가 다소 쉽다. 특히 시라에서 주제로 다루는 이와 다른 동기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부족하여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하느님 경외는 "지혜의 시작"이며(시라 1,14; 또한 시

라 1,20; 15,1; 19,20도 참조),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이끈다(시라 2,15-17). "경외"의 모티프는 오늘날 쉽게 동의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외"는 인간의 존엄에 반대되고 복음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길에 상반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 경외"는 더욱 고상한 영적 차원에 대한 준비일 수 있다. 또한 적어도 많은 경우에 모든 사람의 품행에 관한 하느님의 "심판"을 고려하여(시라 1,8.40; 4,19; 5,6; 12,6; 16,11-14; 17,23; 또한 코헬 5,5-6; 12,13-14 참조), 부도덕한 언행에 제동을 걸어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약성서의 본문들에서 "경외"의 어휘는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존경"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어휘는 창조주이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경의도 표현한다. 이러한 경의는 그분의 규정들에 순종하게 한다. 사실 "주님의 경외"는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의인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시라 1,13.17; 34,14-20)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의 원천이다(시라 1,12.16.18; 23,27). 이와 같은 내적 태도가 없는 그곳에, 하느님이 무시되거나 심지어 멸시받는 그곳에는 불의의 현상이 많아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분명해 보인다.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308. 끝으로, 우리는 지혜 문학에서, 아마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어떤 모티프를 발견한다. 그 모티프는 인간의 불완전성, 그의 깊은 어리석음, 그의 도덕적 취약성의 증명에서 출발하여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일반화되고 정형화

된 - 중요한 종교적 진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잠언의 경구들 중에서는 "의인은 일곱 번 쓰러진다"(잠언 24,16)라고 말하며, 시라는 "우리 모두 죄인임을 기억하여라"(시라 8,5)라고 권고하는 것을 본다. 이는 겸손하고 참회하며 자비로운 행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언급되었다.

이 주제는 욥기에서도 다른 뉘앙스로 다루어지는데, 욥의 "친구"들의 입에 담겨 표현된 다음과 같은 인용들에서 만날 수 있다: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랴?
사람이 제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조차 꾸짖으시는데
하물며 토담집에 사는 자들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그들은 좀벌레처럼 으스러져 버린다"(욥 4,17-19).
"사람이 무엇이기에 결백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리오?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도 믿지 않으시고
하늘도 그분 눈에는 순결하지 못한데
하물며 역겹고 타락하여
불의를 물 마시듯 저지르는 인간이야!"(욥 15,14-16).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리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결백하다 하리오?
보게나,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맑지 않건만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욥 25,4-6).

우리가 많은 본문을 인용한 것은, 인간의 죄의 모티프가 하느님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전달할 수 있으며(시편 143,2 참조) 참회 여정의 시작일 수 있음(시라 17,24-27)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하듯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모든 불운을 정당화하고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여기는 데에 그것이 소용되어서는 안 된다(욥 32,2-3). 여하튼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일체의 멸시는 항상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신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엄격한 시선

309. 주님은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비슷한 예언자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신명 18,15). 동일한 화자(하느님)와 보증된 가치의 중재자(예언자)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모세가 죽기 전에 예고한 불충실(신명 31,16-18.27-29)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다시 확인되며 특정 사건들과 역사의 개별 주인공들을 특별히 언급한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만", 민족들의 반역도 본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이 사절들에게 경건한 실천의 화려한

외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사 1,10-15; 예레 7,8-11)을 드러내
 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몹쓸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의 계획
 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한다(이사 10,5-11; 14,12-17; 47,6-8; 하
 바 1,7-10). 그들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부도덕한 관습들의 형
 태를 취하고 있다(예레 5,7-8; 아모 2,7; 6,1-6). 그들은 악명 높
 은 종교 실천과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었다(이사
 5,20-23; 10,1-2; 아모 2,6).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정의의 염원에
 따라 활동하면서 말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흔히 정부
 관료들과 사제들, 거짓 예언자들과 전통적 현인들의 선언들과 반대
 된다. 그들은 자주 기만적 약속으로 양심을 잠재운다. 그러므로 예
 언 말씀은 습관적으로 반대가 되며, 이는 사회 전체가 관여된 중대
 한 죄악의 결과로서 불운한 미래를 극적 방식으로 예고하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협적 예측의 목적은 역설적으로 긍
 정적인 것이며, 모든 이를 회개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선물들보다 훨씬 더 큰 선물들로 당신의 계약을 갱신할 준비가 되
 어 있음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해 정확한 역사적 순
 간과 특정한 시기의 인물들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예언 문학은
 매우 다양한 주체들 때문에 다른 시기에 볼 수 있는 죄의 측면들
 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언자들의 신탁들이 보존되어 있
 으며, 가르침과 규율들을 끄집어 내기 위하여 다시 읽힌다. 이 밖
 에도, 특수한 수취인들에게 주는 신탁이며 상이한 문체를 가지고

있고, 매우 특수한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신탁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판을 치는 역사관을 제시한다. 예언자가 절대적으로 위반을 질책하고 위반의 결과로 징벌을 예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계약을 주기 위하여(다윗과 그의 후손과의 계약에서처럼), 행복한 계획을 장려하거나(성전 건축과 같이) 또는 믿음의 태도를 자극하기 위하여(당신 백성에 대한 위협의 기회에), 비탄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전대미문의 희망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광범위한 불충실을 단죄하는 예언서들의 방향이 역사의 해석임을 의심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여러 예언서들에 공통되는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완전한 불충실

310. 예언자들은 이따금 십계명의 모든 주요 계명들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나(예레 7,8-9; 호세 4,1-3), 다양한 관계 영역에서 행하여진 이른바 완전한 범죄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사회에 돌린다(이사 5,8-24; 아모 2,6-8).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의 실천(예레 1,16; 2,11-13)과 예언자들에 의해 예고된 말씀에 대한 불순종(예레 11,7-8; 13,10; 예제 20,8; 즈카 1,4; 7,11-12),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예레 2,32; 18,15; 예제 23,35; 호세 2,15), 그리고 그로 인한 계약의 파기(예레 11,10; 31,32; 예제 16,59) 때문에 더욱 자주 주님의 포기를 전체적이며 일반적으로 선언한다. 어떤 경우에는 예

언자는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아모 2,6),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예레 17,27),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며(미카 6,10-11), 또는 성전에 바치는 희생 제물로 유효 기간이 지난 동물들을 봉헌하는(말라 1,6-8) 사악한 실천에서 하느님을 멸시하는 명백한 표징을 본다. 개별 위반들에 대한 책망을 넘어,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할 정도로 완고하게 된 양심의 상태를 한탄한다(이사 48,4; 예레 4,22; 13,23; 17,1; 예제 2,4; 3,7; 즈카 7,12). 사실 거짓 예언자들의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우세하고(이사 28,15; 예레 6,14; 23,17; 29,8-9; 예제 13,8-10; 아모 9,10), 엄격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조소를 당하거나 입도 벌리지 못하게 된다(예레 26,7-9; 호세 9,8; 아모 2,11; 7,12-13).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

311. 예언자들은 자주 인류 전체가 부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님의 구원 행위의 첫 번째 수혜자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아모 2,9-11; 3,1-2) 이스라엘이 특히 부패하였다(이사 1,21-23; 24,4-5; 예레 6,28; 9,1; 호세 9,1,9-10; 아모 9,8; 미카 1,5; 스바 3,1-2; 즈카 7,11-12).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민족들도 부패하였다(이사 13-21; 예레 46-51; 예제 25-32; 아모 1,3-2,3 등 예언 수집물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예레 5,1-5; 6,13; 예제 22,30; 미카 7,2). 주님이 원하신 가치들을 조직적으로 고향하기 시작한 이들은 계약에 충실하도록 장려해야 할 관료들 - 임금, 사제, 판관, 예언자 - 이다(이

사 5,20-23; 예레 2,8; 5,31; 예제 22,25-28; 미카 3,1-5; 스바 3,3-4).

그러므로 백성의 회개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예언자들은 그들의 사명의 실패를 선언한다(이사 6,9-10; 예레 6,27-30; 예제 2,1-7).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때로 비유의 형태로 요약된 비극적 역사관이 바로 그들의 말에서 나온다(이사 1,2-4; 5,1-7; 예제 16; 호세 11,1-4 등).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단순히 마지막 재앙으로 치닫는 듯한 바로 그 순간에 예언자들은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창조주로서의 전능의 힘으로 주님에 의해 실현된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사건을 예고한다.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당신의 계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역사는 징벌로 마감되지 않고, 은총의 도래로 끝난다. 이 마지막 측면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제로 다룰 것이다.

기도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환대함

312. 시편집은 주님께서 토라와 현인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 주신 것을 순화시켜 수집하는 신성한 그릇에 비교할 수 있다. 시편집은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이의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언어로 변형하여 계시를 명상하면서 동화하게 한다. 기도에서 하느님의 메시지의 이러한 내면화 과정이 나타나는 두 가지 차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 역사에서 죄가 나타나는 동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의인들의 길에 대비되는 죄인들의 길로 "두 개의 길"의 **지혜** 동기를 받아들이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 기억은 믿는 이로 하여금 주님의 율법의 복된 원천에 매달리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데 소용된다(우리가 시편 1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특히 "악인들"의 존재 - 지혜 본문들에서 매우 강력하게 증명된다 - 이다. 그 까닭은 난폭한 자들의 성공은 믿는 이에게 하느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고대하는 데에서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유혹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시편 37,1-14; 49,6-13; 73,2-13; 125,3), 악인들의 폭력은 가난한 이를 시험하며 행복을 재설정하도록 간청하는 탄원 기도를 바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시편 2,8; 5,10-11; 10,1-18; 35,4-10; 120,2 등). 신앙인은 하느님의 개입을 호소하면서 정의를 실행한다.

이와 달리 기도자의 두 번째 차원은 **예언** 말씀을 청취한 결실이다. 예언 말씀은 신심 깊은 실천에 의해 감추어진 죄까지 포함하여 죄를 드러내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한다(시편 50,7-23 참조). 그러므로 많은 시편들이 겸허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청하는 마음을 여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명령에 순종한다(예레 3,21-25; 호세 14,2-4 참조). 그리스도교 전통은 일곱 개의 "참회 시편"(시편 6; 32; 38; 51; 102; 130; 143)을 가려냈다. 이 참회 시편들에는 개인 참회 행위에서 주님께 드러야 할 올바른 말씀이 제시되어 있다. 시편 103도 이 시편들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양식 외에 공동 탄원의 양식도 있다. 공동 탄원 양식에서

기도자는 - 백성 전체의 목소리를 해석하면서(에즈 9,6-15; 느헤 9,5-36; 다니 9,4-19에서처럼) - 조상들과 당대 사람들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시편 78과 106), 역사 안에서 계약에 대한 완전 무결한 충실성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자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죄인들의 입술은 찬송가를 부르며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시편 106,1-2.47-48; 참조: 이사 63,7-9).

구원하는 의인이신 예수

313. 복음서들의 시작은 한결같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의 모습으로 제시한다. 그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마태 3,4; 참조: 2열왕 1,8) 광야에서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마태 3,7.10) "회개"의 필요성을 선언한다(마태 3,2.8.11).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였지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마태 3,9; 루카 3,8)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호소(루카 3,10-14)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리들과 창녀들 - 달리 말해 공적 죄인들 - 은 요한의 설교를 믿었지만(마태 21,32; 루카 7,29), 예루살렘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더불어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마태 21,23.31; 루카 7,30),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였다(마태 23,28; 루카 16,15; 18,9).

회개의 필요성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마르 1,14-15) 예수님이 똑같

은 사명을 계속하셨다. 마태오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구자의 선언을 문자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 참조: 마태 3,2)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과제다(마르 2,17; 마태 19,13; 루카 5,32). 그러므로 당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경고하셨지만(마태 11,20-24; 23,13-36; 루카 13,2-5), 죄인들과 겸손한 이들과 참회하는 이들에게 하는 그분의 말씀은 사랑으로 넘쳤다(마르 2,15-17; 루카 15,2; 19,1-10; 23,39-43). 복음의 역설은 "꼴찌"가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마태 21,31; 루카 18,14). 그렇지만 법적으로 "첫째"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배제될 것이다(마태 8,11-12; 루카 13,28-29).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주님께 파견을 받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마르 6,12; 루카 24,47; 참조: 사도 2,38; 3,19; 17,30; 26,20). 죄를 버리고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과정은 이처럼 인간 역사의 향구한 차원이다. 적어도 완전해 이르도록 향구하게 초대하는 형태로 볼 때, 회개의 과정은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

유혹의 극복

314. 물론, 복음서들은 더러는 완고하고 더러는 참회하는 "죄인들"의 존재만 제시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온순한 주님의 종 마리아(루카 1,38,45), 그의 배필 요셉(마태 1,19), 즈카르야와 엘

리사벳(루카 1,6), 시메온(루카 2,25), 세례자 요한(마르 6,20),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루카 23,50)과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은 "의인들"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자렛 예수님은 당연히 최고의 의인이시다.

그러나 의인들도 시험을 당한다. 그들에게 순종과 반역 가운데, 하느님께 대한 신뢰 깊은 사랑과 세속의 구체적인 매력에 대한 동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충실성이 증명되고 칭송을 받는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유혹** 이야기(마태 4,1-11; 루카 4,1-13; 그리고 더욱 짙막한 마르 1,12-13)에서 표현된다. 그것은 주님의 생애에서 있었던 초기 이야기일 뿐 아니라, 특히 복음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증명될 그분의 역사적 활동의 범례이다(히브 12,2).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역사의 한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있었던 일과 악마와 대적하여 승리한 새 아담(로마 5,14; 1코린 15,45) 사이에 "유형학적"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이야기 사이의 유비는 금지된 나무 열매를 따 먹은 선조들의 불순종의 대상인 음식의 모티프에서 식별될 수 있다. 오랫동안 단식으로 허기가 지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에만 배타적으로 머물기 위하여 "빵"을 포기하신다(마태 4,4).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창세 3장에서 불순종은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지만(창세 3,5), 예수님의 경우, 유혹이 "하느님의 아들"의 조건에 머물러 있지만(마태 4,3,6; 루카 4,3,9),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셨다는 사실이다.

마태오와 루카의 복음은 삼중의 유혹을 묘사하면서 모두 광야에서 있었던 일로 표현한다(마태 4,1; 루카 4,1; 그리고 또한 마르 1,12). 그러므로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유형학적" 대조, 곧 주님의 맏아들이며(탈출 4,22) 사십 년 동안 주님을 거역한(신명 9,7)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사십 일(그분의 실존을 상징하는) 동안 유순하고 의로움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아들 사이의 대조가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만나와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하여 불평하였고(탈출 16,2-3; 민수 11,4-6), 믿음의 부족으로 주님을 시험하였으며(탈출 17,2,7; 민수 14,22),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였다(탈출 32,1-6). 주 예수님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마태 4,4; 루카 4,4),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며(마태 4,7; 루카 4,18), 하느님만 흠송하기 위하여 일체의 우상 숭배를 포기한다(마태 4,10; 루카 4,8)고 단언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거슬러 승리하였다.

루카는 예수님의 승리의 표징으로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 오는 "천사들"의 개입을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를 끝낸다(마태 4,11; 마르 1,12). 그 대신 루카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kairos)를 노리며 그분[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루카 4,13)라는 말을 덧붙인다. 루카는 유혹자가 다시 나타나게 될(루카 22,3,31; 요한 13,27) "시험"의 때를 암시하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최후 선택을 하실 것이다.

사탄에 대한 승리

315. 예수님은 단순히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악마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기만하며 더 나아가 노예처럼 굴복시키기까지 하는 저 최악의 힘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이다(마태 12,28-30; 루카 13,16; 히브 2,14-15). 그러므로 복음서들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자주 언급한다(마르 1,23-27; 3,11; 5,1-20; 7,25-30; 9,14-29). 이 이야기들에서 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위(exousia)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치유하여(마태 4,24; 9,32-33; 12,22; 참조: 사도 10,38)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마르 5,15-20). 이런 일을 하는 데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자기 가족을 방주에 데리고 들어간 노아, 또는 그의 중재로 이스라엘에 내리려는 주님의 분노를 멈추게 한 모세, 또는 용기 있게 이방인들에게 종속된 백성을 용기 있게 해방한 여러 판관들과 지도자들처럼 고대의 "의인들" 역시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시다. 왜냐하면 악으로 이끄는 저 힘의 존재를 사람들의 마음에서 빼내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을 선택하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자들이 주장한 회개는 개인의 좋은 뜻에 의해서만 실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합하여 실현된다.

마귀를 쫓아내는 유사한 힘이 당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마태 10,1; 마르 3,15; 루카 9,1).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마르 16,17; 루카 10,17).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

스도교 공동체의 항구한 사명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몸소 인류의 적대자를 영원히 파멸시키실 때까지 사탄과의 싸움은 항구하게 제기될 것이다(로마 16,20).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의화

316. 사도 바오로는 복음서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인정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확증한다. 사도는 복잡한 교의를 발전시키면서 "의로움"에 반대되는 현실인 "죄"와 관련하여 그 가치를 명확히 밝힌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의 주요한 논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바오로의 의도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로마 1,16)인 복음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가를 보여 주려고 한다(로마 3,21-26).

사람은 모두 죄인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에서 바오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로마 3,23; 또한 로마 3,9도 참조) 하고 말한다. 이 추정은 먼저 예언자들의 역사 "비전"의 결과로서 인간의 현실에 대한 고찰에 의해 먼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인간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로마 1,18), 우상 숭배, 타락과 폭력(로마 1,1-32)이 드러난다. 또한 주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는"(로마

2,1)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한다(로마 2,23). 그러므로 바오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선언한 것과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옛 성경의 전통이 선언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들인다. 사실 그는 - 성경의 증언으로서 - 시편들과 이사야서의 본문들을 연속적으로 인용한다. 그는 시편 14,3 또는 시편 53,4을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하여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로마 3,10) 하고 말한다. 그것은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난다"(로마 3,19)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바오로는 창세 3의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 역사의 기원을 지적하며 자신의 접근 방식을 되풀이한다. 그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로마 5,12; 또한 1코린 15,21 참조)을 강조한다. 그는 명백히 아담을 가리키지만(로마 5,14; 참조: 1코린 15,22), 명사 anthropos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불순종"(parakoe)(로마 5,19), "위반"(parabasis)(로마 5,14), "범죄"(paraptoma)(로마 5,15.18.20)는 첫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범죄는 유죄 판결(katakrima)(로마 5,16-17)과 죽음(thanatos)(로마 5,12.14.17.21)을 초래하였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로마 5,15).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다

317. 사도 바오로의 복잡하고 긴 이러한 논증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부여된 "은총"(charis)의

선물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로마 5,2.15.17.20).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typos)이며(로마 5,14), 그리스도는 아담의 반대 유형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순종"(hypakoe)(로마 5,19)으로 "의로움/무죄 선언"(dikaioma)(로마 5,16.18)과 생명(zoe)(로마 5,17-18)을 선사하셨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hamartoloi)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oi polloi)가 의로운 사람(dikaioi)이 될 것입니다"(로마 5,19).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로마 5,21).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 수신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예를 들어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듯이) 옛 계약의 권면을 정확하게 되풀이하지 않는다. 사실 사도는 더욱 정확하게 "믿음의 순종"(로마 1,5; 16,26; 마르 3,15; 로마 15,18도 참조)에 대해 말한다. 믿음의 순종은 은총의 선물에 순종하는 것이며 사람을 변형시켜 그에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능력을 부여한다(로마 8,3-4).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로마 3,27; 4,2 참조).

인간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구원 개입이 나타나는 신약성서의 이러한 공헌과 더불어 우리는 바로 이 주제를 폭넓게 발전시킬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한다.

3. 죄인들의 역사에 하느님의 개입

318. 남자와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원 이야기(창세 3,8-24)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읽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느님의 징벌적 개입으로 해석되었다. 여기에 서부터 죽어야 할 인간 조건이 결정되었으며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 외에도 인간은 더욱 쉽게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본문을 해설하면서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본문은 고통스러운 조치를 공표하는 행위로 주님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법적 성격의 단순한 제재 행위로 되돌려져서는 안 된다. 특히 주님의 계명에 따르면(창세 2,17) 선조들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바로 그 날" 적용되어야 했던 사형은 사실상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다른 징벌 조치들은 예상되는 제재에 비해 미미하다. 또한 창세 3장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내적 결함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죄의 사건이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공동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이 그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곧 보게 되듯이 그분은 항상 인간의 선을 위해서만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도덕적 결함이 사람들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조건짓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들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모든 행위는 죄에 따르는 제재 명령에서부터 시작하여 항상 사람들의 선을 지향하고 있다. 창조주께서 선조들의 가련한 알몸에 입혀 주신 가죽옷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사는 것이다(에제 18,23,32; 33,11).

창세 3,8-24

⁸그들[남자와 여자]은 주 하느님께서 낮의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qol)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⁹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⁰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¹¹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¹²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natan)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natan) (제가) 먹었습니다.”

¹³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¹⁴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¹⁵나는 너와 그 여

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16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17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qol)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adamah)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18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19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adamah)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21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22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salah)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23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에덴동산에서 내치시어(salah), 그가 생겨 나

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²⁴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질문하신다(8-13절). (2) 이어서 주인공들에게, 곧 뱀에서 시작하여 여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남자에게 규율을 공표하신다(14-19절). (3) 끝으로, 하느님께서는 위반자들에 대해 즉각적 결정들을 내리신다.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고 동산에서 내쫓으신다(20-24절). 우리는 번역에서 몇몇 히브리어 용어들을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그것은 현대 번역본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호관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1)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8-13절)

319. 하느님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과 만나신다. 하느님은 동산에 있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하면서 은밀한 방식으로 만나신다(8절). 하느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느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이 잘못된 그곳에 오신다. 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마치 그분의 습관이더라도 한 것처럼 동산에서 "거니시는" 창조주라는 생각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은 그분이 "저녁 산들바람 속에" 오신다고 하는데(8절), 이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지만, 사용된 용어들의 상징적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 "바람"(ruah)은 "정의로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며

(이사 4,4; 11,4; 28,6), 악한 것을 골라내어 흩어버릴 것이다(시편 1,4). "낮 또는 날"은 빛의 표명으로서 성경에서 정의를 실천하기에 적합한 때이다(2사무 15,2; 스바 2,3; 3,5,8). 다른 한편, 죄 때문에 죽음의 전조였던 "날"(창세 2,17)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과 일치한다.

사람들은 동산에서 하느님이 오심으로써 생겨나는 "소리"(qol)를 "듣는다"(sama')(8,10절). 그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속임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17절), 하느님의 존재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느님 앞을 피하게 한다. 남자와 여자는 빛에게 나아가는 대신(요한 3,20), 마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나무 사이에 숨는다(8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람을 "부르시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9절). 달리 말해 진리와 대면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은 의문문 형태를 취한다: "너 어디 있느냐?"(9절);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11-12절);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11-12절);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13절). 그런데 이는 창조주가 'adam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거나, 선고를 내리기 위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판사의 심문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죄 당사자의 책임을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죄악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질문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향

한다. 그들만이 정의의 길로서 죄를 인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주님은 사람(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여자에게도 똑같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다(9.11절). 주님의 질문은 "두려움"의 경험을 하게 하며, 동시에 "알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하여 주님을 피하여 숨게 한다. 어떤 죄의식이 솟아나는 것 같다. 그러나 금지된 열매를 "먹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자는 그 탓을 여자에게 돌리며,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12절)를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느님께 탓을 돌린다. 그러므로 진정한 고백이 없고, 자비를 얻기 위한 동작이 없다.

여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13절). 여자는 열매를 먹었음을 인정하지만, 뱀(아마도 위험한 책략을 가진 뱀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암시하면서)에게 속았다고 말하면서 핑계를 댈다. 어디에서도 참회가 표현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의 개입은 교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2) 주님이 공표하신 규율들(14-19절)

320. 남자는 여자에게 탓을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탓을 돌렸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언급된 장본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순서를 바꾸어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편집자의 문체적 관리를 보여 주는 두 개의 문학 장치에 주목한다. (1) 첫째는 하느님의 명령의 수신자들 사이의 정확한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장치다. 뱀에게 말하면서(14-15절), 여자가

떠오르고(15절), 여자를 위한 자리(16절)에서 남자가 언급된다(16ㄴ절). 또한 행하여진 것에 대한 대위법으로 뱀(피는 데 성공한)에게 여자가 자기 후손을 통해 우세할 것이라고 말한다(15절). 여자(남자를 공범으로 만들었던)에게 남자가 그녀를 "지배할 것"이라고 선언된다(16ㄴ절). 그리고 남자(아무런 수고 없이 여자에게 음식을 받았던)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고된다. (2) 두 번째 장치는 수사학적 순서를 따른다. 본문의 편찬은 뱀의 단죄(14절)와 남자의 단죄(17-19절) 사이에 포괄용법을 제시한다. 사실 인용된 구절들에는 "저주"의 모티프가 나타나며, 징벌은 "사는 동안 줄곧" 계속되는 "먹는" 일에서 정점에 이르며, "흠"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 오로지 뱀과 남자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전에 그 이유를 밝히는 동기절("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이 먼저 제시된다. 장본인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선언들을 고립된 것(그리고 한 인물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한다.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14절). 왜냐하면 인간의 원수의 모습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지를 먹으리라"고 저주를 받았다. 달리 말해 뱀은 죽음의 표지를 먹어야 하며 배를 채우는 대신 죽일 것이다. 여전히 사람의 후손을 음흉하게 공격할 수 있겠지만, 뱀에게는 이미 패배가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이 동물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며 유혹의 기관이기도 한)는 바로 자기 후손을 통해 승리하는 여자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예고

에서 악을 전멸하는 데 공동 협력자인 동정녀와 그리스도의 예언을 볼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에게 대하여 "고통"('issabon)(16절과 17절)을 예고하였다. 고통은 여자와 남자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는 바로 그 잠재력을 건드리게 된다. 먼저 자식들을 낳는 일과 다음으로 노동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일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느님은 그런 활동을 고통과 노고가 되도록 표시하여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321. 두 가지 관찰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1) 여자에게는 "네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6ㄴ절). 명사 tesuqah(갈망, 정열)는 창세 4,7에서처럼 부정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창세 4,7에서 이 명사는 사람을 노리며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죄악"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명사는 아가 7,11에서처럼 긍정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아가에서 이 명사는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16ㄴ절의 표현은 출산에 관한 언급(16ㄱ절)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사가 자기를 어머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여자의 갈망을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성서 이야기들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갈망 - 보호를 찾는 것이기도 한 - 에 남자가 "주인"(masal)이 되리라는 말이 병치되어 있다(창세 4,7도 참조). 이는 마치 위험한 어떤 것에 거는 제동과 같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단언하는 것으로 본다(그리고 이런 조

치는 여자에 대한 징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죄악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꾸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적) 매력 - 아가 7,11에서 알 수 있듯이 - 은 아버지가 되려는 열망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해당된다. 그런데 만약 "지배"가 탄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규율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면, 남편 역시 어느 정도 상호 동의로 후손을 낳는 데 있어 아내에 의해 제어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자에게 예고된 결과들도 고려한다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2) 고대 세계에서 밭을 경작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수고(17-19절)는 남성의 장점이 될 수 없다. 매일의 노동의 고생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며 - 잠언 31,10-31을 고려한다면, -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은 특히 여자다. 이 밖에도, "먼지로 돌아가리라"(19절)는 말은 분명히 남성에게만 유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몇 구절 뒤로 돌아간다면, 뱀은 여자에게만 위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15절), 사람의 후손 모두를 공격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을 하면서 주의 깊게 검토할 때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실증되지 않은 관습들이나 규칙들을 부적절하게 보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원의 본문들을 해석하도록 초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은 인간에게 엄밀한 의미의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록 이것이 현대의 해석 흐름이

었다고 하더라도(아마 지혜 2,23-24에 의존하여), 창세 3장의 본문은 사람('adam)이 "흙('adamah)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의 모든 날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성 - 우연한 존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 은 잃어버린 선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미래의 약속으로 여겨져야 한다.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에 다가갈 것이다.

(3) 실행 조치들(20-24절)

322. 말에 행동이 뒤따른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행동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고,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 놀랍다. 남자는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름을 주며 하와라 한 것은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20절)이라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여자의 자녀들의 탄생과 더불어 곧바로 이야기된 것(창세 4,1; 또한 창세 4,25도 참조)을 칭송하는 형태로 예기적으로 선포된다. 설화자의 설명은 바로 앞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19절)이 생명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의 예언자적으로 생명체들의 불특정의 후손 - 사람에게서 태어난 - 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내에게서 영광의 칭호를 인식하는 것은 남편이다. 해산의 고통과 남성의 "지배"로 굴욕을 당할 수 있었고/당해야 했던 그녀는 그의 풍요 덕분에 칭송을 받는다. 끝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의 변화 대신(16-17절), 남자가 여자의 영광을 선언한다. 이미 이것은 인간 역사 안에 조직적이며 숙명적 쇠퇴 과

정들을 도입하지 않도록 도와 준다. 과거의 죄가 다음에 오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반드시 비참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편에서 두 가지 실행 조치를 선언하신다. 첫째는 하느님의 이전 말씀(16-19절)의 단순한 징벌적 해석에 정반대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할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이다(21절). 카인의 형제 살해가 있는 뒤에도 주님은 죄인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비로운 표를 찍어 주신다(창세 4,15).

323. 성서 전통에서 **의복**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천적 기능도 있지만, 상징적 가치를 가진 기능도 있다. 그러므로 옷은 사람에게 주요 요구들에 포함되며(시라 29,21; 참조: 창세 28,20), 동시에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 준다.

인간의 몸은 추위를 막기 위하여 옷을 입어야 한다. 신생아는 아기의 일차적 보호로 포대기로 싸 주어야 한다(에제 16,4; 루카 2,7,12). 가난한 이의 겉옷은 몸을 따뜻하게 덮이기 위한 모포다(탈출 22,26). "알몸"인 사람, 또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횡포에 의해 "알몸이 된 사람"(욥 24,7,9-10)은 죽음의 위협을 겪는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광야의 사십 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하였고(신명 8,4; 29,4), "선조들"이 반역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셨다. 위반으로 인하여 그들의 알몸이 드러나게 된 뒤에도 창조주께서 선조들을 입혀 주신 사실은 자비의 명백한 표식이다. 알몸에 옷을 입는 것은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다(이사

58,7; 마태 25,36).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행하심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성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도 사람을 보호한다. 옷은 자유분방한 욕정에 대해 세워놓은 정결의 장벽과 같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의 "알몸을 드러내다" 또는 "치부를 드러내다"라는 성서의 표현은 부적절한 성 관계를 암시한다(레위 20,11-21). 노아의 알몸을 "본" 함의 태도는 아버지의 존엄에 유해한 행동으로 해석되었지만, 셈과 야벳은 존경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겉옷을 집어 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 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창세 9,23). 창세 3,21의 가죽옷은 성적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의복은 개인에게 "신분"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을 특징짓는다(이사 3,6-7). 남자는 여자와 다른 복장을 한다(신명 22,5; 이사 3,18-24). 귀중한 옷은 부자들이 입고(루카 16,19)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판관 14,12-13,19). 임금은 그의 의복으로 구분될 것이며(1사무 28,8; 1열왕 22,30-33), 왕비는 화려한 옷으로 구별되고(예제 16,10-13; 시편 45,14-15), 사제는 그의 제복으로 구별된다(탈출 28,31-35; 39,22-29; 시라 50,11). 그리고 예언자는 때로 그의 이상한 옷으로 식별된다(2열왕 1,8; 마태 3,4). 임금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한다(마태 22,11-12). 자루옷을 입고 옷을 찢는 행위는 겸허한 참회의 표지다(2열왕 19,1-2; 이사 37,1; 예레 4,8; 미카 1,8).

이와 달리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는 행위는 단죄를 받은 사람에게 치욕적 처벌이 될 수 있다(예레 13,22,26; 에제 16,39; 호세 2,5).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혀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마르 15,17-20).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옷을 벗기우는 굴욕을 당하셨다(마르 15,24). 루카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죄를 지은)에게 다시 좋은 옷을 입혀(루카 15,22) 아들의 존엄을 다시 주었다. 그리고 창세 3,21의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두렁이를 대체하며(창세 3,7) 그와 같이 용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4.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22-24절). 그런 결정을 내린 동기는 주님의 독백에서 나타난다. 주님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고 확인하신다. 사람의 "본성"은 위반과 함께 (더 좋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사람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서 하느님처럼 되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내쫓는" 하느님의 결정을 확정하여 하느님은 사람에게 더 이상 생명의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다. 문 앞에 커룹들을 세워 인간에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의 해석 노선과 일치하여 창조주의 이 마지막 결정 역시 섭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피조물에게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가로채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선사되었을 때만 비로소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의 특질은 하느님에 의해 부과된 한계들을 강요하려고 하

지 않고, 동산의 문이 다시 열려 어리석고 오만한 탐욕 때문에 가지려고 하였던 것을 은총으로 받게 되기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추구될 것이다.

율법과 예언서들의 증언

325. 창세 3장에서 기획적으로 입증된 것에 뒤이어 성서 전통은 사람이 위반 행위에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질책한다. 모든 사람이 항상 죄인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보편적 잘못은 비참한 결과에서 오는 역사적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아버지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인간사에 개입하신다.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판사에 의해 판결된 정확한 억압 처분과 똑같은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진술한다. 재판관은 범인에게 공정성과 엄격함을 갖춘 합당한 처벌을 한다. 그러므로 성서 본문들의 해석에서 "사법" 범주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구조들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규율이다. 그러나 구약성서 특히 신약성서의 성경은 하느님의 행위를 심판관으로서뿐 아니라, 아버지로서 예상한다. 달리 말해, 영감을 받은 말씀은 두 가지 절차, 곧 사람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두 가지 길을 가리킨다. 두 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방식이며 정의의 길로 구현되므로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은 하느님의 본질을 타고

난 선의 의지의 표현이다. 첫째는 "심판"(mispat)의 방식이며, 여기에서 하느님은 판관으로 개입하신다. 둘째는 "말다툼" 또는 "분쟁"(rib)이며, 여기에서 하느님은 아버지로 행동하신다.

성서 본문에 의해 공통된 법률 어휘로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명확한 절차적 규율을 가진 특별한 규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하느님과 하느님의 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그런 절차들은 "문학 유형들"이 되며, 근본주의적 독서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달리 말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1) 판관이신 하느님

326. 한 사람은 무죄한 모습을 갖고 있고(피해자, 희생자, 고통을 받는 자), 다른 한 사람은 유죄의 모습(악인, 공격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인 두 주체 사이에 생긴 **투쟁의** 상황을 정의에 입각하여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때마다 하느님의 개념을 판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묘사된 법적 구조에는 세 주체, 곧 판사, 피고, 원고가 포함된다. 판사는 "둘 사이를 판단하여"(참조: 창세 16,5; 신명 1,16; 판관 11,27; 1사무 24,13,16; 예제 34,20; 시편 75,8)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정의하고, 그들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인용해야 한다(시편 28,4; 잠언 12,14; 24,12; 시라 16,13,15; 로마 2,6; 1베드 1,17; 묵시 20,12; 22,12). 이 제도적 장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권리의 침해를 받은 희생자를 위한 **구원** 활동

으로, 다른 한편,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범한 죄악을 징벌하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 행위로 처리하게 한다(참조: 1열왕 8,32; 시편 9,4-5; 코헬 3,17; 시라 35,21-25).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똑같은 보상을 부과한다(탈출 21,18-19; 22,21-3; 신명 22,18-19). 자주 성서 저자는 하느님의 심판의 두 가지 지침 가운데 하나만 표현하며 대체로 처벌의 적용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다른 지침 - 개입의 자비로운 차원을 제시하는 - 은 내포되어 있거나 더욱 광범한 문학적 맥락 안에서 언급된다.

이 문학 유형의 가치

327. 하느님의 일은 모두 완전하기 때문에(신명 32,4; 시편 33,4; 89,15), 재판관으로서의 그분의 행위는 선을 장려하는 완전한 표현일 수 밖에 없다. 사실 하느님의 왕좌는 지고한 정의의 여좌로 여겨진다(시편 9,5,8; 47,9; 97,2). 왜냐하면 (1) 당신의 과제를 실현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시편 7,12; 45,7; 82,8), 사실 하느님은 마음의 비밀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1열왕 8,39; 예레 17,10; 시편 94,9; 잠언 5,21; 15,3; 17,3; 지혜 1,6-10; 시라 15,18-20; 23,19-21),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인도 그분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나훔 1,6; 시편 10,18; 66,7; 76,8-9.13; 82,1-8). (2) 그것은 또한 모든 불의한 인간의 평결을 보충하는 일종의 항소법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고하다(이사 3,14-15; 시편 82,2-7). (3) 끝으로, 온 세상의 군주(창세 18,15; 신명 10,14)께서 우주 전체에 당신의 사법권을 확대하여 역사의 모든 시대에 모든 백성을 당신의 재판에 종속시키기 때문

에 지고하다(시편 9,8-9).

재판관이신 하느님 개념의 문제와 한계

328. 재판관이신 하느님의 표상은 함부로 적용되면, 성서 본문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당혹감과 심지어 비판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모든 불운이 정확히 하느님의 징벌적 제재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사실 욥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인공의 정의의 인식을 지지하는 강력한 변호이다. 주인공은 겪고 있는 불행에 상응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불행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로 엄격하고 조직적인 보상 이론의 개선으로 이와 다른 사고 노선이 발전하였다. 이 노선은 의인의 고난과 고통을 "의인" - 아브라함(창세 22,1)부터 "고통 받는 종"(이사 53,7-10)과 지혜서의 박해 받는 사람(질혜 2,19)에 이르기까지 - 에게 주님께서 몸소 원하시고 시행하신 하나의 **시험**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은 사람의 충실성을 시험해보고 하느님과의 성실하고 사심이 없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신명 8,2; 13,4; 판관 2,22; 이사 53,4,12; 시편 66,10; 욥 1,9-11).

이 밖에도 특히 지혜 전통에서는 재판 기관의 직접적 개입에 관계 없이 최악의 제재 역학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범법자는 자신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 제시되었다. 잠언의 격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령을 파는 자는 제가 그곳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제가 그것에 치인

다”(잠언 26,27; 또한 참조: 시편 9,16-17; 35,8; 37,15; 57,7; 잠언 1,18,32; 8,36; 11,27; 욥 4,8; 코헬 10,8; 지혜 1,16; 11,16; 시라 27,25-27).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인들 자신(과 때로는 예언자들도)이 세상에 실제로 정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악인들은 아무 제재 없이 번성하며 희생자들은 치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지속된다. 달리 말해 역사 안에 항구하게 있는 일이다(예레 12,1-2; 하바 1,2-4,13; 시편 13,2-3; 73,2-12; 욥 9,7; 21,5-18; 24,2-17; 코헬 7,15). 그와 같은 극적 관찰은 재판관으로서의 과제에서 주님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스바 1,12; 말라 2,17; 시편 10,13; 73,11; 욥 21,7-21; 지혜 2,18-20), 심지어 세상에서의 그분의 현존에 대해서까지 의의를 제기한다(미카 7,10; 시편 10,4; 14,1; 42,4,11). 왜 하느님은 개입하지 않는가? 왜 하느님은 희생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느님은 악인이 폭력을 사용하도록 용인하시는가?(하바 1,2-4; 시편 94,20). 이런 종류의 물음들은 성서 본문에 특히 빈번하게 되풀이된다.

하느님의 자유로운 결단

329.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의미 있는 대답 노선은 실제로 하느님이 인간 역사의 재판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 방식이 반드시 제재 절차의 규율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항구하게 인간사의 모든

주인공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선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제재 조치로 즉시 개입하는 대신, 하느님은 말을 통해 정의의 중재자가 되도록 **예언자들**을 일으키신다(참조: 창세 18,17.22-33; 탈출 32,7; 1사무 3,11-14; 요나 1,2; 3,4; 4,11). 이는 재판관이 아니라 구세주가 하시는 일이다.

예언자들의 주요 과제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고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숨기며,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죄의 전제로서가 아니다. 사실 예언의 사명은 항상 악인들의 **회개**, 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선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전망에서 예언자들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에제 33,11) 주님의 구원의 뜻의 해석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중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죄인들에 대해 하느님의 행위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의로운 재판관에 의해 실행된 사법 절차만 보아서는 안 되며(만에 하나 방종에 대한 시정과 함께), 일에서 다른 행위 방식, 곧 불순종하는 당신 자녀들에 대해 아버지의 행위 방식을 볼 필요가 있다.

(2) 아버지 하느님

330. 만약 우리가 "역사"의 지속, 달리 말해 사람에게 자유로운 결정을 행사하도록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고려한다면, 대체로 성서 본문에 전달된 하느님의 표상은 두 경쟁자 사이에서 결정하며 악인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을 부여하는 판관의 표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예언 문학(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바로 그것)에서 체계적인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주님은 자유롭게 체결된 조약에 기록된 권리와 의무의 이름으로 상대방(이스라엘)에게 비난할 만한 태도들을 논박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 전망에서 고발인의 입장을 취하며 판관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한 절차 -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과 정의를 존중하는 규율이 있는 - 는 법정에서 시행된 법적 판단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rib)에 동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분쟁은 제3자의 존재 없이 두 주체 사이에서 생겨난다. 왜냐하면 두 경쟁자보다 상위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관계가 결정적으로 파기될 위험으로 대중을 분열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로써가 아니면, 소송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이 순수한 사랑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신명 7,7-8; 10,15). 그러므로 떠맡은 과제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관계의 파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정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따라서 신적 원고가 추구하는 것은 순종과 공정(인간적) 태도의 기초로서 (주님의) 용

서로 실현된 화해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체의 역동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분쟁은 죄를 지은 당신 백성에 대한 주님의 **역사적 행동**을 더욱 적절하게 해석하는 "문학 유형"을 형성한다.

성경은 원고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표상들을 이용한다. 때로 주님은 자기의 봉신의 불충실한 태도를 고발하는 군주로 보인다(이사 1,24; 미카 1,2-7; 6,1-8; 말라 1,6; 시편 50,1-6). 또 어떤 때에는 주님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처럼 보인다(예레 3,1-4; 호세 2,4). 그런가 하면 주님은 반역한 자식들과 맞붙어 싸우는 아버지와 비교되기도 한다(신명 32,5-6; 이사 1,2-4; 예레 3,19); 호세 11,1; 말라 1,6). 하느님의 아버지 표상은 가족의 법적 다툼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준다. 사실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주도로 관계를 시작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공적으로 인정된 권위의 역할을 갖고 있다(아버지는 *pater familias*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 아버지는 자식들의 태도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을 지며, 가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지혜적, 애정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역할을 가진 아버지의 표상은 새 계약의 표현으로서 신약성서의 계시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주님과 그 백성 사이의 가족 소송의 역동성은 하느님이 세 번에 걸쳐 차례로 개입하시는 데에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돕는 말씀

331. 논쟁 중의 상대방에게 침묵을 부과하면서(고발에 대해서든 변호에 대해서든) 선고를 인용하는 - 잘못을 실증하고 - 재판관과 달리, 아버지는 분쟁에 개입하여 죄인의 응답을 요구한다(미카 6,3). 죄악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는 반역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죄악을 비난한다(참조: 여호 7,19; 이사 59,12; 예레 2,19; 3,13; 14,20; 시편 32,5; 시편 51,5; 잠언 28,13). 그 말의 목적은 성찰하고 자극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예언) 말씀은 (법정에서처럼) 되돌릴 수 없는 선고문의 인용이지만, 항상 새 삶을 제공한다.

특정한 경우, 죄인은 명백한 고백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예레 3,22-25; 시편 106,5; 느헤 9,33; 다니 9,5-11),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단식을 하고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이(이사 1,11-13; 예레 4,8; 요엘 1,13-14; 2,15; 요나 3,5-8), 자신의 참회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들을 결심한다. 이 모든 것은 용서를 얻기 위해서다(호세 14,3-4; 시편 51,1-6). 그러나 하느님은 악인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자주 보신다. 말로 하는 선언이 신실하지 않으며 참회 의식들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연출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충실하고 이웃에게 공정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사 1,16-17; 58,3-7; 예레 6,20; 7,21-23; 야모 5,21-24). 실제로 주님이 진정한 참회의 표지로 요구하시는 것은 미카 6,8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나) 경고 조치, 곧 교정 도구의 사용

332. 분노 중에 발설된 원고이신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은 많은 경우, 아니 거의 항상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며(잠언 3,12; 13,24; 19,18; 22,15; 23,13-14; 29,15,17; 시라 22,6) 그를 잃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조치는 크게 자비로운 것은 아니지만 죄인에게 자기 행위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의 관계로 되 돌아오려는 염원을 그에게 불러일으킨다(이사 1,5; 27,7-9; 예레 2,30; 호세 2,9; 아모 4,6-11). 징벌은 치료 약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법적 절차(사법 절차에서 있는 일이듯이)를 마감하는 제재가 아니라, 일시적 조정이며 일종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예비 단계다(신명 32,39; 예레 33,4-9; 2역대 7,13-14; 지혜 16,10-13; 토빗 13,2).

(다) 용서와 새 계약

333.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을 때 고발에 대한 법적 행동의 결과를 얻는다. 아버지는 항상 그것을 염원하지만, 용서 행위는 죄인이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과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때 실현된다. 사실 참회는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커다란 자비에 맡기면서 표현되며(시편 51,3), 계명들에 순종하려는 진실한

결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rib의 최종 사건은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자유로운 동의의 갱신된 만남,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힘을 칭송하게 하는 진리의 만남으로 실현된다. 구약성서의 전체 예언 메시지는 이 사건의 약속이며, 신약성서 전체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서 동일한 자비의 봉인 아래 모인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것과 더불어 역사의 의미로 예고되었던 것이 경이롭게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34. 성서 역사는 예언자들에 의해, 곧 하느님께서 사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보는" 저자들에 의해 이야기 된다. 그러므로 성서 역사는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때로는 자유로 가득 채우고 때로는 잘못된 행위들을 너그럽게 고치면서 활동하시는가를 보여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영감을 받은 설화자는 일어나는 것을 **해석한다**. 곧,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귀를 기울여 청취하려는 순수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보게 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보게" 해 줄 목적으로 사실들을 선별하고 서로 연결하여 정확하게 묘사한다. 만약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이 매일같이 정복과 실패를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 영위해야 할 인간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성서에 따르면 그것은 진실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약의 역사이다. 그 역사 안에서 사람들, 곧 당신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영원한 충실성이 드러난다.

주기적 경향

335. 바로 이와 같은 전체적 개념으로 인하여, 예언 이야기는 인간과 하느님의 동일한 영적 조건들이 그대로 지속되는 까닭에 인물들의 다양성도 시간적 조건들의 변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종의 주기적 또는 반복적 움직임으로 제시된다. 이는 판관기에서 범례적으로 증명된다. 판관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자율적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들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다. 판에 박은 듯한 일종의 "문학 도식"은 모든 인간사를 위한 독서의 열쇠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 주님은 항상 동일하며 역사가 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 양식의 명백한 예는 판관기 앞 부분, 곧 판관 2,1-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요한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상 숭배의 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판관 2,11-12). 주님에 대한 반역은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증명된다(판관 2,10).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유혹하는 뜻이 되지 않도록(탈출 23,33; 신명 7,25) 제거하라고 요청하신 주변 민족들의 바로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들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간의 단절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출발점은 위반이며 하느님의 선물

을 인식하지 않은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 **하느님의 진노.** 백성의 잘못된 선택은 하느님의 "화를 돋우며"(판관 2,12), 그분의 반응이 터져나오게 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판관 2,14). 분노의 신인동형적 표상으로 주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에 큰 상처를 입은 분에 비교된다. 그분은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시고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이는 죄인들의 죽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굴욕으로, 일종의 노예살이로 끌어내림으로써(이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는" 표상으로 표현된다) 실현된다. 여기에서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분에 의해 실행된 본래의 구원 사건의 역사적 적대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시나이 계약의 "저주"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하느님의 표상에 대한 무시무시한 사건이다(레위 26,17,33; 신명 28,64-68). 그와 비슷한 조치는 악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사실상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며(신명 5,9; 판관 2,11,13,19), 계약을 맺은 주변 나라들은 실제로 난폭한 원수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죄인들에 대한 "시험"(판관 2,22)이며 생명의 샘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구원 개입**. 사실 노예살이는 고된 상태다. 백성은 "심한 곤경에 빠지는 것"(판관 2,15)이며 따라서 억압과 그들이 당하는 혹사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온다"(파관 2,18). 이와 동시에 그것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며(참조: 탈출 2,23-25; 신명 26,7-8; 판관 3,9.15; 4,3; 6,6; 10,10.12),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신다: "주님께서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판관 2,16). 우리는 여기에서 사건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만드는 결론적인 구원 사건이 명확히 설명되고 있음을 본다. 하느님은 중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여기에서 중재자들은 "판관들"이라 불린다. 그들이 판관으로 불리는 것은 법정에서 심판하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이들을 해방하는(하느님의 규칙에 따라 순종으로 실행되는 전투를 통하여) 정의의 과제가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죄악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주기는 시대마다 조금씩 오차를 보이면서 되풀이된다(판관 2,17-20; 3,7). 한편으로, 사람들은 쉽게 속아넘어간다는 것이 확인된다(창세 3장의 이야기에서 증명되듯이). 다른 한편, 독자에게는 주님이 용서를 통하여 악을 선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하튼 주님의 구원의 선물은 역사 안에 놀랍고도 미래가 약속되는 어떤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같은 일의 반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이끄는 은총의 역동성이 있다.

역사의 발전과 완성

336. 같은 예언자들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은 유일한 사건들과 반복될 수 없는 사건들로 점철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인류의 태초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사악해져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기 위하여 홍수를 결정하셨다(창세 6,5,17). 그러나 그 기회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계약"이 세워지는데(창세 6,18; 9,8-11), 그것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창세 9,11)을 기억하게 될 무지개 표지로 영원한 계약으로 정의된다(창세 9,16). 성서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영원한 계약과 철회할 수 없는 자비의 행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이어서 성서 설화자는 역사의 정확한 순간들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며, 그때 주님은 다른 인물들과 특수한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개입으로 인간의 일들을 표시하시면서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이 아닌 새로운 일들로 표시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중심점으로서의 세 개의 특수한 사건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곧 세 개의 계약이 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특수한 약속들에 의해 표시된 날들을 시작한다.

(가)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과 축복의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계약의 백성으로 규정된다(창세 22,16-18; 26,3; 50,24).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우신다(창세 17,7,13,19). 이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일어난다. 이전의 어떤 것도 새로운 사실의 원인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사실 앞에서 제시한 주기적 도식과 비교해서 하느님은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시지 않는다. 필요에 앞서서 시간의 흐름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약속의 출현과 같이 그것은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하여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한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 시나이 계약은 이 계약에 기초하며(신명 7,7-8; 29,12), 성서 저자는 시나이 계약 역시 놀라운 계시의 선물로, 유일하고(신명 4,32-38), 영원한(신명 29,28; 시라 17,10; 로마 11,29) 성격을 가진 근본 체험으로 보았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 충실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당신의 약속을 "보존하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세 번째 결정적 계약, 곧 주님과 다윗의 계약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기로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맺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곧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제시될 것이며, "영원한 계약"이라 불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에 근본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임금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경우, 유익한 징벌로 내리시겠지만, 그들에게서 다시는 당신의 충실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사무 7,14-15; 23,5; 시편 89,31-38; 시라 47,22).

337. 이 계약들의 이름으로, 또 이 계약들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방식의 증인이 될 것이다. 희망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질 것이

며, 주님이 당신의 이 놀라운 선한 일을 완수하신다는 믿음도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왕국의 종말과 이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고통스러운 바빌론 유배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혼들이 길을 잃고 그들의 역사와 하느님과의 계약의 종말을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하느님의 모든 서약들과 약속들의 완성인 "새 계약"을 예고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다(이사 42,9; 43,18-19; 48,6-8; 65,17-20). 왜냐하면 이 조약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전에는 결코 실현된 적이 없던 충실과 사랑의 능력이 있는 새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 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예레 31,31,33-34).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에제 36,25-28; 또한 에제 11,19-20 참조).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이 놀라운 은총의 기적에서 실행된다. 당신 안에서 실행된 것으로 이를 선언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실 것이며, 유일한 보편적 구원의 사건으로 이를 증언할 사람은 복음서 저자들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본 역사

338.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억한 바와 같이, 현인들은 현실에 대해 보편적이며 항구한 구성 요소들을 고려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역사를 본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은 항상 똑같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헬렛의 서언이 상징적이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코헬 1,4).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코헬 1,9-10).

이와 유사한 확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 안에 새롭고 전대미문의 것이 솟아난다고 선언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그것을 부정한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이사 43,18-1).

이와 유사하게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에 관해 성찰하는 지혜 전통들이 있다. 인간의 이해는 이처럼 인간의 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 다가오는 빛으로 풍요로워진다.

339. 시라는 잠언적 경구들 수집을 마무리하면서 창조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기억한 뒤에(시라 42,15-43,33), 주님에 의해 영광스럽게 된 역사의 저명한 인물들을 열거한다(시라 44,2).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성서 전통이 말하는 사람들을 언급한다. 에녹부터(시라 44,16) 오니아스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대사제인 시몬(시라 50,1-21)에 이르기까지 독특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놀라운 특성을 가진 일련의 인물들이 비범한 사건들로 풍부한 역사의 증거로 열거된다. 이 명단에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진 죄에 관한 언급도 있지만(시라 45,18-19,23; 46,7,11; 47,11 등), 반복되는 계약들 - 노

아(시라 44,18)부터 아브라함(시라 44,20-21)에 이르기까지, 모세(시라 45,5)와 아론(시라 45,7,15)부터 다윗(시라 45,25; 47,11)까지 - 은 하나의 구원 역사를 증명하며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 주시는"(시라 50,22) 주님께 찬미를 드리도록 초대한다.

그러나 현인이 역사의 진행을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지혜 16,7)로 정의된,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지혜가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특히 지혜서에서다. 태초부터 하느님의 개입은 구원 행위로 제시된다. 아담(지혜 10,1-2), 홍수에 잠긴 땅(지혜 10,4), 롯(지혜 10,6) 등에 대하여, 매 이야기는 "지혜는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곤경에서 구해 내었다"(지혜 10,9)는 것을 밝혀 준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저자는 주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자비"를 사용하신다고 지적한다. 주님은 자식들을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인들을 시험하셨지만, 백성의 적대자들은 사람을 단죄하는 엄격한 임금처럼 철저히 조사하셨다(지혜 11,9-10). 만약 하느님은 항상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지혜 11,20) 처리하신다는 단언이 없었더라면, 이런 이분법은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느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고(지혜 11,15-16; 12,25), 참회하도록(지혜 1,23; 12,10,19-20) 이끌기 위하여 조금씩 꾸짖으신다(지혜 12,2).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의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기도에서 구원의 여정

340. 시편들은 신앙인이 자기 자신의 죄의 역사나 연대감을 느끼는 백성의 죄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구원 개입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흔적들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자는 주님의 꾸짖음과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참조: 시편 81,9-14; 95,8-11). 자기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청하게 된다(참조: 시편 6,2-3; 32,5; 38,5; 130,3-5), 이러한 영적 여정의 상징적 예는 시편 50과 51에서 볼 수 있다. 이 두 시편은 그 내적 관계 때문에 한 시편으로 읽어야 한다(중요한 어휘의 반복에 의해서도 표시된다).

시편 50은 기도 본문으로서 비정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시편은 마친 예언 말씀처럼 제시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광채와 함께 나타나시어(2-3절) 계약의 우주적 증인들을 부르시기 때문이다(4절).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제사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절차에 장엄함과 정의를 부여한다.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1.7절). 이 시편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반복한다. 우리가 예언 신탁들에서 읽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님은 무익하고 더 나아가 모욕적이기까지 한(마치 창조주가 경건한 자들의 제물을 먹을 필요라도 있는 것처럼) 제물들을 거절하신다(8-12절). 그리고 형제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을 명하는 계명들에서(16-20절)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명시된다(22-23절). 두 차례에 걸쳐 하느님께 찬양(todah) 제물을 바치라고 초대한다(14절과 23절). 주님

은 단순히 찬양하라는 초대 이상을 의미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악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신다. 죄의 고백은 구원하며(23절) 따라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15절) "올바른 길"의 첫 걸음이다.

시편 51 - 자비의 시편Miserere으로 알려져 있는 - 에서는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한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다. 또한 기도는 먼저 자비를 청한다. 더욱 정확히 말해 주님께서 자비로운 사랑을 드러내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지워 주시기를 청한다(2-4.11절). 이 청원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동반된다(5-8절).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슴속의 진실"이며 이러한 역설적 지혜이기 때문이다(8절). 그리고 나서 "죄 중에 태어났음"(7절)을 알고 있는 기도자는 하느님께 새로운 "마음"과 거룩한 "영"의 선물로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시어 언제나 선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청한다(12-14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며(17절),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고양된다. 왜냐하면 부서지고 꺾인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9절).

예수님 안에서 자비의 도래

341. 하느님의 예언은 성취된다. 사람의 기다림은 끝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은총의 도래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적 현실이 된다(마태 13,16-17; 1요한 1,1-4; 4,25-26; 9,35-37). 과거는 죄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제 가까이 다가

온(마태 4,17), 아니 전능하신 분의 구원의 힘으로 이미 도달한 하느님의 나라에 의해 빛나게 되었다(루카 11,2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요한 1,14-18).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은 구세주 예수 (마태 1,21)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자비를 계시하신다

342.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옛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곧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한다(요한 1,41,45). 예언을 이해하도록 당신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분도 바로 그분이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였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민족들을 위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솟아나온다(루카 24,46-47). 사실 믿

는 이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구원을 받는다(마르 16,16). 메시지는 예루살렘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이다(사도 1,8; 13,47). 은총의 성취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축복 안에서 모든 백성에게 확장되어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을 보편적이게 한다(사도 10,34-36).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주도적 사랑이 드러난다. 하느님은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서 데려오는 목자처럼 그들을 찾으러 나가신다(루카 15,4-6).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루카 5,31),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루카 19,10) 오셨다고 선언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시며(마르 2,15-17; 마태 11,19; 루카 5,29),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시고(마태 9,13), 하늘에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듯이 기뻐하신다(루카 15,7). 하느님에 대해 예고된 자비는 참회의 마음과 행위가 표현되지 않았을 때에도 용서가 이미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요한 8,10-11) 또는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들것에 달아 내려 보낸 중풍 병자(마르 2,5)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깨닫기도 전에(요한 13,7)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요한 13,1-11).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에게도 똑같이 하신다(요한 13,21). 주님의 용서는 고된 참회의 여정을 요구하지 않고, 성전에서의 세리처럼(루카 18,13-14), 거저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하고 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처럼, 단순히 자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어진다. 같은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하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셨다.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고백을 보지만(루카 15,21), 그 선언은 불완전한 참회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의 참회는 굶주린 배를 채울 약간의 빵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루카 15,17-20). 그렇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동기나 진실이 부족한 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는 놀라운 관대함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며 즐거운 잔치를 벌여 준다(루카 15,22-24). 자기 자신들의 활동에 만족하는 종교의 추종자들이 이런 일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음을 자랑하는 루카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에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루카 15,29).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다가가서 하느님의 자비의 역동성을 받아들이도록 달래면서, 교만한 이 큰아들이 이를 이해하고 큰아들 역시 기쁨으로 가득한 집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돌아온 놀라운 선물을 경

축할 것을 기대한다.

343. 예언의 성취, 곧 인간 역사 안에서 주님의 완전한 결정적 표명은 - 우리가 방금 제시한 것처럼 - 넘치도록 충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들의 표상은 구원의 도래를 지적하기 위하여 자주 과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가 "그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진다"(이사 30,26)고 단언할 때처럼 그 표상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사야 예언자가 "해는 너에게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달도 밤의 광채로 너에게 비추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너의 하느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어 주시리라"(이사 60,19; 참조: 묵시 21,13; 22,5)라고 말하는 다른 구절과의 관계 안에서 읽어야 할 약속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된 구원은 병자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는 힘의 가시적 현현에 대해서(만) 경탄할 것도 아니고, 한 마디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경탄할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치유와 참된 부활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사랑의 성령의 예리하고 달콤한 통교에 대해서 경탄해야 할 것이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 신약성서 본문의 해석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은 - 구약성서에서 하느님께 유보된 것이 이제 새 계약 안에서는 사람에게 의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변화의 결정적 표현은 바로 용서하는 힘으로 보여야 한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중풍 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 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마르 2,5-7) 하고 말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여전히 전대미문의 것으로서, 구원 역사의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인 베드로(마태 16,19)와 모든 사도들(요한 20,22-23),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마태 18,18)에게 동일한 "힘"을 주시는 순간에 실현된다.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형제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계명"으로 제시된다(마태 5,44-48).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때문이다(요한 13,34). 그런데 만약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정점을 이루는 용서하라는 규정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규정임을 뜻한다. 달리 말해, 하느님의 구원, 곧 그분의 용서는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현되지 않는다(마태 6,14-15; 18,28-35; 루카 6,37). 용서하는 데에서 받는다. 너무 "신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은총의 선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

로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의 유일한 기초인 성령께 탄원할 것이며, 아버지께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 안에서 그분과 비슷하게 되며 자비를 베풀 능력을 갖고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빛이 된다(마태 5,13).

보편적 구원

344. 사도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의 선포를 중심핵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에페 2,4-7).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메시지를 죄인들의 "의화"의 선포에 집중한다. 그것은 구원하는 용서를 표현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서는 그의 "복음"의 특수한 기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단지 몇 가지 주석만 덧붙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석은 자기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든 일체의 오만한 주장을 거슬러 바오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장한 은총

의 절대적 우선성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성취에서 피조물 전체가 관여된(로마 8,18-25) "새로운 피조물"이 도래한다(2코린 5,17; 갈라 6,15). 개념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에게 실재와 생명을 주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지, 사람들의 도덕적 노력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에페 2,8-10). 또한 바오로는 최고의 이 선물을 죄를 지은 인류의 역사적 파산 과정에 대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에 당신이 원하신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으로 소개한다(로마 8,28). 사실 사도는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로마 8,29-30)라고 말한다. 창조주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선사하신 "영광"(시편 8,6)은 실제로 구원의 은총의 마지막 사건에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느님의 승리를 사랑의 승리로 계시한다. 왜냐하면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기"(로마 8,39)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계약이며 불멸한다. 만약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공덕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charis)으로 거저(dorean)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로마 3,24). 사실 하느님께서서는 "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로마 5,8; 참조: 에페 2,11-18).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죽음 덕분에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사랑(agape),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갈라 5,22).

345. 그리고 그와 같은 무한한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졌다(사도 10,24-25). 이것이 바로 바오로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바오로는 이 토대 위에 할례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자랑을 없앨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무상성을 최대한도로 칭송하기 위해서도 싸웠다. 믿음은 모든 이에게 가능하다. 그리고 생명의 은총과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여하한 형태의 성취나 실천에 의해서가 아니라)을 통해서다(로마 5,1-2; 참조: 로마 3,27-30). 그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역동적이며 창의적 믿음이다(갈라 5,6).

바오로는 하느님과 받은 은총에 합당한 행위를 할 것을 권면하는 교훈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을 선행하고 토대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용서다. 주님은 용서로써 인류 전체를 당신과 화해시키신다(로마 5,11; 에페 2,16; 콜로 1,20). 사도의 직무는 이러한 구원을 분배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

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18-20).

결론

346. 창세기 3장의 독서로 시작하여 처음부터 죄의 상황으로 표시된 인간의 특히 부정적인 개념이 진술되었다. 그러나 위반이 있기 전에 계명이 있으며, 계명은 유익하고 계몽적이며 용기를 주는 장치다(왜냐하면 선을 보게 하며, 명령하면서 어떻게 가능한지 가리켜 주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피조물에게 그것을 알려 주셨다.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오로지 인간 피조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 피조물만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유일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명이 있기 이전에 그분의 생명의 숨결을 가진 하느님의 선물, 곧 지혜, 예언,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마련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종속 시키기도 하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창조주의 찬양을 위해 유익한 봉사로 바꾸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선물 안에서 드러난 계약이 있다. 죄가 있기 전에 자비롭고 완전 무결한 하느님의 충실이 있다.

만약 연약하고 모순투성이이며, 어리석고 은혜를 저버린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느님과 놀라운 통교에서 상대방의 역할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대한 근본적 비관주의로 인류의 조직적 과소 평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역사의 하느님이시며 사랑에 충실하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리게 하신다(로마 5,20).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의 너그럽고 무궁 무진한 무상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칭송한다(로마 8,31-38). 그러나 그것은 주님에 의해 자신의 본성을 사랑의 수용자일 뿐 아니라 전달자이기도 한 "아들"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인간을 칭송하기도 한다. 그는 존재하게 될 모든 세대를 위한 희망의 원칙이 된다. 사랑만 남아 있을 때까지 만물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하느님께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코린 15,28).

결론

347. 독자는 결론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종합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정한 경우, 독자는 그렇게 하여 분석하는 수고를 덜려고 하며, 단순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저자의 자세한 설명을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실 현대 세계에서 통교는 낱양스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없이 슬로건이나 짧은 메시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한다. 더욱 드문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책 전체를 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자에게는 민감한 점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독자가 종합을 찾는다. 이 경우, 결론은 지능적이며 집중적 방식으로 긴 독서 과정을 시작하는 방향 제시가 된다.

이 문헌의 경우, 서론에서 이미 이 문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관해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고려한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요약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의도와 상반된다. 사실 인간학에 관한 성서의 메시지를 몇 마디 말로

축소하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 자신에 관해서 부적절할 것이다. 처음부터 인간은 신비이며 인간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으며, 각자 그 의미를 모아들이고 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더욱 명확히 말해, 우리 문헌의 장들에 기울인 노력은 색조와 대조, 발전과 제안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진정한 독서 행위는 복잡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실현된다. 이때 엄청난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모두 다 이해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이 본문들뿐 아니라, 성서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독서 행위는 그 자체가 메시지를 지혜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우리 앞에는 항상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라와 함께 이 신비에 대해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시라 24,28)는 것을 알아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348. 이 문헌의 여러 장들과 개별 단락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암시적이며, 자주 우리 사고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된 성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들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하느님의 말씀에 접근한 것은 바로 그곳이다. 문헌에서 지적한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은 해박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며, 제안된 표명들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개인적 심화를 위한 보조 자료이며 하느님의 빛 안에서 위안이 되는 인간의 진실을

명상하도록 인도하는 또 다른 문들이다. 사실, 우리가 다른 자료에 다른 많은 주제들과 관점들과 문제들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며, 또 다른 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해석 제안들이 정당할 뿐 아니라, 성서에 있어서 하느님에게서 하늘로 창조 되었으며 아버지와의 놀라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덜 막연한 아이디어를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문구로 정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삶의 특정한 순간에 개인의 사진을 찍으려는 것과 같으며, 그 "표상"이 전체 역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문헌의 여러 장들과 단락들은 성서의 인간학을 덜 요약된 방식으로 특정한 각도와 초점에서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인간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는 이 문헌에서 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기원들의 기억에 기초하고 다양한 역사적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여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 부분에서조차 한 가지 점에서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349.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면적이고 유동적이며, 성령의 불꽃에 비교할 수 있는 우리의 노선은 사람의 진리가 사실상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내면적이며 영적 차원이 감각적 지각에서 명백히 제거되기 때문에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적어도 은유와 상징들로 표현될 수는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가장 완전한 기록으로 추적된 역사적 비유에 대한 매우 정확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코헬 3,11). 사람의 신비는 그의 기원의 어두운 심연에 토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기원은 한 여자의 몸에서 피조물이 기적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상상되었다. 어머니 자신은 자기 배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적은 수의 세포에서 사람의 아들이 형성된다(1마카 7,22). 왜냐하면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이다(예레 1,5; 시편 119,73; 139,13-14; 욥 10,8). 그런데 이 기원 사건은 사람의 전체 비유의 "형체" 또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복잡한 운명에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창조의 현실이 작용하고 있음을 예언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요한 1,31). 모든 사람의 참된 현실은 피조물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인지되는 은밀한 과정이다. 탄생 - 여자의 출산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 은 항상 하나의 계시이며, 상상할 수 없고 당황스러우며 위로가 되는 발견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느님의 자녀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2코린 5,1-5). 사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충만하게 계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콜로 3,3-4).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요한 3,2).

우리가 무엇인지는, 달리 말해 인간 존재의 진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표현된다(1요한 3,1). 피조물들과 지성인들과 자유인들과 사람의 아들들뿐 아니라, 이해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유사성으로 인해 그분을 닮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비유가 현실이 되는 때에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은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뵈는 때 아버지로부터 지고한 사랑의 계시를 받으신 분,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의 모습처럼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다(요한 1,18).

350.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를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느님보다 조금 못한(시편 8,6)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큰 위대함을 입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사목 현장, 22항). 복음서들에서 어떤 교훈적 말씀이나 위로가 되는 사실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들의 빛의 신비에 동화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굴욕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체의 아름다움을 잃은 그리스도의 추하게 된 얼굴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사 53,2). 왜냐하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존재의 신비 속에서 사람의 지고한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견디는 굴욕과 고통과 불의의 여정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을 보도록 허락된 것은 고난 뒤가 아니라, 십자가 한가운데에서다(1코린 2,2). 빌라도는 알지 못한 채 군중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 이 사람이요"(요한 19,5) 하고 말하며 이를 증언하였다. 그리스도처럼 신앙인도 동

일한 여정을 걸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역시 주님의 성령의 활동으로 아드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2코린 3,18).